

2020 국제학술심포지엄

남원 청계리 청계 고분군과 월산리 고분군 조사성과와 의의





2020. 10. 29.(목) 10:00~18:00
켄싱턴리조트 지리산남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남원시



PROGRAM

09:30~10:00 **등록**

10:00-10:30 **개회사**
오춘영 |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장

축사
지병목 | 국립문화재연구소장

환영사
이환수 | 남원시장
이용호 | 남원 · 임실 · 순창 국회의원

기념촬영

10:30~11:00 **기조강연. 고고학으로 살펴본 운봉고원 동향**
곽장근 | 군신대학교

제1부(11:00~12:00) 운봉고원 가야 고분 조사성과 — 사회 오현덕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발표	토론
11:00~11:30 **남원 아영분지 고총고분 조영세력의 변천과 성격** 오동선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조영제 | 경상대학교
11:30~12:00 **남원 월산리 고분군 발굴조사 성과** 김규정 | 전북문화새연구원	

12:00~13:20 **오찬**

제2부(13:20~16:10) 운봉고원 가야 고분 출토 유물과 대외교류 — 사회 소재윤 |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발표	토론
13:20~13:50 **남원 월산리 고분군 출토 중국 청자계수호의 특징과 의의** 李暉達 | 리후이따/中國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정상기 | 국립전주박물관
13:50~14:20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 출토 수즐의 특징과 의미** 木沢直子 | 키자와 나오코/日本 元興寺文化財研究所	박천수 | 경북대학교
14:20~14:50 **남원지역 출토 기대에 대한 검토** 이건용 | 국립나수문화재연구소	

14:50~15:10 **휴식**

15:10~15:40 **남원 월산리 고분군·청계리 고분군 출토 철제 무구의 종류와 의미**
유영춘 | 군신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조대연 | 전북대학교

15:40~16:10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과 월산리고분군의 가치와 활용방안**
홍보식 | 공주대학교 — 최규호 | 남원시청

16:10~16:30 **휴식 및 장내 정리**

종합토론(16:30~18:00) — 좌장 최완규 | 원광대학교

16:30~17:50 **종합토론**
발표자 및 토론자

17:50~18:00 **폐회사**
임승경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

이번 학술대회는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유튜브 검색창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링크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01. 기조강연. 고고학으로 살펴본 운봉고원 동향 ····· 1

- 발 표 : 곽장근 | 군산대학교

제1부 운봉고원가야 고분 조사성과

02. 남원 아영분지 고총고분 조영세력의 변천과 성격 ····· 19

- 발 표 : 오동선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토 론 : 조영제 | 경상대학교

03. 남원 월산리 고분군 발굴조사 성과 ····· 69

- 발 표 : 김규정 | 전북문화재연구원
- 토 론 : 조영제 | 경상대학교

제2부 운봉고원 가야 고분 출토 유물과 대외교류

04. 남원 월산리 고분군 출토 중국 청자계수호의 특징과 의의 ····· 91

- 발 표 : 李暉達 | 리후이따/中國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 토 론 : 정상기 | 국립전주박물관

05.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 출토 수즐의 특징과 의미 ····· 107

- 발 표 : 木沢直子 | 키자와 나오코/日本 元興寺文化財研究所
- 토 론 : 박천수 | 경북대학교

06. 남원지역 출토 기대에 대한 검토 ····· 141
- 발 표 : 이건용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토 론 : 박천수 | 경북대학교

07. 남원 월산리 · 고분군·청계리 고분군 출토 철제 무구의 종류와 의미 ····· 171
- 발 표 : 유영춘 |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토 론 : 조대연 | 전북대학교

10.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과 월산리고분군의 가치와 활용방안 ····· 205
- 발 표 : 홍보식 | 공주대학교
- 토 론 : 최규호 | 남원시청

Part
01

기조강연.

고고학으로 살펴본 운봉고원 동향

발 표 : 곽장근 | 군산대학교

고고학으로 살펴본 운봉고원 동향

곽장근(군산대학교)

목 차

1. 머리말
2. 운봉고원 제철유적과 지리산 달궁터
3. 말무덤 및 가야 중대형 고총 지역성
4. 관방유적의 분포양상과 실상사 철불
5. 맺음말

1. 머리말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 운봉고원은 신선의 땅으로 회자된다. 행정 구역상 전북 남원시 운봉읍·인월면·아영면·산내면이 운봉고원을 형성한다. 백두대간 산줄기가 서쪽 자연경계를 이루고 해발 500m 내외의 고원지대로 사통팔달했던 교역망을 갖춘 곳이다. 삼국시대 가야와 백제, 신라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하여 삼국의 각축장으로 영호남 교류와 화합을 유적과 유물로 담아냈다. 우리나라 철불의 효시로 알려진 실상사 철조여래좌상과 후백제 연호 정개가 새겨진 편운화상탑도 운봉고원 내 실상사 조개암지에 자리한다.

조선시대 예언서 『정감록』[1]에 사람들이 살기 좋은 십승지지에도 그 이름을 올렸다. 지리산의 절경이 만든 신선의 땅으로 백성들이 천난·외난·인난을 피할 수 있는 최고의 보신처이다. 정약용은 『다산시문집』[2]에서 "남도의 관방은 운봉이 으뜸이고 추풍령이 다음이다. 운봉을 잃으면 적이 호남을 차지할 것이고 추풍령을 잃으면 적이 호서를 차지할 것이며, 호남과 호서를 다 잃으면 경기가 쭈그러들 것이니,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관문인 것이다." 라고 했다. 다산의 고견처럼 운봉고원은 최고의 요해처이자 관방의 으뜸이었다.

운봉고원은 또한 남강과 섬진강[3]을 함께 거느린다. 백두대간 봉화산과 세걸산에서 각각 발원하는 풍천과 광천은 운봉고원을 풍요롭게 적신 뒤 남원시 산내면 소재지에서 지리산 뱀사골을 지나온 만수천과 만난다. 여기서부터 수량이 풍부하고 그 폭도 넓어져 임천강으로 불리는데, 임천강은 줄곧 남동쪽으로 흘러 경남 산청군 생초면에서 남강 본류와 만난다. 반면에 백두대간 만복대 북쪽 기슭에서 시작하는 원천천은 운봉고원 서남쪽을 지나 요천과 합친 뒤 줄곧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남원시 금지면에서 섬진강으로 들어간다.

940년 전북에 편입됐지만 문화권이나 생활권이 경남 서부지역과 더 가깝다. 남원은 백제와 신라 두 지역으로 구분됐는데, 한 쪽은 신라 땅으로 母山縣(阿英城, 阿莫城)이 설치됐는데, 여기서 모산현은 운봉고원을 가리킨다. 다른 곳에는 백제 古龍郡과 居斯勿縣으로 섬진강 유역에 위치한다. 경덕왕 16년(757) 지방행정체제 개편 때 모산현은 雲峰縣으로 개칭된 이후에도 함양 天嶺郡의 영현으로 편입되어 남원보다 오히려 함양과 밀접한 관련성을 유지했다. 운봉고원은 전북에서 유일하게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에 위치한다.

종래에 운봉고원에서 학계에 보고된 제철유적은 40여 개소에 달한다. 마한의 분구묘로 밝혀진 몰(말)무덤과 가야 중대형 고총은 모두 합쳐 180여 기 정도 산재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백두대간 고갯길을 중심으

1) 조선시대 민간에 널리 유포되었던 앞날의 길흉을 예언한 책이다.
2) 정약용의 전집인 『與猶堂全書』에 실린 시문집을 모두 9권 책으로 담았다.
3) 운봉고원 내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덕치리 일대가 섬진강 유역에 속한다.

로 산성 및 봉화대가 세트관계를 이루면서 고갯길 양쪽에 배치되어 있다. 2014년 남원 봉화산 봉화대에서 밀집파상문이 시문된 가야토기편이 출토되어 그 실체가 가야 봉화대로 밝혀졌다. 백제와 신라의 아막성 전투, 실상사 철불과 조개암지 편운화상탑 등 고고학 자료를 중심으로 운봉고원의 동향을 분석하려고 한다.

2. 운봉고원 제철유적과 지리산 달궁터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운봉고원의 철광석이 서로 만나 탄생된 것이 운봉고원 내 제철유적이다.[4] 조선시대 '십승지지'[5]이자 '신선의 땅'으로 널리 알려진 운봉고원은 한마디로 철광석의 산지이다. 운봉고원 철광석은 니켈의 함유량이 높아 철광석 중 최상급으로 평가받는다. 이제까지의 지표조사를 통해 4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운봉고원에 집중 분포된 것으로 밝혀졌다.[6] 백두대간 노고단에서 지리산 달궁계곡을 지나 삼봉산[7]까지 그 분포 범위가 30km에 달한다.[8]

기원전 84년 마한의 왕이 전쟁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다. 당시 마한의 왕이 피난지로 삼은 곳은 지리산국립공원 내 뱀사골계곡 서쪽 달궁계곡이다. 백두대간 노고단 동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줄곧 동쪽으로 흐르면서 달궁계곡을 이룬다. 2100년 전 지리산 달궁계곡으로 피난 온 마한 왕이 남긴 지명이 달궁과 왕궁이다. 우리나라의 지명에서 궁자는 대부분 활 '弓' 자를 쓰는데, 마한 왕의 전설이 살아 숨 쉬는 지리산 달궁계곡의 '궁' 자는 집 '宮' 자를 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백두대간의 정령치·성삼재, 팔랑치 등도 마한의 왕과 관련된 지명들이다. 지리산 달궁계곡 서쪽 관문 성삼재는 성이 다른 세 사람의 장수들이 지킨 고개라는 뜻이다. 그리고 팔랑치는 운봉읍 일원에서 달궁계곡 달궁터로 향하던 고개를 8명의 젊은 남자들이 지켜서 유래됐다고 한다. 남원읍지 『용성지』 및 『여지도서』에 달궁터, 정령치 등과 관련된 내용이 실려 있는데,[9] 그 내용을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

> 황령과 정령은 둘 다 지리산 기슭 입세에 있으며, 몹시 가파르고 험하여 소나 말이 다닐 수 없는 곳인데, 거기서 서쪽으로 남원부까지는 50리 쯤 된다. 옛 승려 청허당의 황령기에는 "옛날 한 소제 즉위 3년에 마한의 임금이 진한의 난을 피하여 이곳에 와서 도성을 쌓았는데, 그 때 황·정 두 장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독하고 고개를 지키게 했으므로 두 장수의 성으로 고개 이름을 삼았다. 그 도성을 유지한 것이 71년이었다." 고 했다. 지금도 무너진 성돌과 허물어진 성벽이 남아 있으며, 그 도성이었다는 곳을 세상에서는 달궁터라고 전한다. 두 고개 안에 있는 골짜기가 본래는 남원 땅이었으나 지금은 운봉에 속한다.

조선시대 청허당 서산대사가 쓴 황령기에서 가장 핵심 내용은 마한 왕이 쌓은 달궁터의 존재이다. 중국 한나라 때인 기원전 84년 마한의 왕이 진한의 침공을 받아 지리산으로 피난하여 도성을 쌓고 71년 동안 도성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황·정 두 장수로 하여금 성을 쌓고 고개를 지키도록 하여 고개의 이름도 두 장수의 성을 좇아 黃嶺, 鄭嶺이라 불렀다고 한다.[10] 지리산 달궁계곡 서쪽 관문 백두대간 정령치가 문헌의 정령을 가리킨다.

---

4) 곽장근, 2015, 「운봉고원의 제철유적과 그 역동성」, 『백제문화』 제52집,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17~243쪽.
5)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변고 때 피난을 가면 안전하다는 열 군데의 지역을 가리킨다.
6) 유영춘 외, 2012, 「남원 운봉고원 제철유적」, 『호남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성과』, 호남고고학회, 189~197쪽.
7) 전북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와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마천면 구양리 경계에 위치한다.
8) 군산대학교 박물관, 2013, 『남원 실상사 약사전』, 남원시.
9) 『龍城誌』 古蹟條에 의하면, "黃嶺鄭嶺 幷在智異山初麓 皆極險峻 牛馬不通之地 西距府五十里許 古釋淸虛堂黃嶺記曰在昔漢昭帝卽位之三年 馬韓主 避辰韓之亂 築都城於此以黃鄭二將 監其事守其嶺 故逐以二人之姓姓其嶺 保其都城者七十一年也云 頹城毁壁 今猶存焉 其所云都者則世傳達宮其也 在二嶺之內長谷 中古以南原地 今屬雲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10) 최병운, 1992, 「歷史時代」, 『南原誌』, 南原誌編纂委員會, 南原市.

1987년 전북대학교 박물관 주관으로 실시된 문화재 지표조사[11]를 통해 마한의 왕과 관련된 추정 달궁터와 정 장수가 성을 쌓고 지킨 정령의 위치가 파악됐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지리산 달궁계곡 내 추정 달궁터는 대부분 밭으로 개간된 것을 제외하면 건물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잘 보존되어 있었다. 30여 년 전 마한 왕의 전설이 깃든 여러 유적들이 처음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차례의 발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다.

지리산국립공원 내 달궁계곡 주차장과 캠핑장을 만들면서 유적이 훼손되고 일부 남은 추정 왕궁 터[12]도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2019년 백두대간 만복대 동쪽 기슭 중단부 절골이 달궁터였다는 주장[13]이 발표됐다. 현지조사 때 성벽의 흔적이 확인됐는데,[14] 그 평면 형태는 거의 반달모양이다. 성벽은 대부분 산줄기 바깥에 삭토법을 적용하여 가파르게 다듬어 마련됐는데, 할석으로 쌓은 동쪽 성벽은 대부분 무너져 내렸다.[15] 산성 내 중앙 상단부에 상당히 넓은 평탄대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본래 추정 왕궁 터 및 절터로 추정되는 곳이다.[16]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최고의 명당터로 지리산 반야봉이 안산을 이룬다. 반야봉 부근 투구봉, 망바위봉의 지명도 달궁터와 관련이 깊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토기편과 자기편, 기와편 등의 다양한 유물이 서로 섞인 상태로 수습됐다. 아직까지 지리산 달궁계곡의 달궁터를 제외하면 마한의 왕궁 터가 학계에 보고된 곳이 없기 때문에 향후 유적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발굴[17]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지리산 달궁계곡 달궁터는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인 의미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학계의 관심과 연구가 절실하다.

이제까지 달궁터를 대상으로 한 차례의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고학적인 의미가 파악되지 않았다. 어느 곳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마한의 소국이었는지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철기시대 한반도 테크노밸리였던 전북혁신도시가 그 출발지였을 개연성이 가장 높다.[18] 최근 전주시 덕진구와 완주군 이서면 일원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모악산과 미륵산 사이 만경강 유역이 마한의 거점으로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19]

마한 왕의 명령을 받고 정 장수가 쌓은 성터가 발견됐다. 지리산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들로 북적대는 백두대간 정령치 정상부에서 성벽의 흔적이 발견됐다. 정령치 서쪽 기슭에는 돌과 흙을 가지고 골짜기를 막은 토석혼축성과 고리봉 서쪽 기슭에는 돌을 가지고 쌓은 석성이 잘 남아 있다. 석성의 성벽은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깬돌만을 가지고 곧게 쌓았는데, 성벽의 축조 기법이 거칠고 조잡하다. 다시 말해 성벽의 축조 기법이 삼국시대의 석성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석성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한 왕의 명령을 받고 정 장수가 쌓은 성벽은 달궁계곡 달궁터 서쪽에 위치해 문헌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달궁터 방어에 큰 목적을 둔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은 황 장수가 쌓은 황령치는 그 존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백두대간 정령치와 만복대 사이로 추정된다. 문헌에 황령은 남원부까지 거리가 50리 남짓으로 소나 말이 다닐 수 없지만 남원으로 가기 위한 사람들이 넘었던 고개이다.[20]

---

11) 全北大學校 博物館, 1987,『南原地方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全北地方 文化財 調査 報告書 第6輯.
12) 마한의 왕궁 터로 전해지고 있지만 유적과 유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13) 새전북신문 메아리(2020년 2월 23일) 칼럼 '지리산에서 마한 왕 달궁 터 찾았다' 참조.
14) 2019년 11월 24일 김정길 전북산악연맹회장, 이병채 전 남원문화원장과 함께 현지조사를 다녀왔다.
15) 백두대간 만복대 동쪽 기슭에서 발원해 줄곧 동쪽으로 흐르는 계곡부를 성벽이 가로지른다.
16) 왕궁이 문을 닫은 뒤 문헌에 등장하는 황령암이 그 위에 다시 지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17) 북문지로 추정되는 구간이 무너져 토석혼축기법으로 쌓은 성벽이 절단면에 노출되어 있다.
18) 전상학, 2016.「마한·백제시대의 전북혁신도시」,『고고학으로 밝혀 낸 전북혁신도시』, 호남고고학회.
19) 최완규, 2015,「마한 성립의 고고학적 일고찰」,『한국고대사연구』79, 한국고대사학회, 47~96쪽.
20) 그런가 하면 "1970년대까지만 해도 고리봉 동남쪽 넓은 평탄대지에서 밭 개간과 농사를 짓는 과정에 쇠로 만든 화살이 많이 나왔었다"는 달궁마을 주민들의 제보를 통해 그 역사성이 입증됐다. 달궁계곡에 살던 사람들이 옛길로 남원장을 갈 때 주로 넘었던 큰 고갯길로 그 북쪽에 개령암지가 있다. 남원 개령암지 마애불상군은 백두대간 고리봉 동남쪽 기슭 암벽에 12구의 불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마애여래입상은 높이 4m에 달한다.

마한 왕의 달궁터와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제철유적이다. 기원전 84년 마한의 왕이 지리산 달궁계곡으로 피난을 떠나기 훨씬 이전에 철기문화가 전북혁신도시에 전래되어 철을 생산하고 있었다. 전북혁신도시는 기원전 3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철기문화가 전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21] 그 시작이 경기도, 충청도보다 앞선다는 점에서 커다란 각광을 받았다. 전북의 철기문화가 육로가 아닌 바닷길로 전래됐음을 말해준다.

2012년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제철유적이 그 존재를 처음 세상에 알렸다. 그해 이른 봄 가뭄이 심해 달궁계곡 철광석이 뿜어낸 진한 황갈색의 녹물이 제철유적을 찾는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했다. 오래 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겨 제철유적을 찾아 세상에 알리는데 고고학자들의 끈기와 뚝심이 필요로 했다.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를 중심으로 동북쪽 외얏골, 북쪽 언양골, 남쪽 하점골과 서남쪽 봉산골, 서쪽 심원계곡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리산 달궁계곡 하점골 제철유적에서는 철광석의 채광부터 숯을 가지고 철광석을 환원시켜 철을 추출해내는 제련 공정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막 문을 연 철의 야외 유적공원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제철유적의 보존상태가 거의 완벽에 가까워 대자연의 원시림을 방불케 한다. 지금 당장 지리산 달궁계곡 하점골 제철유적을 알리는 안내문만 세워도 역사 문화 관광자원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 역사성과 보존상태가 탁월하다.

백두대간 만복대에서 세걸산을 지나 덕두산까지 이어진 산줄기 양쪽에도 1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조밀하게 산재해 있다. 남원시 운봉읍에서 지방도를 따라 정령치 방면으로 5km 쯤 가면 선유폭포에 도달하는데, 그 부근에 슬래그(쇠똥)가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다. 남원 고기리 제철유적으로 슬래그 분포 범위가 1.5km 내외로 운봉고원 내 제철유적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운봉고원에 자리하고 있지만 수계상으로는 섬진강 유역[22]에 속한다.

세걸산 서북쪽 금새암골에도 제철유적이 있는데, 수철리라는 마을 지명도 제철유적에서 유래됐다. 지명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데, 우리 선조들의 혜안이 담긴 지명으로도 제철유적의 존재를 담았다. 세걸산 서북쪽 기슭 금샘에서 발원하는 광천이 운봉고원을 풍요롭게 적셔주는데, 여기서 금샘은 쇠샘을 의미한다. 금샘과 금새암골, 수철리, 주쇠뜸 등은 고고학자들이 제철유적을 찾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해마다 5월 중순 경 철쭉제로 유명한 바래봉 북쪽에 운봉읍 화수리 옥계동 제철유적이 있다. 바래봉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는 북쪽으로 흐르다가 옥계저수지에 잠시 머문 뒤 운봉읍 일대를 적시고 줄곧 동쪽으로 흘러온 광천과 합류한다. 옥계저수지에서 위쪽으로 1km 가량 떨어진 옥계동 제철유적은 사방이 산줄기들로 감싸여 천연의 자연분지를 이룬다. 고고학자들이 옥계동 玉자에 큰 의미를 두고 도전 끝에 제철유적을 찾았다.

남원 옥계동 제철유적은 남북으로 약간 긴 장타원형으로 남북 길이 700m, 동서 폭 500m에 달한다. 모두 세 차례의 시(발)굴조사에서 채석장과 파쇄장, 배소지, 제련로, 초대형 슬래그 더미, 숯가마 등이 확인됐고, 유물은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자기편 등이 수습됐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학계에 보고된 230여 개소의 제철유적 중 장수 대적골・지지계곡・토옥동 제철유적, 무주 구천계곡・얼음령계곡 제철유적, 진안 대불리 제철유적과 함께 초대형에 속한다.

전북혁신도시의 선진세력이 기원전 84년 운봉고원 철산지를 찾아 지리산 달궁계곡 혹은 진안고원 내 금강 최상류 장수 남양리 일대로 이동했을 개연성[23]도 충분하다.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마한 왕이 70년 이상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철산 개발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론해 두고자 한다. 운봉고원 제철유적의 운영 시기와 운영 주체를 밝히기 위한 전라북도와 남원시의 행정 지원에 감사를 드린다. 향후 운봉고원 제철유적의 역사성을 고증하기 위한 학제 간 융복합 연구가 시작되길 기원해 본다.

---

21) 한수영, 2015,「한반도 서남부지역 초기철기문화의 전개양상」,『전북사학』46, 전북사학회.
22) 운봉고원 내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덕치리 일대가 여기에 해당된다.
23) 전북혁신도시, 장수 남양리 등 고고학 자료와 구전으로 전하는 이동 시기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3. 말무덤 및 가야 중대형 고총 지역성

종래의 지표조사를 통해 운봉고원에서 발견된 말(몰)무덤[24]과 가야의 중대형 고총은 그 기수가 180여 기에 달한다. 남원 입암리 말무덤 발굴조사에서 마한의 지배층 분구묘로 밝혀진 말(몰)무덤이 운봉고원 내 운봉읍에서만 발견됐다.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연동마을 입구 구릉지 정상부에 분구의 직경이 10m 내외되는 7기 내외의 몰(말)무덤이 있었는데, 오래전 농경지 개간으로 상당부분 유실됐고, 현재 3기만 유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남아있다.[25] 아직도 남원 장교리 몰(말)무덤을 대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성격이 파악되지 않았지만 운봉고원의 가야 세력이 등장하기 이전 마한의 분구묘로 추정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원전 84년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71년 동안 철산 개발로 국력을 키운 마한왕이 백두대간 정령치를 넘어 운봉읍 장교리 일대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운봉고원의 토착 세력 집단이 가야 문화를 받아들이기 이전까지 당시 중심지가 운봉읍 장교리 일대였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마한의 말(몰)무덤과 가야의 고총 분포 양상을 근거로 운봉고원의 중심지가 운봉읍에서 아영분지로 이동한다. 아마도 백제의 중앙과 경남 서부지역을 곧장 이어주던 한성기 간선교통로인 백두대간 치재로가 남원 월산리·청계리·유곡리·두락리 일대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운봉고원의 중심지가 운봉읍 일대에 있었을 때는 백두대간의 여원치가 섬진강 유역과 교류하는데 관문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 같다. 운봉고원 서쪽 섬진강 유역에서 말(몰)무덤은 남원 도룡리·입암리·방산리, 순창 고원리, 곡성 주산리에서 확인됐다.[26] 섬진강 유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말(몰)무덤은 대체로 구릉지 혹은 평탄지에 입지를 두었는데, 모두 7기 내외의 기수에서 말(몰)무덤이 일시에 자취를 감추었다. 본래 30여 기의 말(몰)무덤이 섬진강 중류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섬진강 상·하류지역에서는 말무덤이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다. 말무덤이 자취를 감춘 이후 섬진강 유역에서는 수장층과 관련된 어떤 종류의 분묘유적도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았다.

남원 입암리 말무덤은 분구의 주변에 도랑을 두른 분구묘로 파악됐다.[27] 분구는 명갈색과 암갈색 진흙으로 쌓았는데, 유구의 남쪽이 이미 유실되어 그 평면 형태가 어떤지 상세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주구는 생토층을 거의 U자형으로 파내어 마련됐는데, 분구 내에서 1기의 토광묘가 매장시설로 확인됐다. 1998년 분구내 토광묘에서 단경호와 광구 장경호가 발견 매장 문화재로 신고됐고, 그 부근에서 철기류가 더 나왔다. 유구와 유물의 속성에 의하면 남원 입암리 말무덤은 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조성된 마한의 분구묘로 밝혀졌다.

그런가 하면 가야문화권에서 4세기 대 마한계 및 백제계 토기류가 가야 분묘유적에서 나온 곳은 운봉고원이 유일하다. 남원 월산리 M1-G호·M2호분, 남원 행정리 13호 출토품인 광구장경호, 행정리 13호의 무개장경호, 행정리 11호의 유개장경호는 다른 가야 분묘유적에서는 나온 예가 없을 정도로 매우 이질적인 기종이다. 공주 수촌리와 천안 용원리, 청주 신봉동, 고창 신월리, 완주 상운리·수계리, 섬진강 유역에 속한 남원 입암리 분구묘 출토품과 매우 흡사한 마한계 토기들로 대체로 4세기 말엽 늦은 시기로 편년되고 있다.

운봉고원에 기반은 둔 기문국[28]이 그 존재를 처음 알린 것은 1982년이다. 그해 광주와 대구를 잇는 88고속도로 공사 구역에 포함된 가야의 고총에 대한 구제발굴이 이루어졌다.[29] 본래 백제 대형 고분일거라는 고

24) 여기서 말무덤은 말이 馬의 뜻으로 보고, 말은 머리 혹은 크다 뜻으로 우두머리에게 붙여진 관형사로 파악하여 그 피장자는 마한의 지배층으로 밝혀졌다. 흔히 말사슴을 왕사슴, 말매미를 왕매미, 말벌을 왕벌로 부르는 것과 똑같다.
25)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교리 연동마을 입구 논 속에도 마치 섬처럼 한 기의 말(몰)무덤이 더 있다.
26) 군산대학교 박물관, 2004, 『전북 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 전라북도.
27) 군산대학교 박물관, 2013, 『남원 입암리·임리 고분』, 남원시.
28) 종래에 남강 유역의 가야 세력 혹은 운봉고원 가야의통 국가 단계의 정치체, 운봉지역 가야, 운봉 가야라는 용어로 통용됐는데, 이 글에서는 문헌에 등장하는 기문국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고학자들의 당초 예상과 달리 그 조영 주체가 가야로 밝혀지면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남원 월산리에서 가야의 수혈식 석곽묘가 조사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전북 동부지역은 모두 백제 문화권에 속했던 곳으로만 인식됐기 때문이다. 남원 월산리는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가야 세력의 존재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역사적 명소이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남원 월산리에는 봉토의 직경이 20m 내외되는 10여 기의 가야 고총이 무리지어 있었는데, 1990년대 초 농지 정리로 3기의 고총이 모두 유실됐고, 1982년[30]과 2010년 두 차례의 구제발굴[31]을 통해 분묘유적의 성격이 파악됐다.[32] 지금은 남원 월산리 M5호분은 매장시설의 내부가 드러난 상태로 M6호분은 원형의 봉토가 정비 복원된 뒤 전라북도 기념물 제138호로 지정됐다. 2018년 남원 월산리 서쪽을 반달모양으로 휘감은 산줄기 정상부에서 1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이 더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그 위상을 더욱 높였다.

1500년 전 기문국의 지배자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시신과 유물을 부장하기 위해 돌로 매장시설을 만들었는데, 남원 월산리 M5호분은 그 길이가 960cm로 고령 지산동 등 다른 지역의 가야 고총들보다 크다. 가야 고총에서 매장시설의 규모가 큰 것은 무덤의 주인공이 죽어서도 살아생전의 권위와 신분을 그대로 누릴 거라고 믿었던 繼世思想이 유행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사후 세계에서도 현실 세계와 똑같은 또 다른 삶이 이어진다고 믿었던 가야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녹아있다. 그리하여 봉토의 직경과 매장시설의 크기는 가야 세력의 국력을 가장 진솔하게 보여주는 척도가 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운봉고원에서 철의 왕국으로 융성했던 기문국의 발전상을 뒷받침해 주는 유일무이한 고고학적 증거이다. 남원 월산리는 마한의 분구묘처럼 구릉지에 입지를 두었는데, 봉토의 중앙부에 배치된 매장시설도 반지하식으로 마한 묘제와의 연관성이 높다. 전북 동부지역 가야 고총의 묘제가 마한 분구묘에서 승계됐음을 가정해 볼 수 있는데, 기원전 84년 지리산 달궁계곡으로 마한 왕의 피난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운봉고원 내 토착세력집단은 가야문화를 받아들이기 이전까지 마한의 영역 혹은 문화권에 속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남원 청계리[33] 가야 고총에서 마한 묘제의 특징이 다시 또 확인됐다. 봉토가 서로 붙은 연접분이고 성토한 봉토를 다시 파내어 매장시설을 마련하고 봉토 가장자리에 도랑을 둘렀는데, 봉토의 평면 형태는 남북으로 긴 장타원형이다. 아라가야의 수레바퀴 장식 토기와 일본제 나무로 만든 빗, 중국제 청자편이 나와 동북아 물물교류의 허브였음을 다시 또 입증했다. 운봉고원의 토착세력집단이 가야문화를 수용한 이후에도 가야 고총을 만들면서 마한의 묘제를 따랐음을 알 수 있다.

백두대간 봉화산 남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풍천은 아영분지의 중심부를 종단하면서 줄곧 남쪽으로 흐르다가 인월면 인월리 풍천교에서 광천과 만난다. 운봉고원 내 아영분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풍천을 사이에 두고 아영면 월산리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산줄기에 인월면 유곡리・아영면 두락리가 있는데, 이곳에도 40여 기의 가야 고총이 무리지어 있다.[34] 경남과 전북의 도계를 이룬 연비산에서 아영분지 한복판까지 뻗어내린 산줄기와 다시 북쪽으로 갈라진 산자락에 봉토의 직경이 30m 이상 되는 대형급 가야 고총이 그 위용을 자랑한다. 운봉고원 내 최대 규모의 기문국 수장층 분묘유적이다.

운봉고원 내 아영분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산줄기 양쪽에 가야의 중대형 고총이 반절씩 골고루 산재해

29) 全榮來, 1983,『南原, 月山里古墳群發掘調査報告』,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30) 당시에 M1호분·M2호분·M3호분은 서로 봉토가 중복된 상태로 조사됐는데, 가야의 영역 중 장수 삼봉리, 고성 송학동에서 학계에 보고된 연접분으로 추정된다.
31) 전북문화재연구원, 2012,『南原 月山里古墳群』-M4·M5·M6號墳-, 한국도로공사 함양성산건설사업단.
32) 김규정, 2020,「남원 월산리 고분군 발굴조사 성과」,『남원 청계리·월산리 고분군 역사적 가치와 의미』, 전라북도·남원시·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67~88쪽.
33) 오동선, 2020,「남원 청계리 청계 고분의 구조와 축조기법」,『남원 청계리·월산리 고분군 역사적 가치와 의미』, 전라북도·남원시·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7~27쪽.
34)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 성내마을 주민들이 본래 80여 기의 무덤이 무리지어 있었다고 제보해 주었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라고 유적의 이름을 붙였다. 1500년 동안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지만 봉토의 직경이 30m 이상 되는 초대형급 가야 고총도 포함되어 있다. 당시 철의 왕국 기문국이 강력한 국력을 토대로 융성했다는 발전상도 일목요연하게 보여줬다. 그리고 40여 기의 가야 고총이 한 곳에 무리지어 있기 때문에 운봉고원 내 기문국이 상당 기간 동안 존속했음을 뒷받침해 주었다. 최근에는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 성내마을 남쪽 계단식 농경지에 기문국 추정 왕궁터가 자리하고 있다는 주장[35]도 제기됐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 고총은 구릉지에 입지를 둔 남원 월산리와 현저한 차이를 나타낸다. 운봉고원 내 기문국의 수장층 분묘유적이 월산리에서 유곡리와 두락리로 옮겨진 이후 대가야 등 가야 소국들과 결속력이 더 강화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이처럼 사방에서 한 눈에 보이는 산줄기 정상부에 입지를 둔 것은, 고총의 봉토를 산봉우리처럼 더욱 크게 보이게 함으로써 무덤 주인공의 신분이나 권위를 극대화하려는 정치적인 목적[36]이 담겨있다. 고구려와 신라의 왕릉이 구릉지와 평지, 백제가 산봉우리 남쪽 기슭에 왕릉을 조성한 것과 다르다. 아마도 삼국과 구별되는 가야만의 독자적인 장례 문화와 장례 풍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고고학적 증거이다.

가야 소국으로까지 성장했던 철의 왕국 기문국은 세 가지 특징에서 강한 지역성을 보였다. 하나는 봉토의 중앙부에 하나의 매장시설만 배치된 단곽식이고, 다른 하나는 봉토의 가장자리에 호석 시설을 두르지 않고 도랑을 둘렀고, 또 다른 하나는 매장시설이 지상식 혹은 반지하식[37]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벽석의 축조 방법, 개석 혹은 벽석 사이에 진흙 바름, 바닥 시설, 장축 방향 등 유구의 속성에서도 남원 월산리・청계리・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이 서로 공통성이 입증됐다. 마한 분구묘의 전통성과 보수성이 기문국까지 지속됨으로써 전북 가야[38]만의 강한 지역성으로 자리매김 됐다. 전북 가야의 묘제가 마한의 분구묘에서 비롯됐음을 다시 또 입증된 것이다.

당시 기문국에서 생산된 품질이 좋은 니켈 철을 확보하기 위해 백제와 가야 소국들이 최고급 위세품과 위신재를 운봉고원 내 기문국에 보낸 것 같다. 남원 월산리 M5호분에서 나온 중국제 청자인 계수호와 철제초두,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32호분의 금동신발과 중국 남조에서 만든 수대경은 가야 고총에서 한 점씩만 나온 최고의 위세품들이다. 대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등 가야 소국들도 운봉고원에서 생산된 니켈 철의 교역을 위해 최상급 토기류를 기문국으로 보냈음을 알 수 있다.[39]

그런데 6세기 초엽 기문국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가야 고총의 내부구조가 수혈식에서 횡구식 또는 횡혈식으로 바뀐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36호분은 백제계 횡혈식 석실묘로 남쪽 기슭 하단부에 위치한다.[40] 석실[41]은 바닥 부분이 거의 수직에 가깝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네 벽석을 같은 비율로 좁혀 1매의 개석으로 덮은 궁륭상이다. 그리고 바닥에는 판상석을 이용하여 관대시설을 마련하고 벽면과 천정, 관대시설에는 회를 두텁게 발랐다.[42] 연도는 석실의 서벽을 그대로 연장되어 연도 서벽을 이루어 서쪽에 두었다. 석

35)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19,『봉수 왕국 전북 가야』, 전라북도.
36) 金世基, 1995,「大伽耶 墓制의 變遷」,『加耶史研究 -가야의 政治와 文化-』, 慶尙北道.
37)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월산리, 장수 삼봉리·동촌리, 고성 송학동에서 확인된 지역성이 강한 묘제로써 마한 묘제와의 연관성이 높다.
38) 2017년 11월 25일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모든 가야의 유적과 유물을 하나로 합쳐 전북 가야라고 이름을 지었다. 전북 남원시와 장수군을 중심으로 임실군·순창군·진안군·무주군·완주군, 충남 금산군에서 학계에 보고된 가야문화유산을 모두 하나로 묶었다. 충남 금산군을 포함시킨 것은 1963년까지 본래 전북에 속했었고, 전북 동부지역 봉화망에서 전북 가야와의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삼국시대 가야 봉화망에 그 근거를 두고 전북 가야의 영역을 설정했다. 전북 가야의 용어에는 학술적인 의미는 아예 없고 가야사 국정과제에 국민들을 초대하기 위한 대중적이고 홍보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음을 밝혀둔다.
39) 당시의 교역은 물물 교환으로 운봉고원에서 생산된 철을 필요로 했던 가야 소국들이 최상급 토기를 가지고 기문국을 방문했던 것 같다. 한마디로 가야토기의 모음은 '가야토기 박물관'을 방불케 했다. 철과 소금은 소비자가 물품을 가지고 생산지를 직접 방문했다.
40) 尹德香·郭長根, 1989,『斗洛里』發掘調査報告書, 全羅北道·南原郡·全北大學校 博物館.
41) 남북 길이 300cm, 동서 폭 240cm, 높이 280cm이다.
42)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21호분도 매장시설의 벽면과 천정을 회로 발랐다고 주민들이 제보해 주었다.

실에서 시작된 배수시설이 통과하고 석실 입구는 1매의 문비석으로 막았다. 널길의 길이가 382cm로 상당히 긴 것은 수혈식에서 횡혈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의 양상이다. 널길의 위치와 길이를 제외하면 대체로 공주 송산리 3호분, 나주 송제리 무덤의 축조 기법이 상통한다. 기문국이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됐음을 백제계 횡혈식 석실묘 수용으로 증명했다.

남원시 운봉읍 임리에서도 백제 묘제가 확인됐다. 백두대간 고남산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산줄기 정상부에 자리한 임리 1호분은 봉토 중앙에 주석곽이 배치됐고, 그 동북쪽에 2기의 순장곽이 자리한 다곽식이다. 주석곽은 산줄기와 나란하게 남북으로 장축방향을 두었으며, 무덤의 입구가 남쪽에 마련된 횡구식이다. 주석곽의 내부구조가 수혈식에서 횡구식으로 바뀌었고, 유구의 장축방향에서도 백제 묘제의 영향력이 다시 확인됐다.

문헌에서도 기문국의 복속 사실을 전한다. 『일본서기』 계체기에 백제는 512년 任那四縣, 513년부터 515년까지 3년 동안 기문국, 대사를 두고 가야 소국 반파국[43]과 갈등관계에 빠진다. 백제 무령왕은 가야 소국 반파국과의 3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뒤 운봉고원 기문국을 복속시켰다. 운봉고원 일대가 6세기 전반 이른 시기 무령왕 때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됨으로써 521년 이후 기문국이 문헌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남원시 아영면 봉대리 2호분[44]에서 나온 신라의 단각고배가 6세기 중엽 경 운봉고원 일대가 신라의 영향권으로 편입됐음을 유물로 보여줬다. 단각고배는 몸통부와 대각부의 비율이 3:1 정도로 그 시기가 무령왕릉의 연대(523~529)보다 늦고 대가야의 멸망 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 3호분[45]은 신라계 고분으로 운봉고원 일대가 6세기 중엽부터 7세기 전반기 이른 시기까지 신라 영역이었음을 유적과 유물로 반증한다.

4. 관방유적의 분포양상과 실상사 철불

1) 고갯길과 산성 및 봉화대 배치

우리나라의 국토를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놓는 큰 산줄기가 백두대간이다. 백두산 장군봉에서 시작하여 동쪽 해안선을 끼고 남쪽으로 흐르다가 태백산 근처에서 그 방향을 서남쪽으로 틀어 지리산 천왕봉까지 뻗은 거대한 산줄기이다. 동시에 선사시대 이래로 줄곧 국토의 지형을 파악하고 전통 지리를 해석하는 근본을 이루어 왔다. 백두대간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간 산줄기가 생활권 혹은 문화권을 구분짓는 경계선이 되어 독특한 지역 문화와 다양한 생활 방식을 만들어 냈다.

조선 태종 14년(1414) 전국을 8도로 나눌 때 삼남의 분기점이 민주지산 서남쪽 삼도봉이다. 전북 무주군과 경북 김천시, 충북 영동군 경계로 달리 날라리봉으로도 불린다. 백두대간 삼도봉에서 시작되는 전북 구간에서만 월성치, 육십령, 중재, 치재, 여원치 등 고갯길이 한눈에 잘 조망되는 산봉우리에 산성 및 봉화대가 배치되어 있다.[46] 그리고 다른 구간과 달리 철의 순도가 월등히 높은 철광석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백두대간 육십령은 60명 이상 무리를 이루어 고개를 넘어야 산적과 도둑떼를 피할 수 있다[47]는 곳이다. 진안고원에서 생산된 철이 유통되는 과정에 생겨난 지명이다. 백두대간 치재는 고개의 으뜸이라는 의미로

43) 종래에는 금강 상류지역의 가야 세력 혹은 진안고원의 장수권 가야 계통 국가 단계의 정치체, 장수지역의 가야, 장수 가야로 불렀는데, 여기서는 여덟 갈래로 복원된 전북 동부지역 봉화로에 그 근거를 두고 문헌의 반파국으로 비정했다.
44) 장명엽·윤세나, 2013, 『南原 奉大 古墳群』, 湖南文化財硏究院·韓國道路公社.
45)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4, 『남원 운봉 북천리 고분』,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46) 백두대간 산줄기를 그대로 이용한 뒤 고갯길 양쪽에는 산성 및 봉화대를 배치하였고, 계곡부에는 대부분 흙으로 성벽을 쌓아 방어선을 구축했다.
47) 함양 안의현까지 60리라는 설과 고갯마루까지 60여 굽이가 된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설이 더 있다.

운봉고원의 서북쪽 관문이다.[48] 선사시대 이래로 내내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운봉고원 서북쪽 관문으로 백제와 가야를 잇는 한성기 간선교통로가 통과하던 큰 고갯길이다.[49]

백두대간 산줄기에 봉화산 봉화대가 자리한다. 2014년 학술발굴[50] 때 자연 암반층을 파낸 뒤 할석으로 채운 장방형 토단이 확인됐는데, 유구의 장축 방향은 백두대간과 평행되게 남북으로 두었다. 봉화산 정상부에는 불을 피우던 발화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대부분 유실되어 그 흔적을 찾지 못했다. 유물은 기벽이 두꺼운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수습됐는데, 일부 토기편에 밀집파상문이 시문되어 전북 가야 분묘유적 출토품과 그 속성이 같았다. 삼국시대 이후 청자편, 백자편 등 후대의 유물이 전혀 출토되지 않아 그 성격도 가야 봉화대로 밝혀졌다.

운봉고원과 섬진강 유역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 고남산이다. 삼국시대 봉화대가 있었던 곳으로 산봉우리 남쪽 기슭에 후백제 산성처럼 방형 혹은 장방형으로 잘 다듬은 돌로 쌓은 석축이 잘 남아 있다. 석축 안쪽에 밀집파상문이 시문된 가야 토기편과 기벽이 상당히 두꺼운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땅속에 박혀있다. 백두대간 산줄기를 따라 장성 개념의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다시 쌓은 것으로 짐작된다.

고남산 동쪽 산봉우리에 테뫼식 산성이 있었는데, 1980년대 송신탑 공사로 성벽이 거의 유실 내지 파괴됐다. 고려 말 이성계가 금강 하구 진포로 상륙해 큰 피해를 준 왜구를 무찌르기 위해 고남산에 올라 제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 달리 태조봉 혹은 제왕봉으로도 불린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88고속도로가 백두대간 사치재를 통과한다. 달리 모래재로 불리는 곳으로 그 양쪽 산봉우리에 산성 및 봉화대가 배치되어 있다.

운봉고원은 대규모 철산지로 그 서쪽 관문이 백두대간 여원치이다. 운봉고원 내 황산대첩[51]에서 승리를 거둔 이성계가 회군할 때 넘었던 고개로 현재 24번 국도가 여원치를 통과한다. 백두대간 여원치와 장치 북쪽 산봉우리에 남원 장교리 산성이 있다. 이 산성은 평면 형태가 남북으로 긴 제형으로 북쪽과 남쪽 두 개의 산봉우리를 포함하여 산성의 중앙부가 평탄한 지형을 이룬다.

백두대간 산줄기 북쪽 기슭은 급경사면을 이루고 있지만 남쪽은 비교적 완만한 지형을 이루어 성벽이 잘 남아 있다. 성벽은 성돌을 대체로 장방형으로 잘 다듬어 지그재그방식으로 쌓았다. 섬진강 유역이 한 눈에 잘 조망되는 곳으로 성벽과 산줄기가 서로 만나는 부분에 치를 두었다. 아직까지 한 차례의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돌을 다듬는 방법이나 성벽의 축조 기법, 성벽의 뒤채움 방법이 후백제 산성과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52]

운봉고원에서 남원 초촌리·척문리 방면으로 곧장 넘던 고개가 갓바래재[笠望峙]이다. 일찍부터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갓바래재 양쪽 산봉우리에 산성 및 봉화대가 자리하고 있다. 남원 준향리 산성은 경사면을 따라 성벽이 거의 무너져 내렸지만, 성돌은 방형 혹은 장방형으로 잘 다듬었다. 성벽은 견치석으로 品자형과 줄 쌓기를 하고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안쪽으로 휘어진 笏型을 이룬다.

지리산 둘레길 1구간이 통과하는 구동치 양쪽 산봉우리에도 산성 및 봉화대가 있다.[53] 삼국시대 운봉 봉화로가 시작되는 곳으로 최종 종착지 장수군 장계분지까지 이어진다. 운봉고원 일대에서 백두대간을 넘어 전남 곡성과 구례, 경남 하동을 거쳐 남해안으로 가기 위한 사람들이 거의 구동치를 넘었다고 한다. 백두대간 갓바래재·구동치는 운봉고원 서남쪽 관문으로 일찍부터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곳이다.

한편 신라 아막성으로 비정된 남원 성리산성은 백두대간 치재에서 멀지 않은 복성이재 남쪽 산봉우리에 있는데, 백두대간 북쪽 골짜기를 휘감은 포곡식으로 그 평면 형태가 약간 남북으로 긴 방형이다.[54] 여러 차

48) 2017년 11월 25일 영호남의 화합을 위해 '봉수 왕국 전북 가야' 기념비도 백두대간 치재 부근에 세웠다.
49) 곽장근, 2011, 「전북지역 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63, 한국고대사학회, 81~114쪽.
50) 군산대학교 박물관, 2016, 『장수 영취산·봉화산 봉수』, 문화재청.
51) 1378년 삼도 도순찰사 이성계가 운봉고원 내 황산 아래에서 아지발도가 이끈 왜구를 크게 무찌른 전투이다.
52) 姜元鍾, 2014, 「全州 東固山城의 考古學的 檢討」, 『韓國古代史研究』 74, 韓國古代史學會, 31~78쪽.
53) 조명일, 2012, 「금강 상류지역 산성 및 봉수의 분포 양상과 성격」, 『호남고고학보』 41호, 호남고고학회, 67~90쪽.
54) 강원종, 2007, 「남원 운봉지역의 고대 관방체계」, 『호남고고학보』 27, 호남고고학회, 43~74쪽.

례의 현지조사 때 밀집파상문이 시문된 가야 토기편을 중심으로 삼국시대 토기편, 기와편 등의 유물이 상당량 수습됐다. 가야와 백제, 신라, 후백제의 유물이 함께 공존한다.

그러다가 562년 대가야를 비롯한 백두대간 동쪽 가야 소국들이 신라에 멸망한 이후 백두대간 산줄기를 따라 백제와 신라의 국경이 형성됐다. 본래 기문국과 백제의 국경이 백두대간에서 형성됐는데, 옥천 관산성 전투 이후에는 백제와 신라의 국경으로 그 역할이 바뀌었다. 백제가 두 번째로 백두대간 산줄기를 넘어 다시 운봉고원 일대로 진출하는 과정이 신라와의 아막성 전투이다.

> 백제 무왕 3년(602) 가을 8월 왕은 좌평 해수에게 보병과 기병 4만 명을 보내어 신라의 아막성을 공격했다. 신라 진평왕이 건품과 무은에게 정예 기병 수천 명을 보내 막아 싸우니, 우리(백제) 군사가 크게 패했고, 해수는 겨우 죽음을 면하고 한 필의 말을 타고 혼자 돌아왔다.(『삼국사기』 백제본기 무왕 3년조)

삼국시대 때 백제와 신라의 최대 격전지가 아막성이다. 운봉고원 서북쪽 관문 백두대간 치재 남쪽에 위치한 남원 성리산성을 아막성으로 비정한 견해[55]가 널리 통용되고 있다. 남원시 아영면 성리산성으로 그 동쪽에는 남원 월산리・두락리 고분군, 북쪽에는 치재・복성이재와 봉화산 봉화대, 남쪽에는 구시봉 봉화대가 있다. 백두대간 산줄기 북쪽 골짜기를 아우르는 포곡식으로 전략상 요충지에 위치한다. 운봉고원의 기문국이 처음 터를 닦고 백제와 신라에 의해 수축됐고, 현재와 같은 성벽은 후백제 견훤왕에 의해 증축된 것[56]으로 추정된다.

백제는 신라의 아막성을 차지하기 위해 20년 넘게 치열한 전쟁을 벌였다. 백제 무왕은 왕위에 오른 뒤 3년 만에 4만의 군대를 동원하여 신라 아막성을 공격했지만 대패했고, 616년에도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가 624년 백두대간을 넘어 운봉고원을 다시 백제에 예속시켰고, 이를 토대로 경남 함양까지도 백제의 영향권으로 편입시켰다. 백두대간을 넘기 위해 20년 이상 계속된 아막성 전투는 운봉고원을 탈환하기 위한 철의 전쟁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백제 무령왕이 반파국과 3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운봉고원 기문국이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됐다가 성왕 때 신라에 빼앗긴 운봉고원 철산지의 탈환작전이었다. 운봉고원을 다시 찾은 백제는 한 동안 신라 공격이 소강상태를 이루었는데,[57] 그것은 백제의 중흥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백제 무왕에게 운봉고원 철산지의 장악이 얼마나 절실했던가를 말해준다. 백제의 중흥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동안 익산을 정치 중심지로 삼았을 개연성이 높다.

운봉고원의 철산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한 무왕은 운봉고원의 철산개발로 익산 미륵사와 제석사, 왕궁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군산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서해안에서 생산된 소금도 백제 부활의 밑거름이 됐을 것이다. 전북의 東鐵西鹽[58]을 익산에서 국가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구축한 최초의 왕이 백제 무왕으로 그 이후에도 운봉고원의 철산개발이 통일신라를 거쳐 후백제까지 계속된 것으로 추론해 두고자 한다.

2) 실상사 철조여래좌상과 후백제

우리 선조들이 철에 장인의 혼을 불어넣어 예술적인 작품으로 승화시킨 것이 철불이다. 통일신라 말에서

55) 全榮來, 1985, 「百濟南方境域의 變遷」,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論叢』, 정음문화사.

56) 남원 성리산성은 성돌을 다듬는 방법이나 성벽의 축성기술, 성벽의 뒤채움 방법이 후백제 산성이자 피난성으로 밝혀진 전주 동고산성과 그 속성이 상통한다.

57) 백제 무령왕이 가야 소국 반파국과 513년부터 515년까지 3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운봉고원 기문국을 정치적으로 복속시킨 뒤 한 동안 백제의 가야 진출이 소강상태를 이룬 것과 똑 같다.

58) 전북 동부지역에서 학계에 보고된 230여 개소의 제철유적과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해안에서 발견된 200여 개소의 패총에 그 근거를 두었다. 현재 패총 및 제철유적의 운영 시기와 그 역사성을 밝히기 위한 학술발굴이 시작됐음을 밝혀둔다.

고려 초까지 선종의 영향을 받아 철로 만든 철불이 널리 유행했다.[59] 운봉고원 내 실상사 철조여래좌상[60]을 비롯하여 72체의 철불이 남아있다.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은 그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높이 273.59cm의 대형 불상으로 통일신라 선종불교의 기념비적인 불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이 우리나라 철불의 첫 장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성 배경과 관련하여 운봉고원의 내부적인 요인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

실상사는 선종 구산선문 최초로 개창된 실상산파의 본사로 흥덕왕 3년(828) 당나라에서 귀국한 홍척에 의해 창건된 사찰이다.[61] 흥덕왕은 김헌창의 난 때 동조세력이 많았던 남원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홍척을 국사로 삼고 실상사의 창건을 후원했다.[62] 840년 홍척국사 입적 이후 제자 수철화상이 실상산문의 2대조에 올랐고, 문성왕의 후원으로 실상사의 사역을 확장하는 과정에 철불이 조성된다. 문성왕의 후원을 받은 수철은 당시 빈번하게 일어났던 전쟁으로부터 사찰을 보호하고 나아가 남원전쟁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망자의 혼을 달래기 위해서 철불을 조성하였다.

실상사 철불의 조성 시기에 대해서는 실상사 창건(828)과 함께 조성됐다는 견해,[63] 흥덕왕 3년(828)부터 문성왕 19년(857) 사이로 보는 견해,[64] 840년부터 856년 사이로 보는 견해,[65] 보림사 철불이 조성된 858년부터 도피안사 철불이 만들어진 865년 사이로 보는 견해[66] 등이 있다. 지금도 운봉고원 내 철불의 조성 시기와 관련하여 학계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철불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된 철불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다.[67] 그리하여 운봉고원 내 실상사는 철불의 요람이자 철불의 고향이다. 당나라로 유학을 다녀온 유학승의 신앙심과 운봉고원 철의 장인들의 주조 기술이 하나로 합쳐져 철불을 탄생시킨 것이다. 전라도에 속한 선종 구산선문 중 실상산문을 시작으로 동리산파의 태안사와 가지산파의 보림사, 임실 진구사지에 철불이 계속해서 만들어졌다.

신라하대의 석조불상은 대부분 아담한 체구에 여성적이고 온화한 상호가 큰 특징이다. 그러나 분할주조법으로 만든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은 옆으로 뻗은 눈과 짧은 코, 두툼한 입술, 길게 늘어진 귀에 신라하대의 불상양식이 잘 표현되어 있다.[68] 2011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정밀 계측조사를 통해 철조여래좌상의 외형이 40개 이상의 조각으로 분할되어 주조됐음이 새롭게 밝혀졌다.[69] 그리고 철불의 표면에 금박을 입히고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석조대좌와 함께 광배를 갖추어 봉안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무엇보다 불상의 어깨와 배 위에 새겨진 층이 진 두꺼운 띠 주름의 표현에서 신라하대 유행했던 조각의 특징을 잘 표현되어 있다.

철조여래좌상의 존명에 대해서는 약사불설, 아미타불설, 노사나불설이 있다. 최근에 주목을 받은 노사나불설은, 오른손은 시무외인을 결하고 왼손은 손바닥을 위쪽으로 향한 여원인 계통의 수인으로 실상사 창건 당시 금당인 보광전에 봉안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지산문의 보림사와 성주산문의 성주사 등 신라하대 선종사찰에서 노사나불상을 주존으로 봉안했던 예를 그 근거로 들었다. 신라하대 선종 승려들은 화엄종의 주존인 노사나불을 조성하여 선종사찰에 봉안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불상을 주존으로 봉안

59) 國立淸州博物館, 1997, 『鐵의 歷史』.
60) 우리나라 철불의 효시로 운봉고원의 철기문화와 유학승의 신앙심이 하나로 응축되어 철불이 탄생됐다.
61) 실상사, 1997, 『구산선문 최초가람 실상사』, 선우도량 출판부. 정동락, 2020, 「신라하대 실상사의 선사들」, 『남원 실상사의 위상과 편 운화상탑의 특징』, 후백제학회, 29~64쪽.
62) 조범환, 2020, 「홍척선사의 실상산문 개창과 그 위상」, 『남원 실상사의 위상과 편운화상탑의 특징』, 후백제학회, 5~28쪽.
63) 黃壽永, 1982, 「統一新羅時代의 鐵佛」, 『考古美術』 154·155, 20~21쪽. 郭東錫, 2000, 「南原의 佛敎彫刻」, 『남원의 역사문물』, 국립전주 박물관, 187쪽.
64) 中吉功, 1971, 「實相寺鐵造藥師如來像小論」, 『新羅·高麗の佛像』, 二玄社, 312~313쪽.
65) 강건우, 2013, 「實相寺 鐵佛 硏究」, 『불교미술사학』 제15집, 佛敎美術史學會, 74~77쪽.
66) 崔聖銀, 1996, 『철불』, 대원사, 44쪽.
67) 崔仁善, 1991, 「新羅下代 鐵造佛像의 硏究 -9세기 철조불상을 중심으로-」,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2쪽.
68) 최성은, 2010, 「장보고 선단과 신라하대 불교조각」, 『선사와 고대』 32, 15~17쪽.
69) 국립중앙박물관, 2011, 『남원지역의 철불 -실상사·선원사·대복사 철불 조사보고-』 참조.

하느냐에 따라 법당의 이름이 결정된다. 노사나불을 주존으로 봉안한 불전을 보광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96년부터 시작된 발굴조사에서 노사나불을 안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라하대 건물지가 보광전 아래층에서 확인됐다.[70] 이 건물지는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내부 면적이 99평에 달한다. 창건 당시 실상사의 가람은 중문지와 석탑지, 금당지, 강당지가 남북으로 배치됐고, 몇 개의 건물지와 회랑지가 동서로 나란히 배치됐다. 본래 보광전에 주존으로 봉안된 철조여래좌상은 1680년 실상사를 중창하는 과정에 현재의 약사전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71]

실상사에서 철불이 최초로 조성된 배경과 관련해서는 외부에서만 그 요인을 찾았다.[72] 육두품이하 일반 대중의 신앙을 비롯하여 해상왕 장보고 선단의 해상 활동으로 신라 유학승들이 귀국하여 불상 재료의 인식 변화로 철불이 제작됐다는 것이다.[73] 당시 널리 유행했던 풍수지리나 비보사상에 의거 철불을 봉안함으로써 사찰의 터를 진압하고 사찰을 수호하려는 목적도 담겨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사상적인 요인과 같은 외부에서만 그 조성 배경을 찾았다.

그런데 운봉고원은 40여 개소의 제철유적으로 상징되는 대규모 철산지이다. 기문국 지배자 무덤인 남원 월산리 M1-A호에서 나온 금은새김 고리자루 칼에서 삼국시대 최고의 철기 제작 기술도 확인됐다.[74] 운봉고원은 일찍부터 철의 생산부터 최고의 주조 기술까지 응축된 당시 철의 테크노벨리였다. 그렇다면 중국 문물에 익숙한 신라 유학승들의 불상 재료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운봉고원 최고의 주조 기술 등 당시 사회・경제・사상・기술적 요인이 실상사 철조여래좌상 제작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시 말해 신라 왕실의 후원으로 실상사 사역을 확장하는 과정에 당시 철의 테크노벨리로 융성했던 운봉고원의 내부적인 요인도 철불의 탄생에 상당히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백제 때도 운봉고원 철산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후원이 각별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상사 조개암지 편운화상탑에 후백제 연호인 正開[75]와 백두대간 고리봉 동쪽 기슭 개령암지 마애불상군에 오월의 天寶[76]라는 연호가 이를 증명한다. 후백제는 중국 청자의 본향 오월과 반세기 동안 가장 역동적인 국제 외교를 펼쳤다. 그렇다면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마한 왕에 의해 처음 시작된 철산 개발이 기문국과 백제, 통일신라, 후백제까지 계기적으로 지속된 것으로 설정해 두고자 한다.

그러다가 고려 태조 23년(940) 운봉고원이 남원부와 첫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철 생산과 무관하지 않다. 후백제 멸망 5년 뒤 운봉고원을 남원부[77]에 이속시킨 것은 고려 왕조가 운봉고원의 철산 개발을 중단시키고 철산지의 통제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국가 전략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후백제 멸망 이후에는 백두대간 산줄기를 넘어야 하는 일상생활의 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구역상으로 전북 남원에 편입된 역사적 배경이 됐다. 이제까지 축적된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백두대간을 품은 운봉고원은 후백제의 철산지이자 동남쪽 거점이었다.

---

70)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6,『實相寺 發掘調査 報告書』Ⅱ,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71) 실상사 약사전에는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러 폐사와 여러 차례의 중창이 반복되면서 조선 후기부터 철조여래좌상이 봉안된 것으로 밝혀졌다.

72) 최성은, 2012,「실상사 철조여래좌상 조성과 신라하대 불교조각」,『실상사 가람배치와 철불 제자리 찾기』, 남원시·문화재청, 2~4쪽.

73) 갑작스런 장보고 선단의 몰락으로 대형불상을 주조하는 데 필요한 청동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사회상도 자주 언급됐다.

74) 全榮來, 1983,『南原, 月山里古墳群發掘調査報告』,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75) 남원 실상사 제3대 조사 편운화상탑 탑신부에 '創祖洪陟隆弟子 安筆創祖 片雲和尙浮圖 正開十年庚午歲建'이라고 음각되어 있다.

76) 진정환, 2019,「운봉고원과 후백제」,『백두대간 운봉고원 역사적 가치와 의미』, 전라북도·남원시·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111~127쪽.
진정환, 2020,「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의 특징과 가치」,『남원 실상사의 위상과 편운화상탑의 특징』, 후백제학회, 65~86쪽.

77) 고려 태조 23년(940) 남원경을 없애고 대신 남원부를 설치하여 2개 군(임실, 순창)과 7개 현(장계, 적성, 거령, 구고, 장수, 운봉, 구례)을 관할했고, 조선 태종 13년(1413) 남원도호부로 개편됐다.

5. 맺음말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삼국시대 때 백제와 신라의 국경을 형성했고, 조선시대 때 전라도와 경상도를 갈라놓는 경계선이 백두대간이다. 이 산줄기 동쪽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구역상 전북에 속한 곳이 운봉고원이다. 고려 태조 23년(940) 남원부와 처음 인연을 맺은 이후 험준한 백두대간 산줄기를 넘어야 하는 일상생활의 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줄곧 남원에 속했다. 조선시대 『정감록』에 사람이 살기 좋은 십승지지에 이름을 올린 곳으로 달리 신선의 땅으로도 유명하다. 백두대간이 서쪽을 병풍처럼 휘감아 천혜의 장성 역할을 해주어 천혜의 요새지이자 교역망의 허브였다.

운봉고원은 대규모 철산지이자 철의 왕국으로 4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산재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단일 지역 내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아직은 운봉고원의 제철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운영 시기와 운영 주체를 단정할 수 없지만, 운봉고원 제철유적이 문헌에 등장하지 않아 고려시대 이전에 이미 개발됐을 개연성이 높다. 운봉고원에서 가야문화를 받아들여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하면서 철산개발을 주도했던 가야세력을 기문국으로 비정했다. 문헌 속 기문국은 우륵 12곡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기록에 자주 등장하는 역동적인 가야 소국이다.

운봉고원에서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던 기문국은 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처음 등장해 6세기 중엽 경까지 발전한 것으로 보았다. 백두대간이 난공불락의 철옹성 역할을 해 주었고, 백제와 가야의 문물교류의 관문, 대규모 철산개발과 교역 네트워크를 통한 철의 생산과 유통이 결정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운봉고원 일대에 180여 기의 말(몰)무덤과 가야 고총, 최상급의 위세품이 출토됨으로써 기문국의 존재를 고고학적으로 증명했다. 백제를 비롯하여 대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등 가야 소국들이 니켈이 함유된 운봉고원에서 생산된 양질의 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고급 위세품과 최상급 토기류를 기문국에 보냈다.

그러다가 6세기 초엽 이른 시기 백제 묘제가 가야 고총에서 처음 확인됐고, 6세기 중엽 경에는 신라에 정치적으로 복속됐다. 운봉고원 내 가야 고총은 강성했던 기문국의 국력과 그 존속 기간을 암시해 주는 고고학 증거로써 기문국의 발전상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보여줬다. 남원 청계리·유곡리·두락리에 봉토의 직경이 30m 이상 되는 초대형급 가야 고총도 포함되어 기문국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 운봉고원은 가야영역에서 최초로 그 존재를 드러낸 철제초두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철기류가 나온 '철기박물관'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은 당시 운봉고원이 철의 생산부터 주조 기술까지 응축된 철의 테크노벨리였음을 방증했다.

백두대간 산줄기가 남원시 구간에서만 고갯길 양쪽 산봉우리에 산성 및 봉화대가 배치되어 있다. 남원 봉화산 봉화대 발굴을 통해 그 성격이 가야 봉화대로 밝혀졌고, 산성은 기문국이 처음 터를 닦은 뒤 백제와 신라, 후백제 의해 수축된 것으로 보았다. 기문국과 백제, 백제와 신라의 국경이 백두대간 산줄기를 따라 한동안 형성됐다.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마한 왕부터 처음 시작된 운봉고원의 철산 개발이 기문국과 백제, 통일신라를 거쳐 후백제까지 계기적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론했다. 따라서 백두대간을 따라 촘촘하게 배치된 관방유적은 당시 운봉고원 철산지를 지키려는 국가 차원의 방비 전략이 담겨있을 것으로 추론했다.

운봉고원은 그 중심지가 다섯 번 이동했던 것 같다. 기원전 84년 마한 왕이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달궁 터를 닦고 71년 동안 국력을 키워 운봉읍 장교리 연동마을로 이동해 말(몰)무덤을 남겼다. 운봉고원의 마한세력은 가야문화를 소용하기 이전까지 정치 중심지를 운봉읍 일원에 두었다. 그러다가 4세기 말엽 늦은 시기 가야문화를 받아들인 뒤 아영면 월산리·청계리 일대에서 잠시 머물다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로 중심지를 옮겼다. 남원 월산리·청계리는 반달모양 산자락이 휘감아 자생풍수에서 최고의 명당이며, 남원 유곡리·두락리는 기문국의 마지막 도읍이었다. 6세기 중엽 경 신라는 철산지 운봉고원 일대를 장악한 뒤 행정 중심지를 운봉읍 일대로 다시 옮겼다.

인류의 역사 발전에 철의 공헌도가 높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고대국가를 출현시켰고, 대가야가 후기 가야의 맹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철의 힘이다. 가야와 백제, 신라가 국운을 걸고 대규모 철산지 운봉고원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각축전을 펼침으로써 삼국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한다. 운봉고원 내 제철유적은 마한 왕의 달궁터, 기문국의 발전상과 위세품 보고, 가야토기 박물관, 아막성에서 철의 전쟁, 실상사 철불의 요람, 조선시대 십승지지의 비밀이 담긴 운봉고원의 블랙박스이다. 2018년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고, 곧이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최종 목록에 선정됨으로써 운봉고원 철기문화의 역동성을 세상에 알렸다. 향후 운봉고원 제철유적의 역사성을 조명하기 위한 학제 간 융복합 연구가 시작되길 기원해 본다.

참고문헌

단행본

郭東錫, 2000,「南原의 佛敎彫刻」,『남원의 역사문물』, 국립전주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2012,『운봉고원에 묻힌 가야무사』, 전북문화재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2011,『남원지역의 철불 -실상사·선원사·대복사 철불 조사보고-』 참조.
國立淸州博物館, 1997,『鐵의 歷史』.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19,『봉수 왕국 전북 가야』, 전라북도.
군산대학교 박물관, 2004,『전북 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 전라북도.
金世基, 1995,「大伽耶 墓制의 變遷」,『加耶史硏究 -가야의 政治와 文化-』, 慶尙北道.
박순발, 2012,「계수호와 초두를 통해 본 남원 월산리 고분군」,『운봉고원에 묻힌 가야 무사』, 국립전주박물관·전북문화재연구원.
실상사, 1997,『구산선문 최초가람 실상사』, 선우도량 출판부.
이희준, 2017,『대가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全榮來, 1985,「百濟南方境域의 變遷」,『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論叢』, 정음문화사.
崔聖銀, 1996,『철불』, 대원사.
최병운, 1992,「歷史時代」,『南原誌』, 南原誌編纂委員會.
黃壽永, 1982,「統一新羅時代의 鐵佛」,『考古美術』 154·155.

보고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6,『實相寺 發掘調査 報告書』 Ⅱ,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군산대학교 박물관, 2013,『남원 실상사 약사전』, 남원시.
군산대학교 박물관, 2013,『남원 입암리·임리 고분』, 남원시.
군산대학교 박물관, 2016,『장수 영취산·봉화산 봉수』, 문화재청.
尹德香, 1994,『행정리 고분군』 發掘調査報告書, 全羅北道·南原郡·全北大學校博物館.
尹德香 외, 1989,『斗洛里』 發掘調査報告書, 全羅北道·南原郡·全北大學校 博物館.
장명엽·윤세나, 2013,『南原 奉大 古墳群』, 湖南文化財硏究院·韓國道路公社.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4,『남원 운봉 북천리 고분』,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全北大學校 博物館, 1987,『南原地方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全北地方 文化財 調査 報告書 第6輯.
전북대학교 박물관, 2015,『남원 두락리 32호분』, 남원시.
전북문화재연구원, 2012,『南原 月山里古墳群』 -M4·M5·M6號墳-, 한국도로공사 함양성산건설사업단.
全榮來, 1983,『南原, 月山里古墳群發掘調査報告』,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학술지 게재논문

강건우, 2013,「實相寺 鐵佛 硏究」,『불교미술사학』 제15집, 佛敎美術史學會.
강원종, 2007,「남원 운봉지역의 고대 관방체계」,『호남고고학보』 27, 호남고고학회.
姜元鍾, 2014,「全州 東固山城의 考古學的 檢討」,『韓國古代史硏究』 74, 韓國古代史學會.
곽장근, 2011,「전북지역 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한국고대사연구』 63, 한국고대사학회.
곽장근, 2015,「운봉고원의 제철유적과 그 역동성」,『백제문화』 제52집,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김낙중, 2018, 「남원지역 고분군의 성격과 보존 및 활용 방안」, 『문화재』 제51권·제2호,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영춘, 2015,「운봉고원 출토 마구의 의미와 등장배경」,『호남고고학보』 제51집, 호남고고학회.
유영춘, 2018,「철기유물로 본 전북지역 가야의 교류」,『호남고고학보』 제59집, 호남고고학회.

전상학, 2016.「마한·백제시대의 전북혁신도시」,『고고학으로 밝혀 낸 전북혁신도시』, 호남고고학회.
전상학, 2018,「전북지역 가야고분의 현황과 특징」,『호남고고학보』59, 호남고고학회.
조명일, 2012,「금강 상류지역 산성 및 봉수의 분포 양상과 성격」,『호남고고학보』41호, 호남고고학회.
최성은, 2010,「장보고 선단과 신라하대 불교조각」,『선사와 고대』32.
최완규, 2015,「마한 성립의 고고학적 일고찰」,『한국고대사연구』79, 한국고대사학회.
최완규, 2018,「전북지역의 가야와 백제의 역동적 교류」,『호남고고학보』59, 호남고고학회.
한수영, 2015,「한반도 서남부지역 초기철기문화의 전개양상」,『전북사학』46, 전북사학회.

학술대회 게재논문

김규정, 2020,「남원 월산리 고분군 발굴조사 성과」,『남원 청계리·월산리 고분군 역사적 가치와 의미』, 전라북도·남원시·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박천수, 2014,「출토유물로 본 삼국시대 남원지역의 정치적 향방」,『가야와 백제, 그 조우(遭遇)의 땅 남원』, 남원시·호남고고학회.
변희섭, 2014,「남원 두락리 및 유곡리 고분군(32호분) 발굴조사 성과」,『가야와 백제, 그 조우(遭遇)의 땅 남원』, 남원시·호남고고학회.
양영주·김상규, 2014,「남원 월산리고분군 -M4·M5·M6-」,『가야와 백제, 그 조우(遭遇)의 땅 남원』, 남원시·호남고고학회.
심승구, 2009,「운봉고원의 문화콘텐츠산업화」,『운봉고원의 역사문화 및 자연생태자원의 개발방향』, 한국역사민속학회.
오동선, 2020,「남원 청계리 청계 고분의 구조와 축조기법」,『남원 청계리·월산리 고분군 역사적 가치와 의미』, 전라북도·남원시·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유영춘, 2019,「전북 동부지역 제철유적 조사성과」,『백두대간 운봉고원 역사적 가치와 의미』, 전라북도·남원시·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유영춘 외, 2012,「남원 운봉고원 제철유적」,『호남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성과』, 호남고고학회.
유철, 2017,「전북가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가야문화의 寶庫, 전라북도를 조명하다』, 호남사회연구회.
이건용, 2020,「남원 청계리 고분의 출토유물 연구」,『남원 청계리·월산리 고분군 역사적 가치와 의미』, 전라북도·남원시·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정동락, 2020,「신라하대 실상사의 선사들」,『남원 실상사의 위상과 편운화상탑의 특징』, 후백제학회.
조명일, 2020,「남원·청계리 월산리 고분군의 보존정비 및 활용방안」,『남원 청계리·월산리 고분군 역사적 가치와 의미』, 전라북도·남원시·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조범환, 2020,「홍척선사의 실상산문 개창과 그 위상」,『남원 실상사의 위상과 편운화상탑의 특징』, 후백제학회.
진정환, 2019,「운봉고원과 후백제」,『백두대간 운봉고원 역사적 가치와 의미』, 전라북도·남원시·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진정환, 2020,「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의 특징과 가치」,『남원 실상사의 위상과 편운화상탑의 특징』, 후백제학회.
최성은, 2012,「실상사 철조여래좌상 조성과 신라하대 불교조각」,『실상사 가람배치와 철불 제자리 찾기』, 남원시·문화재청.
하승철, 2014,「남원지역 가야고분의 구조와 변천」,『가야와 백제, 그 조우(遭遇)의 땅 '남원'』, 남원시·호남고고학회.

학위논문

崔仁善, 1991,「新羅下代 鐵造佛像의 硏究 -9세기 철조불상을 중심으로-」,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art
02

남원 아영분지 고총고분 조영세력의 변천과 성격

발 표 : 오동선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토 론 : 조영제 | 경상대학교

남원 아영분지 고총고분 조영세력의 변천과 성격

오동선(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목 차

1. 머리말

2. 매장시설과 부장유물의 유사도 검토
 1) 매장시설
 2) 부장유물
 3) 유사도 검토

3. 남원 아영분지 고분의 편년
 1) 발형기대
 2) 마구

4. 남원 아영분지 고분의 조영과정과 의미
 1) 남원 아영분지 고분의 세부편년과 조영과정
 2) 남원 아영분지 고분 조영세력의 성격

5. 맺음말

<요약>

남원 아영분지 고분 조영 세력의 성격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고분의 구조, 유물 부장 양상의 유사도, 발형기대와 마구의 형태 특징을 분석하여 가야 중심지인의 주요 고분과 비교했다.

분석결과 청계리 고분군 2호 석곽은 5세기 2/4분기에 남강중하류 및 낙동강 동남부 지역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집단이 조영한 것으로 보인다. 5세기 3/4분기에 해당하는 1호 석곽은 구조와 부장유물에서 대가야의 요소가 추가된다. 월산리 고분군은 5세기 3/4분기 M1호를 시작으로 5세기 4/4분기에 집중된다. 고분 구조와 유물 모두 백제를 비롯한 가야지역 거의 모든 집단과 관련되어 다양성이 가장 높다. 두락리 고분군은 6세기 1/4분기를 중심으로 조영되며 고분 구조와 유물에서 대가야 물질문화가 근간을 이룬다.

남원 아영분지는 남강 수계 장악을 의도한 백제가 세력을 확장해 오면서 지정학적 가치가 높아졌다. 5세기 2/4~4/4분기에는 부산·함안·합천 지역과 밀접한 집단이 이주해와서 청계리 고분군을 조영했다. 5세기 3/4~4/4분기에는 월산리 고분군을 중심으로 백제로부터 위세품을 증여받는 독립 수장층으로 성장하였다. 6세기 1/4분기에는 백제와 교섭이 일부 유지되지만 물질문화의 기반이 고령의 대가야로 일원화되는 양상이 간취되는데, 낙동강 하구의 가야세력에 대한 신라의 영향력 강화, 백제 대외교통로의 변화 상황과 연동된 결과로 판단된다.

아영분지 내에 위치를 달리하여 서로 다른 성격의 고분이 조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집단의 교체를 의미하는지, 동일 가계의 성격 변화인지는 알 수 없다. 현재까지 자료로 볼 때 아영분지의 고총고분 조영은 가야 세력 이주에 의한 것임은 분명해 보이는데, 추후 토착세력으로 볼만한 유의미한 조사 성과가 축적된다면 다른 해석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남원 아영분지, 남강, 백제, 대가야, 아라가야, 재갈, 등자, 발형기대, 수레바퀴 장식 토기

1. 머리말

이 글은 남강 최상류에 위치하는 아영분지 고분의 변천 과정을 가야 중심지와 비교하면서 피장자의 성격을 가늠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남원 아영분지의 고분은 이동천을 사이에 두고 서편에 청계리와 월산리, 동편에 두락리 고분군이 위치한다. 월산리 고분군 M1-A호의 부장품은 은상감 환두도와 투구, 마구류, 다량의 가야 토기류가 있고, M5호에는 중국 청자(계수호), 초두가 추가된다.[1] 두락리 고분군 1호에서는 대가야 중심지와 동일한 부장유물이 다량 확인된 반면, 2호는 매장시설이 백제식 궁륭형 횡혈식 석실이다.[2] 32호는 도굴된 상태였지만 백제 금동신발 편을 비롯하여 동경이 확인되었다.[3]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에서는 고분의 입지, 석곽의 구조와 축조 방법, 출토유물에서 월산리, 두락리 고분군과는 또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4]

이렇게 아영분지에서는 1981년부터 현재까지 총 14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두락리 2호를 제외하면 매장시설은 모두 석곽이고, 가야계 유물이 주종을 이루면서 백제계 위세품도 부장되기 때문에 고분 피장자는 가야를 기반으로 백제와도 적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아울러 최근 조사된 청계리 청계고분에서는 고령 이외에 아라가야 관련 유물이 수습되면서 아영분지에 고총 고분의 등장 시점과 그 과정에 대한 문제를 환기시켜 주었다.

현재까지 남원 아영분지의 고분은 출토유물(토기, 마구류)[5]과 석곽의 구조[6]를 분석하여 개별 고분의 축조시점과 조영과정, 피장자의 성격에 대해 논의해 왔다. 고분군의 연대는 대체적으로 월산리를 5세기 중엽, 두락리를 5세기 후엽~6세기 전엽으로 보고 있다. 피장자의 성격에 대해서는 백제와 가야의 접경이라는 지정학적 이점을 이용하여 성장한 가야계통의 토착세력이 국가 단계의 정치체를 유지했다고 보고[7], 이 정치체를 사료에 등장하는 己汶으로 특정[8]하기도 한다. 반대로 아영분지는 대가야가 백제를 비롯한 대외 교통로 확보를 위해 5세기 3/4분기경 장악하여 기존 남강 수계를 이용하여 아라가야와 소가야가 독점하던 교역

---

1) 全榮來, 1983, 『南原, 月山里古墳群發掘調査報告』,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김규정 외3명, 2012, 『南原 月山里古墳群 - M3, M4, M5號墳』, 전북문화재연구원·한국도로공사 함양성산건설사업단.

2) 윤덕향·곽장근, 1989, 『두락리』, 전라북도남원군·전북대학교박물관.
유물은 과판을 비롯한 장신구류가 일부 수습되었는데 석실 구조로 볼 때 동시기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유물들이 2호분 최초의 피장자와 직접 연결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3) 김승옥 외 4명, 2015, 『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32호분』, 전북대학교박물관.

4)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9,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 현장설명회자료」(유인물)

5) 朴天秀, 1998, 「大加耶圈 墳墓의 編年」, 『韓國考古學報』39, 韓國考古學會.
趙仁振, 2001, 「湖南 東部地域 石槨墓 出土 土器 硏究-長頸壺와 器臺를 中心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郭長根, 1999, 『湖南 東部地域 石槨墓 硏究』(書景文化社)..
전상학, 2007, 「全北 東部地域 竪穴式 石槨墓의 構造 硏究」, 『湖南考古學報』25, 湖南考古學會.

7) 朴淳發, 1992, 「百濟土器의 形成過程」, 『百濟硏究』23, 忠南大學校百濟硏究所.
朴淳發, 1997, 「漢城百濟의 中央과 地方, 百濟의 中央과 地方」, 『百濟硏究論叢』第5輯, 忠南大學校百濟硏究所.
박순발, 2012, 「계수호와 초두를 통해 본 남원 월산리 고분군」, 『운봉고원에 묻힌 가야무사』, 국립전주박물관·전북문화재연구원.
郭長根, 1999, 『湖南 東部地域 石槨墓 硏究』(書景文化社).

8) 郭長根, 2003, 「錦江 上流地域으로 百濟의 進出過程 硏究」, 『湖南考古學報』18, 湖南考古學會.
郭長根, 2004, 「湖南 東部地域 加耶勢力과 그 成長過程」, 『湖南考古學報』20, 湖南考古學會.
朴天秀, 2006, 「榮山江流域 前方後圓墳을 통해 본 5~6세기 韓半島와 日本列島」, 『百濟硏究』第43輯, 忠南大學校百濟硏究所.

망을 대체했다고 보거나[9], 대가야 중심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지역집단[10]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연구 성과로 볼 때 아영분지 고분 연구의 쟁점은 고분군 조영세력과 대가야의 관계가 종속적인지 대등한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 도출 과정에 있어서 아영분지와 주변지역의 고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같고 다른지에 대한 자료 제시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필자는 아영분지 고분의 성격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가야 중심지 고분군과의 구조와 부장유물의 특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을 통해 고분 간의 상대순서를 비롯한 피장자의 성격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분석은 매장시설의 구조, 부장유물의 현황을 황강 이북의 고령 지산동과 합천 옥전, 남강 중하류와 낙동강 하류 서쪽의 함안 도항리·고성 송학동, 낙동강 하류 남동쪽의 부산 복천동·부산 연산동·김해 대성동의 가야 중심지를 비롯하여 낙동강 중상류에 접한 여러 고분군을 비교했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가야 중심지와 아영분지 고분군의 유사도를 밝히고, 발형기대와 마구를 대상으로 교차편년을 실시하여 조영순서와 그 의미를 해석해 보고자한다.

2. 매장시설과 부장유물의 유사도 검토

1) 매장시설의 구조

매장시설의 구조는 봉분 내 석곽의 위치, 석곽의 배치 방법, 석곽의 형태와 규모로 구분하여 비교했다. 총 24개 고분군 332기[11]를 대상으로 했다(그림 1).

(1) 축조 방법

봉분내 석곽의 위치를 지하, 반지하, 지상식으로 구분하여 기수를 파악했다. 지하식은 석곽 벽석이 모두 기반토 아래에 위치하는 것으로 전체 332기중 277기로 83.4%에 해당하여 압도적으로 많다. 반지하식은 석곽 벽석이 절반 정도만 기반토 아래에 위치하는 것으로 전체 27기이며 8.1%이다. 지상식은 석곽 벽석이 1/4 혹은 최하단석이 기반토 상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28기이며 반지하식과 비슷한 양을 차지한다.

지하식 석곽은 고령 지산동에 가장 많다. 전체적으로 남강수계와 낙동강 동남해안 지역에 고르게 분포한다. 고령 지산동, 의령 오천리, 부산 복천동과 연산동 고분군, 남원 두락리 고분군은 지하식만 확인되는 점이 특징이다.

9) 朴天秀, 1999, 「考古學 資料를 통해 본 大加耶」, 『考古學을 통해 본 加耶』, 韓國考古學會.
朴天秀, 2002, 「高塚을 통해 본 加耶의 政治的 變動」, 『동아시아 대형고분의 출현과 사회변동』, 國立文化財硏究所, 206쪽.
10) 朴升圭, 2003, 「大加耶土器의 擴散과 관계망」, 『韓國考古學報』49, 韓國考古學會, 100쪽.
11) 분석 가능한 석곽이 없는 창원 도계동, 김해 대성동·예안리 고분군은 제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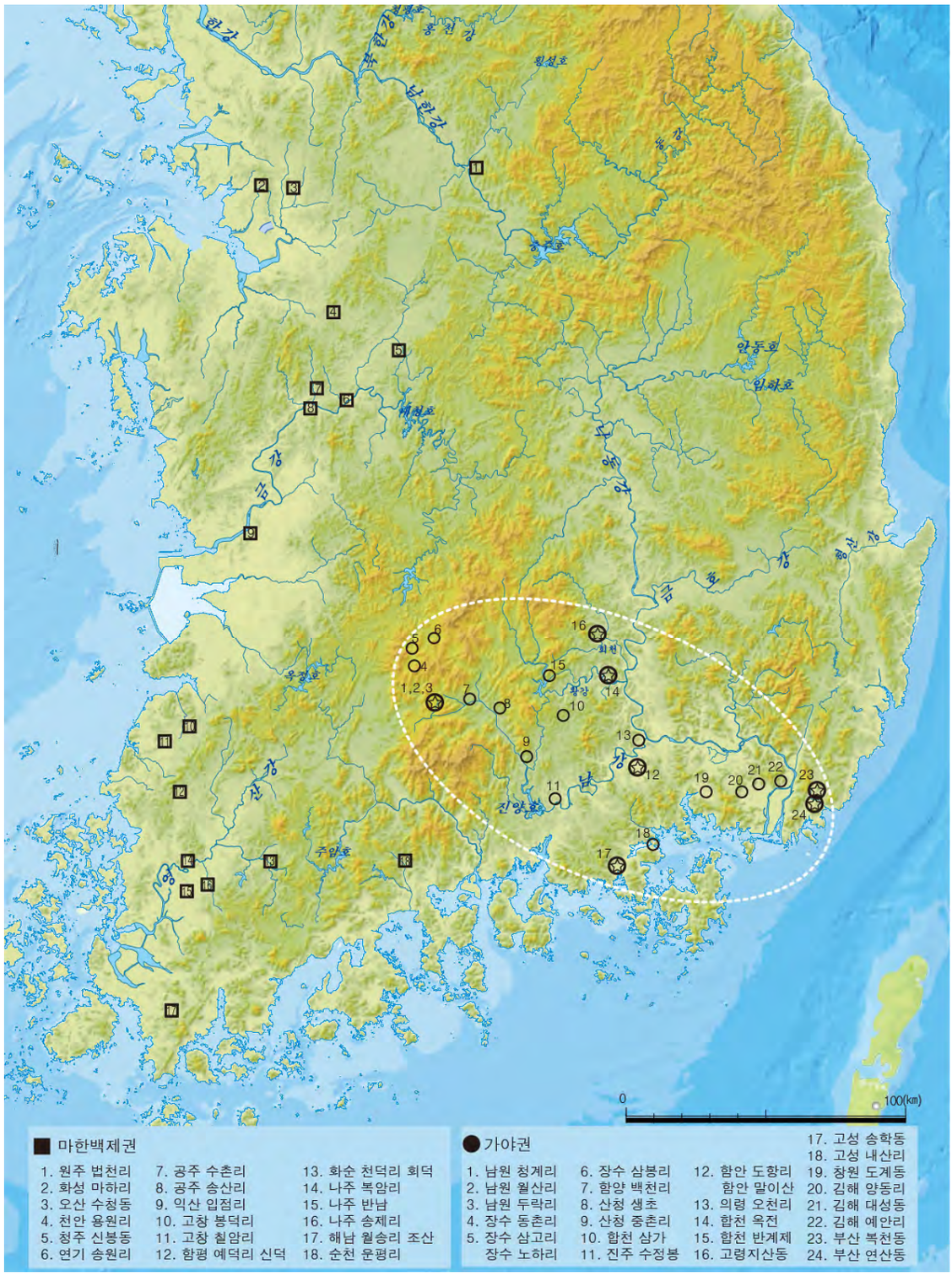


그림 1. 분석대상 고분의 위치

표 1. 주요 고분군 주곽의 봉분 내 위치

수계	고분명	지하	반지하1/2	지상	계	비고
회천	고령 지산	140			140	
남강1	남원 두락	4			4	
남강3	의령 오천	39			39	
남동해	부산 복천·연산, 김해 양동	19			19	
금강	장수 동촌, 삼고, 노하	21	6		27	
금강	장수 삼봉	2	2	1	5	
남강3	함안 도항, 말이	21	3		24	
남강1	남원 청계리		3		3	성토=석곽
남강1	남원 월산	3		3	6	성토=석곽
남강2	함양, 산청 생초,중촌	6		4	10	성토=석곽
황강	합천 반계,삼가,옥전	22	13	11	46	성토=석곽
남해	고성 송학, 내산			9	9	성토<석곽
계		277	27	28	332	

반지하식 석곽은 최근 조사된 남원 청계리 고분군과 같이 고분 조영 지점을 'L' 자형으로 파내서 석곽의 장벽 한쪽 면은 기반토에 기대고, 반대쪽은 성토와 동시에 벽석을 쌓아 올리는 형태도 포함했다. 가야 중심지에서는 입지는 다르지만 합천 반계제 고분의 축조기법이 거의 동일하다(그림 2). 이 외에 합천 옥전, 함안 도항리, 장수 지역에도 반지하식이 있다.

지상식 석곽은 장수, 남원, 산청, 합천, 고성 지역에서 확인된다. 고성지역은 동일한 지상식이지만 영산강유역권 처럼 성토 후 분구를 되파서 석곽을 시설하는 분구묘 계통으로 분류된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석곽과 봉분을 함께 만들고 있어서 고성지역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남원 아영분지의 지상식 석곽은 월산리 고분군에서만 확인되며, 합천 옥전 고분군과 유사하다. 합천 옥전 고분군은 기반토를 얕게 파고 석곽과 봉토가 동시에 만들어지는 축조기법이 일반적이다. 산청 중촌리 5호는 완전한 지상식으로 기반토 상면에 석곽과 봉토를 동시에 만든다(그림 2). 이외 합천 삼가 고분군에서 확인되는 반지하식 이나 지상식 석곽은 동일 봉분에 석곽을 추가하면서 봉분을 되파고 지상에 위치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지상식과는 다르다.

이렇게 낙동강 이서지역 가야권의 석곽은 지하식이 일반적이지만 반지하식과 지상식도 특정 지역 간에 공유되고 있다. 반지하와 지상식은 고령 지산동이 위치한 낙동강 중류 내륙의 회천유역을 제외하고 남강과 황강 유역에 넓게 퍼져 있는데, 남원 아영분지에서는 좁은 지역임에도 고분군을 달리하여 석곽 축조에 차이가 뚜렷하다. 청계리와 월산리 고분군은 반지하나 지상식의 석곽을 봉분과 함께 만드는 축조기법을 공유한다.[12] 남원 아영분지의 석곽 축조기법과 가장 유사한 가야 중심지의 고분은 함안 말이산 25 · 26호와 합천 옥전 M1~3호가 있다. 반면 두락리 고분군은 현재까지 모두 지하식만 확인되어서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유사성이 높다.

12) 월산리 고분군 M1~3호는 완전한 지하식이지만 나머지 고분들은 모두 지상식이다. 2·3호는 지하식인 1호 석곽과 개석 높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동일 구조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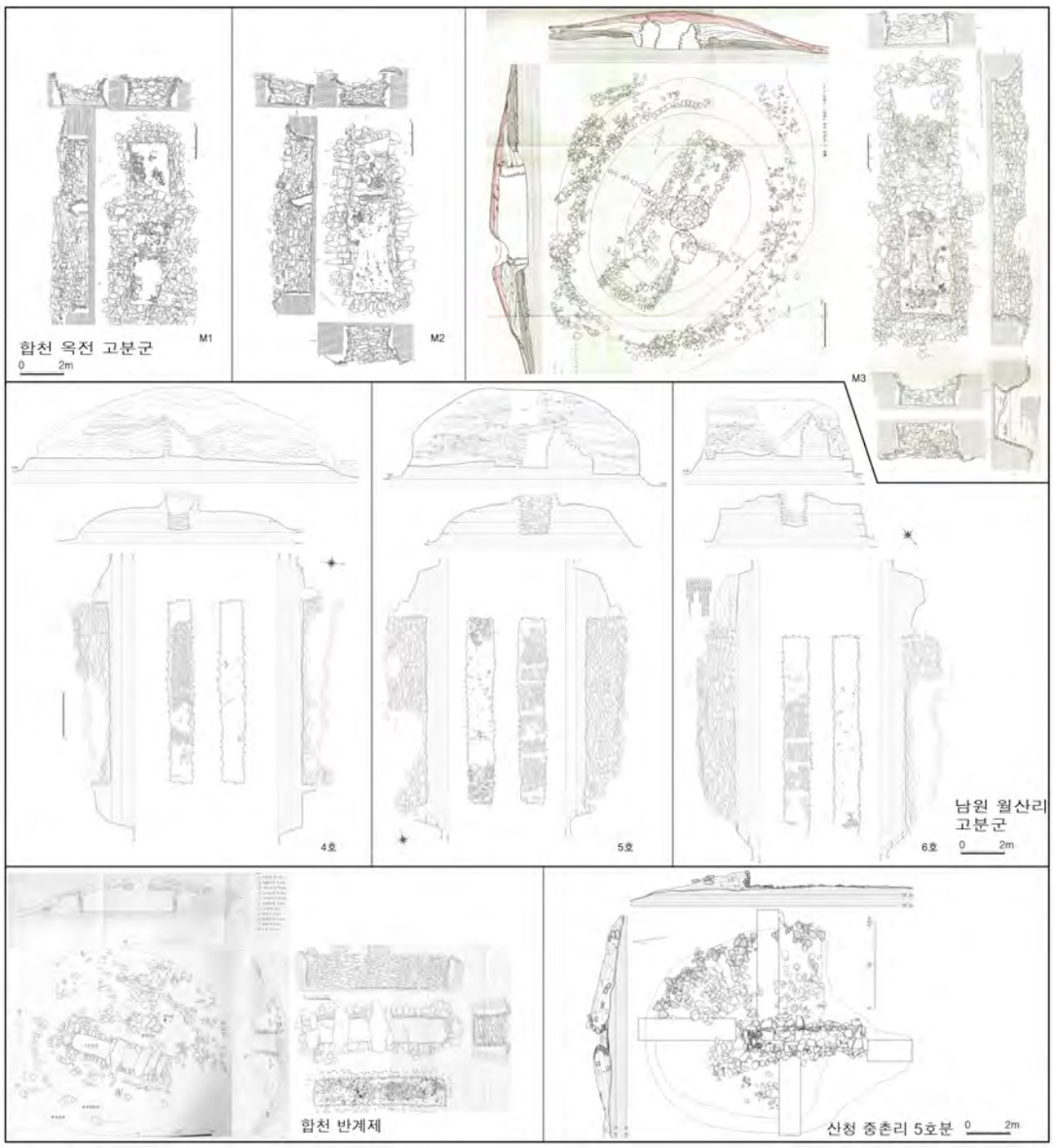


그림 2. 남원 월산리, 합천 옥전·반계제, 산청 중촌리 고분군 석곽의 배치와 구조

(2) 배치 방법

봉분 내 매장시설 배치는 대형 석곽 1기만 조성하거나, 주부곽을 여러 기 배치하기도 한다. 주부곽은 배치 형태에 따라 길이 방향이 동일한 '11' 자 형, 주부곽 단 변을 마주 보게 1열로 배치한 '1' 자 형, 주곽과 장축을 달리한 'T' 와 '工' 자 형, 주곽을 중심에 두고 봉분 가장자리로 열을 지어 순장곽이 배치된 환상형과 방사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외 불규칙형은 하나의 봉분에 비슷한 규모의 석곽 수기가 집단으로 조성된다. 의령 오천리, 합천 삼가·저포리, 고성 송학동과 내산리 고분군에서 많이 확인되며 다곽식 고분으로 이해되기도 한다.[13]

13) 김세기, 2003, 「묘제로 본 가야사회」, 『가야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최영준, 2012, 「다곽식 고분을 통해 본 합천지역 고분군의 지역성」, 『경남연구』 7, 경남발전연구원.

표 2. 주요 고분군 석곽(주부곽 혹은 순장곽)의 배치 방법

수계	고분명	주부곽 배치								단독 배치	비고
		11	1	工	T	환상	방사	불규	소계		
회천	고령 지산	4		4	5	2	2		*17*	132	순장
금강	장수 동촌,노하,삼고	6			1			6	*13*	9	
금강	장수 삼봉					3			*3*	2	순장
남강1	남원 청계리				1				*1*		주부곽
남강1	남원 월산	1					1	1	*3*	4	순장?
남강1	남원 두락	1							*1*	3	
남강2	함양, 산청 생초, 중촌	2						3	*5*	2	
남강3	의령 오천	16				7		3	*26*	17	주부곽
남강3	함안 도항, 말이									24	순장
황강	합천 삼가,반계	11				1		10	*22*	3	주부곽
황강	합천 옥전					2			*2*	18	순장
남동	부산 복천,연산		6						*6*	7	주부곽
남해	고성 송학, 내산	6		1	1	3		3	*14*	1	주부곽
계		47	6	5	8	18	3	26	**113**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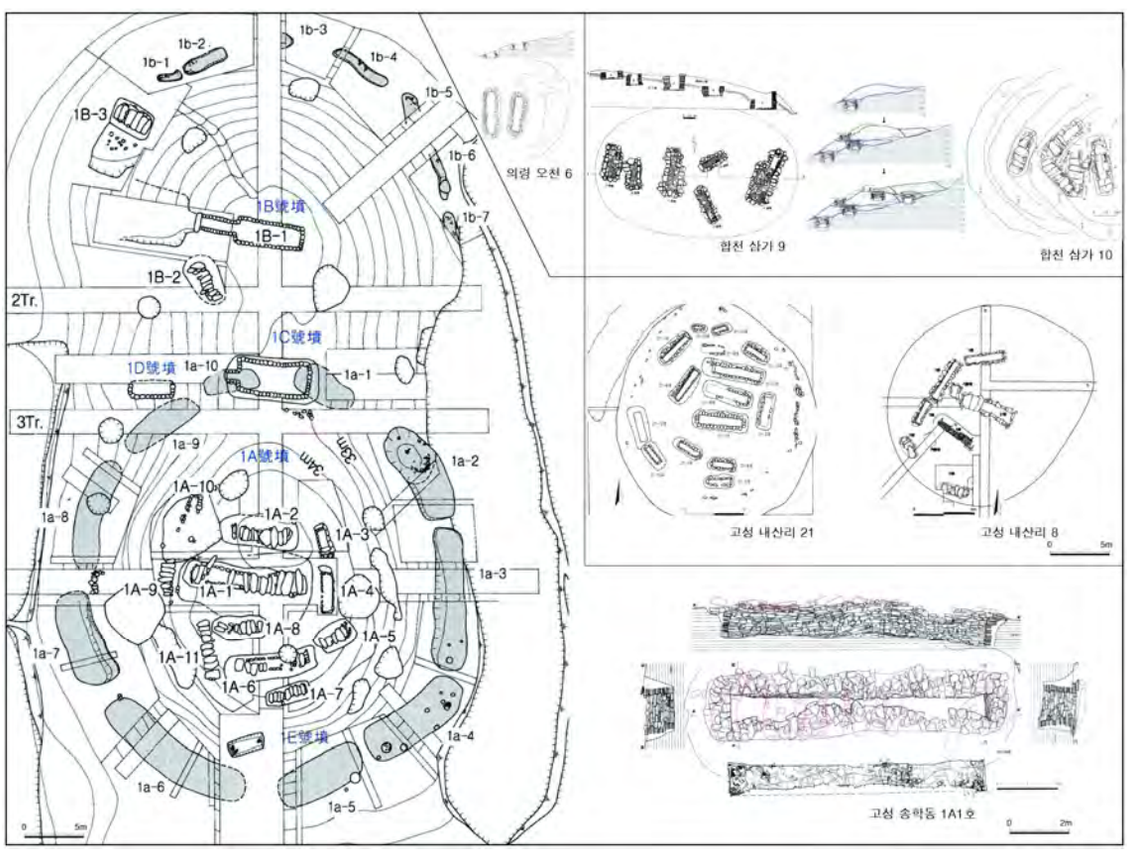


그림 3. 고성 송학동·내산리, 합천 삼가, 의령 오천리 고분군 석곽의 배치와 구조

전체 현황을 보면 석곽 단독 배치는 222기(66.5%)로 2기 이상 배치(113기 33.5%) 보다 두 배 가량 많다.[14]

함안 도항리 · 말이산 고분군은 모두 1기의 석곽만 조성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규모를 크게 해서 주피장자와 순장자를 한 공간에 안치한다. 반면 고령 지산동, 합천 옥전고분군은 봉분 중앙의 주석곽을 중심으로 환상이나 열상으로 소형 순장곽이 배치된다.[15] 소수이지만 장수 삼봉리와 남원 월산리 고분군에서도 확인된다.

주부곽 배치에서 가장 많은 것은 11자형이다. 전체 113기 중 47기로 41.5%를 차지한다. ‘T’ 자와 ‘工’ 자는 총 13기 중 9기가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확인되며 주곽을 중심으로 양 측벽과 단벽쪽에 순장곽이 배치된다. 나머지 장수와 고성 지역은 석곽의 규모 차가 크지 않아서 다곽식에 가깝고, 애초에 ‘T’ 자와 ‘工’ 자를 의도했는지 분명치 않다(그림 3).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의 석곽 배치는 장수와 고성지역보다 기획성은 있지만 석곽의 규모에 큰 차이가 없다. 처음 고분을 만들 때 묘광은 ‘ㄴ’ 자 형으로 굴착하면서 2호와 3호 사이는 기반토를 격벽처럼 남겼다. 2호는 길이 방향을 능선 방향과 나란하게 하고, 3호는 장축을 반대로 했다. 3호 석곽은 고분 축조 지점의 정지 과정에서 노출된 암반에 한쪽 벽을 기대어 벽석을 쌓았다(그림 4). 벽석을 모두 완성한 후 검은색 띠층으로 피복 하고 봉분 가장자리에 보강석을 시설했다. 1호 석곽은 고분이 모두 완성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2호 석곽 남쪽의 봉분 가장자리를 되파고 덧대어 만들었다.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은 최종 완성 단계에서 석곽의 배치가 T자형을 이루지만 고분 조성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암반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T자로 배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 · 3호 석곽의 규모에 월등한 차이가 없어서 3호 석곽은 부곽으로 판단된다. 주부곽의 경계를 묘광 굴착시 기반토를 남겨서 격벽처럼 활용하는 점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전형적인 T자형 배치와는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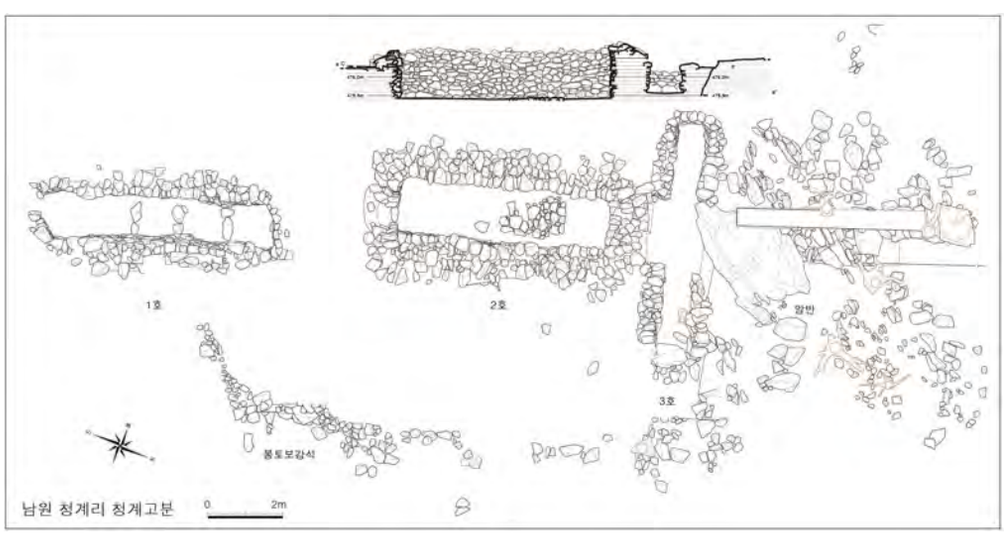


그림 4.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 석곽의 배치와 구조

14) 단독 배치는 봉분이 있는 것으로 한정했고, 석곽만 남아있는 경우 제외했다.
15) 기수만으로 보면 의령 오천리 고분군에 가장 많은 환상형 배치가 확인되지만 다곽식 전통이 강한 지역이어서 애초에 순장을 기획한 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1자형은 부산 복천동고분군과 김해 대성동과 같이 낙동강 하류 동남부 지역에서만 확인되는 특징적인 석곽 배치이다. 주부곽의 묘광을 따로 조성하는데, 석곽의 길이 방향이 능선의 등고선과 나란하다. 부곽은 주곽보다 깊이를 1/5정도 낮게 해서 구분한다. 유사한 사례는 목곽 단계의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도 확인된다(그림 5). 인접한 연산동 M3 · M8호는 주부곽의 묘광을 동시에 조성하되 경계 부분은 기반토를 둑처럼 남겨서 격벽 역할을 하고 있어서 남원 청계리 2·3호 석곽과 유사하다(그림 6). 합천 옥전 M1 · M2 · M3호에도 동일구조가 있다. 아울러 이 고분에는 봉분 가장자리에 보강석이 시설된다는 점도 공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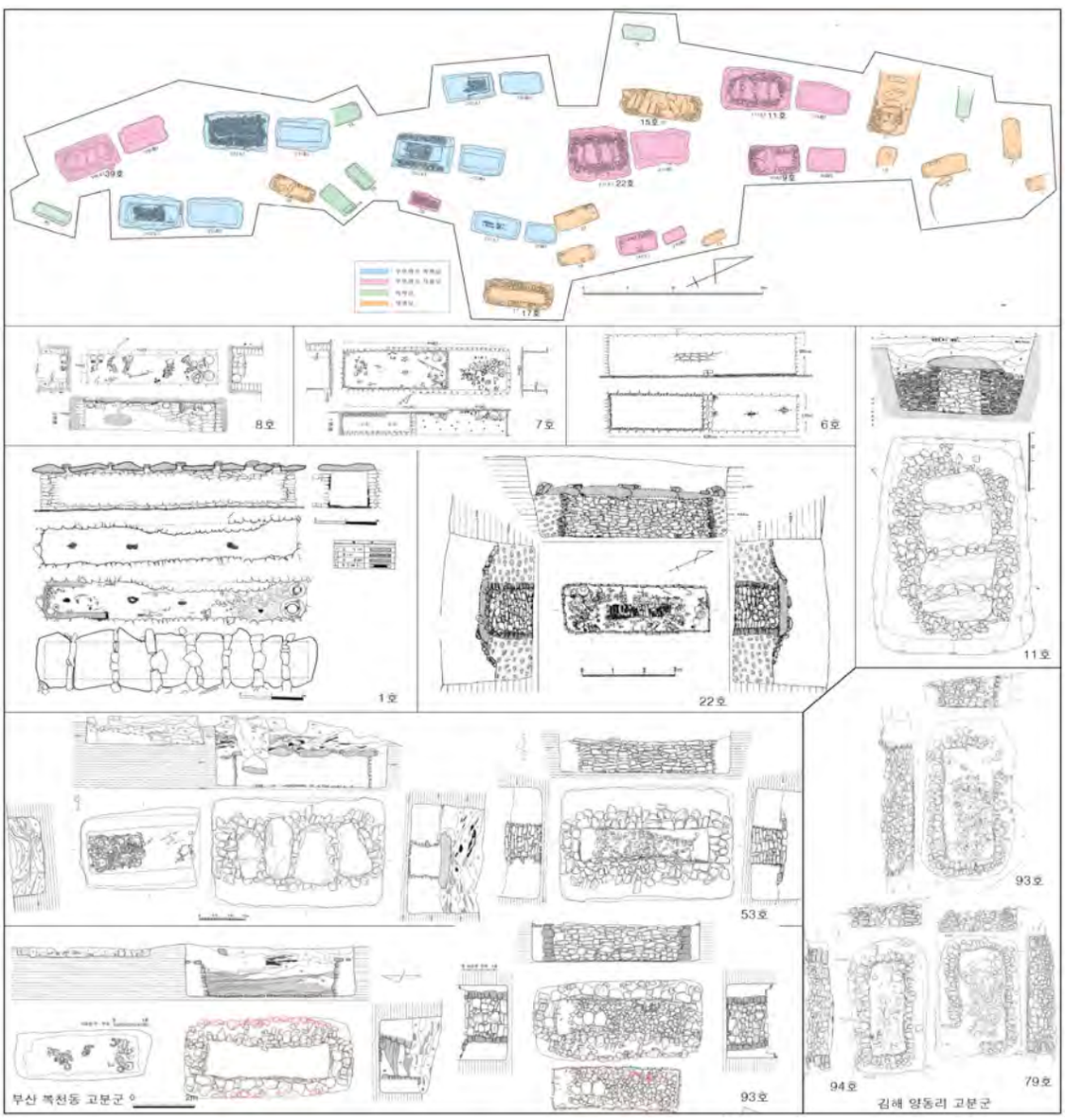


그림 5. 부산 복천동 고분군 석곽의 배치와 구조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과 부산지역 고분군은 차이점도 적지 않다. 우선 부산 지역의 고분은 모두 지하식이고 내부 매장시설은 목곽이 대다수이다. 묘광을 조성하고 내부에 목곽을 시설한 다음 시신 안치 후 목곽 보호 차원에서 석재를 덧대는 것이다. 따라서 최종 완성 모

습은 시신을 안치한 목곽과 석재 보강석이 밀착된다. 합천 옥전 고분군도 부산지역 석곽과 동일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 영산강유역권의 영암 내동리 쌍무덤, 영암 옥야리 방대형분, 나주 가흥리 신흥고분의 매장시설도 구조상 동일하다.

반면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의 2호 석곽은 반지하식이며, 석곽 바닥에 목관 받침대가 목관의 크기에 맞춰 놓여 있다. 따라서 목관과 석곽은 별개이며 석곽이 목관을 지지해주는 보강의 개념은 없고, 매장공간으로서의 역할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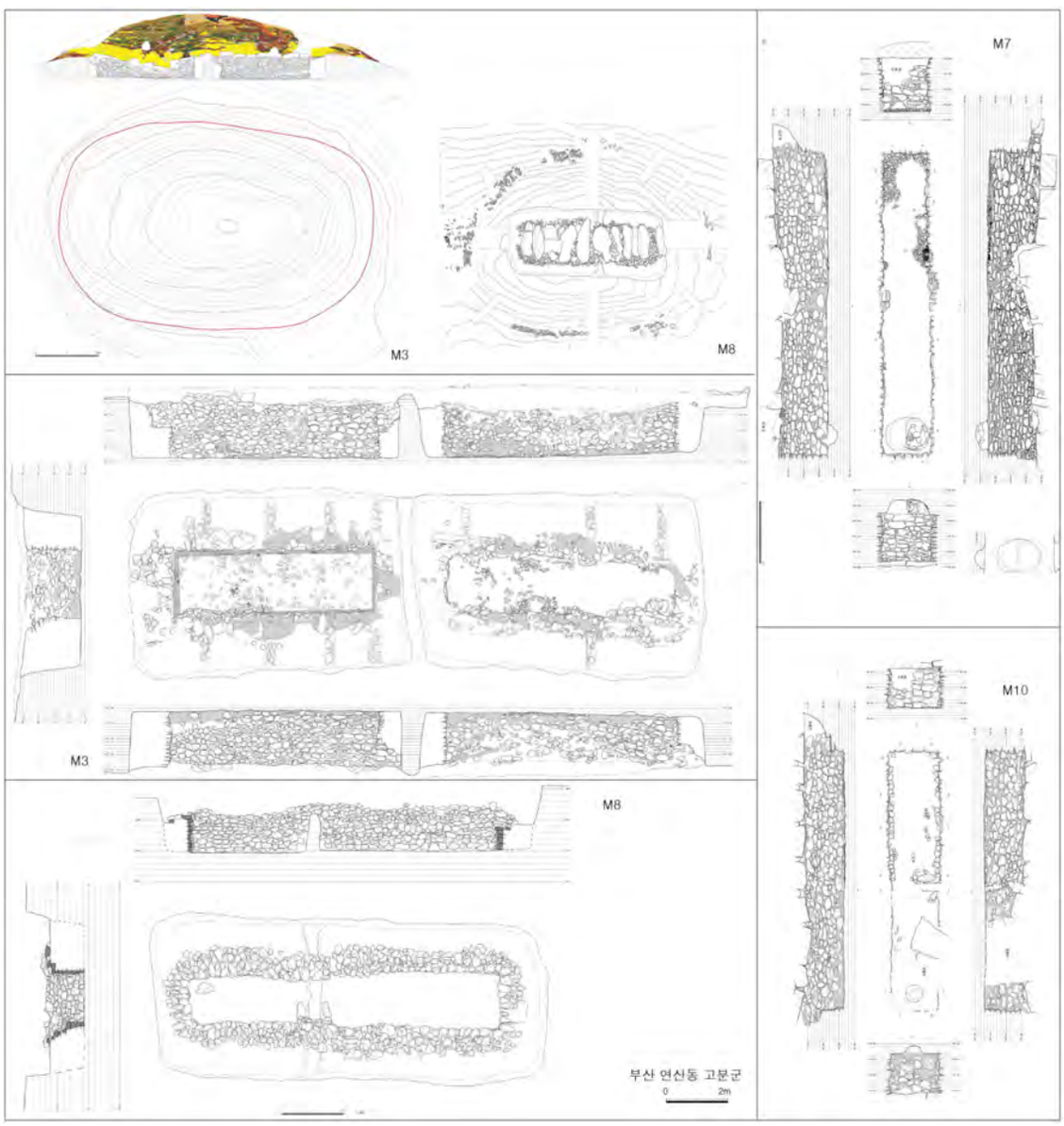


그림 6. 부산 연산동 고분군 석곽의 배치와 구조

차이점은 분명하지만 석곽 1기에 격벽을 만들어서 주부곽을 구분하는 축조기법은 현재까지 부산 연산동과 합천 옥전, 남원 청계리 청계 고분군에서만 확인되는 특징이다. 물론 석곽이 지하식인지 지상식인지의 차이가 있고, 합천 옥전 고분군의 경우 목곽을 사용하고 개석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색도 분명하지만 낙동강유역권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격벽을 만드는 기법은 공유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남원 청계리 고분군의 피장자는 적어도 합천 옥전과 부산 연산동 고분군 집단과의 교류관계를 상정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남원 월산리 고분군은 청계리 고분과 입지와 행정구역이 다를 뿐 동일 고분군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인접해있다. 지리적 근접성과는 별개로 석곽 배치에서는 차이가 크다. 1호분은 평면에서 보면 M1-A호를 중심으로 소형 석곽인 B・C・F호가 주변에 방사상으로 배치된 것처럼 보여서 순장곽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E・G호는 길이가 3m 이상이면서 1A호와의 배치에서 규칙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M1-A호는 방사상과 불규칙한 다곽식 배치가 혼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M2호는 단독분으로 보기에는 너무 인접해 있어서 M1호에 접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사자는 M1-A호 석곽이 M1-E~G와 M2・3호를 일부 파괴하고 조성된 것으로 보고 고분 조영 집단의 교체를 상정했는데,[16] 출토유물의 시간차와 층위상에서 석곽 간 관계가 명확히 제시되지는 않았다. 나머지 M4・5・6호는 지상식이면서 단곽식이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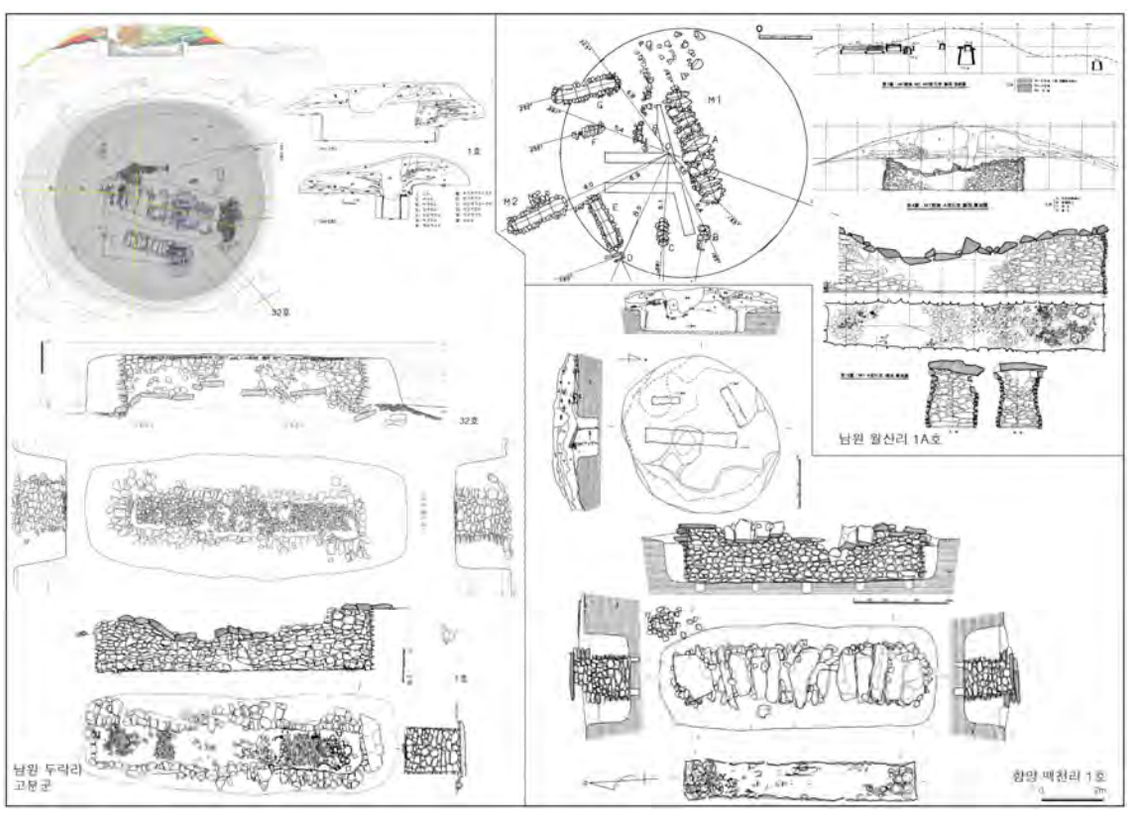


그림 7. 남원 두락리·월산리, 함양 백천리 고분군 석곽의 배치와 구조

16) 全榮來, 1983, 『南原 月山里古墳群 發掘調査報告』,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10, 80쪽.

남원 두락리 고분군은 32호분의 경우 주부곽의 구분이 명확한 11자 형이고 나머지는 모두 단곽이어서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가장 유사하다. 조사가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고령 지산동 고분군처럼 방사상이나 T자 형과 같은 다양한 배치는 보이지 않고, 고분 외곽을 감싸는 호석 시설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아영분지와 인접한 함양 백천리 1호분은 지하식으로 11자 배치이면서 불규칙한 부분도 있어서 남원 월산리 M1호와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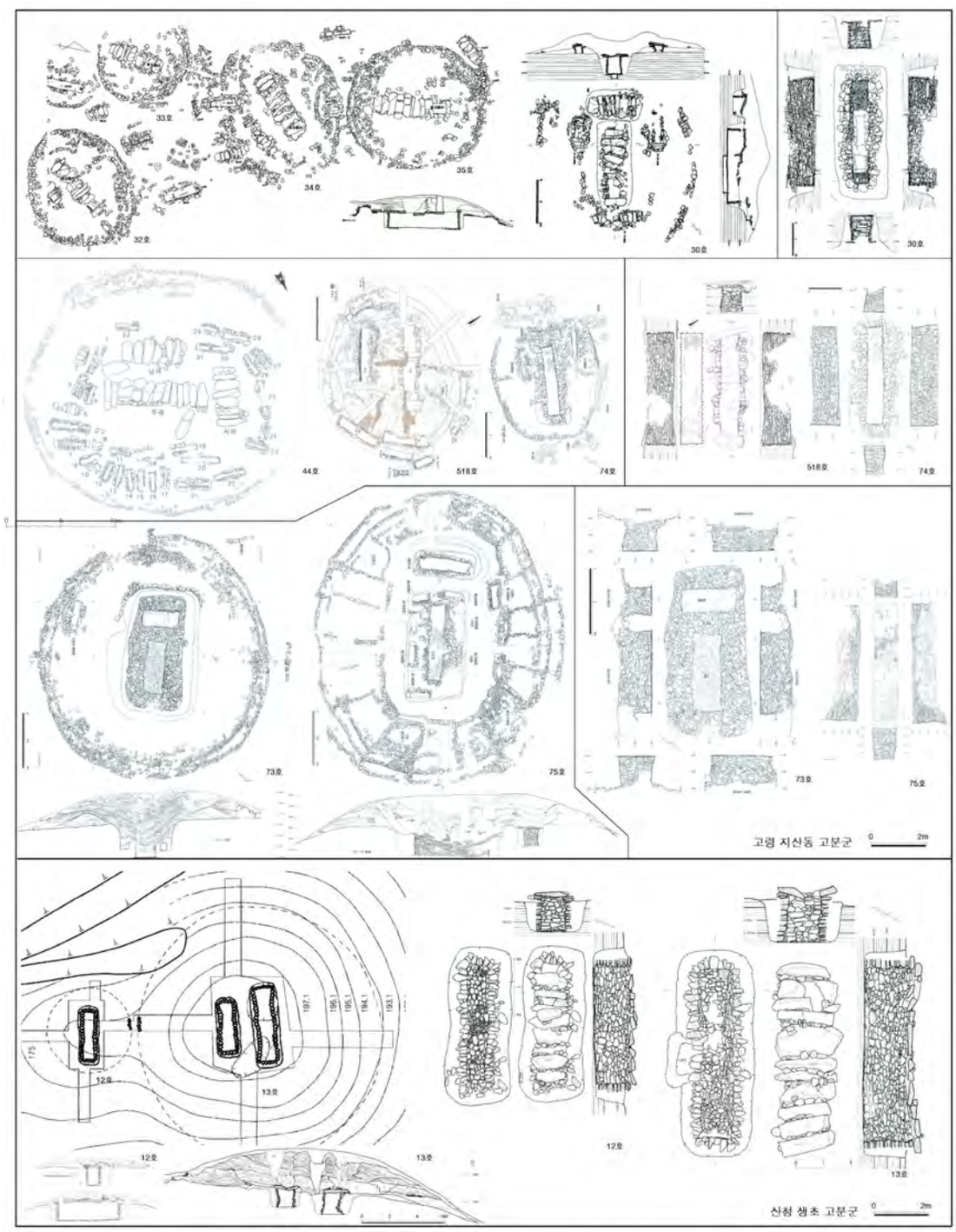


그림 8. 고령 지산동과 산청 생초 고분군 석곽의 배치와 구조

지역별 석곽 배치의 특징을 정리하면, 먼저 부산 복천동고분군은 능선 정상부를 하나의 묘역으로 하여 누 세대에 걸쳐 이용한다. 순장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매장공간은 주부곽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온전히 개인으로 국한된다. 인접한 연산동 고분군은 그러한 전통을 공유하면서 거대한 봉토의 개념과 주부곽을 하나의 공간으로 만드는 변화가 확인된다.

함안 도항리・말이산 고분군에서는 하나의 매장시설만을 사용하고 동일 공간에 주피장자와 순장자를 위치시킨다. 합천 옥전고분군은 주부곽을 하나의 공간으로 하고 다수의 순장곽을 봉분 가장자리에 배치하여 함안 도항리・말이산 고분군의 매장의례에서 차지하는 순장과는 차이가 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T자・工자 형과 방사상의 배치 및 호석 시설이 확인되어 순장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체계적이고 규격화된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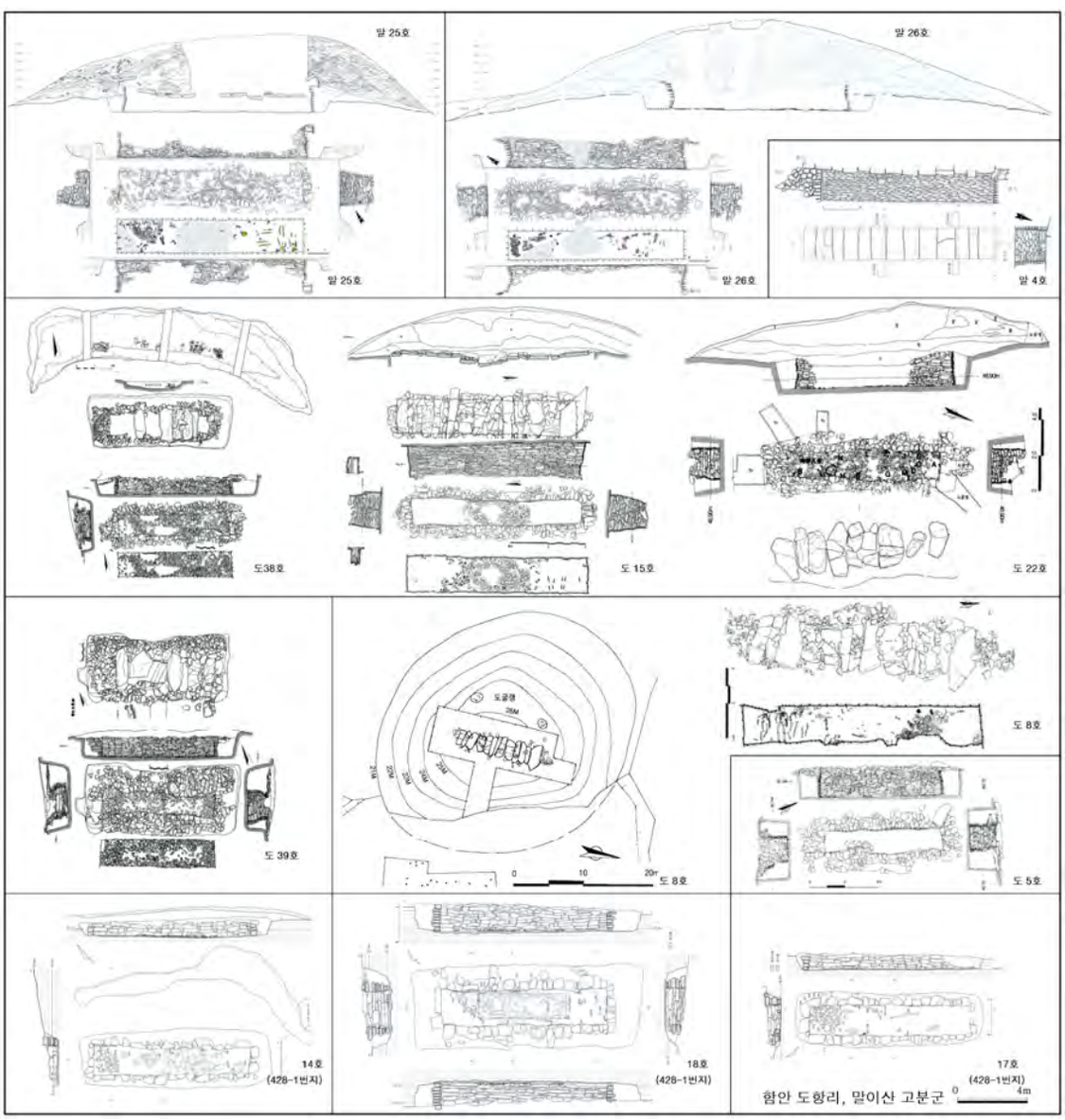


그림 9. 함안 도항리·말이산 고분군 석곽의 배치와 구조

부산, 고성, 의령, 산청, 함안 지역에는 순장으로 특정할 만한 요소는 확인되지 않고 대부분 비슷한 수준의 피장자가 하나의 봉분에 안치되는 형태(다곽식)나 1인의 피장자에 딸린 부장곽의 형태(11자형)여서 사회 내 권력의 우월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영분지의 월산리 M1호와 금강상류의 장수 삼봉리 1·2호분에서 확인되는 순장곽(그림 10)은 이 지역에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특정 기간 독점적인 권력을 가진 정치 집단이 존재했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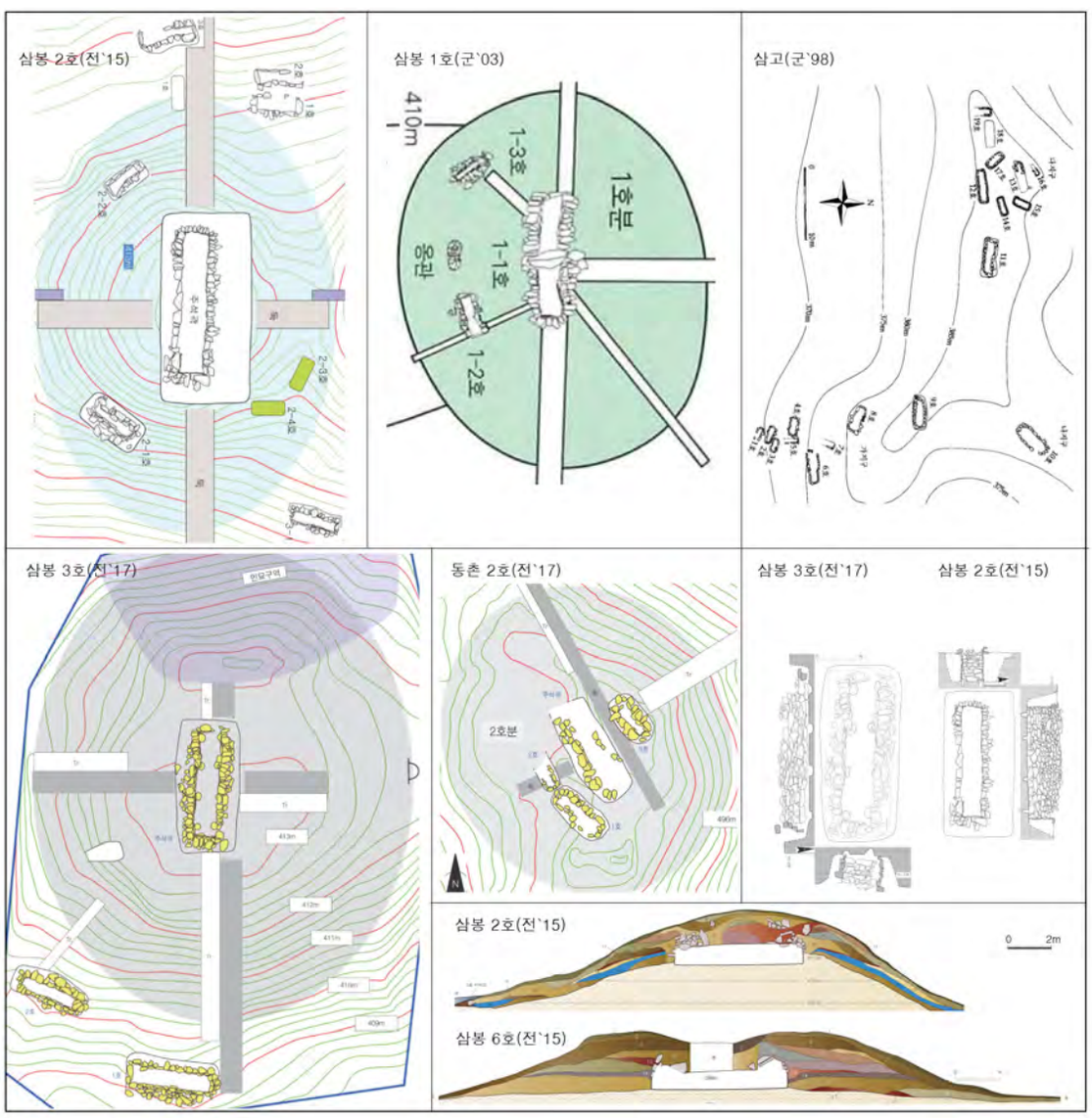


그림 10. 장수 삼봉리·삼고리·동촌리 고분군 석곽의 배치와 구조

(3) 규모와 형태

석곽의 규모와 형태 분석은 길이가 3m 이상인 주곽 중 길이, 너비, 깊이 측정이 가능한 91기를 대상으로 했다. 규모는 길이와 너비를 변수로 했고, 형태는 평면 장단비(길이/너비)와 단면 장단비(너비/높이)를 이용하여 산점도로 나타냈다.

석곽의 규모는 길이 10m 이상은 대형, 5~9m가량은 중형, 3~5m가량은 중소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형에 해당하는 석곽이 가장 많은데 너비에 따라 세분된다. 너비는 1m 내외인 것이 일반적이고, 1.5~2m, 2m 이상인 것이 있다.

석곽의 형태는 남원 월산리와 청계리 3호, 고성 송학동과 같이 평단면의 세장도가 모두 높은 것, 부산 복천동 · 함안 말이산 · 도항리 · 합천 옥전 · 고령 지산동 73호 · 남원 청계리 2호와 같이 평단면의 세장도가 모두 낮은 것이 양 끝단에 위치한다. 대부분의 석곽은 고령 지산동 · 남원 월산리 M1-A · 남원 두락리 · 함양 · 산청지역과 같이 평면 세장도는 중간 정도이고, 단면 세장도는 크다. 남원 청계리 2호 석곽은 형태적으로 합천 옥전, 부산 복천동 · 연산동, 고령 지산동 73호분과 유사성이 가장 높다.

석곽의 규모는 대형에는 대부분 함안 도항리 · 말이산 고분군이 해당되고 이외에는 고령 지산동 44호가 유일하다.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중형이면서 너비는 1m 내외로 다른 고분군들에 비해 밀집도가 가장 높다. 아울러 중형과 중소형의 구분도 분명하다. 기수는 적지만 남원 월산리를 포함한 다른 고분군에서도 중소형 석곽의 구분은 비교적 명확하다. 월산리 고분군의 석곽은 길이가 8~10m 사이에 위치하여 중형의 석곽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또한 월산리 M1-A호는 송학동 1A호 · 고령 지산동 · 남원 두락리와 유사한데, 4~6호는 세장하여 고성 송학동과 규모가 비슷하다. 두락리 고분군의 석곽은 고령 지산동과 크기와 형태에서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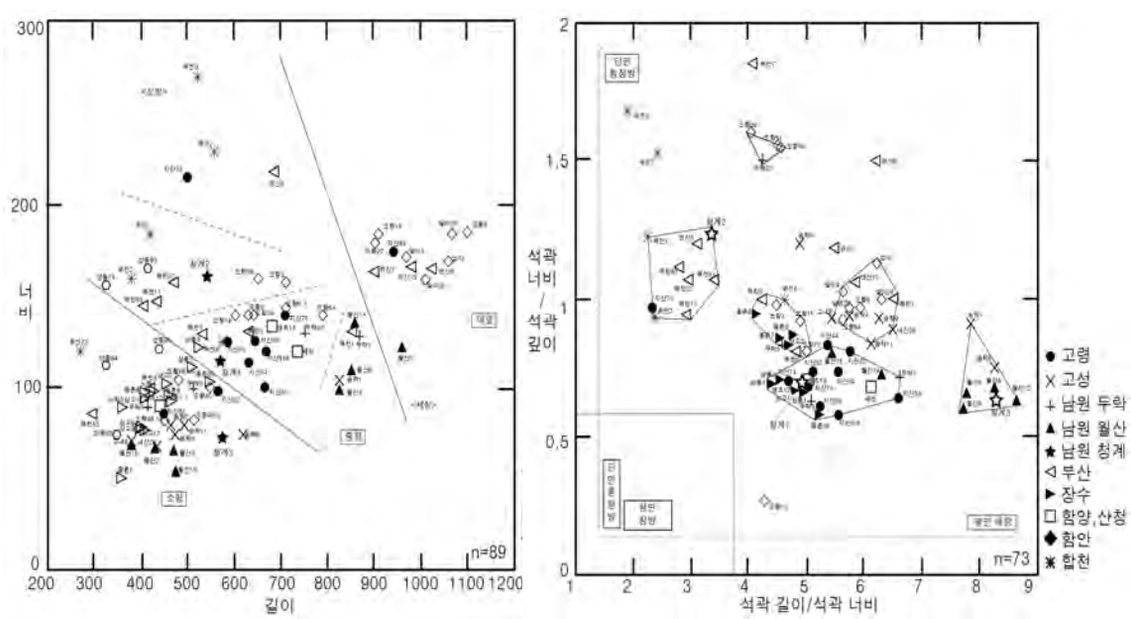


그림 11. 석곽의 규모(左)와 형태(右)비교 산점도

중형 석곽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너비의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작게는 1m 내외에서 크게는 3m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기도 한다. 1m 내외의 석곽은 밀집도가 높은 반면, 1.5m 이상

의 석곽은 밀집도가 낮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너비가 1.5m 이상으로 넓은 석곽은 합천 옥전, 부산 복천동・연산동・김해 양동리, 함안 도항리 고분군의 석곽이 다수이고, 고령 지산동 73호와 남원 청계리 2호 석곽도 이 범위에 위치한다. 이 석곽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목곽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예외로 남원 청계리 2호 석곽과 김해 양동리 석곽은 관받침석의 존재로 보아 목관이 사용된다(그림 5).

석곽 길이가 10m를 넘는 대형이면서 너비가 1.5m 이상인 석곽은 함안 지역의 경우 순장자와 주피장자를 동일 공간에 안치하면서 석곽 자체의 규모가 커진 것이다. 고령 지산동 44호분의 주곽은 주 피장자만을 위한 석곽임에도 함안 지역 대형 석곽과 동일군에 위치하여 주 피장자만을 위한 단일 석곽으로는 가장 크다.

석곽 길이가 10m 이하인 중형이면서 너비가 1.5m를 넘는 경우는 석곽 안에 대형 목곽을 안치하는 부산, 합천 지역 석곽만 해당한다. 그러나 남원 청계리 2호 석곽은 예외이다. 이 석곽은 길이 5.4m, 너비 1.6m이며 내부에 관 받침석이 있어서 목관을 사용했음에도 너비가 넓다. 규모로만 보면 부산 복천동 11호・22호・93호, 함안 도항리 3호・39호, 합천 옥전 M1호・M2호와 유사하다(그림 11-左). 형태만 비교하면 함안 도항리의 석곽들이 빠지고 부산 연산동 3호, 복천동 53호, 고령 지산동 73호가 유사하다(그림 11-右). 부산 복천동 고분군은 길이에 비해 너비가 넓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지하식으로서 묘광과 석곽 사이에 다량의 보강석을 채워 넣는다.

부산 연산동 고분군은 복천동과 달리 대형 봉분을 조성한다. M3호는 복천동과 마찬가지로 주곽과 부곽을 나누되 석곽 규모는 복천동처럼 큰 차이를 두지 않았다. 지하에 별도의 묘광을 1자 형으로 나란히 파내고 석곽을 만들었다. M6호는 하나의 석곽을 기다랗게 만들고 그 내부에 주곽과 부장곽은 묘광 조성시 남겨 놓은 기반토를 격벽처럼 이용하여 분리했다. 봉분 가장자리에는 타원형의 호석을 시설했다. 합천 옥전 M1~3호와 거의 동일한 구조이며 남원 청계리 고분과도 연결된다. M7・10호는 석곽 내부를 분리하지 않고 세장하게 만들어서 함안 말이산 고분과도 유사하다.

고령 지산동 73호분은 목곽을 감싸는 보강석과 적석부가 투텁게 남아있어서 엄밀한 의미에서 석곽으로 보기는 어렵다. 목곽에서 석곽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매장시설로 판단된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부산, 함안, 합천 지역의 고분 중 매장시설이 목곽인 초기 석곽의 벽석재들은 목곽과 묘광 사이를 채우는 충전재의 용도를 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목곽의 흔적[17]은 부산 연산동 M3호 석곽에서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18]

결론적으로 남원 청계리 고분과 부산 복천동・연산동 M3・8호는 최종 완성된 석곽의 외형에서 공유되는 지점이 많고, 합천 옥전고분군의 경우에는 지상식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다. 남원 청계리 2호 석곽은 내부에 목곽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목곽을 사용하는 석곽과 비슷한 너비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분 축조방법에 있어서 '부산 복천동・연산동 - 합천 옥전 - 남원 청계리' 공통성을 상정할 수 있다.

17) 釜山博物館·釜山廣域市 蓮堤區, 2014, 『蓮山洞 M3號墳』, 90~91쪽.

18) 영산강유역권에도 비슷한 시기 이러한 매장시설들이 있다. 영암 내동리 쌍무덤, 영암 옥야리 방대형분, 나주 가흥리 신흥고분은 석곽 안쪽 벽석에 목곽이 거푸집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기둥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벽석이 주변을 감싸고 있다.

2. 부장유물

토기 기종은 유개장경호, 광구장경호, 발형기대, 통형기대, 기고가 낮은 통형기대, 유뉴개와 고배류(유개와 무개 포함), 파배, 경배, 파수와 대각이 부가된 특수 토기류, 차륜형 토기로 구분해서 수량을 파악했다. 이중 특수 토기류는 파수 형태와 개수가 다양하고, 대각이 부착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등 형태 변이가 다양하여 하나로 통칭하였다. 특수 토기류 중 유개대부파수부호 같은 경우에는 시기별 변천상이 제시[19]되기도 했지만 개별 기종의 형태 변화보다는 부장 양상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세분은 하지 않았고 부장 여부만 확인했다[20]. 차륜형 토기는 남원 청계리 2호 석곽 출토품이 있으므로 다른 지역과 비교를 위해 분리해서 파악했다.

1) 기종별 현황

낙동강 이서 지역의 공통 기종은 발형기대, 통형기대, 유뉴개와 고배류, 단경호류이며, 지역색이 드러나는 기종은 유개장경호·소형기대와 파배·경배·차륜토기이다. 유개장경호와 기고가 낮은 통형기대(소형기대)는 고령 지산동고분군에 가장 많이 부장되며 남강 중상류에 집중된다. 파배·경배·차륜토기는 함안 도항리·말이산 고분군의 부장량이 가장 많고, 낙동강과 남강 하류역에 집중된다. 두 지역 사이에 위치한 산청, 합천, 의령지역에는 낙동강 이서 지역 고분에 부장되는 거의 대부분의 토기 기종이 있다. 세분하면 의령과 고성지역은 함안 도항리·말이산 고분군, 산청과 합천은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토기 부장 양상에 가깝다. 부장 현황 뿐만아니라 동일 기종의 부장량에서도 차이가 분명하다. 남강과 낙동강 하류지역은 전체 부장 토기 기종 중 유·무개 고배가 42~53%인 반면 남강 상류 내륙지역은 고령 지역만 최대 15%이며 나머지 지역은 10%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남강 중하류 지역은 대략 30~40%를 차지한다.

이렇게 낙동강 이서지역은 토기 부장의 차이만을 기준으로 하면 크게 남강 상류(회천포함)의 고령·남원·함양, 남강과 낙동강 하류의 부산·함안지역으로 양분된다. 그 사이에 위치한 남강 중류(황강 포함)의 산청·합천·의령은 양 지역의 토기 기종이 혼재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하나의 권역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 외에 고성 지역은 가야권에서는 유일하게 분구묘 전통이 유지되고, 분석표에 추가하지는 않았지만 영산강유역권의 유공광구호[21]가 다량 부장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문화상이 인정된다.

19) 趙榮濟, 2010, 「(有蓋)臺附把手附小壺考」, 『韓國考古學報』 76, 韓國考古學會, 197~220.
20) 석곽 출토품만을 대상으로 했고, 김해 지역은 비교 가능 수량이 제한적이어서 제외했다.
21) 고령 지산동 44·73호에는 현지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유공호가 있고, 스에키계로 보이는 유공호는 고령 지산동 5호(영남문화재연구원)를 비롯하여 부산 복천동 1호 석곽에도 1점이 있다.

표 3. 수계별 주요 고분 토기류 부장 현황표

수계	유구	유개 장경	광구 장경	기대 발형	기대 통형	유뉴개	고배류	단경 유개	기대 소형	특수 토기	파배	경배	차륜	소계
회천	고령 지산	**13.8%** (166)	5.7% (69)	10.7% (129)	0.4% (5)	32.4% (391)	14.9% (179)	10.9% (131)	**1.5%** (18)	9.6% (116)	0.1% (1)			1205
금강	장수 동촌, 삼봉, 삼고	**24.1%** (19)	19% (15)	5.1% (4)		15.2% (12)	10.1% (8)	13.9% (11)	**11.4%** (9)	1.3% (1)				79
남강1	남원 청계1	**11%** (2)		26% (5)	5% (1)	37% (7)	5% (1)	16% (3)						19
남강1	남원 두락	**27.1%** (16)		28.8% (17)	1.7% (1)	15.3% (9)	1.7% (1)	8.5% (5)	**16.9%** (10)					59
남강2	남원 월산	**25.8%** (24)	2.1% (2)	26.8% (25)	6.4% (6)	6.4% (6)	4.3% (4)	11.7% (10)	**12.9%** (12)	3.2% (3)				93
남강2	함양 백천	**29.4%** (10)		29.4% (10)		14.7% (5)		26.5% (9)						34
남강3	산청 생초	**15.8%** (21)		11.3% (15)		24.1% (32)	34.6% (46)	8.3% (11)	**0.8%** (1)		**2.3%** (3)	**2.3%** (3)		132
황강	합천 옥전	**7.9%** (48)	0.5% (3)	7.4% (45)	1.1% (7)	16.2% (99)	29.4% (179)	30.5% (186)	**2.8%** (17)	2.9% (18)	**1.0%** (6)	**0.5%** (3)		611
남강4	의령	2.5% (2)	1.3% (1)	1.3% (1)	1.3% (1)	8.8% (7)	46.3% (37)	2.5% (2)	**1.3%** (1)	16.3% (13)	**18.8%** (15)			80
남해	고성	0.9% (4)	10.4% (44)	1.9% (8)		47.5% (201)	14.9% (63)	4.7% (20)	**0.7%** (3)	17.5% (74)	**1.4%** (6)			423
남동	부산 연산,복천	0.2% (2)	3.2% (29)	8.6% (78)	1.2% (11)	14.7% (133)	53.7% (486)	9.0% (81)		7.1% (64)	**0.9%** (8)	**1.4%** (13)		905
남강4	함안 도항	0.2% (2)	3.7% (47)	4.4% (56)	0.6% (7)	32.5% (411)	42.7% (540)	5.6% (71)		6.8% (86)	**1.6%** (20)	**1.8%** (23)	**0.2%** (3)	1266
남강1	남원 청계2		10% (2)	10% (2)	10% (2)	40% (8)	20% (4)	5% (1)					**5%** (1)	20
계		316	212	395	41	1321	1548	541	71	375	59	42	4	4,925

장수 지역은 통형기대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고령 지산동고분군과 기종구성이 동일하며, 삼족기나 단경 병 등 백제계 토기도 부장되는 특징이 있다.[22] 남원 지역의 경우 청계리 1호는 소형 기대가 없다는 점, 두락리는 파수부 토기 등 특수토기가 없다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고령 지산동과 동일하다. 두락리 32호는 백제계 금동신발과 동경으로 보아 백제와 관련성이 분명하다. 월산리의 경우 발형기대에서 고성 지역의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유개장경호의 비율이 높다. 월산리 5호에는 초두, 청자계수호가 부장되어서 두락리 32호처럼 고령 지산동과 백제 모두 일정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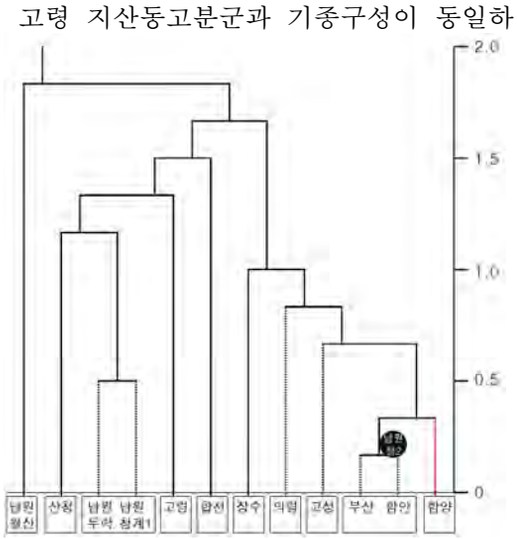


그림 12. 토기 부장양상 유사도 군집분석(카이제곱 계수)

산청 생초와 합천 옥전 고분군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배·경배와 유개장경호가 모두 부장된다. 특히 합천 옥전 고분군에서는 고령 지산동고분군 다음으로 유개장경호 부장량이 많다.

의령 오천리와 운곡리 고분군에서는 유개장경호의 부장량이 현격히 적다. 고배는 전체 46%

22) 곽장근, 2007, 「湖南 東部地域 加耶勢力의 發展過程과 그 性格」, 『교류와 갈등-호남지역의 백제, 가야, 그리고 왜-』, 제15회 호남고고학회 정기 학술대회.

로 함안 지역에 버금가므로 의령지역은 함안·부산지역과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과 함안지역은 소량이지만 유개장경호도 확인되어 소형 기대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고령 지산동 고분군 관련 지역보다 기종 구성이 다양하다. 부산지역은 고배류의 부장량이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함안 지역은 부산지역과 유사하되 수레바퀴 장식 토기와 오리모양의 상형토기·등잔토기 등 다른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토기 기종이 추가된다. 이 중 수레바퀴 장식 토기는 함안 지역의 가장 특징적인 상형토기이며 남원 청계리 2호 석곽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현재까지 자료로 보는 한 남원 청계리 2호 석곽은 구조와 규모, 토기 부장 양상에서 남강과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는 함안·부산·합천 지역과 긴밀히 관련된다. 아울러 청계리 고분군의 축조 순서를 감안하면 1호 석곽 단계에는 주 교섭 대상이 고령 지역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다.

2) 발형기대의 투창형태

투창형태는 목곽과 석곽에 부장되는 발형기대를 대상으로 했다. 발형기대의 투창은 삼각형(종형 포함), 사각형(세장방, 장방, 방형), 특수·변형(원형, 역삼각, 십자, 화염, 반원 등)으로 구분했다. 크게는 특수·변형 투창의 유무로 구분된다.

지역별 투창 형태는 고령을 비롯한 낙동강 이서 내륙지역과 낙동강 남동부 중하류지역에서 큰 차이가 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한 내륙지역은 종형과 삼각형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남동부 중하류지역의 부산 복천동·연산동, 함안 말이산과 고성 지역에는 사각형 계열의 세장방형 투창 비율이 높다. 예외도 있는데 김해 대성동과 예안리 고분군에서는 80% 가량이 삼각형이고 특수 변형의 투창은 없어서 고령 지산동과 유사도가 높다. 고령지역의 특징적인 투창 형태인 종형은 합천 옥전, 부산 연산동에서 2점, 남원 청계리 1호에서 소량이지만 확인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삼각과 사각 투창 이외의 원형, 십자, 화염, 반원형 등 특수·변형 투창은 남원 아영분지의 월산리와 청계리 고분군, 부산, 합천, 함안, 고성지역에서 다양하게 확인되는데 수량이 많지는 않다. 이중 합천 옥전, 부산 복천동, 고성 지역 고분군에는 특수·변형 중 원형과 역삼각형 투창만 있어서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투창 형태는 남원 월산리, 부산 복천동, 함안 도항리 고분군에서 가장 다양하게 나타나며 반원형 투창이 특징적이다.

남원 아영분지 발형기대의 투창 형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계리 2호에는 고령지역 발형기대의 특징적인 투창인 삼각형과 종형이 없는 대신 별모양과 비슷한 삼각 변형 투창이 있다. 투창은 아니지만 음각원문 중앙에 작은 구멍을 뚫은 문양이 통형기대에 시문되는데, 부산과 함안 지역 기대에만 확인되는 특징적인 문양이다. 1호에는 고령지역을 대변하는 종형과 삼각 변형 투창이 있다. 월산리에는 종형이 없고 삼각형이 다수를 점하며 십자와 반원형 등 특수 투창이 확인되어 다양성을 보이는데, 함안·부산 지역과 가장 유사하다. 두락리에는 삼각형 투창만 확인된다.

표 4. 발형기대의 투창 형태와 배치

투창형태 / 고분	삼각		사각			특수변형						계	배치		
	종	삼각	세장방	장방	방	원	역삼	십자	화엽	반원	삼각변형		일자	교호	횡
고령 지산동	**49.3%** **35**	**42.3%** **30**	2.8% 2	1.4% 1	1.4% 1	2.8% 2						**71**	51	17	
함양 백천리		100% 10										**10**		10	
산청 생초		**90.9%** **20**	9.1% 2									**22**	5	15	1
남원 청계1	25% 1	25% 1	25% 1								25% 1	**4**	2	2	
남원 청계2			50% 1								50% 1	**2**		2	
남원 월산리		**79.3%** **23**	6.9% 2	3.4% 1		3.4% 1		3.4% 1		3.4% 1		**29**	11	5	
남원 두락리		100% 15										**15**	9	6	
김해 대성 김해 예안		**79.3%** **46**	8.6% 5	6.9% 4	5.2% 3							**58**	6	47	2
부산 복천		**33.0%** **35**	22.6% 24	25.5% 27	14.2% 15	0.9% 1	1.9% 2			1.9% 2		**106**	39	47	1
부산 연산	2.1% 2	2.1% 2	20.6% 20	**69.1%** **67**	6.2% 6							**97**	1	45	
합천 옥전	5.3% 2	**55.3%** **21**	18.4% 7	5.3% 2		10.5% 4	5.3% 2					**38**	13	19	6
함안 도항말이		27.9% 17	**45.9%** **28**	14.8% 9		3.3% 2			6.6% 4	1.6% 1		**61**	38	16	3
고성 내산, 송학		11% 1	**78%** **7**			11% 1						**9**		4	6
계	40	221	99	111	25	11	4	1	4	4	2	**522**	175	235	19

결론적으로 부장 토기의 기종구성, 투창의 형태는 부산, 함안 지역간에 유사성이 높고 고령 · 함양 · 생초지역과 분명히 구분된다. 김해 지역의 경우 부산 복천동 고분군과 인접해 있음에도 투창 형태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멀리 떨어진 고령지역과 유사하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합천 지역은 두 지역의 양상이 혼재한다. 남원 아영분지의 경우 한정된 지역임에도 청계리 2호 석곽-월산리 고분군-청계리 1호 석곽과 남원 두락리 고분군의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아울러 청계리 2호 석곽과 월산리 고분군 발형 기대의 투창은 부산·함안 지역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3) 유사도 검토

남원 아영분지와 가야권 고분 중심지의 석곽 배치와 구조, 형태와 규모, 토기 부장 조합과 발형기대의 투창형태 비교 결과를 유사도 경중에 따라 1~5로 수치화했다. 항목별로 유사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한 곳만을 5로 하고 나머지는 1씩 차감하여 점수를 부여했다.[23] 수치 결정은 석곽 배치와 위치는 앞서 제시한 현황표, 석곽 형태와 규모는 산점도 상에서 근접한 정도, 토기 구성은 <그림 12>의 유사도 군집분석, 투창 형태는 현황표와 문양구성을 근거로 했다. 다만 유사성이 거의 없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지역은 동일 점수(1점)를 부여했다.

23) 김해 지역은 발형기대의 투창형태 이외에 양호한 비교 항목이 없어서 제외했다.

표 5. 남원 아영분지와 가야중심지 고총고분의 유사도

구분	청계2					청계1					월산					두락				
	고령	합천	**함안**	**부산**	고성	**고령**	합천	함안	부산	**고성**	고령	**합천**	**함안**	부산	**고성**	**고령**	합천	함안	부산	고성
석곽 배치	2	3	4	5	1	4	1	1	3	5	1	4	5	3	2	5	4	1	1	3
석곽 위치	1	5	3	1	4	4	1	3	1	5	1	5	3	1	4	5	1	3	4	1
석곽 형태	2	4	3	5	1	5	1	4	2	3	4	1	3	2	5	5	1	1	1	4
석곽 규모	2	3	4	5	1	5	1	4	3	2	4	1	2	3	5	5	1	3	1	4
토기 구성	1	2	4	5	3	5	4	1	2	3	5	4	1	2	3	5	4	1	1	3
투창 형태	1	2	5	4	3	5	1	1	1	4	1	3	4	5	2	5	4	1	3	1
계	*9*	*19*	***23***	***25***	*13*	***28***	*9*	*14*	*12*	***22***	*16*	***18***	***18***	*16*	***21***	***30***	*15*	*10*	*11*	*16*
표준편차	6.72					7.81					2.05					8.02				
	1.95(※ 청계 1, 2 항목별 평균의 표준편차)																			

청계리 2호는 함안, 부산지역과 유사도 수치가 가장 높다. 지역별 총점의 표준 편차는 6.72이다. 청계리 1호는 고령, 고성지역과 유사도 수치가 가장 높은데 지역간 표준편차는 7.81로 높다. 월산리 고분군은 고성지역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지만 지역별 편차가 2.05에 불과하여 큰 차이가 없다. 두락리 고분군은 고령지역이 다른 지역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유사도를 나타낸다. 표준 편차도 8.02로 가장 높다.

지역간 유사도 수치로 볼 때 월산리 고분군은 동시기 모든 가야지역과 빈번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매장문화 요소가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청계리 2호와 함께 낙동강 하류지역과 교섭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계리 1호와 두락리고분군은 고령지역의 유사도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교섭 대상이 단순했음을 알 수 있다.

청계리 고분군은 2호와 1호 석곽이 봉분을 공유하는데도 부장 유물과 매장시설 구조에 차이가 크다. 청계리 1호는 2호 석곽의 봉분을 되파고 만들어진 것이 층위에서 명확히 확인되었기 때문에[24], 1호 석곽 단계에는 교섭의 대상이 고령지역으로 단순화되는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월산리 고분군은 가야 중심지와의 교섭 뿐만아니라 백제 관련 유물까지 부장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청계리 2호보다 주변 지역과의 교섭이 더욱 활발했던 것 같다.

유사도 분석에서 주목되는 점은 아영분지라는 협소한 지역에 고분간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큰 틀에서 보면 남원 청계리 2호와 월산리 고분군은 부산-함안-합천 지역 고분의 요소가 혼재하는 단계와 고령 대가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시기로 구분된다.

두락리 고분군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자료로만 보면 대가야의 물질문화가 근간을 이루고 있어서 양 지역간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두락리 32호의 부장유물과 2호 석실의 구조는 백제와의 관계도 말해준다.

아영분지라는 제한된 공간에 위치하는 고분간의 상이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고분간의 선후관계가 중요하다. 청계리 고분 조사로 '부산-함안-합천' 지역 고분 요소가 적용된 단계가 고령 대가야와만 관련되는 단계보다 빠르다는 사실이 층위로 확인되었지만, 아직까지 각 고분간의 상대순서가 구체화 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다음 장에서는 아영분지 고분의 상대순서를 부장유물의 교차편년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24)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9,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유인물)」.

3. 남원 아영분지 고총고분의 편년

남원 아영분지 고분의 조영 시점은 대가야 고분의 편년 연구 과정에서 다루어져 왔다(표 8). 1990년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2010년 이후 조사된 남원 월산리 M4~6호, 두락리 32호, 청계리 고분군은 편년 대상에서 빠져 있다. 월산리 M1호를 아영분지에서 가장 빠른 고분으로 보는데, 모든 연구자가 동의하였지만 조영 시점에 대해서는 5세기 2/4, 3/4, 4/4 분기로 설정하여 최대 50년의 시차가 있다. 편년 방법은 특정 토기 혹은 전체 기종 검토[25], 토기류와 마구의 형식 변화, 무령왕릉과 교차편년[26], 귀걸이의 형태와 구조 변화[27]로 파악하기도 했다. 이외에 발굴조사 결과와 역사 맥락을 고려한 합천 옥전 고분군의 상대순서 설정[28], 가야·신라 토기 전체를 대상으로한 교차편년[29]은 아영분지 고분의 연대 파악과 관련하여 중요한 연구 성과이다.

표 6. 남원 아영분지와 가야 중심지 주요 고분의 연구자별 편년안

연대	보고서		이희준 (1995)	이한상 (1995)	조영제 (1996)	박천수 (1998)	김두철 (2001)	박승규 (2003)	**오동선 (2020)**
	월산	두락							
4C 3/4						고령 쾌빈 1 합천 옥전 68			
4C 4/4						합천 옥전 23			
5C 1/4			고령 지산 35		-합천 옥전- 23,32,37,45,67A,67B,68,4,8,36,38,42,47	고령 지산 35	부산 복천 31·32, 35·36, 25·26	고령 쾌빈 1 합천 옥전 68, 23	함안 도항 10 합천 옥전 23,67,68
5C 2/4	M1 – A		고령 지산 32,33 합천 옥전 M1 **남원 월산 M1-A**			고령 지산32 **합천 옥전 M2**, M1 **남원 월산 M1-A**	부산 복천 21·22 고령 쾌빈 1 부산 복천 10·11 합천 옥전 23	고령 지산 35, 30 고령 지산 32, 34 합천 옥전 91	고령 지산 73 **남원 청계 2** 함안 말이 4 고령 지산 3,30,32,33 **합천 옥전 M2**
5C 3/4	M5		합천 옥전 70, M3 합천 반계 가A,다A		M1, **M2** 11,16,31,41,81, M1-1,2,3	**합천 옥전 M3** 함양 백천 1-3 합천 반계 가A 합천 반계 다A	부산 복천 53,39 고령 지산 35 **합천 옥전 M2**	**합천 옥전 M2,M1** 합천 옥전 20 **남원 월산 M1-A**	**합천 옥전 M1**, 91,12,35,24,28,95,76 고령 지산 75 **남원 청계 1** **남원 월산 1A** 합천 반계
5C 4/4		32	합천 옥전 M6 함양 백천 1 고령 지산 44	**합천 옥전 M2**,20,28,72,82	**M3**, 13,69,70,72,82,2,7,71,83,87	고령 지산 44 합천 옥전 M4 합천 반계 가B	고령 지산 32 합천 옥전 M1 **남원 월산 M1-A** **합천 옥전 M3**	**합천 옥전 M3**, 70 장수 삼고 13	고령 지산 44 **합천 옥전** 20, **M3** 함안 말이 25, 26 **남원 월산 5**
6C 1/4	M1 – A	1,3	고령 지산 45 합천 옥전 M4 합천 옥전 M7	고령 지산44 **합천 옥전 M3**,12,24,70,91 함양 백천1-3	M4, M7, 80,84,85	고령 지산 45 합천 옥전 M6 **남원 두락 1**	합천 반계 가A,다A 고령 지산 44, 합천 옥전 M4, M7	합천 옥전 M4,M7 합천 옥전 M6, 86 **남원 두락 1**	고령 지산 518 합천 옥전 M7 **남원 두락 32** **남원 두락 1** 고성 송학 1A1
6C 2/4			**남원 두락 1** 진주 옥봉 7	고령 지산45 합천 옥전 M4, M6	M6, M10, 78,86,M6-1 M10-2	합천 옥전 M10 합천 삼가 1 **남원 두락 3**	고령 지산 45, 39 합천 옥전 M6, M10 진주 수정봉2,옥봉7	합천 옥전 M10, 78 진주 수정봉2,옥봉7	고성 내산 34 진주 수정봉3 함안 도항 47 합천 옥전 M6 합천 옥전 M11
6C 3/4				합천 옥전 M11	M11	합천 옥전 M11 **남원 두락 2** 진주 수정봉 2 진주 옥봉 7	합천 옥전 M11 진주 수정봉 3	합천 옥전 M11 **남원 두락 2**	

25) 禹枝南, 1987, 「大加耶 古墳의 編年」,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Ⅰ, 一志社.
李熙濬, 1994, 「高靈様式 土器 出土 古墳의 編年」, 『嶺南考古學報』 15, 嶺南考古學會.
朴升圭, 2003, 「大加耶土器의 擴散과 관계망」, 『韓國考古學報』 49, 韓國考古學會.
26) 박천수, 1998, 「大加耶圈 墳墓의 編年」, 『韓國考古學報』 39, 韓國考古學會.
金斗喆, 2000, 『韓國 古代馬具의 硏究』, 東義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7) 李漢祥, 1995, 「大加耶系 耳飾의 分類와 年代」, 『古代硏究』 4, 古代硏究會.
28) 趙榮濟, 1996, 「玉田古墳의 編年硏究」, 『嶺南考古學』 18, 嶺南考古學會.
29) 홍보식, 2014, 「신라·가야 고분 교차편년」, 『嶺南考古學』 70, 嶺南考古學會.

필자는 이러한 연구 성과에 아영분지와 고령 지산동, 함안 도항리·말이산 고분군 등 최근 조사 자료를 포함하여 교차편년을 실시했다. 대상은 토기류 중 시기에 따른 형태변화가 분명한 발형기대와 마한·백제권과도 교차 편년이 가능한 마구류를 대상으로 했다. 발형기대의 형태변화를 상대편년의 기준으로 삼았고, 마구류는 속성간 조합관계가 발형기대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교차 검증하면서 고분 간 상대연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1) 발형기대

발형기대는 다른 토기류를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기능속성과 형태속성을 모두 갖는다. 특히 발형기대의 발부는 토기가 얹혀지므로 시간성을 민감하게 반영할 것으로 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각과 발부의 높이 비가 동일해지는 경향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30], 필자는 발부의 형태 변화에 집중해서 수치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발부의 높이를 반영하는 수치로 '발부 높이/대각의 높이 값'을 이용하고, 발부의 형태를 반영하는 수치로 '발부의 너비/높이 값'을 이용했다. 고분간의 선후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5세기 1/4 ~ 6세기까지 긴 시간 동안 운영되는 고령 지산동과 합천 옥전 고분군의 발형기대를 대상으로 형태변화를 확인했다. 발형기대는 교차검증을 위해 마구가 공반하는 매장시설 출토품으로 제한했다.

분석결과 발형기대는 산점도 상에서 대각선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분포한다. 왼쪽 상단에 위치하여 발부가 깊고 대각이 낮은 형태는 고령 쾌빈동 목곽 출토품으로 노형기대와 공반하므로 가장 이른 시기로 설정된다. 오른쪽 하단에 위치하여 발부가 낮고 대각이 높은 형태는 고령 지산동 518호로 나주 복암리 3-96석실 재갈 경판처럼 인수와 함이 경판 안쪽에서 연결되는 제작기법이 적용된다. 그 사이에 위치하는 발형기대는 일부 혼재하는 것도 있지만 큰 흐름은 같고, 5개 분기로 세분할 수 있다(그림 13-左.)

각 분기의 중심연대는 가장 빠른 고령 쾌빈동을 Ⅰ기, 가장 늦은 지산동 518호를 Ⅴ기로 하고 25년 단위로 구분하여 5세기 1/4 ~ 6세기 1/4분기로 설정했다. 73·75호분은 Ⅱ~Ⅲ기에 걸쳐 분포하지만 Ⅱ기에 더 많은 발형기대가 위치한다. Ⅲ기는 30, 34, 35호가 해당한다. Ⅳ기는 지산동 44호와 1호가 해당하는데, 44호분의 경우 Ⅲ기의 형태를 보이는 발형기대가 수량이 더 많아서 이 고분은 Ⅲ~Ⅳ기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합천 옥전 고분군도 고령 지산동과 산점도 상에서 동일한 범위로 구분해 보았다. Ⅰ기에는 매장주체부가 목곽인 23호 부장 발형기대가 해당한다. 공반유물은 이엽형 투조가 연속되는 금동관모, 고식의 목심 등자가 있다. Ⅴ기는 M6호로 나주 복암리 3-96석실 출토품과 동일 형태의 심엽형 행엽이 부장된다. Ⅱ~Ⅳ기는 고령 지산동과 마찬가지로 혼재하지만 경향성은 분명하다. Ⅱ기는 M2호, Ⅲ기는 M4호와 20호, Ⅳ기는 M3호가 해당한다(그림 13-右).

낙동강 하류의 부산 복천동과 김해 대성동고분군에서 마구와 공반된 발형기대를 대상으로 하여 동일 기준에서 비교해 보았다.

Ⅰ, Ⅱ기의 발형기대만 확인되는데, 수량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 석곽 출토품은 거의 없고, 모두 목곽 출토품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역사맥락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되며 발형기대와 통형기대의 조합관계가 두드러진다. 청계리 2호 석곽 출토 발형기대, 통형기대, 무개고배와 형태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그림 14).

30) 박천수, 1998, 「大加耶圈 墳墓의 編年」, 『韓國考古學報』 39, 韓國考古學會, 92~9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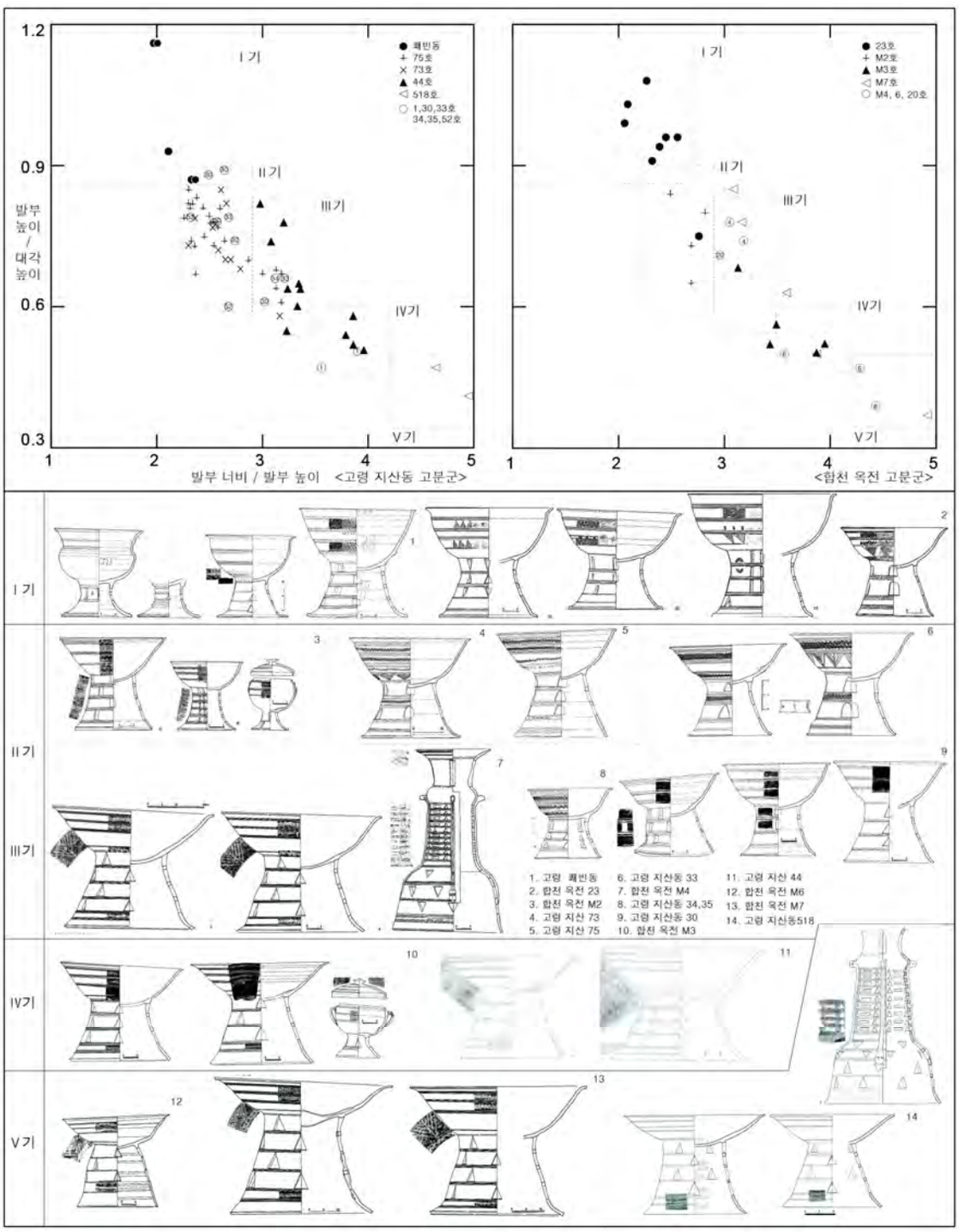


그림 13. 발형기대 형태 변화에 따른 분기설정(고령 지산동·합천 옥전 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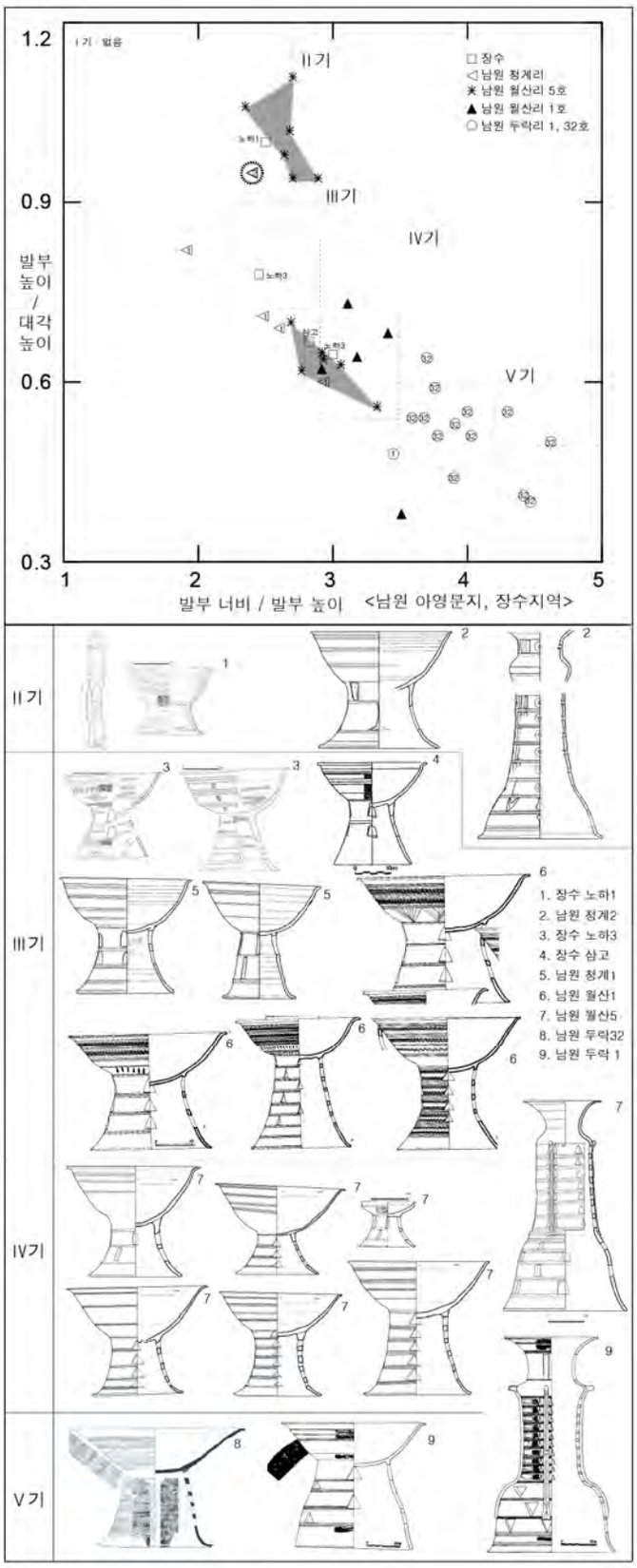


그림 14. 발형기대 형태 변화에 따른 분기설정(남원 아영분지·장수 지역)

남원 아영분지와 장수지역 발형기대의 형태 변화도 확인했다. 고령 지산동·합천 옥전과는 다른 양상이 있다. 우선 공반 유물로 볼 때 Ⅴ기가 분명한 두락리 1호와 32호 발형기대가 Ⅳ~Ⅴ기에 넓게 퍼져 분포한다. 월산리 5호는 합천 옥전 M4호에 비견되는 통형기대가 공반하여 빨라도 Ⅲ기를 상회하지 못하지만, Ⅰ기의 형태 특징을 보이는 발형기대가 다수를 점한다. 장수 노하리 1호와 남원 청계리 2호 석곽 출토품의 경우 Ⅰ기의 형태 특징을 보여주지만 매장시설은 목곽이 아닌 석곽이다. 즉 남원·장수지역은 발형기대의 형태 특징이 공반유물과 매장시설의 구조 변화와 동일선상에 있지 못하고 한 두 단계씩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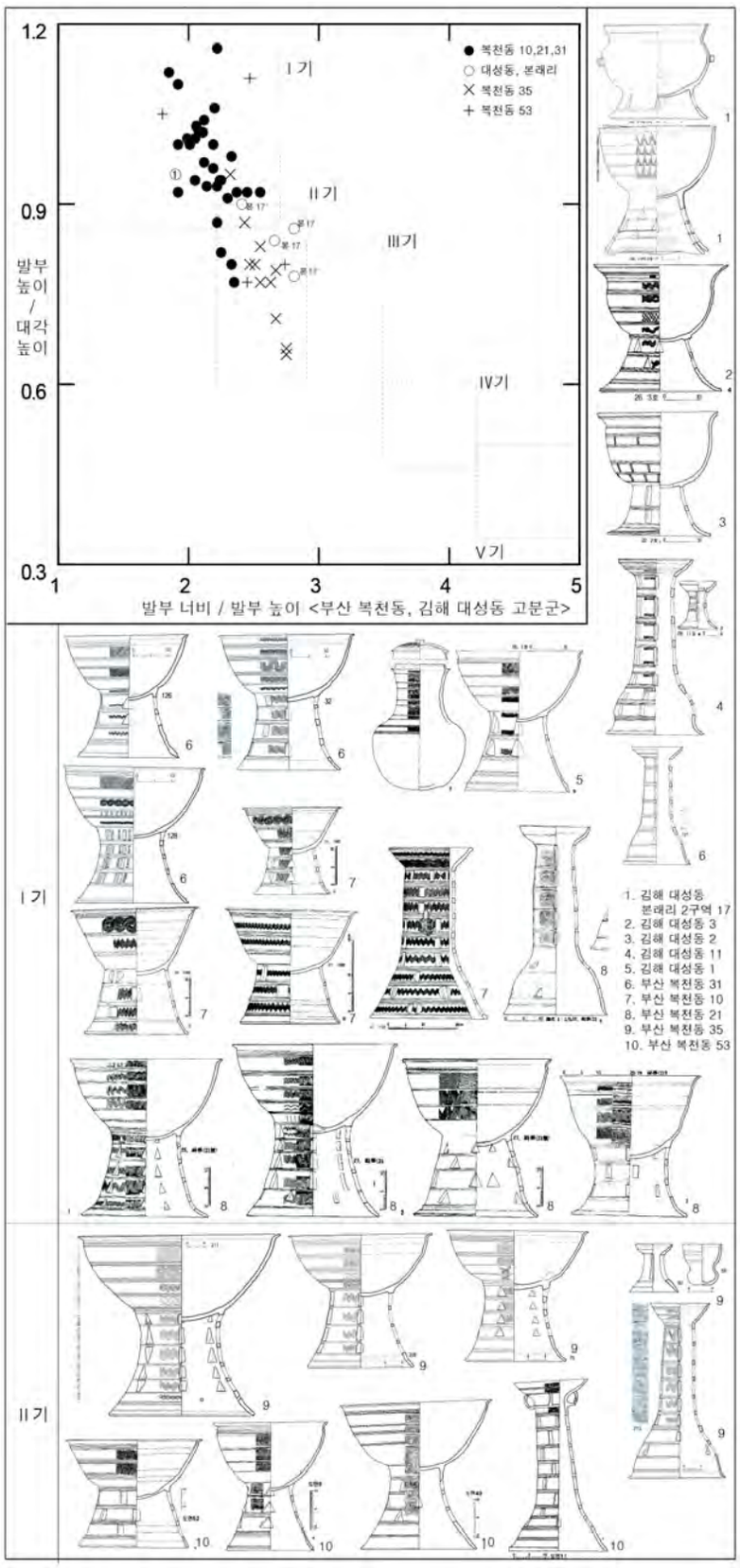


그림 15. 발형기대 형태 변화에 따른 분기설정(부산 복천동·김해 대성동 고분군)

이것은 부장유물로서 토기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된다. 부장용 토기는 피장자 사망 시점에 현지 제작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시간성을 민감하게 반영한다. 피장자가 중앙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토기 형태의 등장 시점이 조금씩 늦춰지거나, 애초에 이전 시기의 토기 형태로 제작할 개연성이 높다. 그 결과 매장시설의 구조와 공반유물 보다 한두 단계 이른 시기의 발형기대가 부장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남원 아영분지와 장수 지역은 백제 접경지로서 가야

중심지 물질문화의 변화가 왜곡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렇게 발형기대는 분기에 따른 형태 변화가 분명(그림 16)하지만 복수 형식의 중첩 양상 또한 빈번하다. 형식의 중첩은 물질문화의 변화궤적이 피장자의 중심 활동과 사망 시점, 지역간 편차라는 변수에 의해 다양화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편차는 마구류와 같은 금공예품의 형태 변화에 대응시켜서 보정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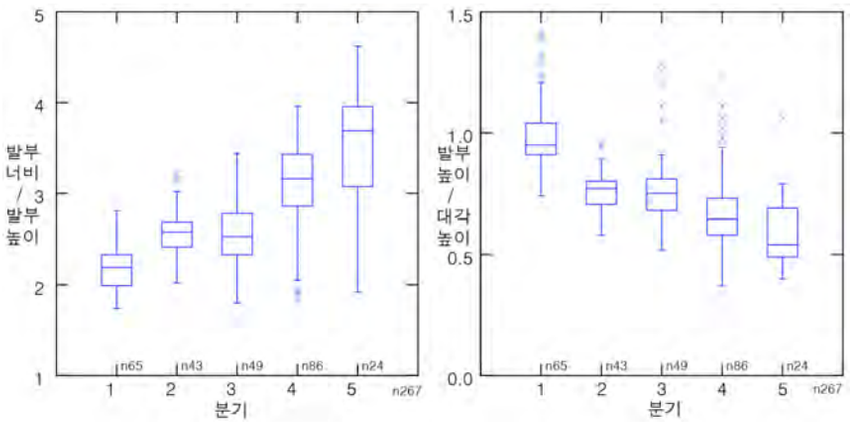


그림 16. 발형기대의 분기별 형태변화

2) 마구류(재갈, 등자)

마구는 가야 서부권의 62개 고분 출토 재갈과 등자를 대상으로 했다. 재갈과 등자는 세부형태와 제작기법에 대해 더 이상의 분석이 어려울 정도로 최근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심도있게 정리 되어왔다. 현재까지 연구 성과로 볼 때 삼국시대의 마구는 지역을 불문하고 일정한 변화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백제와 가야문화가 겹쳐지는 남원지역 고분의 편년과 상대순서를 정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렇지만 통시적인 관점에서 가야권 마구 전체를 대상으로 속성 변화를 살핀 연구는 없는 것 같다. 재갈과 등자를 분리해서 분석하다 보니 하나의 유물 복합체로 연계가 잘되지 않는 것이다.

표 7. 마한·백제·가야권 마구의 분기별 속성 변화

구분 / 분기	재갈		등자	
	경판	인수	목심	철심
Ⅰ기(5C_1/4)	· 환형 내 +,⊥	· 2조 삽자루 · 1조 일자형	· 단병	
Ⅱ기(5C_2/4)	· 환형 내 +,⊥ · f자 고식 · 원형,말각방형	· 1조 일자형(인수호 연결)	· 장병 전면보강(단면 오각) · 장병 부분 보강(단면 오각) · 답수부 요철	
Ⅲ기(5C_3/4)	· 환형 내 +,⊥ · 원형, 말각방형	· 1조 일자형(인수호 연결) · 1조 국자형	· 장병 전면보강 · 장병 부분 보강 · 답수부 요철	
Ⅳ기(5C_4/4)	· 말각방형 · f자 신식 · 복환식	· 1조 일자형(인수호 연결) · 1조 국자형 · 2조 꼰 일자형	· 장병 부분보강 · 추가 덧댐	· 답수부 1조
Ⅴ기(6C_1/4)	· 말각방형 · f자 신식 · 복환식 · 원형, 심엽형 철지장식	· 1조 국자형(인수호 연결) · 2조 꼰 국자형 · 함과 인수 경판 안쪽 연결		· 답수부 2조(호선형) · 호등
Ⅵ기(6C_2/4)				· 답수부 2조(세장방 요철)

표 8. 가야권마구(재갈, 등자) 속성의 순서배열

연번	고분명	분기	재갈																		등자									
			경판								인수																			
											2조 삽		1조				2조	1조	2조			목심전면장병			목심부분장병					
			환ㅜㅗ	f자구	원	말각방	f자신	복환	철지원	철지삼엽	전형	변형	1자	호연결	호일체	국자	꼼	호국자	꼼국자	함인내연결	목심부분단병	장방	오각요철	장방요철	장방	오각요철	장방덧댐	철심1줄	호등	철심2줄
1	함안도항 토10	1	1								1																			
2	합천옥전 토68	1	1																		1									
3	합천옥전 토67A	1	1								1										1									
4	함안도항 토3	1										1																		
5	함안도항 토43	1										1																		
6	합천옥전 토67B	1	1									1									1									
7	부산복천 10,11	1	1									1									1									
8	함안도항 토36	1	1																											
9	합천옥전 토23	1	1																		1									
10	부산복천 22,21	1									1		1								1									
11	함안도항 토38	1											1								1									
12	고령지산 73	2	1	1									1									1								
13	남원청계 2	2																				1?								
14	함안말이 4	2																					1							
15	함안도항39	2																					1							
16	고령지산32	2		1											1								1							
17	합천옥전M2	2				1								3												2				
18	고령지산 3(04.1)	2		1										1												1				
19	고령지산30	2																								1				
20	고령지산33	2																								1				
21	부산연산 M10	3														1										1?				
22	고령지산07(06.3)	3																								1				
23	고령지산55(04.1)	3														1										1				
24	합천옥전91	3														1										1				
25	합천옥전12	3	1													1										1				
26	합천옥전35	3	1													1										1				
27	합천옥전24	3														1									1					
28	합천옥전 M1	3	1													1							2	1						
29	함안도항6(동아)	3	1													1?														
30	합천옥전28	3	1													1								1`						
31	합천옥전95	3														1								1						
32	고령지산75	3			1																			1						
33	남원 청계1	3														1														
34	고령지산18(04.1)	3														1														
35	부산연산 M10	3				1																								
36	함안도항54	3				1								1										1						
37	함안도항6.1(동아)	3																												
38	고령지산34,35	3				1																			1					
39	고령지산44	3				1	1																	1			1			
40	남원월산1A	3				1										1											1			
41	합천옥전20	4				1							1														1			
42	합천반계	4				2										2											1			
43	합천옥전76	4				1																					1			
44	함양백천	4				1											1										1			
45	산청생초13	4					1							1																
46	함안말이25	4															1													
47	합천옥전M7	4						1																			1			
48	남원월산5	4				1								1														1		
49	함안말이26	4				1																						1		
50	함안암각화	4	1													1												1		
51	함안도항5	4				1										1												1		
52	함안도항8(428.1)	4											1															1		
53	함안도항22	4					1							1														1		
54	합천옥전 M3	4				2	1								3					1				1				2		
55	고령지산1(04영대)	5																											1	
56	남원두락32	5																											1	
57	함안도항9(428.1)	5						1											1											
58	고성송학1A1	5				1	1							1						1								1		1
59	남원두락1	5						1											1											1
60	고령지산518	5							1									1		1										1
61	고성내산34	6																												1
62	진주수정봉3	6																												1
계			14	3	1	16	5	3	1		2	4	4	9	4	18	2	1	2	3	56	1	5	5	3	11	4	9	2	5

필자가 마구에서 얻고자 하는 정보는 단순하다. 재갈과 등자의 형태 속성을 세분해서 각 속성이 어떠한 조합으로 변화하며 그 획기는 어떤 형태가 되는 것 인지를 발생순서 배열법으로 확인하고, 앞서 분석한 발형기대의 변화분기에 대입시켜서 고분 간의 상대 연대를 보다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한·백제권과 가야권의 재갈은 경판과 인수 형태, 등자는 목심과 철심으로 크게 구분하고 다시 세분했다. 등자는 목심과 철심으로 대별하고 다시 세분하여 속성별로 나열해 보았다.

분석결과 총 6기로 구분이 가능하다. Ⅰ기는 고식등자[31] 유무를 기준으로 중심연대를 5세기 1/4분기로 설정했다.[32] Ⅵ기는 최근 보고된 나주 송제리고분 출토 등자를 기준으로 하고 중심연대는 공반유물이 무령왕릉 부장품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6세기 2/4분기로 보았다. 나머지 Ⅱ~Ⅳ기는 등자와 재갈 형태에서 새로운 속성 등장을 획기로하여 25년 단위로 구분했다.[33]

Ⅰ기는 가야권의 경우 2조선의 삽자루형 인수와 목심철피의 단병 등자가 조합된다. 경판은 환형이며 인수와 연결을 위해 내부에 '十'자와 'ㄴ'자형의 함유금구가 단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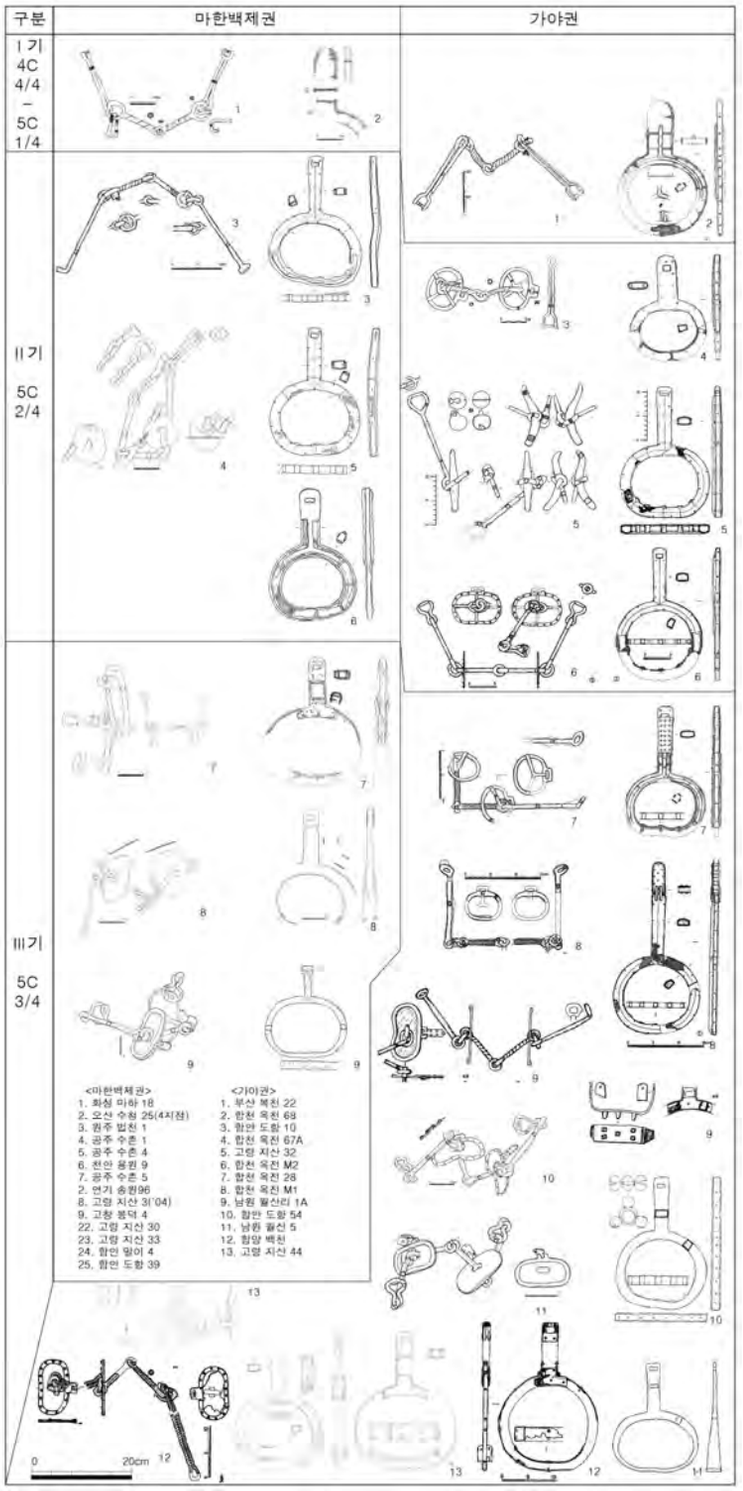


그림 17. Ⅰ~Ⅲ기 마한·백제와 가야권 마구 비교

31) 金斗喆, 2000, 『韓國 古代馬具의 硏究』, 東義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32) 박천수, 1998, 「大加耶圈 墳墓의 編年」, 『韓國考古學報』 39, 韓國考古學會.
33) 마구는 연구자에 따라 다른 연대관이 제시되어 왔는데, 모두 열거하기는 어렵고 비교적 최근 발표된 논문에 관련 사항이 잘 정리되어 있다.(유영춘, 2015, 「운봉고원 출토 마구의 의미와 등장 배경-轡,蛇行狀鐵器,鐙子를 중심으로-」, 『湖南考古學報』 51, 湖南考古學會, 101~10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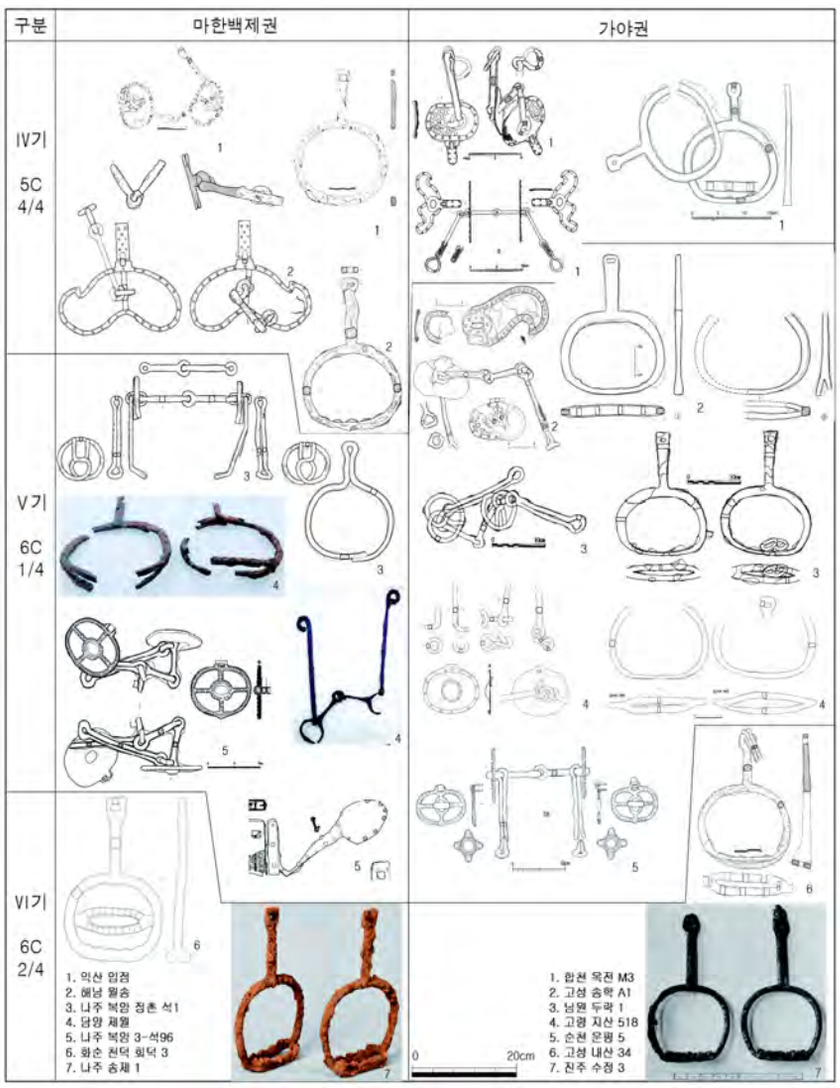


그림 18, IV~VI기 마한·백제와 가야권 마구 비교

마한 · 백제권에서는 함과 인수 사이에 경판은 없고 고리형태의 구금구가 부가되며 등자의 형태는 동일하다.

II기는 가야권의 경우 I기의 삽자루형 인수 대신 1조선의 인수에 인수호가 연결되고, 자루가 기다란 장병 목심철피 등자와 조합된다. 등자는 답수부까지 모두 철판을 덧댄 것과 일부만 덧대는 경우가 있고, 바닥에 요철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병부 단면이 장방형인 것과 오각형인 것으로 세분된다. 경판은 f자와 말각방형인 것이 추가된다. 후반에는 합천 옥전 M2호와 같이 유환이 사용되기 시작한다. 마한 · 백제권에서는 공주 수촌리 1호 목곽[34] 출토품처럼 국자형의 인수가 처음 등장하며, 유환과 인수호, 말각방형의 경판도 개발된다. 등자는 자루가 긴 목심철피이다. 가야권에서는 III기에 해당하며 형식학적으로 보면 마한 · 백제권 마구의 형식 변화가 한 단계 빠른 셈이다.[35]

III기는 가야권의 경우 국자형 인수의 등장이 가장 특징적이며 유환이 거의 모든 재갈에 이용된다. 등자와 경판은 이전시기와 큰 차이가 없지만, III기의 후반에는 재갈 경판은 말각방형(내만 타원형 포함)에 가장자리를 장식하고, 인수는 인수호가 부착된다. f자 경판의 경우 크기가 커지고 가장자리에 장식이 추가된다. 등자는 부분적으로 보강하는 형태가 등장하는데 답수부와 윤부의 폭이 넓어진다.

마한 · 백제권에서는 II기의 국자형 인수, 일자형에 인수호가 부가된 형태가 공존하며 경판은 테두리를 장식하기도 한다. 등자는 부분 보강 목심철피 등자가 폭이 넓어지고, 후반에

34) 보고자는 이 목곽의 연대를 4세기 4/4분기까지 올려 보기도 하지만 교차편년 자료가 제시되지는 않았고, 금동신발 등 공반유물과 마구의 전체 변화상으로 볼 때 5세기 1/4분기를 상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35) 등자의 병부와 윤부에 능각이 세워져 있는 장병 등자에 대해서는 고령 지산동 출토품을 근거로 지산동형 등자로 칭하고 이 등자가 백제의 영향이라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申敬澈, 1989, 「加耶의 武具와 馬具」, 『國史館論叢』 7, 國史編纂委員會.)

는 고창 봉덕리 1-4호 석곽 출토품과 같은 철심 등자가 등장한다.

Ⅳ기는 가야권의 경우 부분보강 목심 철피 등자가 정착하고, 후반에는 철심등자가 등장한다는 점이 이전 시기와 다른 점이다. 경판은 말각장방형(내만타원형 포함)이 일반화되고, 경판의 장식성이 강화된다. 복환식 환판도 이때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갈은 철봉을 2조선으로 꼰 형태가 유행한다. 후반에는 M3호분의 사례처럼 함과 인수를 경판 안쪽에서 연결하여 장식성을 강화한 형태도 등장한다.

마한·백제권에서는 이전 시기와 큰 차이는 없으나 익산 입점리와 해남 월송리 조산고분처럼 경판의 장식성이 배가된다. 등자는 철심등자만 확인되며 병부가 더 길어지는 특징이 있다. 전체적으로 가야권과 마한·백제권 마구 형태의 시차가 크게 좁혀지거나 사라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Ⅴ기는 가야권의 경우 등자의 답수부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경판은 원형이 추가되고 외면에 철지 장식이 부가되는 경우가 많다. 인수는 2조선이면서 국자형이 등장한다. 이전 시기 함과 인수를 경판 안쪽에서 연결하는 형태도 지속된다.

마한·백제권에서는 백제 중앙의 마구는 출토사례가 많지 않고 영산강유역권 출토품이 대다수이다. 나주 복암리 정촌 1호 석실과 복암리 3-96호 석실 출토 마구는 가야권의 마구와 긴밀한 관련성이 엿보인다. 담양 제월리 고분 수습 등자는 답수부가 두 갈래로 갈라진 형태로 가야권의 동시기 등자와 같다.

Ⅵ기는 가야권과 마한·백제권 모두 등자만 확인된다. 진주 수정봉 3호분 출토품은 답수부가 세장방형으로 갈라지고 상면에 요철을 만들었다. 동일 형태가 고성 내산리 34호에서 확인되었다. 백제권에는 동일한 등자가 없고, 영산강유역권에서는 최근 화순 천덕리 회덕 3호와 나주 송제리 1호분 석실에서 출토된 바 있다.

남원 아영분지 고분의 연대 설정과 관련하여서는 월산리 M1-A호에 대해 연구자별로 견해차가 있다. 먼저 발형기대는 형태로 보면 5세기 3/4~5세기 4/4분기에 걸쳐 있다. 재갈은 인수가 국자형이고, 경판은 내만타원형이면서 주연대 장식이 부가되어 있다. 등자는 답수부만 따로 제작된 형태로 독특하다.

필자의 분석 결과로 보면 마구 변화에서 가장 큰 획기인 국자형 인수의 등장시점은 마한·백제권은 5세기 2/4분기, 가야권은 5세기 3/4분기이다. 철제 등자는 마한·백제권이 5세기 3/4분기 후반, 가야권이 5세기 4/4분기 후반에 등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월산리 M1-A호의 부장유물에 백제 관련 은상감 환두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마구류에도 백제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면 고분의 연대는 5세기 3/4분기까지 올려 볼 수 있다고 본다. 인접한 M5호에서는 M1-A호와 경판 형태는 동일하지만 인수외환이 국자형이 아닌 인수호가 달려있는 재갈이 부장되는데, 발형기대의 형태 특징은 5세기 2/4 ~5세기 4/4분기에 걸쳐 있다. M1-A호와의 또 다른 차이는 등자가 철제라는 점과 통형기대가 공반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M5호는 M1-A호보다 한 단계 늦다고할 수 있으므로 5세기 4/4분기로 판단된다.

표 9. 발형기대 기준 주요 고분의 분기

분기 / 고분군		Ⅰ ~ 5C 1/4	Ⅱ 5C 2/4	Ⅲ 5C 3/4	Ⅳ 5C 4/4	Ⅴ 6C 1/4
고령 지산동	발형기대	쾌빈동	73, 75	30, 33, 44	44	518
	마구			44		
합천 옥전	발형기대 마구	23	M2	M4, 20	M3	M6, M7
남원 아영분지	발형기대		청계2,월산5	청계1,월산1,월산5	월산1,월산5	두락1,두락32
	마구		청계2?	월산1	월산5	두락1,두락32

한편 고창 봉덕리 1-4호에서는 월산리 M5호와 동일 형태의 재갈이 출토된다. 등자도 철심등자로 같다. 공반된 개배와 유공광구호, 금동신발 등은 형태 특징으로 보아 5세기 3/4분기로 볼 수도 있지만 유공광구호는 장식성이 강화된 형태이고, 금동신발의 전체 형태는 한성기 말에서 웅진기 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5세기 3/4분기라 하더라도 후반에 위치시킬 수 있다.[36] 공반된 청자반구호의 형태 특징을 기준으로한 연대 설정도 참고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월산리 M1-A호와 M5호 모두 백제계 유물이 부장되는 것으로 보아 마구도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37]고 하면 공유되는 형태 특징이나 연대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가야 중심지에 연구자에 따라 연대 차를 보이는 고분을 살펴보면 고령 지산동 44호의 경우 5세기 4/4분기로 판단하는 연구자가 많지만 철심등자가 없고, 목심철피와 부분철판 보강등자가 부장된다거나, 발형기대도 5세기 3/4분기에 해당하는 것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5세기 3/4분기의 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합천 옥전 M3호는 마구와 발형기대 모두 5세기 4/4분기의 형태특징을 잘 보여준다.

남원 청계리 고분군은 2호 석곽의 경우 목심철피의 윤등 편으로 보아 5세기 2/4분기, 1호 석곽은 국자형 인수 편이 수습되었기 때문에 5세기 3/4분기경으로 대략적인 추정이 가능하지만 도굴로 인한 훼손이 심해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계리 고분군의 세분편년은 토기 조합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4. 남원 아영분지 고분의 조영과정과 의미

1) 남원 아영분지 고분의 세부 편년과 조영과정

남원 월산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발형기대와 마구류가 완형으로 공반하는 사례가 많아서 비교적 안정적인 편년이 가능했지만 청계리 고분군은 도굴된 상태여서 마구를 통한 교차 검증이 불안정한 형편이다.

다행히 2호 석곽에서는 출토사례가 많지 않은 수레바퀴 장식 토기 편이 수습되어 보완이 가능하다. 수레바퀴 장식토기는 현재까지 함안 말이산 4호·18호·39호, 전 의령 대의면, 남원 청계리 2호 석곽에서 1점씩 총 4점이 출토되었다. 이중 유물 복합체가 온전히 확인된 고분은 5세기 2/4분기를 중심 연대로하는 함안 말이산 4호분이 유일하다. 시기에 따른 차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하한을 5세기 1/4분기로 볼 수 있는 함안 지역의 목곽을 매장시설로 하는 고분 중 유물 구성이 유사한 함안 도항리 10호도 함께 비교해 보았다.

발형기대는 함안 말이산 4호의 경우 이 지역 특유의 기형인 발부의 깊이와 너비가 강조되고 대각의 폭은 좁고 높은 형태여서 청계리 2호와는 차이가 크다. 함안지역의 5세기 3/4분기대 발형기대는 지역색이 더욱 강조된다. 통형기대는 청계리 2호에서는 2점이 확인되었고, 하단 형태에서 말이산 4호와 차이가 있다. 청계리 2호 출토품은 사직립에 가깝게 이어지거나 밋밋하게 부풀어 오르는데 반해 말이산 4호는 장고처럼 반원형에 가깝다.

이렇게 청계리 2호의 발형기대와 통형기대는 기형과 투창 형태로만 보아도 말이산 4호와

36) 공반된 청자반구호의 형태특징을 근거로한 연대 설정도 참고할 수 있다.(김낙중, 2010, 「榮山江流域 古墳 出土 馬具 硏究」, 『한국상고사학보』 69, 한국상고사학회, 245쪽.

37) 유영춘, 2015, 「운봉고원 출토 마구의 의미와 등장 배경-轡,蛇行狀鐵器,鐙子를 중심으로-」, 『湖南考古學報』 51, 湖南考古學會, 104쪽.

는 차이가 크다. 다만 고배는 발부와 대각의 너비가 거의 같고 대각 투창이 세장방형에 종방향 1열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같다.

한 단계 앞선 시기의 도항리 10호 목곽 부장 유물과 비교해 보면, 발형기대의 경우 투창 형태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 기형의 유사도가 높다. 통형 기대 역시 하단부가 사직립 혹은 호선을 그리며 내려오고 있어 함안 말이산 4호 출토품보다는 유사하다. 즉 청계리 2호 출토 통형기대는 5세기 1/4와 2/4분기 중간적인 형태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앞서 남원지역의 발형기대는 형태 특징에서 한 단계씩 늦춰지는 양상이 간취되었다. 이것이 지방에서 자체 제작하면서 발생하는 문화지체 현상의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청계리 2호 석곽의 중심연대는 발형기대의 형태 특징보다 한 단계 늦은 5세기 2/4분기로 설정할 수 있다. 청계리 1호는 층위상 2호 석곽의 묘광을 되파고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고 도굴갱에서 수습된 국자형 인수 편, 발형기대의 형태 특징을 기준으로 Ⅲ기인 5세기 3/4분기로 편년할 수 있다.

월산리 고분군은 마구와 발형기대의 형태 특징을 기준으로 보면 5세기 3/4 ~ 4/4분기에 집중된다. M1-A호가 가장 빠른 것으로 판단되며 월산리 5호는 초두와 청자계수호 등 백제계 위세품을 비롯하여 중절모형 투구, 기꽂이 등이 출토되었다. 중절모형 투구는 합천 옥전 고분을 중심으로 소량 확인된다. 합천 옥전 M3호, 고령 지산동 518호, 고성 송학동 고분에도 부장된다. 따라서 월산리 5호는 이러한 필자의 분기 설정, 마구 제작기법의 특징[38], 청자계수호의 특징[39], 고창 봉덕리 1-4호 부장유물의 연대관[40]을 고려하면 Ⅳ기인 5세기 4/4분기로 편년할 수 있다. 월산리 6호는 발형기대와 장식 귀걸이의 형태에서 월산리 5호와 큰 시차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동시기로 판단된다. 두락리 고분군의 1호는 답수부가 갈라진 철제 등자를 기준으로 6세기 1/4분기로 편년된다. 3호에는 마구가 없지만 1호와 동일 기형의 소형 기대가 있고 이 기대는 고령 지산동 518호 출토품과도 동일하므로 같은 시기로 판단할 수 있다. 32호는 발형기대의 기형과 공반유물 상에서 6세기 1/4분기의 특징을 보여준다.

38) 유영춘, 2015, 「운봉고원 출토 마구의 의미와 등장 배경-轡,蛇行狀鐵器,鐙子를 중심으로-」, 『湖南考古學報』51, 湖南考古學會, 104쪽.
39) 박순발, 2012, 「계수호와 초두를 통해 본 남원 월산리 고분군」, 『운봉고원에 묻힌 가야무사』, 국립전주박물관·(재)전북문화재연구원, 114~121쪽.
40) 김낙중. 2010, 「榮山江流域 古墳 出土 馬具의 硏究」, 『한국상고사학보』69, 한국상고사학회, 103~125쪽.
이귀영, 2011, 『百濟 金屬工藝技術史 硏究』, 高麗大學校 大學院博士學位論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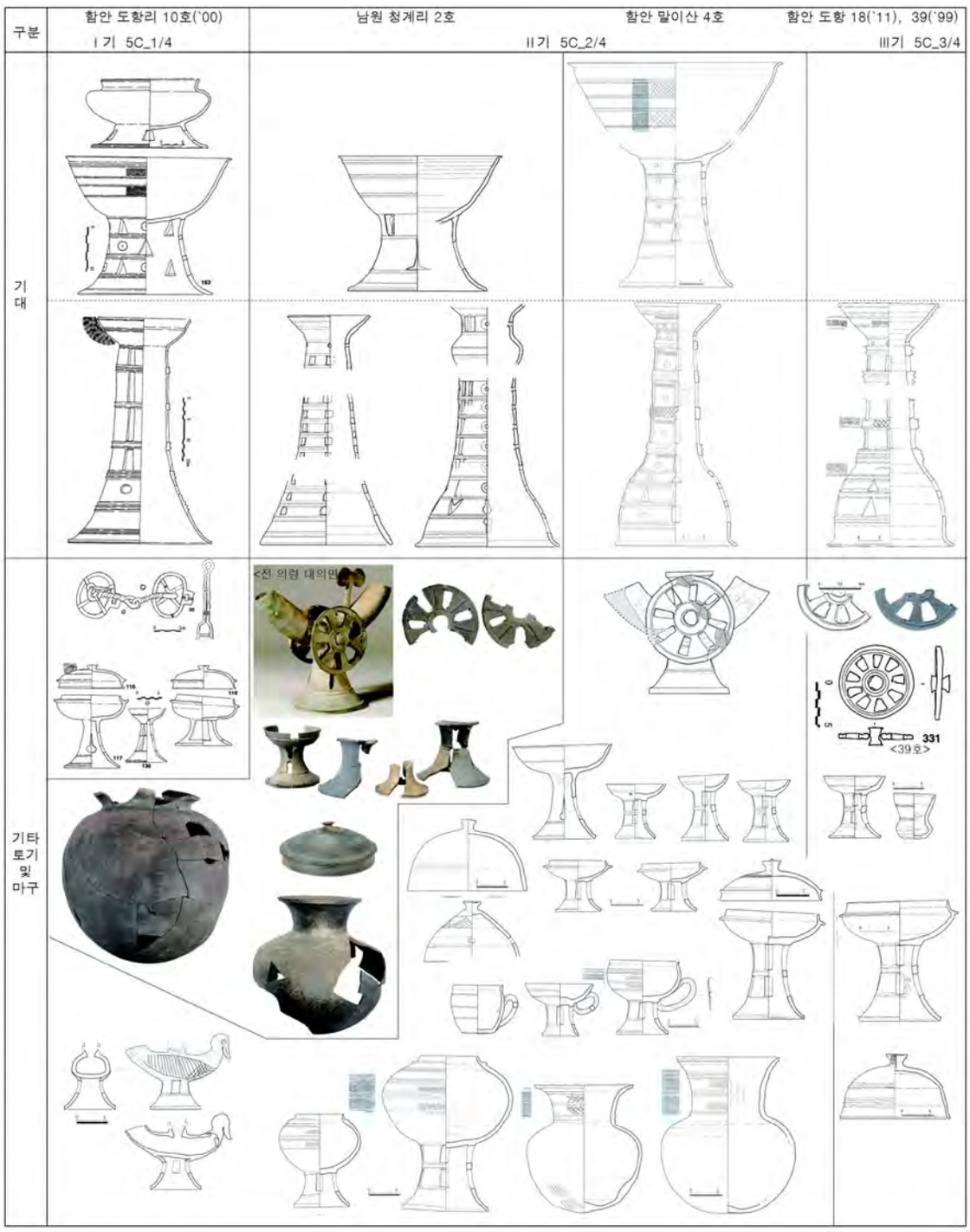


그림 19. 남원 청계리 2호분 토기류의 교차편년

남원 아영분지 고분의 조영순서는 5세기 2/4분기에 청계리 2호 석곽이 가장 먼저 조영된다. 5세기 3/4분기에는 1호 석곽이 추가되며, 능선 아래쪽에 월산리 M1호분도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다. 청계리 1호에는 고령 대가야의 발형기대가 부장되는 반면 월산리 M1호에는 백제계 은상감환두도가 부장된다.

표 10. 남원 아영분지 고분의 조영순서

분기 \ 고분	청계리	월산리	두락리
Ⅰ기(5C_1/4)	:		
Ⅱ기(5C_2/4)	2호		
Ⅲ기(5C_3/4)	1호	M1-A호	
Ⅳ기(5C_4/4)	:	M5호, M6호	: 2호?
Ⅴ기(6C_1/4)	:	:	32호, 1호
Ⅵ기(6C_2/4)			:

청계리 고분군이 위치한 능선 위쪽으로 수기의 석곽이 더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5세기 4/4분기나 그 이후에 해당하는 고분들이 조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청계리 고분군에 5세기 4/4분기까지 내려가는 고분은 없는 실정이다.

5세기 4/4분기의 고분은 월산리 M1호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는 M5호와 M6호가 해당된다. 현재까지 조사 상황으로 보면 월산리 고분군에 6세기 1/4분기에 해당하는 고분은 없는 실정이다. 물론 파괴된 M7~9호가 이 시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다.

6세기 1/4분기의 고분은 두락리 고분군에서만 확인된다. 2호를 제외한 1호·3호·32호는 모두 이 시기에 해당한다. 조사된 고분이 수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청계리와 월산리에는 5세기 후반대의 석곽만 확인되는 것을 보면 일정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2호분이 변수인데, 석실 구조는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 보이는 전형적인 웅진기 백제 석실에 해당하지만 유물은 시차가 있다. 도굴되어 유물로 시기를 판정하기는 어렵고 두락리 고분군 내의 새로운 조사 자료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아영분지에 6세기 2/4분기 이후의 고분 자료가 없는 것은 눈여겨 봐야할 지점이다. 당시 정세 변화에 따라 이 지역의 지정학적 가치가 상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아영분지의 고분 조영은 현재까지 자료로만 보면 청계리-월산리-두락리 고분군으로의 연속적인 조영이 인정된다. 고분 조영 집단이 동일 가계인지, 집단이 교체된 것인지는 현재까지 자료로 판단하기 어렵다. 확실한 것은 아영분지라는 제한된 지역에 100여 년에 걸쳐 다른 정치성향의 집단이 입지를 달리하여 고분을 조영하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교섭 대상 지역이 단순화되었다는 것이다.

2) 남원 아영분지 고분 조영세력의 성격

남원 아영분지와 가야 중심지간의 고분 구조와 부장유물의 유사도를 검토하고, 고분간의 상대순서를 마구와 발형기대를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남원 아영분지에는 시기별로 각기 다른 가야 세력과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남원 아영분지 고분 조영 세력의 교체에 대한 인식은 연구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全榮來, 1983: 10-80; 郭長根 2003)되어왔는데, 청계리와 두락리에서 더 늦거나 빠른 시기의 고분이 조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남원 아영분지 고총고분 조영 세력의 성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토착세력의 동향인데, 고분 조영과 관련하여 4세기부터 이어져 오는 토착 물질문화 자료가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사가 미진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현 상황으로만 해석하면 아영분지는 5세기 이전까지 주목할만한 정치세력이 부재했다. 운봉읍의 행정리나 청계리와 동일 능선 말단부에

위치하는 광평리 유적이 거론되지만 4세기대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조사 상황과 필자의 분석 결과를 전제로할 때 아영분지 고총고분은 백제와의 접경지로서 가야 제 세력의 교역 거점 마련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로 사료된다. 4세기 후엽 한성기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하기 전까지 아영분지는 지정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었다고 본다면(곽장근 2008, 2010, 2011) 이 지역에 당시 토착세력의 흔적이 미미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백제가 동남부 내륙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해가면서 아영분지의 지정학적 가치는 상승(郭長根 2003)했고, 특히 남강 수계에 인접한 가야 세력들에게 안전한 내륙 교통로로 백제와 교섭이 가능하다는 점은 가장 큰 강점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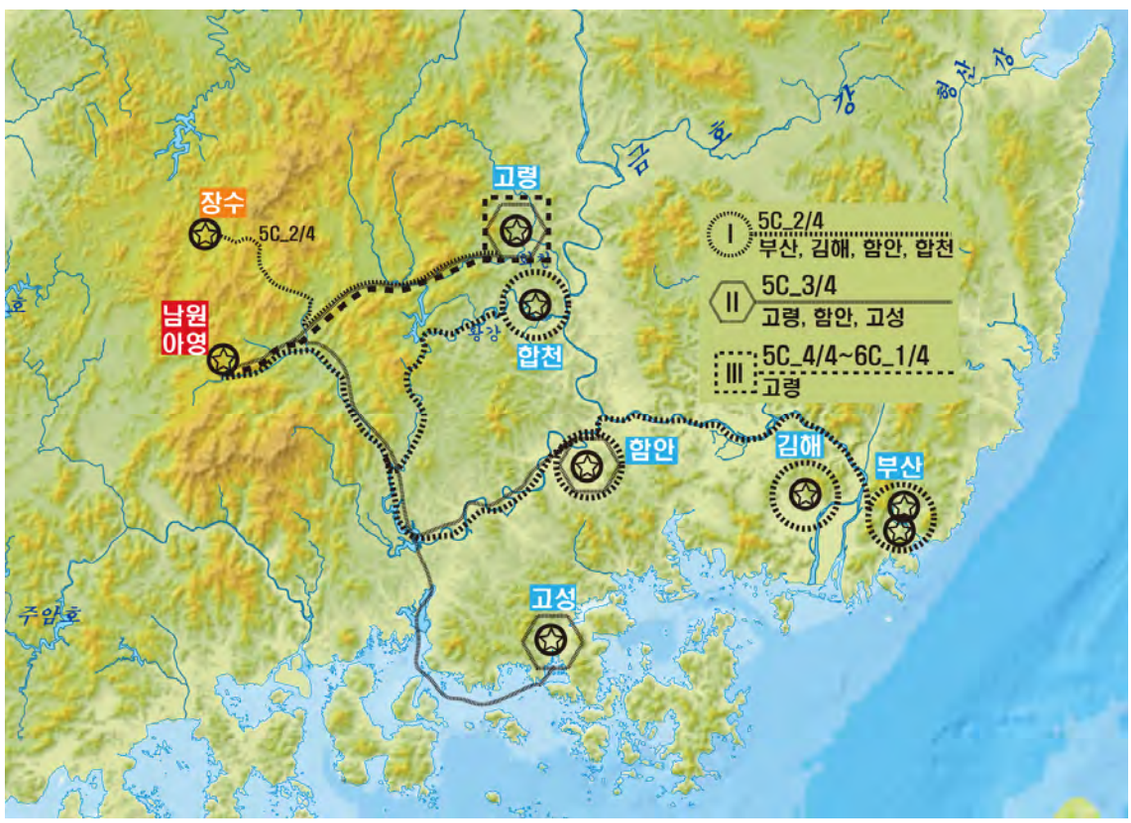


그림 20. 가야권 각 세력의 시기별 남원 아영분지와 장수지역 진출

이러한 배경으로 5세기 2/4분기 경 김해 대성동, 부산 복천동, 함안 도항리, 합천 옥전의 가야 세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어떤 집단이 가장 먼저 아영분지에 진출 혹은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어느 한 집단으로 특정하지 않는 이유는 청계리 고분에 보이는 고분 구조와 유물 구성의 다양성 때문이다. 토착세력 상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물질문화의 다양성을 토착세력의 특징으로 치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현재로서는 이 세 지역과 관계가 밀접한 가야권의 특정 가계 혹은 집단을 청계리 고분군 조영의 주인공으로 본다.

한편 장수지역은 비교적 이른 시기인 5세기 2/4분기경부터 고령 대가야와 교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까지 남강수계에 접한 가야세력들이 아영지역을 선점하고 있기도 했고, 대가야 입장에서 장수는 내륙으로 백제와 교섭이 가능한 가장 인접한 지역이기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5세기 3/4분기에는 청계리 1호 석곽에 종형 투창 발형기대가 부장되는 것을 필두로 고령

대가야의 영향력이 아영분지까지 미치게 된다. 월산리 고분군은 고령, 함안, 고성의 문화요소가 고르게 섞여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요소는 5세기 4/4분기까지 이어지는데, 6세기 1/4분기가 되면 두락리에 대형 고분군이 조영되기 시작하고 물질문화상이 고령 대가야로 일원화된다.

즉 아영분지의 고총고분은 초기에는 남강 수계를 따라 여러 가야 세력과 교역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고, 5세기 3/4~5세기 4/4분기에는 백제로부터 위세품을 증여받는 등 독립성을 인정받는 수장세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6세기 1/4분기에는 대가야 계통의 유물이 주류를 점한다. 이전까지는 남강을 통해 여러 가야세력과 활발한 교섭이 가능했지만 이 시기부터는 낙동강 하구를 신라가 장악하면서 교섭의 대상이 대가야로 일원화되었을 수 있다고 본다. 두락리 고분군에 백제계 횡혈식 석실인 2호분의 존재나, 32호분에 백제계 동경과 금동신발이 부장되는 것을 보면 백제와도 일정한 관계는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영분지 일대의 수장층으로서의 면모는 지속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6세기 2/4분기 이후의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 시기에 해당하는 고분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추정컨대 당시의 정세 변화에 따라 백제는 섬진강을 통한 대외교섭 창구를 모색했을 수 있다. 6세기 2/4 ~ 3/4분기에 해당하는 백제 관련 자료가 남해안 쪽에 집중되는 상황이나 7세기 대에 해당하는 남해 남치리 석실의 은화관식을 보면 백제는 섬진강을 경계로 한 교통로 개발에 주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아영분지 일대는 대외교통로로서의 위상이 낮아졌고, 이에 따라 수장층의 역할도 점차 사라지면서 6세기 2/4분기 이후에는 더 이상 고분이 조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5. 맺음말

남원 아영분지 고총고분 조영 세력의 성격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고분의 구조, 유물 부장 양상을 가야의 중심지인 고령, 합천, 함안, 고성, 부산 지역의 주요 고분과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 청계리 고분군은 최초 축조 당시에는 합천, 함안, 부산 지역과 높은 유사도를 보이다가 나중에 조성되는 1호 석곽은 고령지역 고분과 많은 면에서 비슷해진다. 인접한 월산리 고분군은 청계리 2호보다 더 다양한 지역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 두락리 고분군은 고령지역과만 높은 유사도를 보인다.

아영분지 내 고분군에서 보이는 유사도의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발형기대와 마구류를 대상으로 가야중심지와 교차편년을 진행하면서 고분간의 상대순서를 파악했다. 재갈과 등자의 형태 속성 변화를 가야 전 지역의 주요 고분군을 대상으로 통시적으로 분석했고, 5세기 1/4분기부터 6세기 2/4분기까지 모두 6개의 분기로 세분했다. 마구류의 변천 분기는 발형기대의 형태 변화로 교차 검증해서 타당성을 확보했다.

분석결과 아영분지에서는 청계리 2호 석곽이 5세기 2/4분기에 조영되었다는 사실을 수레바퀴 장식 토기가 출토된 함안 말이산 4호분과 도항리 10호 목곽의 유물을 비교해서 검증할 수 있었다. 이후 월산리 고분군은 청계리 1호 석곽이 만들어지는 5세기 3/4에서 4/4분기까지 조영되고, 두락리 고분군은 현재까지 6세기 1/4분기에 해당하는 고분만 있고, 6세기 2/4분기 이후의 고분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분 조영세력의 성격은 4세기 후엽부터 백제가 동남부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해 오면서 남원 아영분지의 지정학적 중요도가 높아지게 되자 초기에는 부산・함안・합천 지역과 밀접하게 관계된 인물이나 해당 지역 세력이 이주해와서 교역 거점을 마련했고, 그 결과 청계리

고분군이 조영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후 월산리 고분군 단계에는 백제로부터 위세품을 증여받는 독립적인 수장층으로 성장하였고, 6세기 1/4분기에는 정세 변화로 낙동강 하구의 가야 정치체가 신라의 영향력으로 약화되면서 고령의 대가야로 교섭이 일원화되는 것으로 보았다. 6세기 2/4분기 이후 고분 조영이 중단되는 것은 백제의 대외교통로 개발이 섬진강 쪽으로 집중되면서 아영분지의 지정학적 가치가 약해지는 상황과 연동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삼국시대 남원 아영분지 고총고분의 최초 조영세력을 남강 수계에 접한 여러 가야 세력이 교역 거점 마련을 위해 이주해온 것으로 보는 필자의 해석은 추후 아영분지 일대의 조사에서 토착세력으로 상정할 만한 유의미한 조사 성과가 축적된다면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단행본

郭長根, 1999, 『湖南 東部地域 石槨墓 硏究』(書景文化社).

김세기, 2003, 「묘제로 본 가야사회」, 『가야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박순발, 2012, 「계수호와 초두를 통해 본 남원 월산리 고분군」, 『운봉고원에 묻힌 가야무사』, 국립전주박물관・전북문화재연구원.

朴天秀, 1999, 「考古學 資料를 통해 본 大加耶」, 『考古學을 통해 본 加耶』, 韓國考古學會.

禹枝南, 1987, 「大加耶 古墳의 編年」, 『三佛金元龍敎授停年退任紀念論叢』 Ⅰ, 一志社.

보고서

全榮來, 1983, 『南原, 月山里古墳群發掘調査報告』,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10쪽, 80쪽.

釜山博物館・釜山廣域市 蓮堤區, 2014, 『蓮山洞 M3號墳』, 90~91쪽.

학술지 게재논문

郭長根, 2003, 「錦江 上流地域으로 百濟의 進出過程 硏究」, 『湖南考古學報』18, 湖南考古學會.

郭長根, 2004, 「湖南 東部地域 加耶勢力과 그 成長過程」, 『湖南考古學報』20, 湖南考古學會.

곽장근, 2010, 「전북 동부지역 가야와 백제의 역학관계」, 『백제문화』43, 공주대학교백제문화연구소, 29~60쪽.

곽장근, 2011, 「전북지역 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63, 한국고대사학회, 90쪽.

김낙중. 2010, 「榮山江流域 古墳 出土 馬具의 硏究」, 『한국상고사학보』69, 한국상고사학회, 103~125쪽.

朴淳發, 1992, 「百濟土器의 形成過程」, 『百濟硏究』23, 忠南大學校百濟硏究所.

朴淳發, 1997, 「漢城百濟의 中央과 地方, 百濟의 中央과 地方」, 『百濟硏究論叢』第5輯, 忠南大學校百濟硏究所.

朴升圭, 2003, 「大加耶土器의 擴散과 관계망」, 『韓國考古學報』49, 韓國考古學會, 100쪽.

朴天秀, 1998, 「大加耶圈 墳墓의 編年」, 『韓國考古學報』39, 韓國考古學會.

朴天秀, 2006, 「榮山江流域 前方後圓墳을 통해 본 5~6세기 韓半島와 日本列島」, 『百濟硏究』第43輯, 忠南大學校百濟硏究所.

申敬澈, 1989, 「加耶의 武具와 馬具」, 『國史館論叢』7, 國史編纂委員會.

李漢祥, 1995, 「大加耶系 耳飾의 分類와 年代」,『古代硏究』4, 古代硏究會.

李熙濬, 1994, 「高靈樣式 土器 出土 古墳의 編年」, 『嶺南考古學報』15, 嶺南考古學會.

趙榮濟, 1996, 「玉田古墳의 編年硏究」,『嶺南考古學』18, 嶺南考古學會.

趙榮濟, 2010, 「(有蓋)臺附把手附小壺考」, 『韓國考古學報』 76, 韓國考古學會, 197~220.

전상학, 2007, 「全北 東部地域 竪穴式 石槨墓의 構造 硏究」, 『湖南考古學報』25, 湖南考古學會.

최영준, 2012, 「다곽식 고분을 통해 본 합천지역 고분군의 지역성」, 『경남연구』7, 경남발전연구원.

홍보식, 2014, 「신라・가야 고분 교차편년」, 『嶺南考古學』 70, 嶺南考古學會.

학술대회 게재논문

곽장근, 2007, 「湖南 東部地域 加耶勢力의 發展過程과 그 性格」, 『교류와 갈등-호남지역의 백제, 가야, 그리고 왜-』, 제15회 호남고고학회 정기 학술대회.

곽장근, 2008, 「백제 간선 교통로의 재편성과 그 의미-섬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백제문화』39, 공주대학교백제문화연구소, 5~32쪽.

朴天秀, 2002, 「高塚을 통해 본 加耶의 政治的 變動」, 『동아시아 대형고분의 출현과 사회변동』, 國立文化財硏究所, 206쪽.

학위논문

이귀영, 2011, 『百濟 金屬工藝技術史 硏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趙仁振, 2001, 「湖南 東部地域 石槨墓 出土 土器 硏究-長頸壺와 器臺를 中心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기타 참고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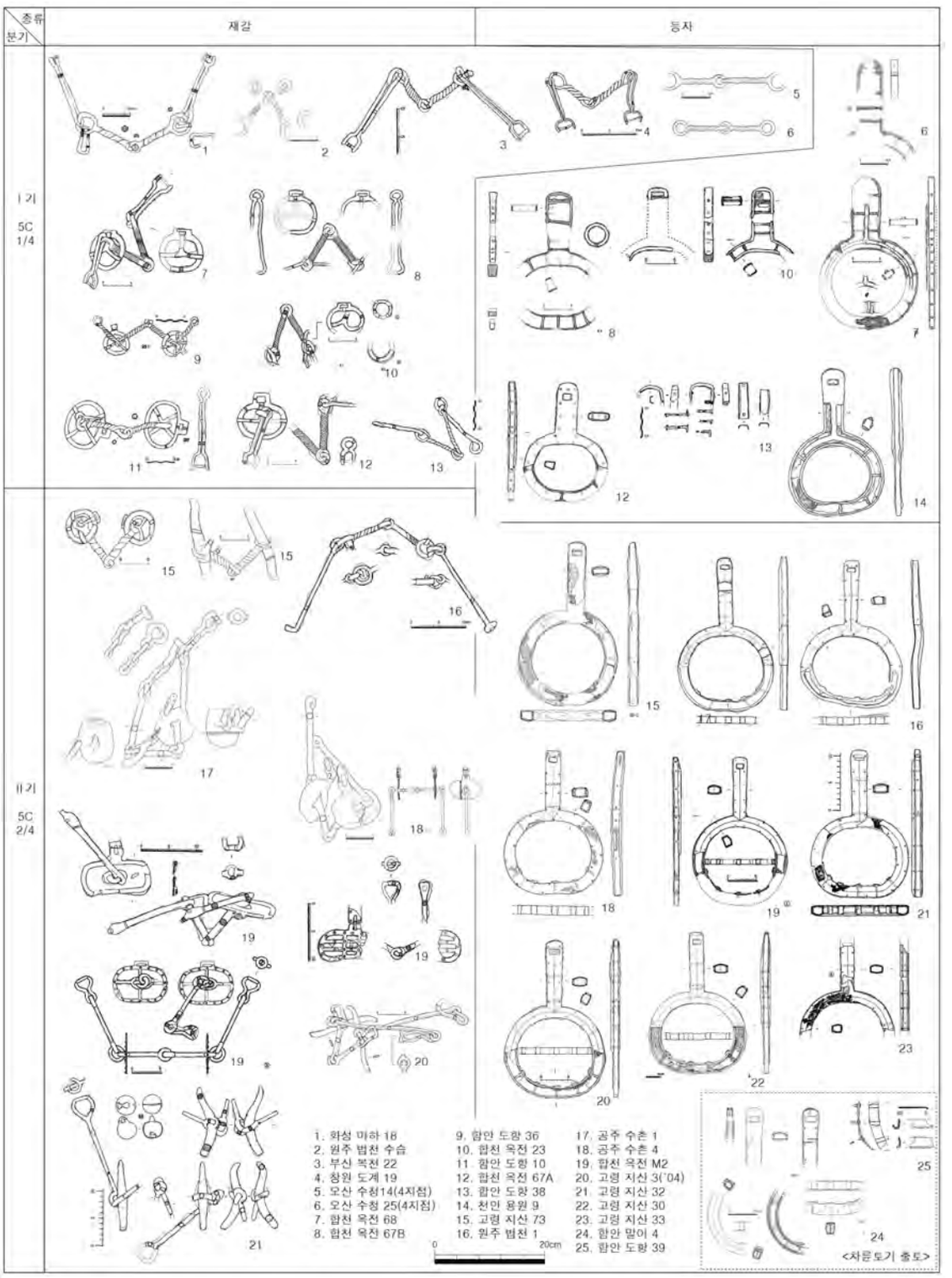


그림 21. Ⅰ·Ⅱ기 마구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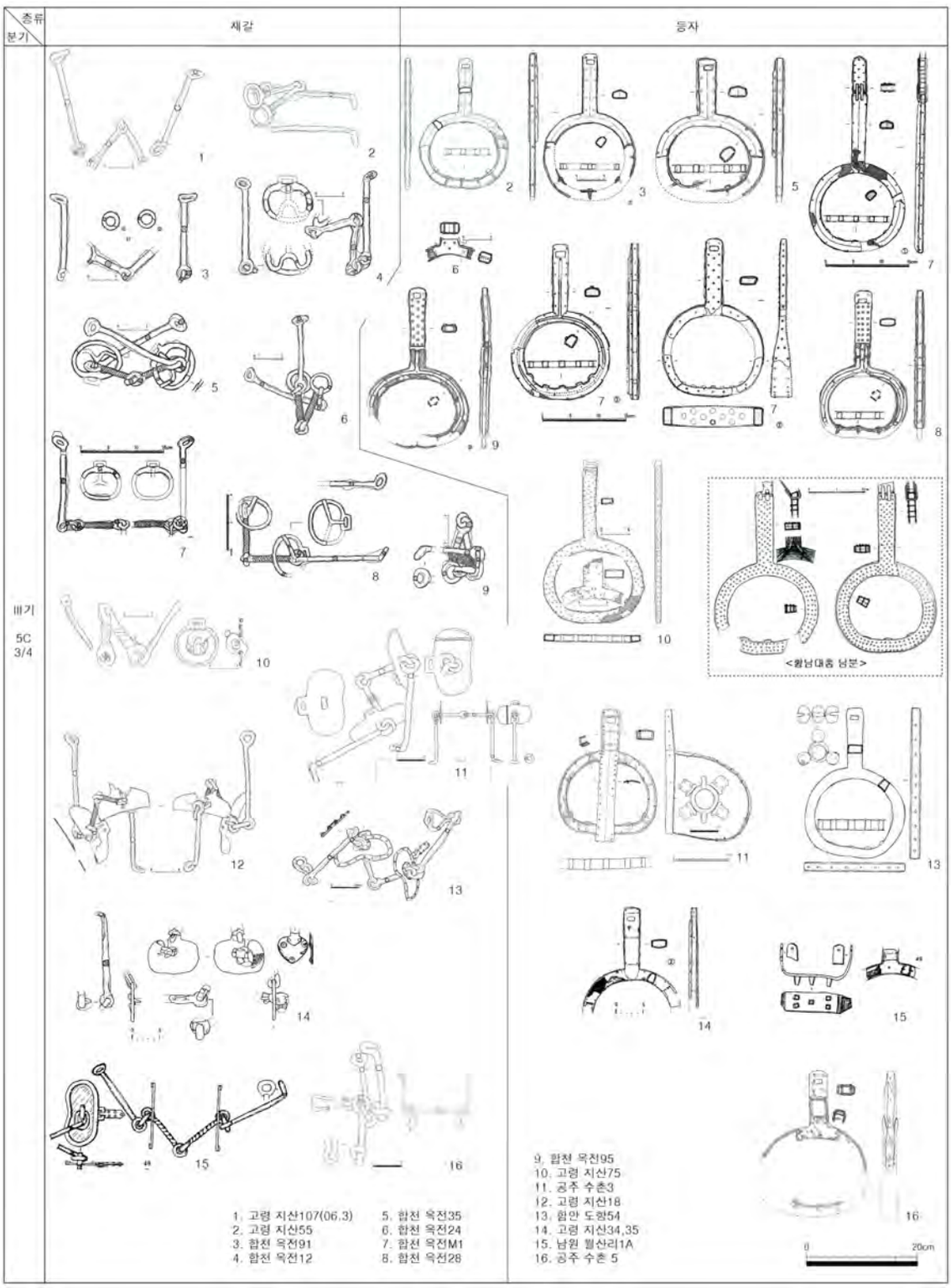


그림 22. III기 마구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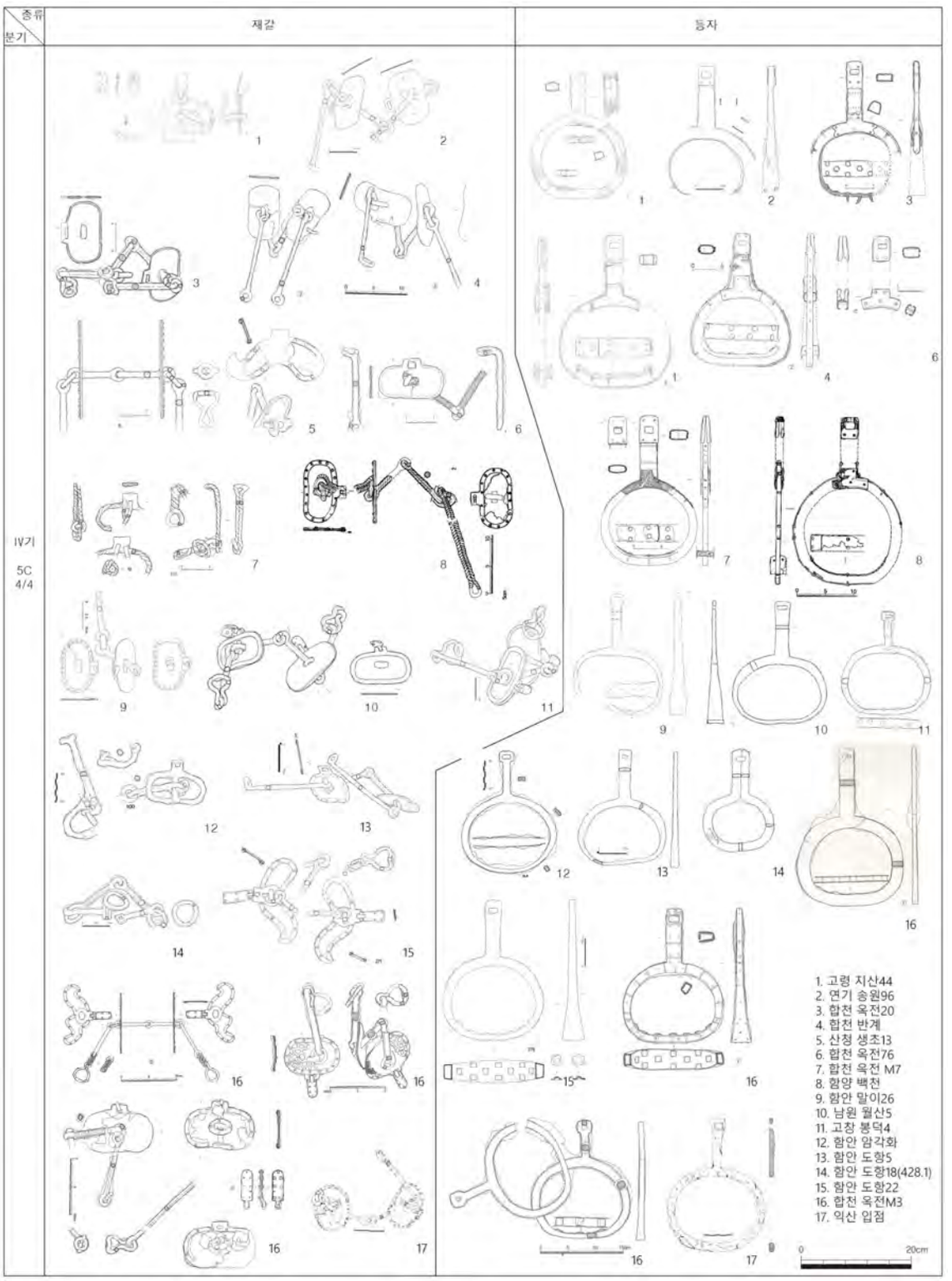


그림 23. Ⅳ기의 마구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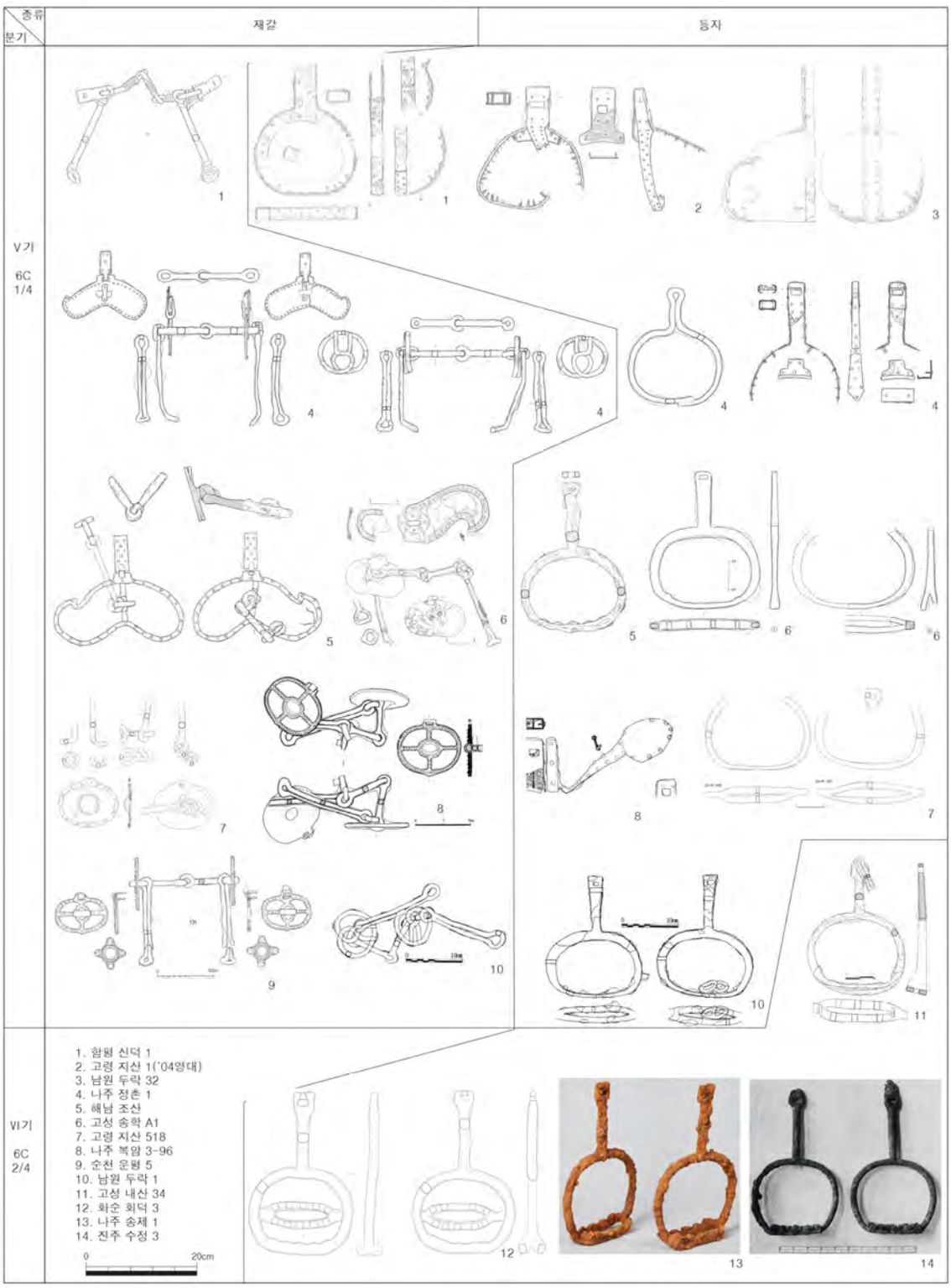


그림 24. Ⅴ~Ⅵ기 마구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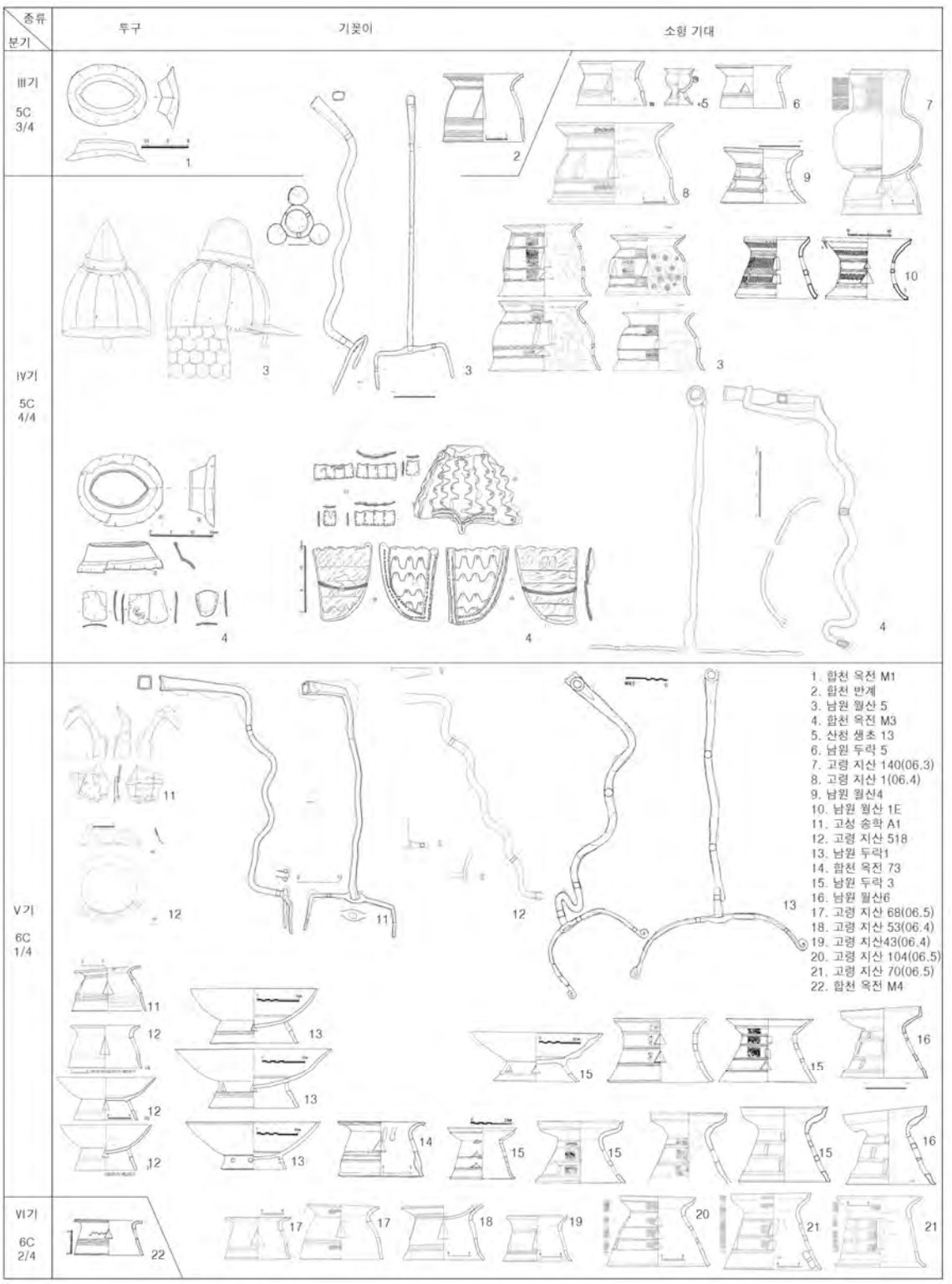


그림 25. 남원 아영분지 고분 출토 마구 부속품과 갑주 및 소형 기대의 교차편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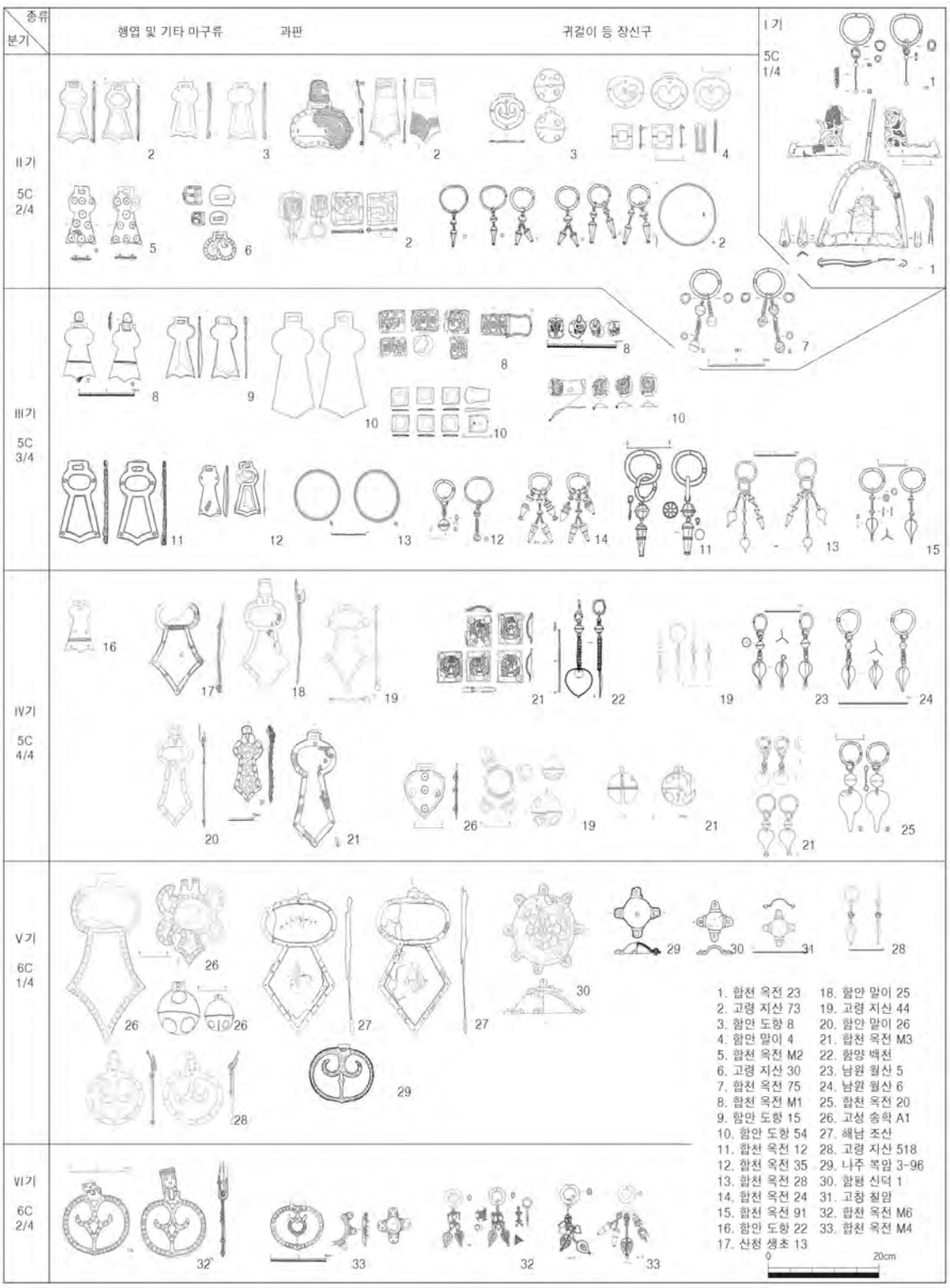


그림 26. 마구 부속품과 기타 금속공예품의 분기별 특징

「남원 아영분지 고총고분 조영세력의 변천과 성격」에 대한 토론문

조영제(경상대학교)

남원 아영분지 고총고분 축조세력을 추론하기 위해 봉토내 주석곽의 단면상 위치와 평면적인 배치 등을 정리하고 이를 경상도의 가야고분들과 폭넓게 비교, 검토하였으며, 나아가 부장 유물 중 마구와 발형기대를 분석하여 가야고분을 Ⅰ～Ⅵ로 분기하고 아영분지의 각 고분들을 편년하였다.

그 결과 청계리 2호분을 시작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아영분지의 고분은 6세기 1/4분기까지 근 100여년간 독자적으로 존속하면서 백제와 가야 사이에서 교역의 거점역할을 했던 독자적인 가야세력으로 비정하였다.

발표자의 폭넓은 시야와 방대한 자료 검토에 대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여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사실관계

1. “청계리 2호의 발형기대와 통형기대는 기형과 투창형태로만 보아도 말이산 4호와는 차이가 커서 동시기로 보기 어렵다.”(31쪽)라고 하였는데 앞의 표9를 보면 양 유구는 나란히 Ⅱ기로 표기되어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2. 13쪽에서 “아영분지와 인접한 함양 백천리 1호분은 지하식으로 11자이면서 불규칙한 부분도 있어서 남원 월산리 M1호와 유사하다”고 하였는데, 백천리 1호분은 정연한 11자형이며, 비스듬하게 배치된 1-1호분은 1-3호 봉분을 파괴하고 나중에 축조된 배묘이다. 따라서 백천리 1호분을 월산리 M1호분과 비교하여 유사한 것으로 파악한 것은 명백히 오류라고 본다.

내용

1. 석곽 축조에 있어서 하단 1단 정도 판 뒤 대부분 지상에 위치한 구조에 근거하여 월산리고분군을 옥전고분군과 축조기법에서 가장 유사하다고 하였는데, 내부주체의 단면 위치가 이런 의미를 부여할 정도로 중요한가?

오히려 가야고분의 비교연구에 있어서는 棺床의 형태나 벽석축조 등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은가? 특히 옥전고분은 개석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유구의 폭이 넓고, 벽석이 정연하게 축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목곽묘의 축조전통을 가진 특이한 구조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한시적이지만 지산동 73호분, 창령 계남리 1, 4호분 등 서부 경남에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월산리고분군을 비롯한 아영분지 내에서는 이러한 고분군이 전혀 없지 않은가?

2. 8쪽에서 고령 지산동, 합천 옥전고분군은 봉분 중앙의 주석곽을 중심으로 환상이나 열상으로 소형 순장곽이 배치된다고 했는데, 옥전고분군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유구인지?

옥전 M1호분 주변의 M1-1, 2, 3, 4호분을 순장곽일 것으로 보고했으나 M1호분의 주변유구와 지산동 44, 45호분의 순장곽은 전혀 다른 양상이다. 즉 지산동 44, 45호분의 순장곽은 모두 각 유구의 호석 내에서 주곽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옥전 M1호분의 경우에는 호석

의 범위 바깥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장된 토기들도 시기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유구를 순장곽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옥전 M1호분 축조 이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뒤(참조로 M1호분에서는 창령 내지 신라계 유물만 발견된데 비해 주변유구에서는 대가야계 토기들이 부장되어 있다) 축조된 배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발표자의 견해는?

3. 청계리의 T자형 배치 고분은 부산 복천동과 연산동고분군처럼 주부곽을 일렬로 배치하려는 의도였지만 예기치 않게 암반이 노출되어 장축을 돌렸고, 결과적으로 T자형으로 배치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는데, 복천동고분은 日자형 이혈주부곽식이며 이것이 연산동고분군으로 이동하여 한 석곽 내에 생토격벽을 가진 주부곽식으로 바뀐 형태이며, 궁극적으로는 부곽이 소멸되어 세장한 석곽묘로 발전해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청계리 2, 3호분이 과연 이러한 과정에서 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4. 그림 6의 석곽 길이와 너비에 대한 산점도에서 청계리 2호는 복천동과 연산동, 옥전, 1호는 고령 지산동과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목곽묘와 석곽묘는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석곽묘는 원칙적으로 개석을 얹는 구조이기 때문에 석곽의 평면 형태가 세장방형일 수 밖에 없다. 반면에 목곽묘는 나무뚜껑을 사용했기 때문에 석재와 달리 유구의 폭이 넓은 장방형이다. 따라서 목곽묘 전통을 가진 옥전과 청계리 2호를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또한 비교대상으로 삼은 복천동 11, 22호분의 장폭비는 주곽의 석곽만 수치화한 것 같다. 그러나 이 양 유구는 큰 부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구의 장폭비는 당연히 이 주부곽을 합친 것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5. 토기를 분석함에 있어서 발형기대와 고배의 대각에 뚫린 투창의 형태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것과 함께 대각의 단 구성과 만곡도, 베풀어진 문양 등도 같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은가?

6. 대가야권 고분의 편년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되었는데, 절대연대의 비정에 있어서는 다소의 이견이 있으나 상대서열에 대해서는 거의 일치되고 있다. 즉, 쾌빈동 1호→지산동 73호→지산동 35, 30호→지산동 32, 33, 34호→지산동 44호→지산동 45호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발표자는 자신의 2기에 지산동 73, 32, 30, 33호, 3기에 지산동 35, 34, 44호분을 배치하고 있어서 기존의 연구성과에 꽤 차이가 난다. 또한 옥전 M3호분과 M7호분을 동시기인 4기로 분기한 것과 M2호분과 M3호분을 2기와 4기로 크게 차이가 나게 나눈 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성과와 차이가 난다. 이 점에 대해서 발표자의 생각은?

7. 가야지역 고분출토 토기를 비교함에 있어서 고령지역, 함안지역, 부산지역으로 나누었는데 고분군 내에서도 시기에 따라 기종들이 변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비교에 있어서도 동시성을 갖는 유구 간의 비교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5세기 초·전반까지의 합천 옥전과 함안지역은 목곽묘가 중심이면서 발형기대, 투창고배, 유개장경호 등은 발견되지 않음에 비해 고령지역은 쾌빈동 목곽묘를 제외하면 이에 상응하는 유구들이 조사된 바 없고, 당연히 이러한 유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각 고분 출토 자료들을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가?

Part
03

남원 월산리 고분군 발굴조사 성과

발 표 : 김규정 | 전북문화재연구원

토 론 : 조영제 | 경상대학교

남원 월산리 고분군 발굴조사 성과

김규정(전북문화재연구원)

목 차

1. 머리말
2. 월산리 고분군의 입지 및 구조적 특징
   1) 월산리 고분군의 입지와 분포현황
   2) 봉토의 형태와 축조방법
   3) 석곽의 구조와 축조방법
3. 월산리 고분군 출토유물과 피장자의 성격
   1) 주요 출토유물
   2) 월산리 고분군 피장자의 성격
4. 맺음말

1. 머리말

남원 월산리 고분군은 전북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산1-1·163번지, 월산리 380-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81년 10기의 봉토분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1982년 조사 당시는 9기의 봉토분이 확인되었다.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M1호-M3호분은 88올림픽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1982년 발굴조사 되었고[1],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M4-M6호분은 고속국도(88올림픽고속도로) 제12호선 담양-성산 간 확장공사(6공구) 구간에 포함되어 2010년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2] 지금은 9기의 봉토분 가운데 M5호·M6호분만 현지 보존이 결정되었고 M4호분은 조사완료 후 공사구간에 포함되어 멸실되었다.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M7호-M9호분은 1982년 보고 당시에는 봉분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이후 경지정리과정에서 모두 유실되어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월산리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는 남원은 『三國史記』 地理志에 '本百濟古龍郡'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의 고룡군은 현 남원시내가 중심이었을 것이며 월산리 고분군이 위치하는 운봉고원 일대가 당시 백제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운봉고원 일대에서 확인되는 고분은 대부분 가야의 봉토분인 것으로 보아 아마도 운봉고원 일대가 가야의 영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운봉고원은 백제와 소가야·대가야·신라로 연결되는 중요한 교통로로써 남동쪽의 팔량치를 넘으면 함양군 함양읍으로 연결되고, 북동쪽 매치를 넘으면 함양군 백전면과 병곡면으로 연

1) 圓光大學敎 馬韓·百濟文化硏究所, 1983, 『南原, 月山里古墳群發掘調査報告』.
2)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12, 『南原, 月山里古墳群 -M4·M5·M6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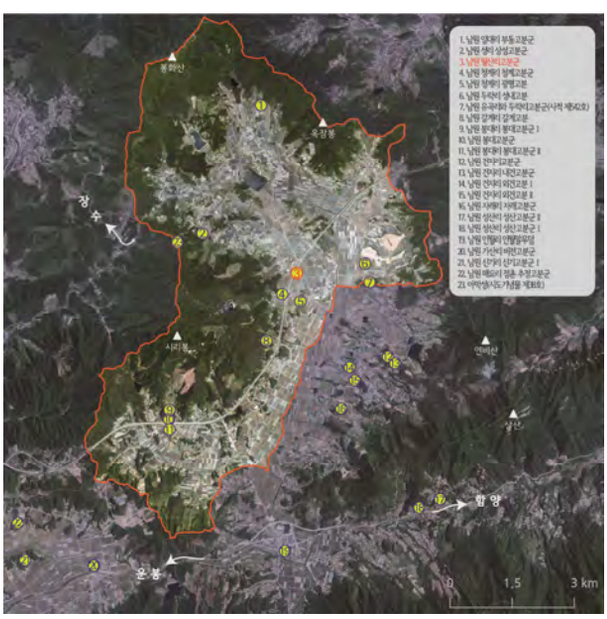
결된다. 이 길은 거창-합천을 거쳐 고령 대가야로 연결되고 남강 본류를 따라 경남 서부지역의 소가야로 연결된다. 서남쪽으로 운봉읍을 지나 여원치(여원재)를 넘으면 요천을 따라 섬진강 거쳐 남해안으로 연결되는 길과 남원에서 치재를 넘어 임실을 거쳐 동진강과 서해안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북서쪽 복성이재를 넘으면 장수군 번암면을 지나 수분재를 넘어 금강유역으로 연결된다. 고대에 있어 운봉고원 일대는 백제가 가야 및 신라로 진출하기 위해, 혹은 가야나 신라가 백제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고대부터 삼국의 각축장이 되었던 지역이다.

본 발표는 1982년에 조사된 M1호·M2호·M3호분과 2010년에 조사된 M4호·M5호·M6호분을 중심으로 조사내용과 고분군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월산리 고분군의 입지 및 구조적 특징

1) 월산리 고분군의 입지와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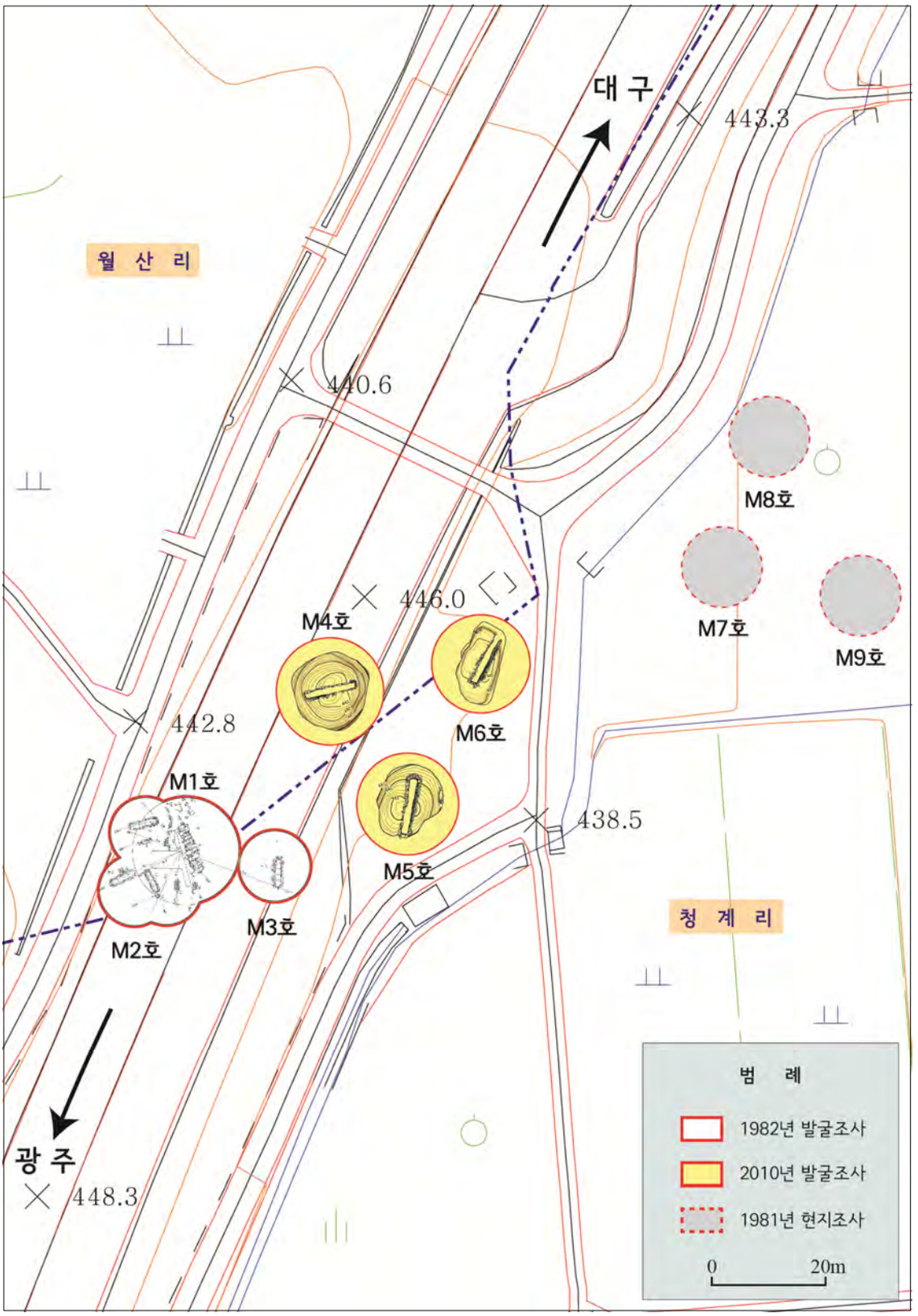
월산리 고분군이 위치하는 아영면 일대는 지리산으로 연결되는 백두대간의 동쪽에 해당하며 지리산의 연맥인 봉화산(해발 919m), 시리봉(해발 776.8m), 황산(해발 697m), 상산(해발 871m), 연비산(해발 842.8m) 등 해발 600m 이상의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이다. 운봉고원의 일부인 아영평야가 형성되어 있고 하천은 봉화산에서 발원한 풍천(楓川)이 아영평야를 가로질러 동남류하여 인월면에서 남천에 합수되어 임천과 남강을 거쳐 낙동강으로 흘러든다.



도면 1. 월산리 고분군 위치 및 주변 고분군 위치도

위의 산들에서 흘러내린 가지능선에는 많은 봉토분들이 분포하고 있다. 풍천의 서쪽에는 월산리 고분군을 비롯하여 청계리고분군, 청계리 광평고분, 갈계리 갈계고분이 분포하고 있으며, 동쪽에는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사적 제542호), 두락리 성내고분, 건지리고분군, 건지리 내건고분군, 건지리 외건고분군 Ⅰ·Ⅱ, 자래리 자래고분군 등 약 20개소의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은 30기가 넘는 중대형봉토분들이 분포하며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월산리 고분군은 시리봉(해발 776.8m)에서 동북쪽으로 길게 뻗은 가지능선의 동쪽 경사면 끝자락인 해발 450m 내외의 완만한 능선을 따라 입지하고 있다. 현재는 고속도로가 관통되어 원지형을 짐작하기 어렵지만 1918년 제작된 1:50,000 지형도에는 서-동으로 뻗은 완만한 능선이 형성되어 있고 능선을 가로질러 거의 남-북 방향으로 마을길이 조성되어 있다. 고분은 이 능선을 따라 조성되어 있는데 서남쪽부터 북동쪽으로 M1호·M2호·M3호분, M4호·M5호·M6호분, M7호·M8호·M9호분이 각각 3기씩 소군집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다.



도면 2. 남원 월산리 고분군 위치 및 분포현황(1:1,000)

1982년 조사 당시 M1호분 일대는 민묘역이 조성되었고 일부 송림을 제외한 동쪽은 대부분 계단식 전답으로 개간되었다. M1호·M2호·M3호분은 같은 구릉상에 군집되어 있는데, M1호분 분정에서 서남쪽으로 11.0m 정도 떨어져서 M2호분이 위치하고 M1호분 분정에서 동남쪽으로 18.0m 정도 떨어져서 M3호분이 위치하고 있다. M1호분의 봉토 가장자리에 M2호·M3호분이 접하고 있는데 M2호분의 석곽을 파괴하고 M1호분의 봉토가 조성된 것으로 보아 원래 M2호분과 기타 석곽들이 조성된 지역에 M1호분의 봉토가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3)]

M4호·M5호·M6호분은 중첩 없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소군집을 이루어 분포하고 있다. 비교적 봉분의 원형이 잘 남아 있으나 M5호·M6호분의 남쪽은 민가가 조성되면서 봉토의 일부가 절개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가장 북서쪽에 위치하는 M4호분 분정에서 동남쪽으로 23.8m 정도 떨어져서 M5호분이 위치하고, M4호분 분정에서 동쪽으로 25m 정도 떨어져서 M6호분이 위치한다. M4호·M5호·M6호분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봉토의 원형이 비교적 잘 남아 있었지만, 2010년 조사 당시에는 중장비를 동원한 개간으로 봉토 가장자리는 기반층까지 삭평되어 원지형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M4호·M5호·M6호분의 동쪽에 분포하는 M7호·M8호·M9호분은 1981년 현지조사에서 봉토의 흔적이 일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이후 경지정리 과정에서 멸실되었다.

2) 봉토의 형태와 축조방법

월산리 고분군은 1982년 조사 당시 모두 9기의 봉토분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월산리 고분군 현황 및 특징

호수	봉토 형태	봉토규모 직경×높이(m)	매장 주체부	특징	비고
M1	원형	19×2.4~3.2	석곽	M2·M3호분과 봉토중첩, 도굴로 분정 함몰, 개석과 벽석 노출	
M2	원형	9(?)×0.7	석곽	M1호분과 봉토중첩, 무개석식	
M3	원형	10(?)×1.3	석곽	M1호분과 봉토중첩, 무개석식	
M4	원형	17.4×3.7(1982년) 12.6×12.9×2.8(2010년)	석곽	도굴로 분정함몰, 개석과 벽석 노출, 개간으로 봉토 일부 파괴, 분할성토, 벽석 축조와 동시에 성토	
M5	원형	16.6×3.5(1982년) 13.0×10.54×2.78(2010년)	석곽	도굴로 분정함몰, 개석과 벽석 노출, 개간으로 봉토 일부 파괴, 벽석 축조와 동시에 성토	봉토중 소형 석곽 1기
M6	원형	15.5×2.2(1982년) 12.72×6.80×2.2(2010년)	석곽	도굴로 분정함몰, 개석과 벽석 노출, 개간으로 봉토 대부분 파괴, 벽석 축조와 동시에 성토	봉토중 소형 석곽 1기
M7	원형?	12.8×1.6	?	1982년 이후 완전히 멸실	
M8	원형?	14.0 내외×0.6	?	1982년 이후 완전히 멸실	
M9	원형?	13.8×1.8	?	1982년 이후 완전히 멸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봉토는 M2호·M3호분을 제외하면 모두 직경 20m 내외에 높이 3m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M2호·M3호분은 직경 약 10m 내외에 높이 1m 내외로 그리 크지 않은 봉토분으로 볼 수 있다. 봉토의 평면형태는 9기 모두 원형으로 볼 수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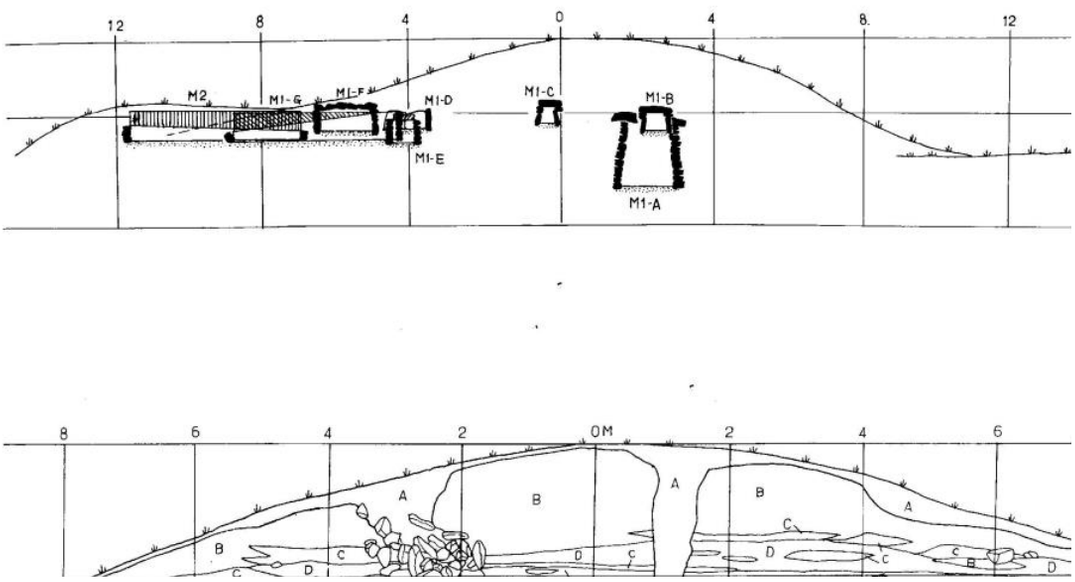
3) 圓光大學敎 馬韓·百濟文化硏究所, 1983, 『南原, 月山里古墳群發掘調査報告』.

M7호·M8호·M9호분은 멸실되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지만 1982년 보고 당시 원형봉토분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M5호·M6호분은 봉토 가장자리가 거의 파괴된 상태에서도 15m 이상의 봉토가 잔존하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20m 이상 규모의 봉토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M1호분은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여 봉토가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었으며 규모는 직경 19m로 월산리 고분군 가운데 가장 크다. 봉토의 높이는 서쪽 2.4m, 동쪽 3.2m로 확인되었고 분정에서 2m 깊이에서 개석 상면이 노출되었다. M1호분은 구지표를 평탄화하고 정지단계를 거쳐 묘광을 약 2m 정도 굴착하여 석곽을 축조하고 개석을 덮은 후 그 위에 봉토를 성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봉토의 성토방법은 개석 상면을 황갈색점토로 밀봉한 후 흑색점토와 황색점토, 황갈색점토를 교차 성토하고 최종적으로 황갈색점토를 피복한 것으로 보인다.

M2호분의 봉토 규모는 잔존 직경은 9m 내외, 높이는 0.7m 내외이다. M1호분의 봉토가 조성되면서 M2호 석곽 일부가 파괴된 것으로 보아 M2호분이 먼저 축조되고 M1호분이 나중에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M1호분이 축조될 당시 M2호분은 그리 높지 않은 봉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도굴 등으로 봉토가 훼손되어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다.

M3호분의 봉토 규모는 잔존 직경 10m, 잔존높이 1.3m이다. M3호분 봉토 또한 도굴과 묘역조성 등으로 대부분 파괴되어 정확한 성토방법은 알 수 없지만, 봉토를 복원할 경우 M1호분의 봉토와 일부 중첩되기 때문에 M2호분과 같이 그리 높지 않은 봉토를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묘광은 생토면을 굴착하고 석곽을 축조하였으며 개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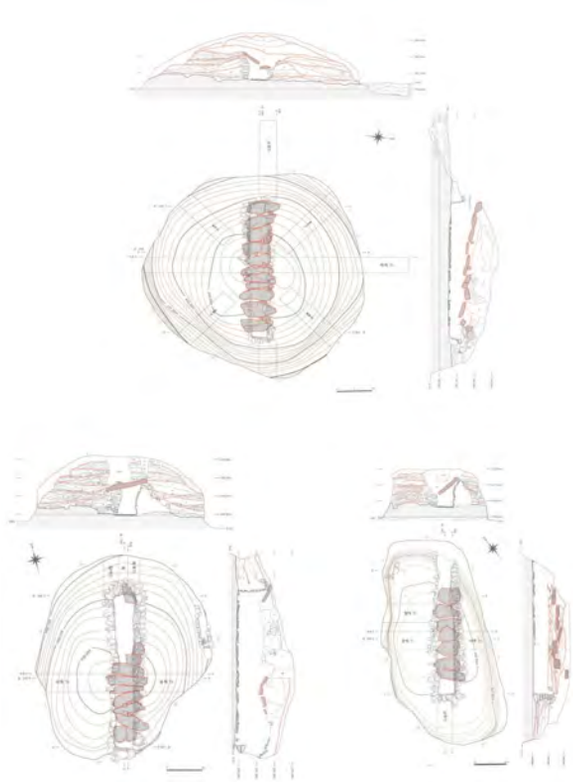


도면 3. 월산리 고분군 M1호·M2호·M3호분 봉토 평·단면도

M4호·M5호·M6호분은 M1호분의 동북쪽에 위치한다. 1982년 조사에서 M4호분 봉토의 규모는 직경 17.4m, 높이 3.7m로 3기의 고분 가운데 가장 양호하게 남아 있었지만, 2010년 조사에서는 남동쪽 부분이 밭으로 개간되면서 봉토 가장자리가 1m 이상 절개된 상태였다. 봉토의 규모는 남-북 12.6m, 동-서 12.9m, 높이 2.8m 정도 잔존하였다. 봉토의 서쪽은 도굴로 파괴되어 석곽이 노출된 상태에서 1982년 일부 수습조사가 이루어졌다. 봉토의 축조는 기반층을 넓게 정지한 후 흑갈색점질토를 깔고 매장주체부인 석곽을 설치하기 위해 묘광을 약간 굴착한 후 최하단석을 쌓았다. 2단부터는 석곽축조와 동시에 점성이 강한 암갈색점질토, 황

갈색점질토 등을 반복하여 거의 수평에 가깝게 구축토를 쌓았다. 구축토는 석곽을 축조하면서 벽석 쪽을 중심으로 약간 경사지게 성토하였다. 개석 위로 회백색점토를 이용하여 밀봉하고 그 위에 이질점토를 성토하여 봉토를 축조하였다. 봉토의 성토방법은 남쪽과 북쪽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데 남쪽은 벽석을 쌓으면서 거의 동시에 수평에 가깝게 약 5-20㎝ 두께로 성토하여 쌓아 올린 반면, 북쪽은 흑갈색점질층 위에 이질성토재(토낭)를 이용하여 지그재그형으로 성토하였다. 평면상에서 분할성토의 흔적을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확인한 결과 봉토의 층위가 각 지점마다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원래는 분할성토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M5호분은 1982년 조사 당시 봉토의 규모는 직경 16.6m, 높이 3.5m 정도가 남아 있었다. 2010년 조사에서 동남쪽과 봉토 가장자리는 대부분 훼손된 상태로 확인되어 봉토의 규모는 남-북 13m, 동-서 10.54m, 높이 2.78m 정도 잔존하고 있었다. 남단벽부분은 벽석이 2단 정도만 남아 있었다. 봉토의 축조방법은 이질성토재(토낭)를 10-15㎝ 두께로 성토하였는데 묘역을 선정한 후 기반층을 정지하고 매장주체부인 석곽을 설치하기 위해 묘광을 약간 굴착하고 최하단석을 쌓은 다음 2단부터는 벽석을 쌓으면서 거의 동시에 이질성토재(토낭)와 그 위로 점성이 강한 암갈색점질토, 황갈색점질토를 반복하여 구축토를 쌓았다. 그리고 개석을 덮은 후 황갈색점질토로 밀봉하고 그 위에 일정한 두께로 약 10개 층의 수평에 가까운 성토층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상당히 높은 봉토가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4. 월산리 고분군 M4호·M5호·M6호분 봉토 평·단면도

M6호분은 봉토가 대부분 파괴되어 거의 매장주체부만 남아 있었다. 1982년 조사 당시 봉토의 규모는 직경 15.5m, 높이 2.2m 정도 남아 있었지만, 2010년 조사에서는 매장주체부의 장축방향을 따라 봉토가 절개되어 거의 장타원형에 가까운 부정형을 보이고 있었다. 봉토의 규모는 남서-북동 12.72m, 서북-동남 6.80m, 높이 2.2m 정도 잔존하였다. M4호·5호분과 거의 동일한 축조방법이 확인되며 묘역을 선정한 후 기반층을 정지하고 매장주체부인 석곽을 설치하기 위해 묘광을 약간 굴착하고 최하단석을 놓은 다음 2단부터는 벽석을 쌓으면서 거의 동시에 이질성토재로 구축토를 쌓았다. 이질성토재 위로는 점성이 강한 암갈색점질토, 황갈색점질토를 반복하여 성토하였다. 개석을 덮은 후에는 암갈색점질토로 밀봉한 것으로 판단되나 도굴로 인하여 개석이 모두 교란되어 정확하지 않다. M6호분도 M5호분과 마찬가지로 개석 위로도 일정한 높이까지 수평에 가까운 성토층이 확인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월산리 고분군의 봉토 규모는 직경 15-20m 내외 4기(M1호·M4호·M5호·M6호분), 직경 10-15m 내외 3기(M7호·M8호·M9호분), 직경 5-10m 내외 2기(M2호·M3

호분)이다. M1호분은 구릉 능선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고분들보다 성토를 높게 하지 않아도 상당히 높게 보이는 효과를 나타낸다. 하지만 잔존 봉토의 높이로 보면 M4호·M5호·M6호분 봉토의 높이가 M1호분보다 높게 성토한 것으로 보인다. 봉토의 축조방법에서도 M1호분과 M4호·M5호·M6호분은 차이를 보인다. M1호분은 자연경사면을 약간 정지한 후 묘광을 깊게 굴착하여 석곽을 축조한 다음 개석을 덮고 봉토를 조성하였지만, M4호·M5호·M6호분은 기반층을 정지하고 석곽의 최하단석만 놓을 정도로 묘광을 얕게 굴착한 후 2단부터 석곽을 축조함과 동시에 성토가 이루어졌다. M1호분은 매장주체부가 거의 지하에 축조된 전형적인 수혈식석곽인 반면 M4호·M5호·M6호분은 최하단인 1단을 제외하면 거의 지상에 석곽을 축조한 것으로 보아 수혈식석곽의 형태를 가진 지상석곽식 구조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최하단석만 굴착하여 쌓고 2단부터 벽석을 축조함과 동시에 구축토를 쌓은 방법은 의령 경산리 1호분에서도 확인되는데 경산리 1호분은 매장주체부가 횡혈식석실이라는 점에서 월산리 고분군과 차이가 있다. 석곽이 성토층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기존 가야 고분의 축조방법과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주로 마한의 분구묘의 축조방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3) 석곽의 구조와 축조방법

표 2. 월산리 고분군 M1호~M6호분 매장주체부 제원 및 특징

호수	유형	규모(㎝) 길이×너비×높이	장축 방향	벽석	개석	바닥 시설	유물부 장위치	출토유물	비고
M1	수혈식	865×117~136×185	N20° W	천석+할석	함몰	부석	중앙 양단벽	유개장경호, 광구호, 뚜껑, 발형기대, 고배, 환도대도, 철기류, 마구류, 금구 등	도굴, 6기의 석곽이 확인됨. 주부곽식은 아니며 선후관계로 파악
M2	수혈식	430×65~89×50	N68° E	천석+할석	없음	생토	동단벽	단경호, 광구호, 철부, 철겸	M1호분 분구와 중복됨. 개석 없음
M3	수혈식	470×67×80	N0° E	천석+할석	없음	생토	중앙 남단벽	유개장경호, 단경호, 발형기대, 철검, 철도자, 철부, 철모, 철촉, 철환, 교구	단독으로 확인됨. 개석 없음
M4	지상식	825×94~100×145	N83° W	천석+할석	함몰	부석	중앙 양단벽	유개장경호, 뚜껑, 기대, 도자, 금구, 안교(1982년 수습), 유리곡옥, 유리옥, 꺾쇠	도굴, 개석함몰, 봉토 가장자리 파괴
M5	지상식	960×112~123×185	N16° E	천석+할석	함몰	부석	중앙 양단벽	청자계수호, 철제초두, 갑주, 경갑, 금제이식, 통형기대, 발형기대, 유개장경호, 대부호, 고배, 뚜껑, 교구, 등자, 개배	도굴, 봉토 가장자리 파괴, 석곽 바닥에 일정한 간격의 凹面 확인, 분구 내 석곽 1기
M6	지상식	850×110×180	N40° E	천석+할석	함몰	부석	중앙 양단벽	기대, 뚜껑, 장경호편, 철기류, 금제이식, 환옥 등	도굴, 봉토 가장자리 파괴, 석곽 바닥에 일정한 간격의 凹面 확인, 분구 내 소형석곽 1기

석곽은 M1호-M6호분의 주석곽과 M1호에서 확인된 석곽 6기, M5호분 봉토에서 확인된 석곽 1기, M6호분 봉토에서 확인된 석곽 1기 등 모두 14기이다. M1호-M6호분 매장주체부는 주석곽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석곽은 기타석곽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석곽

주석곽은 M1호-M6호분 매장주체부로 사용된 석곽으로 매장주체부는 봉토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부장곽이나 배장곽 없이 단독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석곽은 모두 수혈식석곽으로 볼 수 있지만, 축조방법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M1호·M2호·M3호분은 석곽을 축조하기 위해 기반층을 정지한 후 묘광을 깊게 굴착하여 석곽을 축조하고 그 위에 개석을 덮은 전형적인 수혈식 석곽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M4호·M5호·M6호분는 기반층을 어느 정도 정지한 후 묘광을 굴착하였는데 묘광의 깊이는 최하단석이 놓일 정도로 얕게 굴착하였다. 그리고 2단부터는 석곽을 축조하면서 동시에 구축토를 성토하였기 때문에 매장주체부가 지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지상에 있는 지상식 석곽에 가깝다.

석곽의 규모는 800㎝ 이상의 대형과 500㎝ 이하의 소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형은 M2호와 M3호분을 제외한 M1호·M4호·M5호·M6호 4기가 해당된다. 대가야의 왕릉으로 보고된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석곽 규모가 대체로 900㎝ 이하인 것으로 볼 때 월산리 M5호 석곽은 길이 960㎝로 석곽의 규모에 있어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확인된 석곽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아라가야의 경우 석곽의 규모를 기준으로 4등급을 설정하였는데 Ⅰ등급을 길이 950㎝ 이상, 너비 170㎝ 이상, Ⅱ등급을 길이 750-950㎝ 미만, 너비 160㎝이상, Ⅲ등급을 길이 500-750㎝ 미만, 너비 100-160㎝ 미만, Ⅳ등급을 길이 500㎝ 미만으로 보고 있다.[4] 이를 월산리 고분군 석곽에 적용한다면 M5호분 석곽은 Ⅰ등급, M1호·M4호·M6호분 석곽은 Ⅱ등급, M2호·M3호분 석곽은 Ⅳ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석곽의 규모 차이는 위계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보고자의 주장처럼 M2호·M3호분이 M1호분보다 이른 시기에 축조되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석곽의 장축방향은 일정한 정형성을 보이지 않는다. 조사 당시 이미 원지형이 훼손되어 고분이 축조된 지형을 복원하기는 어렵지만, 이처럼 장축방향이 일정한 정형성을 보이지 않는 것은 지형 조건에 따라 고분을 축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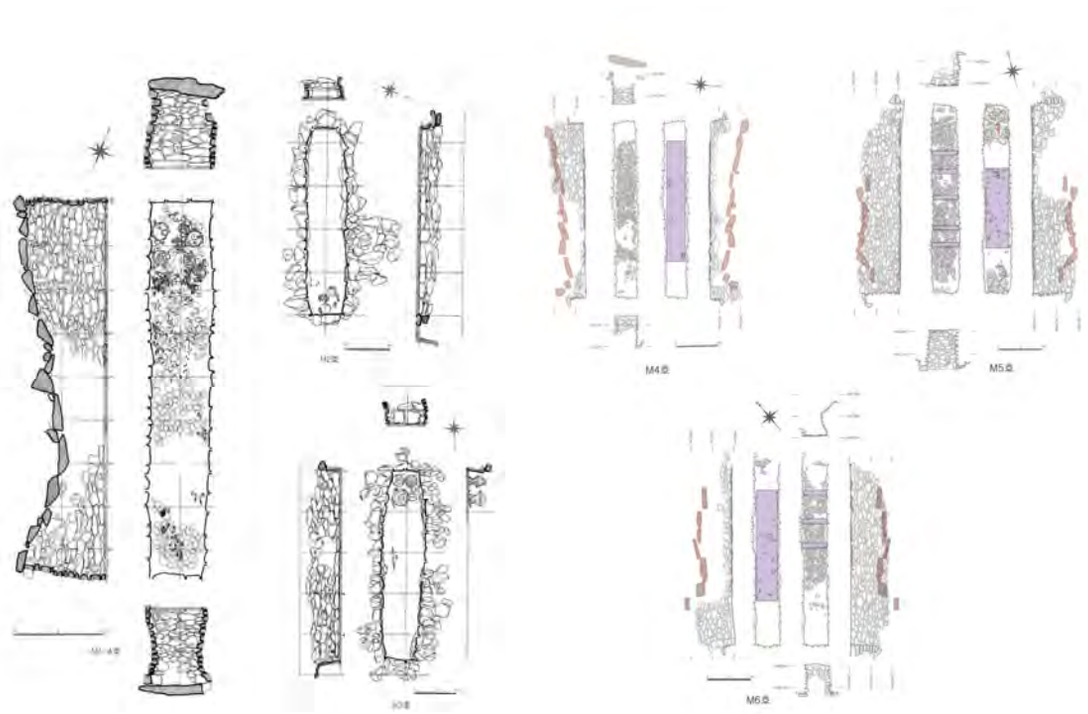
석곽은 천석과 할석을 이용하여 쌓았는데 M2호·M3호분 석곽을 제외하면 대체로 10-14단 정도 남아 있다. 벽석의 축조방법은 최하단은 대체로 가로눕혀쌓기하고 2단부터는 가로와 세로눕혀쌓기를 혼용하였다. 벽석이 잘 남아 있는 M5호분은 단벽에서 장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U자형을 이루고 있어 장벽에서 시작하여 단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쌓았다.

개석은 M2호·M3호분 석곽을 제외한 모든 석곽에서 확인되었다. 도굴로 일부는 개석이 제거된 상태였으며, 벽석이 무너지면서 개석 대부분이 석곽 내부로 함몰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개석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M1호·M4호분 석곽의 경우 10-12매 내외의 장대형 할석을 이용하였다. 개석이 확인되지 않은 M2호·M3호분 석곽은 축조 당시부터 개석을 석재로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합천 옥전 고분군의 경우 일부 석곽에서 개석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목개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어 월산리 M2호·M3호분도 목개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김수환, 2013, 「가야인의 내세관-순장습속을 중심으로-」, 김해·함안의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심포지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126쪽.

바닥시설은 M2호·M3호분은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고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석곽들은 모두 바닥에 잡석이나 잔자갈을 깔았다. M4호·M5호·M6호분은 전면에 부석을 하였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너비 15-20㎝ 내외의 凹면이 확인된다. M4호분은 서북쪽 단벽에서 200㎝ 정도 떨어져 70㎝, 100㎝, 175㎝ 간격으로 凹면이 확인되고 M5호분은 북동단벽에서 25㎝ 정도 떨어져서 160㎝, 60㎝, 125㎝, 90㎝, 60㎝, 140㎝ 간격으로 凹면이 확인되고 부석이 되지 않았다. M6호분은 서북쪽 단벽에서 445㎝ 정도 떨어져 90㎝, 100㎝ 간격으로 凹면이 확인되었는데 바닥이 도굴로 대부분 교란된 것을 감안하면 원래는 이보다 많은 凹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부석을 하지 않거나 부석을 하였더라도 凹면이 확인되는 것은 아마도 목관을 받치기 위해 목재를 놓았던 시설로 보인다.

목관은 꺾쇠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꺾쇠는 M2호·M3호분 석곽을 제외한 4기의 석곽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M5호분 석곽에서 확인된 꺾쇠의 출토범위는 길이 300㎝, 너비 80㎝ 정도로 이를 통해 관의 크기를 추정하면 길이 300㎝, 너비 80㎝ 정도의 관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면 5. 월산리 고분군 M1호·M2호·M3호분(좌), M4호·M5호·M6호분(우) 석곽 평·단면도

(2) 기타석곽

M1호-M6호분 매장주체부인 주석곽 이외에 성격을 달리하는 석곽을 기타석곽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기타석곽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M1호분 봉토 내에서 6기, M5호분 봉토 내에 1기, M6호분 봉토 내에 1기 등 모두 8기가 조사되었다.

기타석곽의 규모를 살펴보면 M1-G호 석곽이 길이 475㎝로 가장 크고 M1-E호 석곽이 다음이며, M1-B호·C호·D호·F호 석곽은 길이 200㎝ 이하의 소형이다. M1-G호 석곽은 M2호·M3호분 석곽보다 오히려 규모가 더 큰 석곽이다.

표 3. 월산리 고분군 기타석곽 제원 및 특징

호수	유형	규모(㎝) 길이×너비×높이	장축 방향	바닥 시설	벽석	개석	출토유물	비고
M1-B	수혈식	190×50×60	N12° E	생토	천석+할석	있음	광구호, 개배	개석 3매 잔존
M1-C	수혈식	128×44×36	N6° E	생토	천석+할석	있음	광구호, 단경호, 개배	개석 6매 잔존
M1-D	수혈식	135×40×60	N72° E	생토	천석+할석	없음	없음	개석 없음
M1-E	수혈식	377×65~69×85	N23° W	생토	천석+할석	없음	유개장경호, 대부장경호, 광구호, 소형기대, 컵형토기, 철부	개석 없음
M1-F	수혈식	150×40×60	N76° E	부석	천석+할석	있음	광구호, 개배, 철겸, 철도자	개석 6매 잔존
M1-G	수혈식	475×55×85	N77° E	생토	천석+할석	없음	유개장경호, 광구호	개석 없음
M5-1	수혈식	잔존 290×40×70	N10° E	성토	천석+할석	없음	광구호, 단경병, 도자	주석곽에서 동북쪽에 위치
M6-1	수혈식	잔존 40×24×45	N65° E	성토	판석+할석	없음	없음	주석곽에서 븍서쪽에 위치

장축방향을 살펴보면 M1-E호는 M1-A호와 나란한 남동-북서 방향에 가깝고 나머지 석곽은 M1-A호 석곽과 약간 사선을 이루거나 거의 직각을 이루고 있다. M1-B호와 C호 석곽, M1-F호와 G호 석곽은 서로 인접하고 장축방향이 나란한 것이 특징인데 석곽의 규모와 배치 양상으로 보아 M1-G호 석곽은 주곽이고 M1-F호 석곽이 부곽일 가능성도 있다. M5-1호 석곽은 남서-북동 방향으로 M5호분 주석곽과 장축방향이 나란하고 M5호분 주석곽 동쪽 봉토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M6-1호 석곽은 장축방향이 남서-북동 방향으로 M6호분 주석곽과 장축방향이 나란하고 M6호분 주석곽 북쪽 봉토 내에 위치하고 있다.

바닥시설은 M1-C호·F호 석곽에서 부석이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석곽은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았다. 부석은 바닥 전면에 편평한 소할석을 이용하였다.

벽석은 대부분 천석과 할석을 혼용하여 쌓았는데 M1-B호 석곽만 세로세워쌓기하였고 나머지 석곽들은 모두 가로눕혀쌓기와 세로눕혀쌓기를 혼용하여 쌓았다. 개석은 M1-B호·C호·F호 등 모두 3기에서만 확인되었다.

보고자는 M1-A호 석곽을 제외한 6기의 석곽을 M1호분보다 선행하는 석곽으로 보았는데 이는 M1-A호 석곽을 제외하면 대부분 개석이 없거나 일부 석곽의 경우 벽석이 유실된 상태로 확인되어 M1호분 봉토가 조성되면서 유실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석곽이 봉토를 조성하는 과정에 축조되었거나 아니면 봉토를 조성한 이후에 조성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축조상태와 M5-1호 석곽에서 출토된 토기로 보아 봉토를 조성한 이후에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3. 월산리 고분군 출토 유물과 피장자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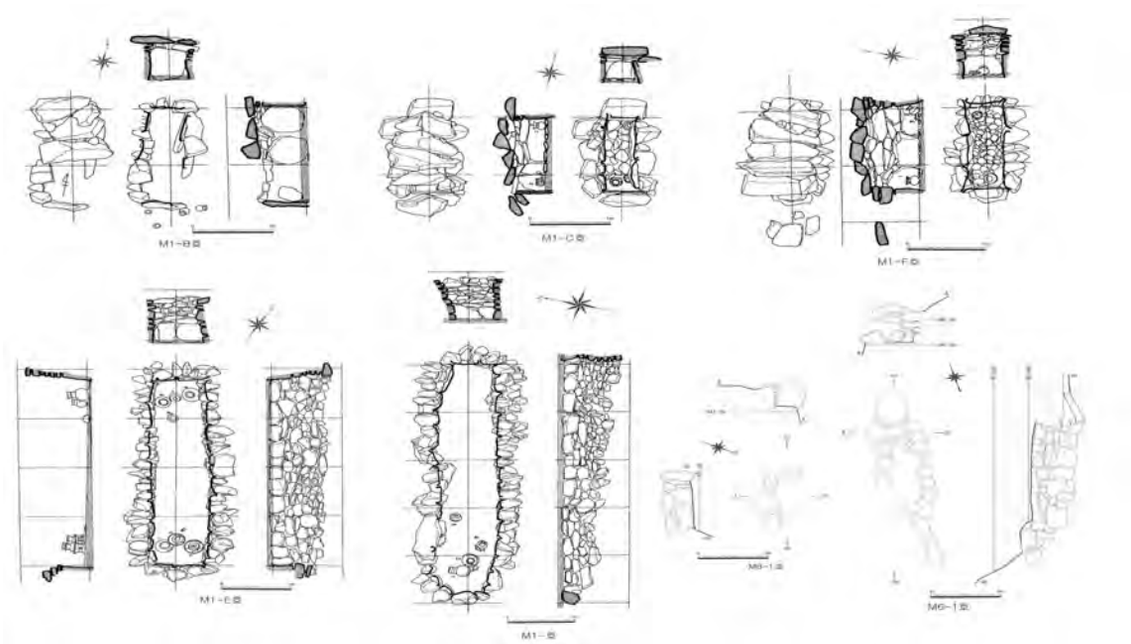
1) 주요 출토유물

월산리 고분군은 1982년 조사에서 M1-A호분 매장주체부인 석곽에서 금은상감환두도, 철모, 등자, 재갈, 갑주 등이 출토되었다. 2010년에 조사된 M4호·M5호·M6호분은 수차례에 걸친 도굴이 이루어졌지만 M5호분은 피장자와 관련된 착장유물을 제외한 북동단벽에 부장된 유물은 도굴과정에서 개석이 함몰되면서 도굴을 피하게 되었고, 남서단벽에 부장된 유물은 바로 접한 민가 덕분에 도굴꾼의 마수에 닿지 않아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었다.

M5호분에서는 청자계수호, 철제초두와 함께 금제이식, 유리옥 등 장신구류, 투구·경갑·찰갑 등 갑옷과 기꽂이·등자·재갈·삼주령 등 마구류, 철도자·철촉·철부·철겸 등 무구류와 꺾쇠 등의 철기류, 통형기대·발형기대·소형기대·유개장경호·단경호·대부파수부완·개배 등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유물은 청자계수호와 철제초두이다.

(1) 금은상감환두도·청자계수호·철제자루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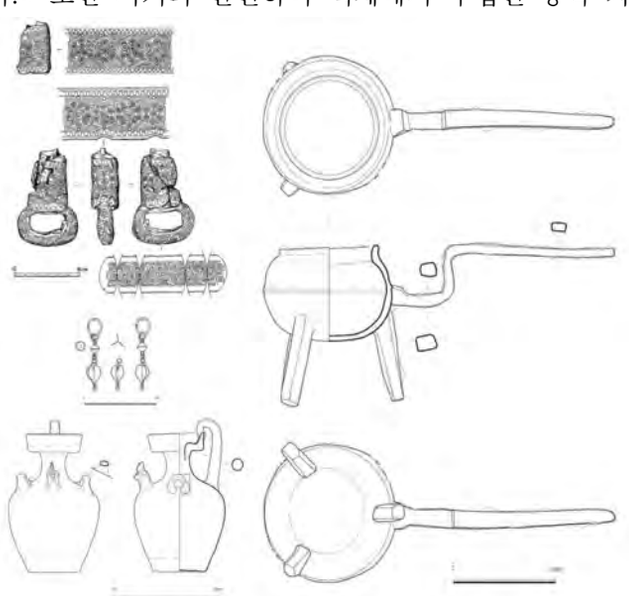
금은상감환두도는 삼국시대 상감 공예품 가운데 가장 화려한 유물로써 칼 부분은 없이 소환두와 병단결착부(筒金具), 자루밑결착부(鞘口金具)만 남아 있었다. 환은 소환두식으로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단면은 외면이 반원형이다. 병부에는 은으로 상감한 거북등무늬와 금으로 상감한 꽃무늬·파도무늬가 장식되어 있는데 전체문양대가 복원가능하다. 칼을 장식한 거북등무늬는 5 ~ 6세기에 유행했는데 공주 무령왕릉, 고령 지산동 39호분 출토 고리자루칼에서도 확인된다.[5] 하지만 무령왕릉과 고령 지산동 39호분 출토 환두도는 환내에 용머리를 장식하였으며 M1-A호분 출토품처럼 상감한 예는 없다.[6]



도면 6. 월산리 고분군 기타석곽 단면도

5) 국립전주박물관・전북문화재연구원, 2012, 『운봉고원에 묻힌 가야무사』, 남원 월산리 발굴유물 특별전, 42쪽.
6) 圓光大學敎 馬韓·百濟文化硏究所, 1983, 『南原, 月山里古墳群發掘調査報告』, 67쪽.

청자계수호는 M5호분 북동쪽 단벽에 치우쳐 철제자루솥, 토기와 함께 출토되었으며, 세장한 동체에 계수는 목이 길고 벼슬이 높게 돌출된 것이 특징이다. 청자계수호는 중국 동진과 남조에서 제작된 청자로 백제 한성시기부터 동진과 교류를 통해 백제 중앙에서 수입한 유물로 볼 수 있다. 중국 수입도자는 대부분 백제영역에 포함된 지역에 한정되어 출토되었으며 백제지역 이외에서는 황남대총 북분에서 금관, 황금장신구, 유리그릇, 토기류와 함께 흑갈유양이병이 출토되었으며, 부산 복천동 65호분에서 청자잔 1점이 출토된 것이 유일하다. 호남지역에서는 익산 입점리 86-1호분 출토 청자호,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청자광구호가 있으며,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과 익산 왕궁리유적에서도 편으로 출토되었다. 청자계수호는 백제 중앙에서 수입하여 지방권력층에게 사여된 중요한 위신재[7]로 보고 있는데 시기에 따라 기종이나 수량의 차이가 있고 사용된 범위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백제에 도입된 중국 자기는 백제 왕실뿐 아니라 왕실의 중국 견사에 동참하였던 지역 세력자들에 의해서도 선택적으로 수용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8] 또한 시기와 관련하여 백제에서 수입된 중국 자기의 경우 완형으로 출토된 유물들 이외에도 다양한 유적에서 파편으로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실용기로 볼 수 있으며 傳世品보다는 중국과 동시기에 사용된 유물로 보고 있다.[9]



도면 7. 월산리 고분군 M1호·M5호분 출토유물

월산리 M5호분 출토 청자계수호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계수호(傳 청주 출토)처럼 세장한 동체에 계수의 벼슬이 장식성이 강화된 양식으로 이처럼 계수 벼슬의 장식성이 강화된 것은 중국 동진 중반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남조 때 주자 동체의 길이가 세장되고 복부의 폭이 줄어드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양식적으로 보면 동진 중반 이후의 남조시대에 가까운 시점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10]

철제초두는 중국에서 몸체의 형태에 따라 원통형 몸체의 鐎斗와 몸체의 모양이 솥과 같은 鐎壺로 구분하고 있다. M5호분 출토 철제초두는 둥근 몸체를 하고 있어 엄밀하게 따지면 초호로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초두의 범주에 포함한다. 초두는 청동제와 철제로 구분하는데 청동초두는 백제지역의 경우 서울 풍납토성, 원주 법천리, 숭실대 소장품(傳 부여 출토) 등 3점이 알려져 있다. 신라지역에서는 황남대총, 금관총, 천마총, 서봉총, 식리총 등에서 출토되었다. M5호분 출토 초두는 다리가 셋 달린 분(盆)형의 몸체에 긴 손잡이가 있는 기종으로 주로 銅으로 제작되지만 철제도 있고 자기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11]

---

7) 鄭相基, 2006a, 「4~5世紀 百濟 地域 出土 中國陶磁」, 『4~5세기 백제유물 특별전 한성에서 웅진으로』, 국립공주박물관・ 충청남도역사문화원.
8) 임영진, 2012, 「中國 六朝磁器의 百濟 導入背景」 『한국고고학보』 83.
9) 土田純子, 2012, 「百濟遺蹟 出土 中國 瓷器에 대한 傳世論 檢討 -中・日의 事例와 關聯하여-」 『한국고고학보』 82.
10) 鄭相基, 2006b, 「三國時代 韓半島 輸入 中國陶磁 器形 硏究」, 『中國 六朝의 陶瓷』, 국립공주박물관, 155쪽.

철제초두는 M5호분 이외에 서산 부장리 5호분 출토품이 있으며 일제강점기 부여 구아리 출토품이 알려져 있다. 철제초두는 한반도에서 아직까지 제작된 예가 없어 중국과 교류를 통해 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지역에서는 주로 왕릉에 부장되고 백제지역에서도 왕궁지나 중요 고분에서만 출토되고 있어 강력한 위세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12] 따라서 M5호분에 묻힌 피장자는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진 인물이 묻혔을 가능성이 높고, 석곽의 규모 또한 가야석곽묘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Ⅰ등급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갑주와 마구

갑주는 M1-A호분에서 투구와 경갑, 찰갑 등이 출토되었으며 M5호분에서 투구, 경갑, 찰갑, 요찰 등이 출토되었다. 투구는 철판의 형태나 외형적으로 드러난 특징에 따라 6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종장판주는 지판 폭과 수, 만곡여부, 복발 유무 및 형태, 볼가리개 형태, 수미부가리개 형태에 따라 분류한다.[13] M1호분 출토 투구는 복발은 확인되지 않고 지판만 남아 있는 종장판형 투구이며 M5호분 출토 투구는 관모형복발, 지판, 차양, 볼가리개로 구성된 종장판형 투구이다. 지판은 총 10점으로 양쪽 가장자리에 구멍이 있어 끈으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복발이 함께 확인되었다. 복발은 백제나 신라의 관모와 유사한 형태로[14] 좌우에 얇은 철판 2매로 결합하고 연결부분은 얇고 폭이 좁은 철판으로 종장판지판과 결합하였다. 차양은 M5호분 출토품에서만 확인된다. 볼가리개는 M5호분에서 출토되었는데 찰갑과 같은 소찰을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소찰을 이용한 볼가리개는 임당 G5호분, 복천동 93호에서 출토되었다.

경갑은 M1-A호·M5호분에서 출토되었는데 M1-A호분 출토 경갑은 13개의 정후방지판으로 구성된 반면 M5호분 출토 경갑은 22개의 정후방지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판의 평면형태는 M1-A호 출토품은 상면은 함몰형에 하단은 방형이며 M5호 출토품은 사다리꼴이다. 2점 모두 측면 상하에 2개의 고리경첩이 부착되어 있다. 경갑은 개폐장치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가죽띠경첩에서 고리 경첩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15] M1-A호·M5호분 출토 경갑의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찰갑은 신라·가야지역 고분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는 갑주 가운데 하나이며 M1호·M4호·M5호·M6호분에서 출토되었다. 평면형태는 상원하방형의 외중식으로 제작되었다. 가야지역 찰갑은 수결열수와 횡결공 배열, 고정투공의 개수에 따라 6가지 유형이 확인되고 형식변화에 따라 5시기로 분류하여 Ⅰ ~ Ⅳ기는 5세기 중반, Ⅴ기는 5세기 중후반 이후로 보고 있는데 M5호분 출토 찰갑은 Ⅴ기인 5세기 중후반 이후로 보고 있다.[16] 요찰은 M6호분에서 출토되었는데 두부의 형태에 따라 상방하방형과 상원하방형으로 분류되며 종단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반형, 일자형, S자형 Ω자형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17] 월산리 M6호분 출토품은 Ω자형 요찰로 시기적으로 가장 늦은 시기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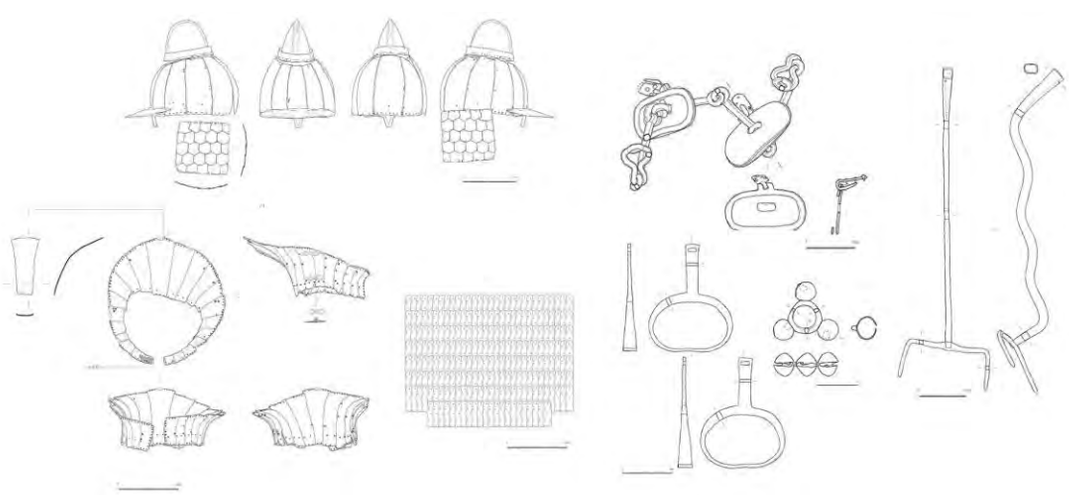
11) 박순발, 2012, 「계수호와 초두를 통해 본 남원 월산리 고분군」, 『운봉고원에 묻힌 가야무사』, 남원 월산리 발굴 유물 특 별전, 국립전주박물관·(재)전북문화재연구원, 116쪽.
12) 국립공주박물관·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6, 『4~5세기 백제유물 특별전 한성에서 웅진으로』.
13) 장경숙, 1999, 『영남지방 출토 종장판주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1-122쪽.
14) 국립김해박물관, 2015, 『갑주, 전사의 상징』, 46쪽.
15) 황수진, 2011, 「삼국시대 영남 출토 찰갑의 연구」 『한국고고학보』 78, 83쪽.
16) 황수진, 2011, 「삼국시대 영남 출토 찰갑의 연구」 『한국고고학보』 78, 85쪽.
17) 황수진, 2011, 「삼국시대 영남 출토 찰갑의 연구」 『한국고고학보』 78, 66쪽.

마구는 M1-A호분에서는 재갈, 발걸이가 출토되었으며, M5호분에서 재갈, 발걸이, 기꽂이, 삼주령이 출토되었다. 재갈은 M1-A호분에서 2점, M5호분에서 1점이 출토되었는데 M1-A호분 재갈 1점과 M5호분 출토 재갈은 형태가 거의 동일하며 재갈쇠와 재갈멈치, 고삐이음쇠, 고삐이음쇠 고리가 모두 잘 남아 있다. 고삐이음쇠는 철제봉을 구부려 고리를 만들고 서로 연결하였다. 재갈멈치는 평면 타원형에 얇은 경판에 가장자리는 얇은 철제 띠를 덧붙였다. M1-A호분 출토 나머지 재갈도 재갈쇠와 재갈멈치, 고삐이음쇠, 고삐이음쇠 고리가 모두 잘 남아 있지만 앞의 재갈과는 달리 재갈멈치는 타원형이며 경판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발걸이는 M1-A호분에서 4점, M5호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 모두 철제발걸이로 M1-A호분 출토 2점과 M5호분 출토 2점은 형태와 특징이 거의 같다. 병부는 Ⅰ자형이고 상단에는 끈을 묶는 구멍이 있고 구멍은 직사각형이다. 발을 거는 부분은 평면 타원형, 단면은 방형이다. 답수부는 스파이크가 없는 형태이다. 이에 반해 M1-A호 출토품은 평면형태가 ㄴ자 형으로 양쪽 끝부분에는 줄을 매달 수 있는 원공이 투공되어 있고 답수부 아래쪽에는 모두 5개의 스파이크가 부착되어 있다.

기꽂이는 철제로 제작되었으며 파상형의 몸체를 가지고 있다. 위쪽은 기를 꽂을 수 있는 말각방형의 구멍이 있다. 삼주령은 M5호분에서 1점이 출토되었는데 평면 원형 환에 3개의 방울이 달려있으며 방울 안에는 소리를 낼 수 있는 구슬이 있다.

마구는 형식과 분포권의 변화에 따라 Ⅲa기(5세기 중엽)와 Ⅲb기(5세기 후엽 ~ 6세기 초)로 보고 있다. 대가야 지역은 Ⅲa기에 고령 지산동고분군과 합천 옥전고분군에 한정하여 분포하던 마구부장 고분이 Ⅲb기가 되면 합천 반계제, 함양 백천리, 거창 말흘리, 남원 월산리 등 대가야의 주변부까지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어[18] 마구 역시 시기적으로 가장 늦은 단계로 볼 수 있다. 가야지역에서 갑주나 마구는 상위 계층에 한정된 고분에 주로 부장되며 군사조직의 기저를 형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하위계층은 개별 무기만 일부 부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19]



도면 8. 월산리 고분군 M5호분 출토 갑주와 마구

18) 류창환, 2010, 「삼국시대 기병과 기병전술」 『한국고고학보』 76, 148쪽.
19) 장상갑, 2010, 「후기가야의 군사조직에 관한 연구」 『영남고고학』 54, 101쪽.

2) 월산리 고분군 피장자의 성격

월산리 M5호분 출토 청자계수호는 그 형태적 특징으로 볼 때, 중국 남조 송제시기의 것으로 부장을 위한 명기로 볼 수 있으며 절강 서안시 융산 남조 송 대명5년(461) 전실묘에서 출토된 구요 청자 용병계수호와 그 형태가 유사하여 정확한 연대는 남조 송나라 중만기에서 제나라 초로 볼 수 있다.[20] 또한 중국 출토 기년자료와 비교하면 그 대략적인 시기는 유송시기(421-479년)로 절강 서안 융산 대명 5년(461년)묘에서 출토된 계수호에 가깝다. 융산 대명 5년묘 계수호는 지금까지 알려진 계수호 기년 자료 가운데는 가장 늦은 것으로 이후 계수호의 부장 사례는 현저하게 줄어드는데 523-525년 사이에 부장된 무녕왕릉 출토품에 계수호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그러한 경향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M5호분 출토 계수호는 5세기 4/4분기 무렵에 부장된 것으로 보인다.[21]

M5호분은 전형적인 가야무덤으로 출토 토기도 대부분 대가야계인데 이처럼 백제지역에서 주로 출토되는 중국자기가 출토되었다는 것은 M5호분 피장자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국 사서인 『南齊書』卷58 「東南夷列傳」에 따르면 가야왕 하지(荷知)가 건원 원년(479)에 남제에 사신을 파견한다.[22] 이후 482년까지 남조와 교류한 것이 확인되는데 이때가 가야가 가장 강성한 시기로 가야가 직접 중국 남조와 교류를 통하여 중국 도자를 들여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23] 즉 월산리 M5호분에서 출토된 청자계수호는 남제에 사절단을 보냈던 가야왕 하지와 관련이 있으며 고분에서 출토된 청자계수호는 부장용 명기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남조 제의 고제가 가야 사절단에 하사한 답례품이거나 양국 사신이 교환한 선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남제에 조공을 바치러 다녀온 사신과 동행한 사신이 당시 수도였던 건강의 도자기나 장례품만을 파는 시장에서 구매해서 가야로 가져온 물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24]

하지만 대가야 왕릉으로 볼 수 있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다라국 왕릉으로 볼 수 있는 합천 옥전고분군에서 중국제 청자가 전혀 출토되지 않았으며 신라지역에서도 황남대총 북분 출토 흑갈유양이병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출토된 중국제 청자는 모두 백제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따라서 가야가 중국 남조와 직접 교류하여 수입한 물건이라기보다는 백제 중앙에서 중국 남조와 교류를 통해 들여왔으며 시기적으로 한성시기 말 백제에서 남원 운봉·아영고원 지역의 수장에게 사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이 백제 한성시기의 전형적인 지방세력 경영 혹은 통제정책임은 지금까지 백제 각지에서 확인되는 자료로써 입증된다.[25]

M1-A호분 출토 금은상감귀갑문환두도의 형식은 백제 무령왕릉 출토 환두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26] 백제는 4세기 중반 경에 이미 상감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신라는 6세기 이

20) 李軍, 2017, 「계수집호에 관련된 문제 및 한국의 고대 가야고분에서 발견된 의의」, 국제학술심포지엄 전북 가야를 선언하다, 전라북도・남원시・장수군・호남고고학회, 72쪽.
21) 박순발, 2012, 「계수호와 초두를 통해 본 남원 월산리 고분군」 『운봉고원에 묻힌 가야무사』 남원 월산리 발굴유물 특별전, 국립전주박물관・(재)전북문화재연구원, 119쪽.
22) 『南齊書』卷58 「東南夷列傳」 "加羅國, 三韓種也. 建元元年, 國王荷知使來獻."
23) 李軍, 2017, 「계수집호에 관련된 문제 및 한국의 고대 가야고분에서 발견된 의의」, 국제학술심포지엄 전북 가야를 선언하다, 전라북도・남원시・장수군・호남고고학회, 73쪽.
24) 李軍, 2017, 「계수집호에 관련된 문제 및 한국의 고대 가야고분에서 발견된 의의」, 국제학술심포지엄 전북 가야를 선언하다, 전라북도・남원시・장수군・호남고고학회, 73쪽.
25) 박순발, 2012, 「계수호와 초두를 통해 본 남원 월산리 고분군」 『운봉고원에 묻힌 가야무사』 남원 월산리 발굴유물 특별전, 국립전주박물관・(재)전북문화재연구원, 121쪽.
26) 圓光大學敎 馬韓·百濟文化硏究所, 1983, 『南原, 月山里古墳群發掘調査報告』.

후에야 비로소 상감기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가야의 상감기술은 백제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27] 이러한 여러 정황으로 보아 M5호분 중국도자와 철제초두를 부장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M5호분 피장자가 적어도 백제와 관련성이 있는 인물이며 백제 중앙에서 사여한 유물 내지는 백제 왕실의 중국 견사에 동참하였던 세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28] 이를 종합하면 5세기 중엽 이후 대가야가 아영지역으로 진출을 하였을 개연성이 크고 M5호분의 축조연대는 5세기 중후엽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분과 출토유물 특히 대가야양식 토기를 통해 볼 때 5세기 중엽 이후의 아영지역은 대가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가야의 영역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만약 아영을 포함한 운봉고원 일대가 5세기 중엽 이후에 대가야의 영역에 포함되었다면 문제는 M5호분에서 출토된 청자계수호와 철제초두이다. 이들은 모두 백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물로써 만약 5세기 중엽에 대가야가 아영지역으로 진출하여 영역을 확보하고 섬진강하구를 이용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하였다면 이러한 유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히려 대가야가 전라도 내륙으로 진출한 것은 이 지역 토착세력을 정복하여 영역을 확장시키려 했다기보다는 백제와 연결하여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를 바랐던 것으로[29] 대가야의 영역 확장보다는 아영지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가야세력이 존재하고 이들 세력은 대가야의 영향하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가야와 백제를 연결해주는 매개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 맺음말

남원 월산리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는 아영면 일대는 해발고도 410-460m 정도의 고원분지로 아영평야로 부르는 비교적 너른 평지가 펼쳐져 있다. 봉화산에서 발원한 풍천이 동남류하여 흐르고 있으며, 풍천의 서쪽에는 월산리 고분군과 청계리고분이 있고, 동쪽에는 40기의 봉토분인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사적 제542호)이 분포하고 있다.

월산리 고분군은 1981년 모두 10기의 중대형고총이 구릉 능선을 따라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88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에 포함되면서 1982년 3기(M1·M2·M3호분), 2010년 3기(M4·M5·M6호분) 등 6기의 고분이 발굴조사되었다. M7·M8·M9호분으로 명명되었던 나머지 3기는 1982년 조사당시까지만 해도 비록 심하게 파괴된 상태였더라도 봉토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이후 경지정리 과정에서 훼손되어 모두 멸실되었다.

월산리 고분군은 수차례에 걸친 도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분 피장자의 신분을 상징할 수 있는 유물들이 남아 있었다. M1-A호 석곽에서 출토된 금은상감환두도, M5호분에서 출토된 청자계수호와 철제초두는 아영고원 일대의 고분군을 축조한 집단의 성격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된다.

월산리 고분군의 봉토분은 매장주체부가 수혈식석곽을 특징으로 하고 있지만, 축조방법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M1호분은 묘광을 굴착하고 수혈식석곽을 축조한 후 그 위에 봉토를 조성한 반면 M4-M6호분은 묘광을 굴착하였지만 깊이가 얕고 최하단석만 묘광 내에 있고 2단부터는 석곽을 축조하면서 동시에 구축토를 쌓아 올려 최종적으로 봉토를 조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7) 노중국, 2004, 「대가야의 역사」 『大伽倻의 遺蹟과 遺物』, 대가야박물관, 179쪽.
28) 전북문화재연구원, 2012, 『南原, 月山里古墳群 -M4호·M5호·M6호분-』, 137쪽.
29) 조영제, 2007, 『옥전고분군과 다라국』, 혜안, 149쪽.

출토유물은 재지세력, 대가야, 백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토기들은 대부분 대가야양식이 주를 이루지만 소가야양식의 토기도 출토되었다. 그리고 중국제 청자계수호와 철제초두를 통해 볼 때 월산리 고분군을 축조한 세력이 다양한 지역과 교류를 통해 독자세력으로 성장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월산리 고분군과 인접한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의 32호분에서는 백제 왕릉급 분묘에서만 부장된 청동거울과 백제계 금동신발편이 출토되었고 최근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청계리 고분에서는 수레바퀴장식 토기편과 아라가야계토기, 중국자기편, 나무빗 등이 출토되어 운봉고원 일대에 독자적인 정치체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고문헌

『南齊書』卷58 「東南夷列傳」.

단행본

국립공주박물관・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6, 『4~5세기 백제유물 특별전 한성에서 웅진으로』.

국립김해박물관, 2015, 『갑주, 전사의 상징』.

국립전주박물관・전북문화재연구원, 2012, 『운봉고원에 묻힌 가야무사』, 남원 월산리 발굴유물특별전.

노중국, 2004, 「대가야의 역사」 『大伽倻의 遺蹟과 遺物』, 대가야박물관.

박순발, 2012, 「계수호와 초두를 통해 본 남원 월산리 고분군」, 『운봉고원에 묻힌 가야무사』, 남원 월산리 발굴유물 특별전, 국립전주박물관・(재)전북문화재연구원.

장경숙, 1999, 『영남지방 출토 종장판주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鄭相基, 2006a, 「4~5世紀 百濟 地域 出土 中國陶磁」, 『4~5세기 백제유물 특별전 한성에서 웅진으로』, 국립공주박물관・충청남도역사문화원.

鄭相基, 2006b, 「三國時代 韓半島 輸入 中國陶磁 器形 硏究」, 『中國 六朝의 陶瓷』, 국립공주박물관.

조영제, 2007, 『옥전고분군과 다라국』, 혜안.

보고서

圓光大學敎 馬韓·百濟文化硏究所, 1983, 『南原, 月山里古墳群發掘調査報告』.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12, 『南原, 月山里古墳群 -M4・M5・M6호분-』.

학술지 게재논문

류창환, 2010, 「삼국시대 기병과 기병전술」, 『한국고고학보』76.

임영진, 2012, 「中國 六朝磁器의 百濟 導入背景」, 『한국고고학보』83.

장상갑, 2010, 「후기가야의 군사조직에 관한 연구」, 『영남고고학』54.

土田純子, 2012, 「百濟遺蹟 出土 中國 瓷器에 대한 傳世論 檢討 -中・日의 事例와 關聯하여-」, 『한국고고학보』82.

황수진, 2011, 「삼국시대 영남 출토 찰갑의 연구」, 『한국고고학보』78.

학술대회 게재논문

김수환, 2013, 「가야인의 내세관-순장습속을 중심으로-」, 『김해・함안의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한 학술심포지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李軍, 2017, 「계수집호에 관련된 문제 및 한국의 고대 가야고분에서 발견된 의의」, 『국제학술심포지엄 전북 가야를 선언하다』, 전라북도・남원시・장수군・호남고고학회.

「남원 월산리고분군 발굴조사 성과」에 대한 토론문

조영제(경상대학교)

M5호분으로 대표되는 남원 월산리고분군 축조집단을 대가야와 백제를 연결해 주는 매개 역할을 담당했던 독자적인 가야세력으로 상정한 김규정선생님의 주장에 공감하면서 몇 가지 지엽적인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한다.

1. M1호분은 본 고분군 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다곽식 고분처럼 보이는데, M1-A호분과 나머지 M1-A～G호분의 축조순서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M1-A호분을 먼저 축조하여 봉분을 완성한 뒤 후대에 M1-A～G호분이 축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만약 축조순서가 그렇다면 M1호분은 다곽식이 아니라 단독곽식으로 파악해도 좋은가?

2. <도2>에 소개된 봉분의 평면도를 보면 M1호분의 봉분에는 M2호분만 연접된 것이 아니라 다른 2기의 봉분이 연접되어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3. 소형석곽의 벽석에 대하여 발표자는 “M1-B호 석곽만 세로세워쌓기하였고 나머지 석곽들은 모두 가로눕혀쌓기와 세로눕혀쌓기를 혼용하여 쌓았다”고 하였는데, <도6>의 단면도들을 보면 모두 하단석은 立垂積 또는 臥垂積하고 그 위를 縱平積 또는 橫平積 - 발표자의 표현을 빌리면 가로눕혀쌓기와 세로눕혀쌓기를 혼용한 것으로 파악해야 하지 않은가?
이처럼 6세기 이후 가야의 소형석곽 축조에 있어서 측벽의 하단석을 와(입)수적하는 것은 석재 이용의 효율을 높이려는 의도가 작용한 발달된 석곽축조 방법이 아닌가?

4. 경상도 지역의 가야고분은 구릉의 정상부를 따라서 주 고분들이 축조되고 구릉의 사면이나 가지 능선에 규모가 약간 작은 고분들이 들어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월산리고분군의 경우 이러한 규칙성을 찾을 수 있는가?

5. M4～6호분 석곽 축조에 있어서 최하단석만 지하에 두고 나머지는 모두 지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상식 고분으로 파악하고, 이처럼 석곽이 성토층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가야고분의 축조방법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며, 오히려 마한 분구묘의 축조방법과 유사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분구묘를 일반적으로 먼저 봉분을 구축한 뒤 이 봉분의 한 부분을 다시 굴착하여 매장주체부를 만드는 것으로 본다면 단순히 석곽의 단면상 위치가 지상식이라고 하여 분구묘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6. 가야고분군을 UNESCO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가장 주목한 점은 등재대상 가야고분이 모두 낙동강이나 그 지류인 황강, 남강을 끼고 다른 지역과 활발하게 교류했던 점을 유구와 유물의 외래계 요소를 찾아 검증하고자 한 것이다. 남원 월산리고분군에도 계수호청자나 초두와 같은 중국계 유물이 들어와 있어서 충분히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런데 월산리고분군은 경상도의 가야고분군과는 달리 외부지역과 이어주는 큰 강이 보이지 않는다. 비록 남강의 상류인 풍천, 남천이 흐르고 있지만 이 강을 통해 물자이동이 가능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월산리고분군 축조집단이 어떤 방법으로 외부지역과 교류를 했는지에 대하여 견해를 들어보고 싶다.

Part
04

남원 월산리 고분군 출토 중국 청자계수호의 특징과 의의

발 표 : 李暉達 | 리후이따/中國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토 론 : 정상기 | 국립전주박물관

南原月山里古坟群出土中国青瓷鸡首壶的特征和意义

李晖达（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一丶绪论

在过去的数十年里，韩国境内发现的中国六朝青瓷数量不断增加°从最初个别遗址中的昙花一现，逐渐发展到现在已略具规模°笔者在此前也几度撰文讨论了韩国尤其是半岛西南部地区出土中国青瓷的产地丶性质丶传播路径等问题（李晖达2010）°

以往，笔者更多地关注中国青瓷在百济一马韩政治圈的支配关系问题°此次通过南原出土的鸡首壶，则试图分析在不同的时期丶不同的国际政治环境下，传入方式与路径可能存在的差异°据本文的分析，南原五号墓出土的鸡首壶制作年代约在东晋丶南朝宋易代之际°在这样的政治环境中，是什么样的人代表了韩半岛与东晋或南朝宋开展交流，交流之后获得的利益，是为所谓的百济中央势力独占了然后再分配，还是由各势力共同分享，这或许可以跳出传统的中国式历史文献系统，从另一个不同的角度理解当时韩半岛的政治文化°

二丶鸡首壶的型式与年代

鸡首壶的产生明显晚于盘口壶°一般认为，鸡首壶源于三国时期的鸡首盘口小罐，再逐步演变为后来通行的鸡首壶样式°上虞尼姑婆山窑址的发现表明，此类器物还有多种不同的动物头像装饰，鸡首壶应该只是众多同类动物装饰罐中的一种°

（一）鸡首的两种样式：

1．Ⅰa型鸡首做出流嘴，但与器腹不通°Ⅰb型鸡首做出流嘴，且与器腹相通°自东晋前期流行鸡首壶开始，此类型的鸡首一直沿用至南朝°

2．Ⅱ型鸡首封口°

Ⅱ式鸡首有明确纪年的，多见于南朝，与龙首丶桥形耳搭配使用°

（二）双耳的两种样式：

1．弧形耳°弧形耳是六朝青瓷中使用最为广泛的一类附加贴饰，鸡首壶丶盘口壶丶双耳罐或四耳罐等均大量使用，直至东晋后期，才逐渐被桥形耳取代，但仍少量没用至南朝晚期°鸡首壶的弧形耳有横丶纵两种贴附方式，而以横贴较为常见°如温州双岑东晋永和七年（351）墓（照片1）与瑞安桐溪东晋太和三年（368）墓（照片2）出土的，均为横贴弧形耳；而温州双岑东晋咸康七年（341）墓（照片3）和嵊州剡山东晋太和三年（368）墓（照片4）出土的，则为竖贴弧形耳°

2．桥形耳

从时间顺序看，弧形耳出现较早°到东晋中后期，桥形耳出现后，两者仍共存了相当一段时间°弧形耳有横丶纵两种贴附方式，桥形耳则基本皆为横向贴附°

（三）执柄的两种样式：

1．素面执柄

素面执柄鸡首壶应是东晋鸡首壶最初的形式，盛行于东晋，至南朝后逐渐被龙首柄壶所取代°从执柄自身的变化来看，最初的执柄上部的弧度极小，柄的最高处仅略微高于盘口，整体成一个较平缓的C字形°至东晋中期以后，执柄上部的弯曲度逐渐加大，柄最高处也明

显高出盘口，形成一个类似于倒J字的大弯勾造型 。

2．龙首执柄

根据有明确纪年的器物来看，东晋的鸡首壶基本均为素面执柄，进入南朝后，素面执柄趋于消亡，而代之以龙首执柄 °至南朝后期，还出现了双龙首执柄 °与龙首执柄搭配的，均为横向桥形耳，壶身则趋于修长 °浙江省龙泉市查田镇南朝宋永初元年墓出土一件青瓷鸡首壶（照片5），为龙首柄 丶桥形耳搭配，最大腹径位于器身上部，整体已出现修长化的趋势 °而永初元年，同时也是东晋最后一的纪年元熙二年 °据此可以认为，龙首柄鸡首壶，实际上至迟在东晋末年就已出现，最后盛行于南朝 °

龙首执柄与素面执柄最大的区别，除了增加了龙首造型外，其上部弯曲度明显大于早期的素面执柄，始终呈现倒J字形的大弯勾造型。发展到最晚期的双龙首柄壶，顶部极大地高出盘口，整体已接近n字造型。

（四）整体造型的演变

鸡首壶身的演变，基本与同时期的盘口壶保持一致的步调 °早期鸡首壶的壶身基本成球形，最大腹径位于器腹的正中部 °此后器腹逐渐加高，最大腹径也逐步由正中部向上部转移，同时盘口也随着器身的拉长而渐渐加高 °至迟在东晋晚期，最终形成了深盘口 丶高器身 丶高执柄的鸡首壶 °

三 丶南原出土鸡首壶的年代分析

南原出土的青瓷鸡首壶，从整体来讲，造型修长，最大腹径已上移至器物的肩部 °使用不开口的Ⅱ型鸡首，弧形耳较大幅度的隆起，形状接近桥形耳 °虽然使用了素面执柄，但执柄与盘口的连接处弯曲度较大，执柄大幅度高出盘口，连接方式与龙首柄壶较为接近 °

与之相似的龙泉市查田镇南朝宋永初元年墓出土品，仍具备一定过渡时期的形态，瑞安市隆山宋大明五年墓出土品（照片6）则基本已经是定型的龙首柄桥形耳鸡首壶 °

综合上述几类因素考虑，南原的出土品，属于素面执柄高器腹鸡首壶，处于青瓷鸡首壶的过渡形态，其制造年代当在东晋末期或南朝刘宋初期 °

四 丶结论：南原出土中国青瓷鸡首壶的性质和意义

南原出土的青瓷鸡首壶，虽未能明确它在中国的具体产地，但无疑有着强烈的六朝越窑风格 °在东晋南朝之际，越窑风格的窑场，即已遍布浙江各地，金华 丶温州 丶丽水等地均发现过该时期重要的窑址 °

仅以浙江东部的越窑青瓷为例，其核心产区位于今绍兴市上虞区曹娥江中上游谷地，窑址分布密度大 丶主要烧造时间由东汉至南朝 °在发展过程中，产品种类变化较大 °东汉 丶三国时期的越窑瓷器，除了常用罐 丶碗类器皿外，五联罐 丶谷仓罐 丶房屋模型 丶动物模型等明器意味浓厚的非实用器占据了极大的比例 °至东晋以后，随着北方士族大量涌入，对当地的制瓷业传统产生了巨大的冲击，当地原有的技术传统萎缩，而代之以新的风格与制造技术（郑嘉励2010） °体现在器物上，即造型与装饰风格发生了较大改变，如盘口壶 丶碗 丶耳杯等均在延续前代的制器传统的基础上而略有改变，此外，更多的器类则趋于消失 °而器物表面的装饰，也越发简单（图1） °

就在在这个整体风格发生较大变化的时期，装饰性较强的鸡首壶却逐步发展成熟 °上虞尼姑婆山窑址的发掘表明，最初的动物造型执壶并不仅有鸡首壶一种，还有羊首 丶虎首等不同的种类 °通过一定时期的发展之后，才最终定格于鸡首壶一个品类 °

自越地创烧陶瓷器开始，一般情况下就是把陶瓷作为其他高档物品的模仿和代用品看待的 °在当时上层社会里，陶与瓷并无太大区别，经常被合称为“瓦器” °在墓葬中随葬“瓦器”，是作

为墓主人朴素丶节俭的象征°至少直到南朝结束，没有任何一类青瓷器物，是被作为奢侈品使用的°当然，不同身份等级的墓葬中，随葬青瓷器的品质仍存在着较明显的差异°因此，青瓷器的品质和种类，还是在一定程度上反映了墓主人的身份°南京王氏家族墓丶谢氏家族墓丶北朝的司马金龙墓等高等级贵族墓，随葬的青瓷器种类较为丰富，数量大，质量极高°相比之下，身份等级较低的墓葬，随葬器物各类未必有太大有差别，但数量和质量上的要求都会明显降低°

南原月山里5号墓出土的鸡首壶，表面青釉出现明显的变色，釉层亦不均匀°这类品质的器物在中国境内也屡有发现，较常见于普通的单室砖室墓中，墓葬规格与墓主身份等级均不会太高°

因此，笔者认为，单就鸡首壶本身而言，无法对月山里5号墓的主人的身份等级做过高的估计°但这件大致生产于晋丶宋易代之际的器物，传入韩半岛并最终入葬南原，其时代背景丶可能的传播路径，更值得持续关注°可以推测，当百济使臣到达南京时，其团队成员当不在少数，通过类似的机会获得中国境内正常流通的物品，也非不可能°因此，在韩半岛西南部出土的这类中国瓷器，体现出的未必都是百济中央对地方的“下赐”关系，各地方势力共同参与韩半岛对华交流并各有所获，也并非不可能的°

参考文献

汤苏婴、王轶凌，2017：《青色流年：全国出土浙江纪年瓷图集》，文物出版社。
李晖达，2010：《중국 육조청자의 연대와 성격》，湖南文化财研究论文集。
2019：〈汉唐墓葬考古〉，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浙江考古1979～2019》。
林永珍，2012：《中国六朝磁器의 百济导入背景》，韩国考古学报83辑。
郑嘉励、张盈，2010：〈三国西晋时期越窑青瓷的生产工艺及相关问题——以上虞尼姑婆山窑址为例〉,浙江省博物馆《东方博物》第35辑。
浙江省博物馆，2000：《浙江纪年瓷》，文物出版社。

남원 월산리 고분군 출토 중국 청자계수호의 특징과 의의

리후이따(李暉達, 중국 절강성 문물고고연구소)

목 차

1. 서론
2. 형식과 연대
3. 남원 출토 계수호 연대 분석
4. 결론

1. 서론

지난 수십 년간 한국에서 발견된 중국 육조(六朝)시대 청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처음에는 일부 유적지에서 극소량씩 발견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규모를 형성하게 되었다. 필자는 과거에도 몇 차례 글을 통해 한반도 서남부지역에서 출토된 중국 청자의 산지, 성격, 전파 경로 등에 관해 고찰한 바 있다.[1)]

필자는 과거에는 주로 중국 청자가 백제-마한 정치권의 지배관계에서 가지는 의미에 주목하였으나 본고에서는 남원에서 출토된 계수호(鷄首壺)를 통해 시기별로 다양한 국제정치 환경 하에서 중국 청자의 한반도 유입방식 및 경로에 존재할 수 있는 차이를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남원 5호분에서 출토된 계수호의 제작시기는 동진(東晉)과 남조(南朝)의 송(宋) 왕조가 교체되던 즈음이다. 그러한 정치 환경 하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이 한반도를 대표하여 동진 또는 남조의 송과 교류를 하였는가? 교류를 통해 획득한 이익은 소위 백제 중앙세력이 독점한 후 분배하였는가? 아니면 각 세력이 나누어 가졌는가? 이들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중국식 역사문헌체계에서 벗어나 또 다른 관점을 취한다면 당시 한반도의 정치 문화를 이해하게 될지도 모른다.

2. 계수호의 형식과 연대

계수호는 분명 반구호(盤口壺)에 비해 늦게 출현했다. 계수호의 연원과 관련하여, 삼국시대의 계수반구소관(鷄首盤口小罐)에서 비롯되어 후에 통용된 계수호 양식으로 변화했다는 것이 통설이다. 중국 상우시(上虞市) 니구파산(尼姑婆山) 가마터에서 발견된 유물로 볼 때, 계수호와 동일한 양식의 기물에 닭 외에 다양한 동물머리 모양이 장식되었었고 계수호가 동일 유형의 동물장식 항아리(罐)의 한 종류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1) 리후이따, 2010, 『중국 육조청자의 연대와 성격』, 호남문화재연구논문집.

1) 계수의 두 가지 양식

Ⅰa형 계수는 주구(注口)가 뚫려 있으나 기복(器腹)과 통하지는 않는다. Ⅰb형은 주구가 뚫려 있으면서 기복과 통한다. 동진 전기에 계수호가 유행하던 때부터 시작하여 이러한 양식의 계수가 남조 시기까지 사용되었다.

Ⅱ형 계수는 주구가 막혀있다. Ⅱ형 계수 중 제작연대가 분명한 것으로 남조시기의 기물이 많고 용수(龍首) 및 교형이(橋形耳)가 함께 장식되었다.

2) 쌍이(雙耳)의 두 가지 양식

(1) 호형이(弧形耳, 아치형 귀)

호형이는 중국 육조시대 청자에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된 붙임 장식으로 계수호, 반구호(盤口壺), 쌍이관(雙耳罐) 또는 사이관(四耳罐) 등에 많이 사용되다가 동진 후기에 이르러서야 교형이로 대체되었으나 남조시대 말기까지 일부 사용되기도 했다. 계수호의 호형이는 가로, 세로 두 가지 형태로 부착되었으나 가로 부착형태가 더 많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온주 쌍잠 동진 영화 7년 분(温州雙岑東晋永和七年墓, 351년) (사진 1)과 서안 동계 동진 태화 3년 분(瑞安桐溪東晋太和三年墓, 368년) (사진 2)에서 출토된 계수호는 모두 호형이가 가로로 부착되었다. 온주 쌍잠 동진 함강 7년 분(温州雙岑東晋咸康七年墓, 341년)(사진3)과 승주 염산 동진 태화 3년 분(嵊州剡山东晋太和三年墓, 368년) (사진 4)에서 출토된 기물은 호형이가 세로로 부착되었다.



사진 1. 온주쌍잠동진영화7년분(351년) 출토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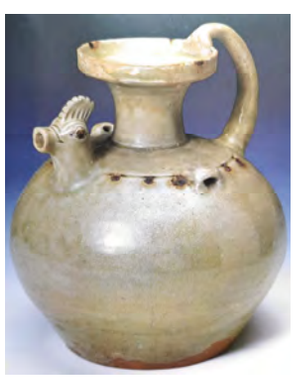


사진 2. 서안동계동진태화3년분(368년) 출토품



사진 3. 온주쌍잠동진함강7년분(341년) 출토품



사진 4. 승주염산동진태화3년분(368년) 출토품

(2) 교형이(橋形耳, 교량형 귀)

시간 순서로 볼 때 호형이가 더 일찍 출현했다. 동진 중후기에 이르러 교형이가 나타난 후에도 두 가지 양식이 상당 기간 공존했다. 호형이는 가로, 세로 두 가지 부착방식이 있으나 교형이는 기본적으로 가로로 부착되었다.

3) 집병(執柄, 손잡이)의 두 가지 양식

(1) 소면집병(素面執柄, 장식 없는 손잡이)

소면집병계수호는 동진 계수호의 최초 형식으로 동진시기에 성행하다가 남조 후기에 이르러 용수병호(龍首柄壺)에 자리를 내주었다. 집병 자체 변화를 보면, 초기에는 집병 상부의 호도(弧度)가 매우 작고 그 상단이 반구(盤口)보다 살짝 높을 뿐이며 전체적으로 완만한 'C' 자 형태를 이루었다. 동진 중기가 지나면서 집병 상부의 호도가 커지고 손잡이 상단이 반구보다 확실히 높아지며 영문 알파벳 'J'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깊게 구부러진 형태로 변모했다.

(2) 용수집병(龍首執柄, 용머리 모양 손잡이)

제작연대가 분명한 기물로 볼 때, 동진시기 계수호는 기본적으로 소면집병이었고 남조시기에 접어들면서 소면집병이 점차 사라지고 용수집병이 출현했다. 남조 후기에는 쌍용수집병이 출현하기도 했다. 용수집병과 함께 장식된 것은 모두 가로방향으로 부착되었고 호신(壺身)은 세장화되었다. 절강성 용천시 사전진 남조 송 영초 원년 분(浙江省龙泉市查田镇南朝宋永初元年墓)에서 출토된 청자계수호(사진 5)는 용수병과 교형이가 장식되었고 최대 복경(腹徑)이 기신(器身) 상부에 위치하며 전체적으로 세장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영초 원년(永初元年)은 동진의 마지막 기년인 원희 2년(元熙二年)이기도 하다. 이를 토대로 용수병계수호가 실제로는 늦어도 동진 말년에 출현하여 남조시기에 성행했다고 볼 수 있다.



사진 5. 용천시사전진남조송영초 원년분(420년) 출토품

소면집병과 비교할 때 용수집병의 가장 큰 차이는 용수조형이 추가된 점 외에 상부의 호도가 초기의 소면집병에 비해 뚜렷하게 크고 시종일관 '역J자' 형태의 깊은 곡선을 보인다는 점이다.

4) 전체 조형의 변천

계수호 기신의 변천과정은 대체로 동시기의 반구호와 그 흐름을 같이 한다. 초기 계수호의 기신은 구형(球形)에 가깝고 최대 복경이 기복의 정중간에 위치한다. 그 후 기복이 점차 높아지면서 최대 복경 또한 정중간에서 상부로 이동했고 반구 또한 기신이 길어짐에 따라 그 위치가 높아졌다. 늦어도 동진 말기에 이르러서 마침내 반구가 깊고 기신과 집병의 위치가 높은 계수호 형식이 이루어졌다.

3. 남원 출토 계수호의 연대 분석

남원 출토 청자계수호는 전체적으로 조형이 세장하고 최대 복경이 기물의 견부(肩部)로 이동했다. 주구가 막힌 Ⅱ형 계수를 사용했고 호형이는 위로 불룩 솟아 교형이의 형태에 가깝다. 소면집병을 사용하였으나 집병과 반구 연결부위가 깊게 만곡되었고 집병 상단이 반구보다 크게 높아졌으며 연결방식은 용수병호와 비슷하다.

이와 유사한 용천시 사전진 남조송 영초 원년 묘 출토품은 어느 정도 과도기의 형태를 보이는 반면, 서안시 융산 송 대명 5년 묘(瑞安市隆山宋大明五年墓)(사진 6)은 용수병・교형이 계수호의 정형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상술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남원 출토품은 소면집병・고기복(高器腹) 계수호에 속하고 청자계수호의 과도기적 형태를 갖추었으며 제작연대는 동진 말 또는 남조 류송(劉宋)왕조 초기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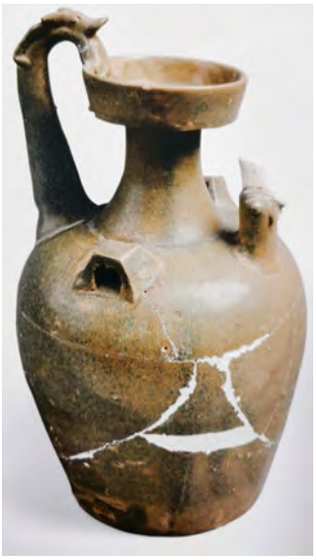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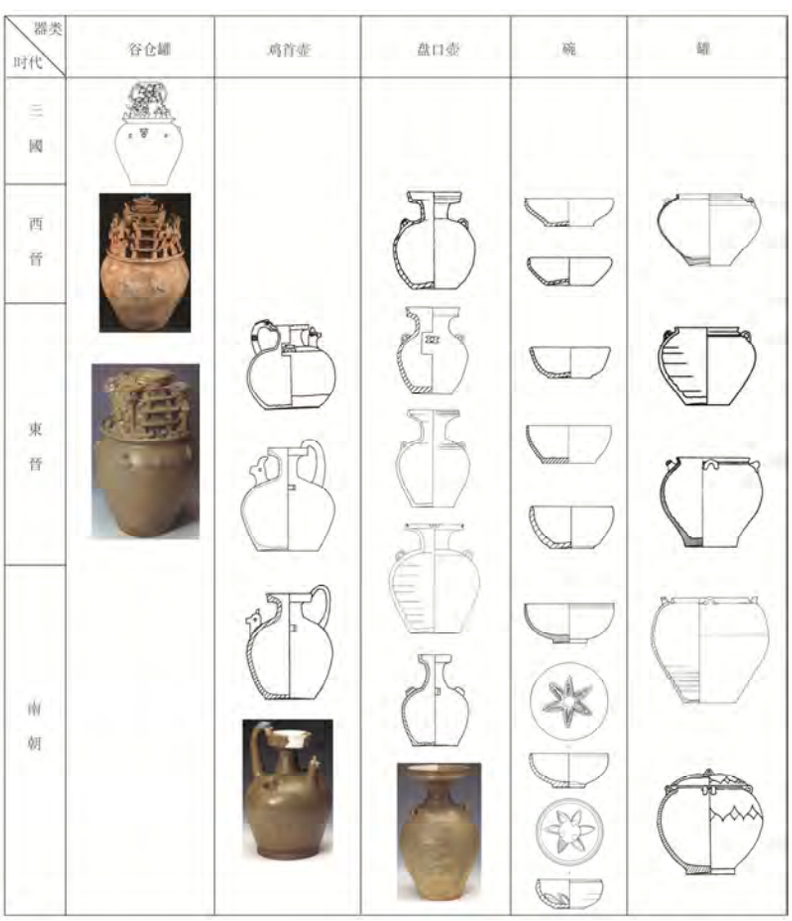


그림 6. 서안융산남조송대명 5년분(461년) 출토품



도면 1. 육조 무덤 출토 주요청자 편년

4. 결론

남원 출토 청자계수호는 중국 내 구체적인 산지를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육조 월요(越窯)의 풍격을 지니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동진, 남조시기에는 월요 풍격의 가마가 '절강성 내 각지에 분포했고 금화(金華), 온주(溫州), 여수(麗水) 등지에서 당시의 주요 가마터가 발견된 바 있다.

절강성 동부의 월요 청자만 하더라도 오늘날의 소흥시(紹興市) 상우구(上虞區) 조아강(曹娥江) 중상류 골짜기에 집중 분포했던 가마에서 주로 동한에서 남조에 이르는 시기에 제작되었다. 그 후의 발전 과정에서 기물 종류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동한과 삼국시기의 월요 자기를 보면 관(罐), 완(碗) 등 실용기 외에 오연관(五聯罐), 곡창관(穀倉罐), 가옥모양, 동물모양 등 명기의 의미가 농후한 비실용기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동진 이후에 이르러 북방 사족(士族)이 대거 유입되면서 현지 도자기제조업의 전통에 커다란 충격이 가해짐에 따라 기존의 기술적 전통은 위축되고 새로운 풍격과 제조기술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2] 이는 기물의 조형과 장식풍격 등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반구호, 완, 귀걸이 등이 전 시대의 기물제조 전통을 이어나가면서 일부 변화했고 많은 기물 종류가 점차 사라졌다. 기물 표면의 장식 또한 더욱 단순해졌다.(그림1)

이렇듯 자기의 전체적인 풍격에 큰 변화가 일어나던 시기에 장식성이 강한 계수호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상우시 니고파산 가마터의 발굴 결과로 볼 때, 처음에는 계수호 외에 양수(羊首), 호수(虎首) 등 다양한 종류의 동물모양 주전자가 존재하다가 어느 정도 발전한 다음에야 계수호 형태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대 월(越)나라 지역에서 최초의 도자기가 제작된 이후 도자기를 여타 고급 물품의 모방품 및 대용품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당시 상류층 사회에서는 도기와 자기 간에 큰 구분 없이 '와기(瓦器)'로 통칭했고 무덤 주인의 소박함과 검소함의 상징으로 와기를 무덤에 부장했다. 적어도 남조시대가 막을 내릴 때까지는 어떠한 청자기물도 사치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물론 무덤 주인의 신분에 따라 청자 부장품의 품질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했다. 따라서 청자의 품질과 종류를 보면 무덤 주인의 신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남경 왕씨가족묘(王氏家族墓), 사씨가족묘(谢氏家族墓), 북조 사마금용묘(司马金龙墓) 등 높은 신분의 귀족 무덤에는 다양한 종류의 고품질 청자가 다량으로 부장되어 있다. 그에 비해 무덤 주인의 신분이 낮은 경우 부장된 기물의 종류는 신분 높은 무덤과 큰 차이가 없으나 그 수량이나 품질은 확실히 떨어졌다.

남원 월산리 5호분 출토 계수호는 표면의 청유(青釉)에 변색 흔적이 뚜렷하고 유약층도 고르지 않다. 이러한 품질의 기물은 중국에서도 여러 차례 발견되었고 일반 단실(單室) 석실묘에서 많이 보이며 무덤의 품격이나 무덤 주인의 신분 모두 그리 높지 않다.

따라서 계수호 자체만 볼 때 월산리 5호분 주인의 신분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기물은 대략 진•송 교체기에 제작된 후 한반도에 전해지고 결국 남원의 무덤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며 시대적 배경, 가능한 전파 경로 등을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백제의 사신이 남경으로 파견되었을 때 사신단의 규모가 작지 않았을 것이므로 비슷한 기회를 통해 중국 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2) 정지알리·장잉, 2010, 「삼국 서진시기 월요 청자의 생산기법 및 관련 문제－상우 니고파산 가마터를 중심으로(三國西晋時期越窯青瓷的生産工藝及相關問題－以上虞尼姑婆山窯址爲例)」, 절강성박물관 『동방박물』 35호.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서남부에서 출토된 이러한 종류의 중국 자기가 반드시 백제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하사품인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각 지방세력이 한반도의 대중국 교류에 참여하면서 자기 물품을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양쑤잉(湯蘇嬰)·왕일링(王軼凌), 2017, 『청색유년: 전국에서 출토된 절강 기년 자기도록(青色流年：全國出土浙江紀年瓷圖集)』, 문물출판사.

리후이따(李暉達), 2010, 『중국 육조청자의 연대와 성격』, 호남문화재연구논문집.

리후이따(李暉達), 2019, 「한당묘장고고(漢唐墓葬考古)」, 『절강고고1979-2019(浙江考古 1979~2019)』, 절강성문물고고연구소.

절강성박물관, 2000, 『절강기년자기(浙江紀年瓷)』, 문물출판사.

학술지 게재논문

임영진, 2012, 「중국 육조 자기의 백제 유입 배경(中國六朝磁器의 百濟導入背景)」, 『한국고고학보」 83호, 한국고고학회.

정지알리(鄭嘉勵)·장잉(張盈), 2010, 「삼국 서진시기 월요 청자의 생산기법 및 관련 문제－상우 니고파산 가마터를 중심으로(三國西晋時期越窯青瓷的生産工藝及相關問題－以上虞尼姑婆山窯址爲例)」, 절강성박물관 『동방박물』 35호.

「남원 월산리 고분군 출토 중국 청자계수호의 특징과 의의」의 토론문

정상기(국립전주박물관)

중국 절강성 문물고고연구소에 근무하시는 리후이따 선생님은 중국의 육조시대 청자 연구의 대가로 오래전부터 한국에 “중국 육조청자의 특징과 의의” 등의 논문을 발표하여 한국에 익히 알려진 중국의 학자로서, 리후이따 선생님이 작성하신 “남원 월산리 고분군 출토 중국 청자계수호의 특징과 의의”의 논문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

토론자는 2013년에 겨레문화연구 제2호에 『韓半島 出土 鷄首壺 製作 年代에 대한 초보적 檢討』란 논문에서 남원 월산리 출토 청자 계수호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여기에 간단히 소개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한다.

월산리 고분군 M4~M6호분은 본격적인 발굴 당시 대부분 도굴되었으나, M5호분 출토 부장품 가운데 가야지역에서 아직까지 확인된 예가 없는 중국제 청자계수호, 철제자루솥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청자계수호가 출토된 M5호분은 M4호분으로부터 동남방향으로 23.8m정도 떨어져서 위치한다. M5호분은 밭을 개간하는 과정에서 중장비를 동원하여 봉분의 가장자리를 절개하여 봉분 기저부와 남단 벽이 유실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長軸을 따라서 매장주체부에 대한 수차례의 도굴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장 주체부는 구덩식 돌덧널으로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다. 장축방향은 N16° E로 거의 남-북 방향이다. 돌덧널의 규모는 길이 9.60m, 너비는 북쪽 1.23m, 남쪽 1.12m로 북쪽이 약간 넓고, 높이는 1.85m 정도이다.



사진 1. 靑瓷鷄首壺

북벽에서는 청자계수호, 철제자루솥, 바리모양 그릇받침, 뚜껑달린 긴목항아리, 굽다리항아리 등이 출토되었으며, 남벽에서는 굽다리항아리, 낮은 원통모양 그릇받침, 기꽂이, 투구와 갑옷 등이 출토되었다.

청자계수호는 높이 14.5cm, 저경 8.5cm의 광구병 형태로 한쪽에는 닭 벼슬이 길게 표현된 계수가, 반대편에는 구연에서 동체까지 연결된 고리형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다. 어깨에는 대칭으로 “∩”자형 귀가 두 곳에 부착되어 있다. 구연부와 목부분, 손잡이, 그리고 동체의 많은 부분에서 유약이 박락되어 있다. 또한 계수와 구연부, 동체 상부에는 작은 구멍들이 많이 뚫려 있다. 저부는 유약이 시유되지 않았다. 동진시대의 계수호와 비교할 때 동체의 형태가 위아래 쪽으로 길쭉해졌으며, 동진시대 이후 계수호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손잡이 부근의 용머리 장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남북조시대에 제작되었다고 판단된다.(사진 1) 월산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철제자루솥 등 동반 유물의 편년과 함께 검토하면 이 계수호는 대략 5세기 중·후반에 제작되어 수입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계수호는 가야지역에서 아직 출토 예가 확인되지 않는 것을 참고할 때 가야와 백제세력의 우호 관계 속에서 백제가 賜與한 것으로 판단된다. 발굴자인 김규정은 구체적으로 이 賜與 시기를 백제의

무령왕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1)]

박순발 교수는 국립전주박물관이 개최한 남원 월산리 발굴 유물 특별전에서 월산리 5호분 출토 계수호를 중국 출토 발굴 자료와 비교하여 그 제작시기를 劉宋(421~479)으로 보았다. 몸체의 형태로 볼 때 중국 廣州 新興 南朝墓(435)와 가장 유사하나, 반구의 목 부근이 높아진 점으로 인해 杭州 黃岩秀嶺水庫 49호묘 출토품 및 浙江 瑞安 隆山 劉宋 大明 5年墓(461) 출토 계수호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하였다.[2)] 하지만 박순발 교수가 소개한 비교유물들은 동체 어깨에 부착된 把手 즉 손잡이와 盤口의 구연에 연결되는 용머리 장식이 있다는 점이 남원 월산리 출토품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1974년 江蘇省餘姚市의 華夏山에서 출토된 청자계수호는 높이가 18.7cm인데 손잡이의 용머리 장식이 있으며, 동체 상단 양어깨에 부착된 꼭지가 직각을 이루고 있는 점 등이 남원 월산리 출토 청자계수호와의 차이점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형태는 많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 華夏山 출토품의 제작시기를 동진 말기로 추정하고 있다.[3)]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다른 계수호에 비해 규모가 작고, 장식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어 실용적인 활용보다는 무덤의 明器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는 가야권역에서 최초로 발견된 중국제 수입 청자로서 의의가 크다.

앞에서도 언급한 발굴한 김규정은 이 중국제 청자계수호가 백제와 가야의 우호 관계 속에서 백제가 사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가야가 신라에 의해 멸망한 시기가 562년이며, 백제의 전북 동부지역 가야지역을 적극적으로 경략하던 무령왕(501~523)의 무덤에서는 계수호가 출토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청자계수호는 대략 460~500년 무렵에 중국에서 제작되어 백제를 통해 賜與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무령왕 재위 기간에 사여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상이 간단히 작성한 글의 요지이다. 토론자는 몇 년 전 전라북도에서 주최하는 가야 관련 학술대회에서 중국 영파박물관 이군 선생님의 발표에 토론자로 참석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고민했던 문제들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한다.

첫째, 발표자 중국학계에서는 계수호의 연원과 관련하여, 삼국시대의 계수반구소관鷄首盤口小罐에서 유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중국 학계에서 통용되는 통설이지만 일부 학자들은 삼국시대보다 약간 늦은 서진西晉과 동진東晉때에 계수호가 발생했다고 본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영파박물관의 이군 선생의 경우에는 계수호의 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동진 시기인 320년 이전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둘째, 발표자는 중국 육조시대에 제작되었는 계수호들을 비교 연구하여, 남원 월산리 출토 청자 계수호의 제작시기를 동진 말 또는 남조 류송劉宋 시기로 보고 몇 년 전에 토론자가 토론한 이군 선생의 경우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남원 월산리 고분군의 운영 주체인 가야라는 정치체가 중국 남조의 왕조인 송宋에 사절단을 파견하는 479년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대략 460~50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유적의 발굴자는 대략 460~500년 사이에 제작되어 구체적으로 백제의 무령왕릉 시기(501~523년)에 사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

셋째, 한국에서 이 청자계수호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청자계수호가 출토된 지역과 이 청자계수호를 활용한 정치체의 주체 세력 때문이다. 발표자는 이 청자계수호를 백제가 중국에

1) 김규정, 2012,「남원 월산리 고분군 발굴성과」,『운봉고원에 묻힌 가야 무사』, 국립전주박물관·재단법인 전북문화재연구원, 112쪽
2) 박순발, 2012,「계수호와 초두를 통해 본 남원 월산리 고분군」,『운봉고원에 묻힌 가야 무사』, 국립전주박물관·재단법인 전북문화재연구원, 119쪽
3) 胡繼根, 2000,『中國陶瓷全集 三國 兩晉 南北朝』, 上海人民美術出版社, 291쪽.

서 직접 수입하여 지방의 정치세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발표자는 이 청자계수호의 상태로 볼 때 품질이 그렇게 우수한 자기가 아니며, 이 청자를 부장한 무덤의 세력도 신분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론자 또한 앞선 글에서 이 청자계수호의 수입 세력이 백제일 것으로 보았고, 이 청자계수호가 질적으로 우수하지 않은 보통 수준의 자기였음을 인정하였다. 이 청자계수호가 출토된 남원 지역은 백제의 영토가 아닌 가야라는 정치체가 지배하는 지역이었다는 것이 한국의 통설이며, 청자계수호와 동반하여 출토된 철기와 토기류도 백제계의 유물이 아닌 가야계 유물로 보고 있다. 앞서 이군 선생은 이 청자계수호를 가야와 중국 남조 송의 교류의 산물로 보고 있는데, 발표자는 그 당시 전라북도의 동부를 장악한 가야가 중국 남조 세력과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가? 또한 한국 고대 국가의 하나인 백제가 다른 정치체인 가야 세력에게 이 청자계수호 수입하여 사여賜與라는 형태로 전달 할 가능성은 있었을 것으로 보는지 궁금하다.

발표자의 고귀한 답변을 듣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국립전주박물관 정상기 선생님의 토론에 대한 답변

리후이따(李暉達, 중국 절강성 문물고고연구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개인적으로 진나라 때의 계호(鷄壺)가 삼국시대의 계수소반구호(鷄首小盤口壺)에서 직접 유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중국 학계에서는 그러한 인식이 보편적이고, 육조시대 자기를 전시하는 다수의 박물관들이 계수호의 발전 순서를 전시하며 삼국의 계수반구호를 첫 순서에 두고 있다. 동진(東晋) 때에 계수호가 출현한 정확한 시기와 관련하여, 기년묘 출토 자료에만 의존하여서는 이렇게 절대적으로 서기 320년 전후로 판정할 수 없을 것이다. 논문에서 언급한 상우시 니고파산(上虞尼姑婆山) 가마터처럼 삼국 서진(西晋)시기로 추정되는 가마터에서 양수(羊首), 우수(牛首), 호수(虎首) 등 계수를 제외한 유사 기물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계수호의 원류를 여기서 찾아야 하고 그 시작이 동진시기보다 이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니고파산 발굴 보고서가 발표된 후에 더욱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석사 논문과 예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필자는 이들 청자 기물이 단독으로 '위세품'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 기물이 단순한 예술품으로서 유통된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어떤 물품의 외부 포장 용기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자 기물을 '하사' 행위와 연관 짓는다 하더라도 당시 중요한 정치 및 외교 활동에서 유통된 것이라고 단언할 만한 충분한 이유와 유일성이 부족하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유물의 교류 경로에 관한 필자의 추론은 일종의 가능성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중국 이외 지역에서 고급 기물이 출현하지 않았다는 점은 중국과 외국 정치세력 간의 교류가 어떠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그러한 교류에는 직접적 방식 외에 간접적인 방식도 있었다. 당나라 소정방(蘇定方)과 신라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킬 때까지 중국 정치세력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즉, 직접적이고 깊이 있는 교류가 많지 않았던 것이다. 중국 사료에서 가야 관련 기록이 중국 황제가 백제 국왕을 책봉하는 부분에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백제가 한반도 서남부에서 대중국 외교의 리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백제가 청자 계수호를 중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지방 정치세력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반드시 '하사'의 형태였다기보다는 단지 '공유'의 형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정리하자면,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동진 남조시기 중국과 한반도 내 각 국가 사이에 엄격한 '책봉' 관계가 있었는지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물 자체의 특징에서 출발하여 한반도와 중국 간에 엄격한 외교·정치 활동 이외의 다른 방식이나 경로를 통한 문화교류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은 백제와 가야 사이에도 존재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점을 짚어주신 정상기 선생님에게 감사드린다.

Part
05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 출토 수즐의 특징과 의미

발 표 : 木沢直子 | 키자와 나오코/日本 元興寺文化財研究所

토 론 : 박천수 | 경북대학교

南原清渓里清渓古墳群出土竪櫛の特徴と意味

木沢直子（公益財団法人元興寺文化財研究所）

1. はじめに

本発表の目的は、韓半島で確認されている竪櫛の特徴を整理するとともに、南原清渓里清渓古墳群から出土した竪櫛との比較を通して、こうした櫛が本遺跡から出土した意味を考察することにある。竪櫛は日本列島において古墳時代に盛行したことが知られ、服飾具に分類される。近年、韓半島での出土事例も確認されており、倭系の資料として認識されていることは周知の通りである。筆者自身も以前、高興野幕古墳と東莱福泉洞53号墳から出土した竪櫛を実見する機会をいただき観察を行った。その際、両遺跡の竪櫛について、いくつかの相違点を把握したものの、違いが生じる背景を検討するには至らなかった。

今回、国立完州文化財研究所および国立羅州文化財研究所両機関のご厚意により、南原清渓里清渓古墳群から出土した竪櫛について検討する機会をいただいた。そこで本稿では、日本列島における竪櫛の様相を踏まえたうえで、あらためて韓半島で出土する竪櫛を検討し、今後の課題について述べる。

2. 日本列島における竪櫛

（1） 竪櫛の定義（形態と構造）

「竪櫛」という名称は櫛の形態的特徴に由来する。「竪」は「縦」と同意であり、「縦方向に長い櫛」を指す（1）。日本列島では縄文時代前期以降、各時期に特徴的な櫛が確認されており、変遷を追うことができる（2）。これまでに先学によって行われてきた櫛の分類基準は、主に形態の特徴に基づく方法と製作技法に基づく方法に大別される。形態の特徴による分類が、縦方向に長い「縦櫛」と横方向に長い櫛「横櫛」である。一方製作技法に基づく分類には「結歯式」「刻歯式」「挽歯式」があり、これらは櫛歯を作り出す技法の違いによる（3）。例えば「結歯式」は、櫛歯とする縦材を横材と組み合せ、植物繊維で結束して固定する、或いは横材を用いず植物性繊維で複数の櫛歯を結束する方法である。これに対して「刻歯式」と「挽歯櫛」は、単一の素材を加工して作り出す櫛を指す。特に「刻歯式」は石製あるいは金属製などの工具を用いて櫛歯を削り出した櫛、「挽歯式」は鋸状の工具を用いて櫛歯を挽き出した櫛を指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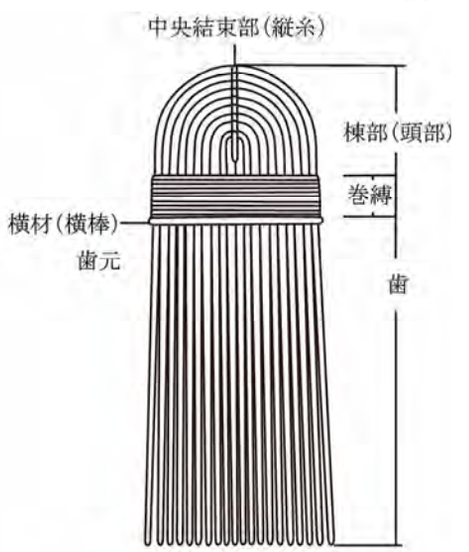


図１　竪櫛の部位と名称

（2）古墳時代における竪櫛の特徴

本稿で論点となる櫛は、上記の基準に従えば「竪（縦）櫛」「結歯式」に分類される。特に古墳時代の櫛については「竪櫛」の呼称が通用されており、本稿でもこの名称を

用いる。古墳時代の竪櫛は薄く割いたタケ（タケ亜科）材を複数本並べ、中央付近を糸状材で結縛するとともに、この部分を彎曲させて材を一束とし、横材を渡してタケ材1本ごとに繊維で結縛する。この部分は棟部と呼ばれ、結縛部分に黒色漆を塗布して固定する（図1）。

複数の部材を結縛して漆を塗布した櫛は、縄文時代以来日本列島に連綿と続く。しかし、古墳時代の櫛と前代（縄文時代および弥生時代）の櫛には材質、形態、製作技法において下記のような明確な違いがある。

・材質

縄文時代から弥生時代における櫛の素材は木材が多く、骨角製、石製も散見される。タケ材を用いた事例は弥生時代中期に確認されるが限定的である。一方、古墳時代の竪櫛は一様にタケ材を用いるようになる。

・漆

縄文時代から弥生時代の櫛の多くに赤色あるいは赤色と黒色の漆が塗布される。古墳時代になると赤色漆は用いられなくなり、竪櫛は黒色漆のみとなる。

・形態と製作技法

縦材と横材を組み合わせる結歯式の櫛は縄文時代以来見られ、これらは時期や地域によって異なる特徴を示す。一方古墳時代の竪櫛は、棟部が弧状で縦方向に長い形状を呈する。こうした定型化された形状の製作は、タケ材の撓りやすい性質を利用することで可能となる（4）。

（3）竪櫛の出現と系譜

竪櫛の出現時期を明確に示すことは困難だが、概ね弥生時代末葉から古墳時代初頭と考えられる。現時点では、纒向遺跡（5）（図2左）や石田遺跡（6）（図2右）から出土した櫛が当該期に属する事例である。このうち纒向遺跡は大和平野の東南部に位置し、古墳時代前期を盛期とする集落遺跡である。周辺には纒向石塚古墳をはじめ、箸墓古墳や矢塚古墳など古墳時代初頭の前方後円墳が分布する。纒向遺跡や石田遺跡の竪櫛は、縄文時代から弥生時代における櫛と比較すると、形態や製作技法、材質において異なる点が多く、直接的に系譜を辿ることは困難である。



図2　出現期の竪櫛

（4）竪櫛の出土遺構

古墳時代における竪櫛の出現と広範囲にわたる拡散の背景を考えるうえで、留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点がある。それは、初現期の竪櫛が出土した遺構である。前述の纒向遺跡では竪櫛が土壙から出土している。土壙の直径は3m、深さは1.5mで、土師器とともに多量の木製品が包含されていた。木製品の器種は生活用具、土木材、建築材のほか、赤色漆塗高杯、黒色漆塗盤などの容器、鳥形、舟形などの木製形代、儀仗、自然木など合計374余点に上る。こうした多量の木製品や器種構成の特殊性から祭祀的要素が強い遺構として注目され、「纒向型祭祀」と呼ばれる祭祀形態が検討される契機となった遺構である。竪櫛はこれらの木製品の下層から出土した（7）。注目されるのは、纒向遺跡周辺の同時期の古墳からは竪櫛が確認されていない点である。竪櫛の出現と背景を考えるためには、纒向遺跡をはじめ、同時期の竪櫛が出土した遺構の性格や共伴遺物をさらに検証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副葬品としての竪櫛

古墳時代を通して、竪櫛の約9割は古墳、すなわち埋葬にともなう遺構から出土する。副葬品としての竪櫛は雪野山古墳（8）や会津大塚山古墳（9）など、古墳時代前期から確認されているが、日本列島に広く拡散し、多くの古墳に副葬されるのは古墳時代中期に至ってからのことである。

竪櫛の副葬形態や、機能および用途に関する研究には、すでに亀田博（10）や徳田誠志（11）らによる成果がある。それらの主な論点は、竪櫛が日常的な装具であったのか、あるいは埋納具、葬送具としての機能を有していたのかという点にある。亀田は、竪櫛を日常的な装身具とする前提に立ち、古墳における出土状況に基づいて、「人体に着装されたと考えるもの」と「人体に着装されず副葬されたもの」に大別した。その上で、特に後者（人体に着装されない状態で副葬された櫛）の出土状況の分析を通して、竪櫛は日常的な装身具であり、副葬される数や副葬状況の違いから特別な意味を持たせることはできないと結論付けた。一方、徳田は、竪櫛が大量に副葬される事例に着目し、亀田が否定した「櫛をまき散らす副葬状態」の存在をあらためて評価したうえで、竪櫛には「日常的装身具」と「古墳への埋納具、葬送具」としての二面性があり、それは副葬状態に現われるという見解を示した。

こうした 図3—1 被葬者の頭部に付着した竪櫛 置関係や遺体を埋葬する際の一連の行為と竪
老司古墳4号石室2号人骨
櫛の副葬方 5世紀初頭（被葬者性別：男性）

① 被葬者
② 被葬者 での副葬（12）（図 3—2）
③ 埋葬施設内全体または一部に多数撒かれた（または置かれた）状態での副葬（図 3—3）
④ 埋葬施設外に撒かれた（または置かれた）状態での副葬（図 3—4）
⑤ では頭部への着装が多く、竪櫛の使用方法を最も端的に示している。このような状態で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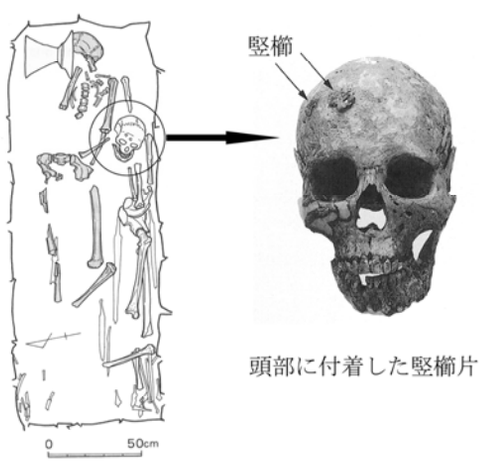


図3—1 被葬者の頭部に付着した竪櫛
老司古墳4号石室2号人骨
5世紀初頭（被葬者性別：男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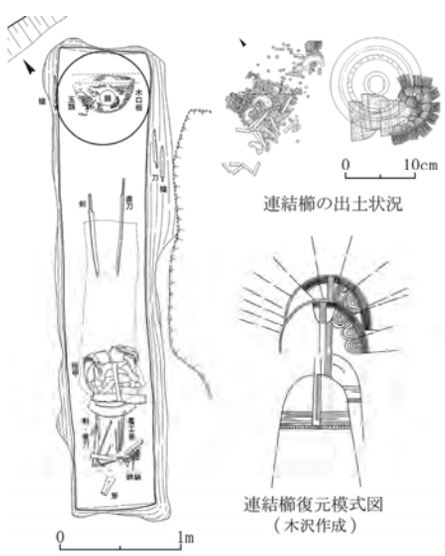


図3－2 被葬者の頭位に置かれた竪櫛
宇治二子山古墳北墳西槨
5世紀中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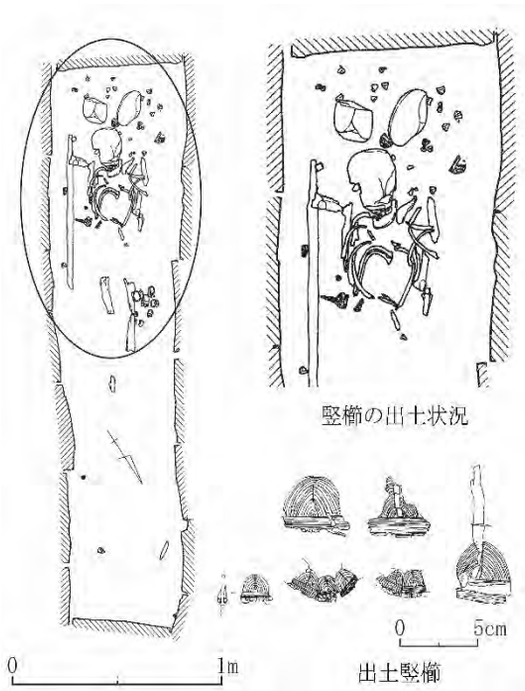


図３－３ 被葬者の上半身を中心に撒かれた竪櫛
中原24号墳 5世紀後半
（被葬者：男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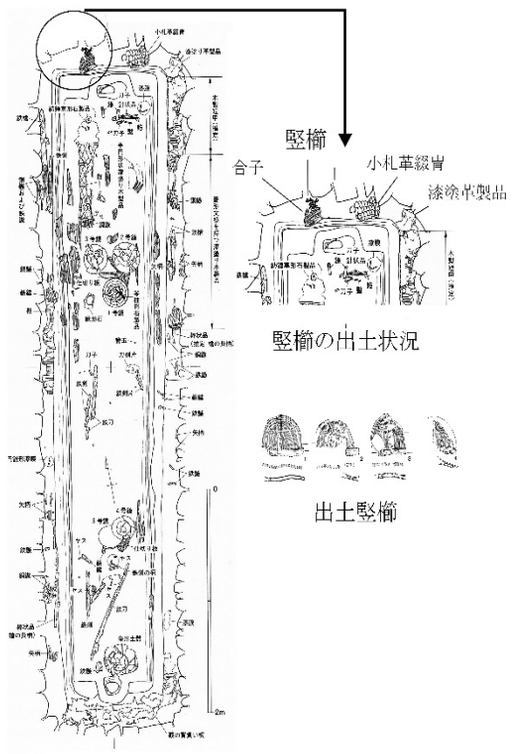


図３－４ 棺外に置かれた竪櫛
雪野山古墳 4世紀前半

した事例は九州地方に多く、中国地方にもわずかに報告がある（13）。頭部に大型の櫛1個を着装する形態と、小型櫛を複数個の着装する例があり、被葬者の埋納時にすでに着装していたか、あるいは遺体安置後に着装されたと推定される。②は、竪櫛の副葬状態として最も多く見られる。櫛が単体で置かれる事例もあるが、鏡や玉類と共に被葬者の頭部付近に置かれる事例も多い。被葬者を埋葬施設に安置後、遺体との位置関係を配慮して櫛を置いたと推測する（14）。③は遺体の上に櫛を撒いたように散在する出土状況と、被葬者の頭位あるいは脚位方向に散在する出土状況である。埋葬施設内全体に散在する事例もある。②と③については、後述する連結櫛でもこうした副葬状態を確認出来る。④は埋葬施設の外に櫛が置かれる。雪野山古墳では、棺外に置かれた合子状容器内に櫛が納められた状態で副葬された（15）。

埋葬の際の一連の行為において、②と③は被葬者の遺体安置後に行なわれている点で共通するが、②に比して③は装身具としての意識が希薄であり、竪櫛を副葬する行為自体に意味があったと推測する。その意図は不明だが、竪櫛の副葬が埋葬過程において必要な行為であったことは確かである。竪櫛の副葬は、近畿地方では6世紀前半頃、関東地方では6世紀後半まで確認できる。当該期は各地域において前方後円墳の築造が衰退する時期とも概ね合致す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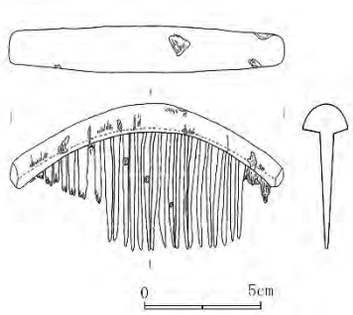


図４ 新昌洞遺跡出土櫛

3. 韓半島における竪櫛

(1) 韓半島における櫛の形態と変遷

韓半島から出土する櫛を概観すると、縦方向に対して横方向に長い形態、いわゆる横櫛が多い。また、日本列島において縄文時代以来見られる、複数の部材を組み合わせた構造（複材型）は少なく、多くは単一の材から作り出す単材型である（16）。初期鉄器時代における単材型の櫛として知られる新昌洞遺跡の櫛もその一例である（17）（図4）。本遺跡の櫛は、縦方向に対して横方向に長く、櫛歯を削り出している。単材型は原三国時代、三国時代を経て統一新羅時代へと続き、韓半島における櫛の構造として踏襲される（18）。

こうした中で、出土事例が少ない複材型の事例として、大成洞古墳群88号墳および91号墳から出土した骨製櫛がある（19）（図5）。櫛は殉葬されたと考えられる複数の被葬者の遺体付近から検出された。88号墳では女性2体の後頭部付近で出土していることから、頭部に着装した状態が想定されている。また、99号墳では同じく殉葬と考えられる女性の腕付近で確認されている。これらの櫛はいずれも縦方向に長く、骨製棒状材を9から13本並べ、これを紐状材で結束して紐状材部分に黒色漆を塗布する。両端部の櫛歯は外反する。こうした櫛は韓半島では他に類例が確認されていな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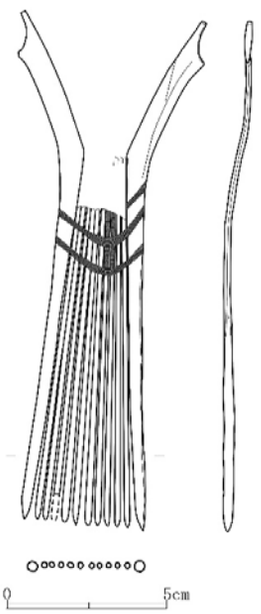


図5　大成洞古墳群88号墳出土櫛

日本列島では、骨製を用いた複材型として青谷上寺地遺跡の事例がある。本櫛は骨製の縦材を並べて糸状材で縛り、その部分に赤色漆を塗布している。年代は弥生時代末葉（3世紀前半）とされており、大成洞88号墳と91号墳が属する4世紀前半から後半とは時間差があることから、両者の関連性は不明である。現時点では、韓半島と日本列島において、大成洞古墳群88号墳および91号墳の類例は確認できていない。

(2) 韓半島における竪櫛の特徴

韓半島において、これまでに確認されている竪櫛の事例は少ない。ここでは、筆者が観察した資料を中心に、それぞれの特徴について述べる。

· 東萊福泉洞53号墳（20）

竪穴式石槨墓内の被葬者の頭部付近より竪櫛が約2点出土した（21）。特筆すべきは、これらが複数の竪櫛を連結した「連結櫛」であるという点である。連結櫛については後述するが、出土状況から、連結された状態の櫛は少なくとも2個体あり、同じ方向に揃えて、少しずらした状態で重ねられていた。上層の櫛は、本体となる大型櫛の棟幅が約6.6cmに復元できる。棟部の高さは約4.8cmである。小型櫛の一部は崩れて原位置を留めていないが、軸を挟んで左側に3個体が繋がった状態の連結部があり、右側にも最低2個体の櫛が確認できる。小型櫛は当初5個または7個体を連結していたと推測する。下層の櫛は上層の櫛の下面に隠れているが、上層の櫛と同等もしくはやや小型である。細部の観察から、これらは日本列島で出土する連結櫛と同じ製作技法によって製作されたと考える（図6）。

· 高興野幕古墳（22）

竪櫛は埋葬施設である石室内から出土した°被葬者の頭部付近から丶鏡と共に5点が検出されたほか丶小片も確認されている°櫛にはいずれも黒色漆が塗布されている°観察とX線写真から丶
竪櫛は棟部に突起を持たない無突起型と丶突起を有する有突起型である°遺存状態が比較的良好だった図7－1は棟幅約1.7cm丶棟高約1.2cmで丶櫛歯は失われている°棟部全体が比較的厚い漆膜に覆われているため詳細な観察は困難だが丶中央結束部には糸状の材で結束した痕跡と考えられる瘤状の隆起が確認できる°巻縛の幅は約3mmで丶櫛の両端に数条の糸状らしき表情が見える°櫛歯の両面丶巻縛の下辺に直径1mm弱の横材を宛てがい丶糸状の材で櫛歯間を通しながら横材を巻き締めて固定する°図7―6は他の櫛と比較して大型で丶中央折り曲げ部分には別材が装着されていた痕跡がある°このような痕跡は丶連結櫛の本体（大型の櫛）に取り付けられた軸材にも類似する°5点の竪櫛は棟部に塗布された漆膜の状況や巻縛丶横材の特徴に個体差があり丶これらが東萊福泉洞53号墳で見られたような一個体の連結櫛であった可能性は低い°しかし丶図7―6が連結櫛の本体部分であった可能性も否定できな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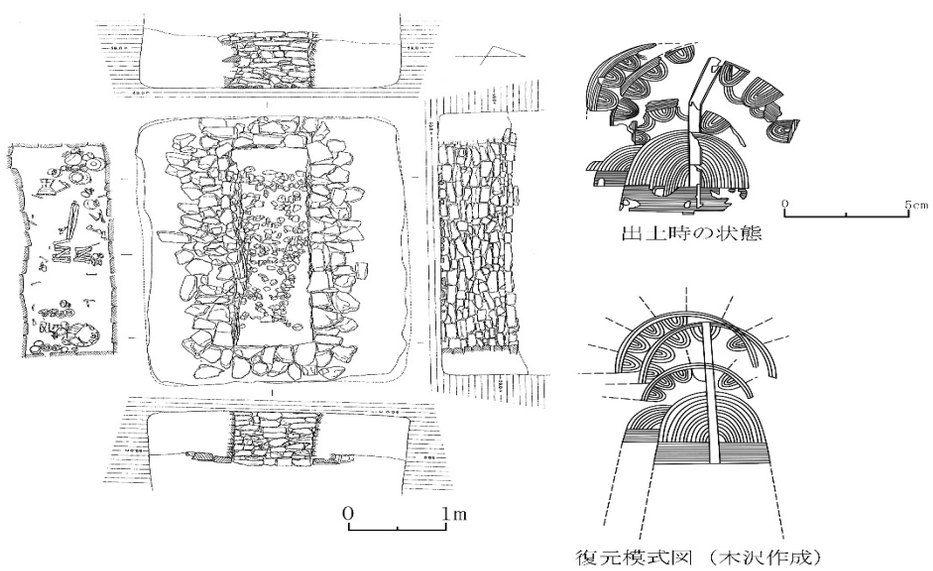


図6　東萊福泉洞53号墳出土竪櫛と復元模式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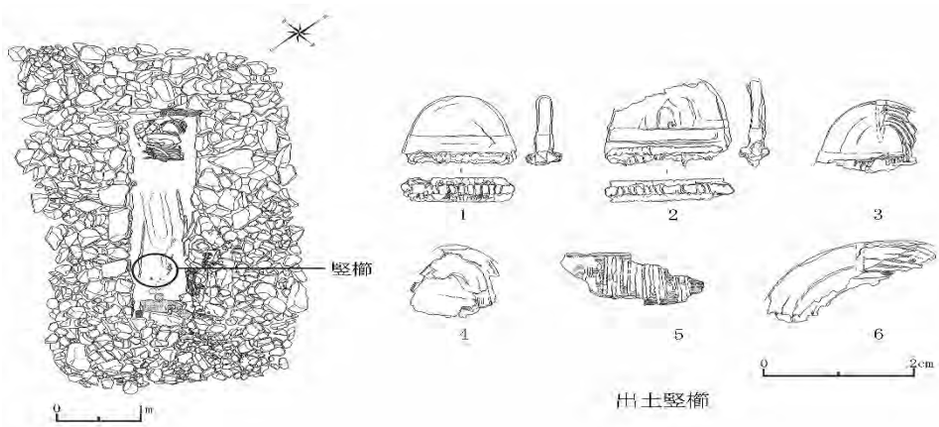


図7　高興野幕古墳出土竪櫛

· 高興吉頭里雁洞古墳（23）

竪櫛は石槨墓内の北壁角に副葬された環頭大刀に付着した状態で検出された（図8）°筆者は資料を実見できておらず詳細を記すことはできないが丶報告書の記載から突起が無い形状と推測できる°本遺構の埋葬施設は石槨内に木棺が置かれていたと考えられており丶櫛が検出された位置を考慮すると丶櫛は被葬者が身に付けたり丶遺体の近くに置かれたものではなく丶棺外に置かれていたと考えられる°報告書の記述によれば丶竪櫛が付着していた資料を含めた環頭大刀3点は丶本来石槨東北角立てられていたと推定されている°副葬品が埋納された当初丶竪櫛は環頭大刀に付属していたのか丶あるいは大刀近くに置かれた櫛が丶時間の経過とともに何らかの理由で大刀と接して銹着したのかは不明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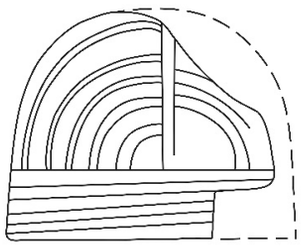


図8　高興吉頭里雁洞古墳出土竪櫛

4．連結型の竪櫛

(1) 形態と年代

連結型の竪櫛については近年ようやく本来の形状が明らかになり丶時期や副葬方法を把握できる事例が増えてきた状況である（24）°現在までに確認されている数は少ないが丶すでに竪櫛として報告されている資料中に連結櫛が含まれている可能性もあり丶今後さらに調査が必要である°

あらためて竪櫛の形態を整理すると丶棟部の中央結束部に突起を有する有突起型と丶突起が無く弧状を呈する無突起型に加えて丶複数の櫛を連結する連結型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図9）°この連結型の竪櫛を連結櫛と呼ぶ（25）°連結櫛の特徴のひとつは丶加飾性の高さである°図9に示した模式図からもわかるように丶その形状は頭部へ着装するには不適であり丶埋葬の際に象徴的に用いられた葬具であった可能性が高い°これまでに確認されている資料の年代は5世紀前半から中葉を中心とし丶無突起型や有突起型と比較すると分布地域は限られている（26）（図10）°

連結櫛は大型の櫛1個体と小型の櫛5個体ないし7個体を連結する°製作工程は丶先ず大型櫛の中央結束部から上方に棒状の軸材を伸ばし丶その先端に小型櫛を取り付ける°その小型櫛を中央に配する形で丶左右に予め連結した小型櫛を取り付ける°これまでに丶大型櫛と小型櫛が連結されていたことを確認できる事例や丶小型櫛の連結部分が残存する事例は11例を数える°このうち丶埋納当初の櫛の形状が遺り丶副葬位置や副葬時の状況を把握できる事例として宇治二子山古墳北墳丶茶すり山古墳丶灰塚山古墳などがある°

宇治二子山古墳北墳では丶直径約37mの円墳の墳頂に築かれた3基の主体部のうち西槨棺内から丶少なくとも2個体が重ねられた状態で出土した(27)（図3－2）°櫛の周囲には小型櫛の歯が残存する°上層の大型櫛は棟幅約5.3cm丶棟高約4.1cmで丶中央結束部に扁平な軸材（幅約5mm）が取り付けられる°この軸材は小型櫛の連結部分と繋がっていたと考えられる°小型櫛は概ね棟幅約1.6cm丶棟高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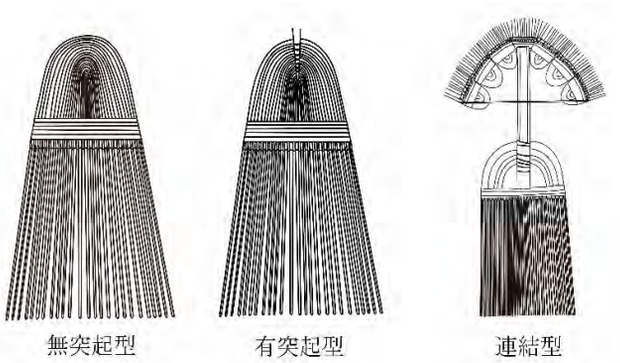


図9　竪櫛の形態分類

1.4cmで、当初は合計7個が連結していた可能性が高い。

茶すり山古墳は、最大径約90m、最小径約78mの不完全な円墳である。墳頂平坦部に築かれた2基の主体部のうち、第2主体部の棺内中央区画から連結櫛が出土した(28)。本櫛は歯が欠失しているが、全体の遺存状態は良く、連結櫛の製作工程を知り得る良好な事例である。大型櫛は棟幅3.6cm、棟高2.3cmで、棟部の中央結束部を棒状の軸材で挟み、その軸の上端に小型櫛（棟幅約1.2cm、棟高約1.2cm）を取り付ける。さらに小型櫛の左右に細い棒状材を渡して連結した3個体を繋げ、合計7個を連結する。大型櫛に取り付けられた軸材は幅0.7cmで、軸の端部を割いて中央結束部を挟む。これは宇治二子山古墳北墳などとも共通する方法である。大型櫛の大きさは宇治二子山古墳北墳と比較するとやや小さい。

連結櫛の中で、唯一東北地方で確認された事例が灰塚山古墳である(29)。墳丘規模は全長61.2mの大型前方後円墳で、後円部に2基の主体部が築かれる。連結櫛は、このうち本墳の築造期と推定される第１主体部から出土した。櫛は大小30個以上あり、大型櫛は8個体確認されている。このうち7個体に連結用の軸材が遺存する。大型櫛はいずれも棟幅4～5cm、棟部の高さは4～5cmで、櫛歯を含めた全長は約20cmである。小型櫛は棟幅約1cm、棟部の高さ約1cmで、7個が連結した状態の連結部のほか、3個体が連結した部分も数カ所見える。報告書によると、櫛は大刀近くから出土し、被葬者の胸部付近におかれたと推定されている。

・出土状況

連結櫛の副葬方法は、それらの出土状況から二通りを推測できる。一つは宇治二子山古墳北墳に見られるように、連結櫛を2、3個体重ねた状態で置く方法で、前述②に該当する（30）（図3－2）。もう一つは、割れた状態の連結櫛を被葬者の遺体付近に撒く方法で、前述③に該当する（図3－3）。中原24号墳では被葬者の頭部周辺から胸部付近にかけて、大小の櫛が散在した状態で出土している。連結櫛の副葬位置は被葬者の頭部あるいは脚部付近に置かれる事例のほか、このように数個体分が割られて撒かれた状態で検出された事例も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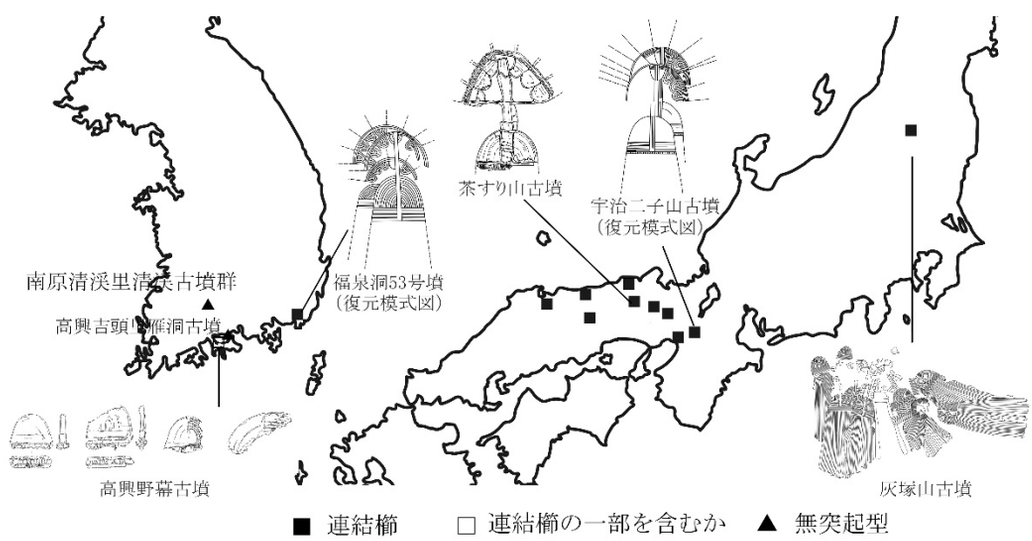


図１０　日本列島における連結櫛の分布と韓半島の竪櫛

・韓半島の連結櫛

東萊福泉洞53号墳の竪櫛は、形態、構造、素材において日本列島の出土事例と酷似し、連結櫛であることは明らである。櫛を同方向に揃え、わずかにずらして置かれた出土状況は、宇治二子山古墳北墳などと共通する（図6）。日本列島で確認されている連結櫛の出土状況や、形状の特殊性を考慮すると、東萊福泉洞53号墳

の連結櫛は、被葬者を埋葬する際に櫛の埋納方法を認識する人物が立ち会っていた可能性を示唆しているとも考えられる。また、連結櫛の多くは近畿地方から中国地方の日本海側へと至るルートに沿うように点在することから、櫛を副葬された被葬者、あるいは分布する地域との間に何らかの繋がりも想定される。こうした点は東莱福泉洞53号墳の被葬者像を考えるうえで重要な要素である。

日本列島において連結櫛が出土した古墳の規模を見ると、各地域の首長級墳墓といえるのは宇治二子山古墳北墳（円墳）、茶すり山古墳（円墳）、灰塚山古墳（前方後円墳）であり、その他はいずれも小規模な方墳または円墳である。また、副葬された連結櫛の数や大きさと、墳丘の規模や櫛以外の副葬品の構成には関連性を見出すことができていない。現時点では、連結櫛を副葬された被葬者像を具体的に描くことは困難である。

5.南原清渓里清渓古墳群出土竪櫛の特徴

日本列島および韓半島における竪櫛の特徴を踏まえたうえで、最後に南原清渓里清渓古墳群から出土した竪櫛について検討する。本遺跡の竪櫛はいずれも棟部の一部が残存したもので、櫛歯は欠失している。そのため、櫛が製作された当初の大きさや形態を正確に知ることは難しい。中央結束部が残る櫛片が2点あることから、竪櫛は少なくとも2個体あったと推測できる。筆者は資料を実見できておらず、写真からの見解ではあるが、櫛の表面には黒色漆が塗布されていると考えられ、巻縛部分には糸状材を巻いたと思われる様子が見える。棟部には突起を取り付けられた痕跡らしき部分が見られないことから、別個体と推定される2点の竪櫛はいずれも無突起型であった可能性を考える。報告書によると、竪櫛が検出された1号石槨内には木棺が置かれ、竪櫛は被葬者の頭位方向に副葬されていたと推定されている（31）。

本遺跡から出土した竪櫛は、その遺存状態から、東莱福泉洞53号墳のような連結櫛であった可能性は低い。また残存する櫛片には漆膜や巻縛の糸状材など各部位に類似する特徴が見え、この点において、出土した竪櫛5点に個体差が見られた高興野幕古墳とも異なっている。南原清渓里清渓古墳群の竪櫛のように、同じ遺構から出土した複数の櫛の特徴が類似する傾向は日本列島では一般的であり、多く見られる。こうした点から、南原清渓里清渓古墳群と高興野幕古墳において、竪櫛が副葬された経緯が異なる可能性もある。

6.今後の課題

韓半島で確認されている竪櫛の出土数は少ないものの、それらの特徴は一様ではなく、遺跡によって異なる特徴を有することが次第に明らかになってきた。

日本列島における竪櫛の様相に最も近いのは東莱福泉洞53号墳であろう。前述の通り、連結櫛の出土地域は限定的で、多くは畿内から日本海側へと通じる地域に分布する。本墳の連結櫛は製作技法や材質など、細部において宇治二子山古墳北墳や茶すり山古墳などと酷似していることから、日本列島で製作された可能性が高いと考える。さらに、複数の個体を少しずらして重ねて置く点も、日本列島で確認されている埋納方法と一致する。このことから、東莱福泉洞53号墳の被葬者について、竪櫛に主眼を置いて推測するならば、日本列島の、特に連結櫛が分布する地域や副葬された被葬者との間に何らかの繋がりを持った人物である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

これに対して、高興野幕古墳から出土した竪櫛は、確認された5点の櫛の個体差から、それぞれに異なる場所で製作された櫛が一括して副葬された可能性もある。一方で、櫛を被葬者の頭部付近に鏡と共に置く副葬方

法は日本列島でも見られ、東莱福泉洞53号墳と同様に、竪櫛の副葬方法を理解したうえで行われたことを示すものであろう。南原清渓里清渓古墳群から出土した竪櫛は、上記2遺跡のいずれとも異なる特徴を有する。東莱福泉洞53号墳のような連結櫛であった可能性は低く、別個体と認識し得る2片の櫛の特徴が酷似する点は日本列島の様相と共通する。ただし、櫛の出土状況からは、日本列島において見られる副葬方法と関連性に不明な点もあり、さらに検討が必要である。

最後に、韓半島出土竪櫛に関する今後の主な課題は、それらの製作地の検討や日本列島の特定の地域との関連の有無という問題に、いかにアプローチするかという点である。そのために、韓半島と日本列島両地域の資料について、詳細な観察はもちろん、機会があれば、漆の塗膜分析や、櫛歯部分の樹種同定といった科学的な分析調査とその結果に基づく比較検証が望まれる。有機質資料は遺存しにくく調査研究において難しい点も多いが、少しずつ調査を積み重ねるとともに、これまでに蓄積されている櫛以外の資料に関する研究成果を照合することで、韓半島と日本列島との繋がりがより具体的に明らかになることを期待したい。

謝辞

今回、大変難しい状況にも関わらず、発表の機会を与えてくださった国立完州文化財研究所、国立羅州文化財研究所の皆様に心よりお礼を申し上げます。特に呉東墠先生、김동훈先生、李建龍先生には発表にあたり資料提供やご教示をいただきましたことに深く拝謝申し上げます。

【註 · 参考文献】

(1) 「竪櫛」は「縦櫛」とも表記される。

(2) 佐賀県東名遺跡から櫛の可能性が指摘される資料2点が出土しているが，明確に櫛である分かるものは縄文時代前期に比定される福井県鳥浜貝塚の漆塗櫛である。

(3) 森本六爾による分類を基に上原真人が提案した分類法である。
森本六爾「日本上代の櫛」『日本上代文化の考究』四海書房（1927年）1-84頁。
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木器集成図録近畿原始篇』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史料第36冊（1993年），145頁。

(4) 弥生時代には木製の複数の縦材を中央付近で折り，樹皮で固定して製作した櫛が確認され ているが，櫛歯は古墳時代の竪櫛に比して太く，当時はこれらを弧状に曲げる技術も得られ ていなかったと考える。

(5) 奈良県橿原考古学研究所編『纒向』奈良県桜井市教育委員会(1976年），305頁，図140。
竪櫛は大型土壙の1基（辻地区土壙4）の底に近い層から出土したとされており，同じ土層からは纒向Ⅲ式に属する土器が出土していることから竪櫛の時期（3世紀中頃から末葉か）を絞り込める良好な事例である。

(6) 能登川町教育委員会， 能登川町埋蔵文化財センター『能登川町埋蔵文化財調査報告書第60集』石田遺跡（19 · 21次）殿衛遺跡（3次）（2005年）48頁，第30図-W31。

(7) 前掲（5）。

(8) 雪野山古墳群発掘調査団『雪野山古墳の研究 報告篇』八日市市教育委員会（1996年）Fig.48より引用。

(9) 会津若松史出版委員会編『会津大塚山古墳』学生社（1964年）。

(10) 亀田博「竪櫛」『末永先生米壽記念献呈論文集 乾』末永先生米寿記念会（1985年）465-504頁。

(11) 徳田誠志「古墳時代の化粧道具－竪櫛を中心として－」末永雅雄編『盾塚鞍塚珠金塚古墳』由良大和古代文化研究協会（1991年）313-333頁 。

(12) 櫛を撒く行為と，置いて埋納する行為は，厳密には異なる意味を持つと考えるが，竪櫛の 出土状況から，それが撒き散らされたものであるか，置かれたものであるか判別し難い場合 もあるため，ここでは併記する。

(13) 前掲（10）478頁。 鳥取県長瀬高浜古墳の箱式石棺内より出土した女性人骨の前頭骨上側 より1点検出された。

(14) この点について，被葬者と櫛の位置関係を分析した川村によれば，櫛が置かれる位置は，被葬者の頭位が最も多く，の頭位への副葬意識が強かったことを示している。その傾向は 九州地方から東北地方まで共通する。
川村雪絵「古墳時代の竪櫛」『国家形成期の考古学』－大阪大学考古学研究室の10周年記念論集－，大阪大学考古学研究室（1999年）281-306頁。

(15) 前掲（8）。

(16) 筆者は櫛を構造に基づいて複材型と単材型に分類する。複材型は従来「結歯式」と呼ばれる櫛で，複数の部材を組み合わせて製作される。単材型は従来「刻歯式」「挽歯式」と呼 ばれ，単一の素材から作り出される櫛である。

(17) 趙現鐘 · 張齊根「光州新昌洞遺蹟－第1次調査概報」『考古学誌』第4輯，韓国考古美術研究所（1992年）。

(18) 林永珍 · 呉東墠 · 姜銀珠『高興吉頭里雁洞古墳』全南大學校博物館 · (財)湖南文化財研究院 · 文化財庁 · 高興郡（1995年）。

(19) 大成洞古墳博物館『金海大成洞古墳群―85号墳～91号墳―』(2015年)。
(20) 釜山直轄市立博物館『東萊福泉洞53号墳』(1993年)。
(21) 資料を実見させていただいた際，河仁秀先生にご教示いただいた。
(22) 文化財庁　国立羅州文化財研究所『高興野幕古墳発掘調査報告書』(2014年) 117頁。
(23) 木沢直子「韓半島における櫛の系譜と変遷」『日本列島における櫛の出現と系譜』奈良女子大学大学院人間文化研究科博士後期課程 (2016年)。
(24) 木沢直子「古墳時代の連結櫛」『和の考古学』(2019年) 79―90頁。
(25) 亀田 (前掲10) は「数個の竪櫛を連ねたもの」を連結櫛として言及している。
(26) 前掲 (24)。
(27) 宇治市教育委員会『宇治二子山古墳発掘調査報告』(1991年)。
(28) 兵庫県県立考古博物館『史跡茶すり山古墳』本文編 (2010年)。
(29)「福島県喜多方市灰塚山古墳第6次発掘調査報告」東北学院大学論集　歴史と文化 (2017年)。
(30) こうした出土状況は宇治二子山古墳，紅茸山C３号墳，論田11号墳でも確認できる。灰塚山古墳では，少なくとも7個体の連結櫛が重なった状態で確認されている。
(31) 国立羅州文化財研究所「남원 청계리청계고분군 발굴조사」(2019年)。

【挿図引用文献】

図 1 田阪仁『春季企画展日本の櫛』斎宮歴史博物館, 2 頁「各種櫛の模式図と各部名称」（1995年）をトレース, 一部改変。

図 2 奈良県立橿原考古学研究所編『纒向』奈良県桜井市教育委員会（1976年）305頁, 図140より引用, トレース。
能登川町教育委員会, 能登川町埋蔵文化財センター編『石田遺跡（19・21次）殿衛遺跡（3次）』（2005年）48頁, 第30図-W31より引用, トレース。

図 3-1 福岡市教育委員会『老司古墳』（1989年）153頁, 図121より引用, 一部改変。

図 3-2 主体部および連結櫛出土状況図：宇治市教育委員会『宇治二子山古墳発掘調査報告』（1991年）37 頁, 第21図および38 頁, 第 22 図より引用。
復元模式図：筆者作成。

図 3-3 岡山県古代吉備文化財センター「中原古墳群」『中国横断自動車道建設に伴う発掘調査2』
日本道路公団広島建設局津山工事事務所, 岡山県教育委員会（1995年）339頁-第187図, 344頁-第192図より引用。

図 3-4 雪野山古墳群発掘調査団『雪野山古墳の研究　報告篇』八日市市教育委員会（1996年）Fig.48より引用。

図 4 趙現鐘・張齊根「光州新昌洞遺蹟－第1次調査概報」『考古学誌』第4輯, 韓国考古美術研究所（1992年）117頁, 図面6-①より引用。

図 5 大成洞古墳博物館『金海大成洞古墳群―85号墳～91号墳―』（2015年）53頁-図面22, 55頁-図面23, 116頁-図面48-803, 807より引用, 一部改変。

図 6 主体部：釜山直轄市立博物館『東萊福泉洞 53 号墳』（1993年）103 頁, 図面 4 より引用。
出土時の状態：筆者撮影写真をトレース。
復元模式図：筆者作成。

図 7 主体部：国立羅州文化財研究所『高興野幕古墳発掘調査報告書』（2014年）47 頁, 図面 14 より引用。
櫛：117 頁, 図面53 より引用。

図 8 林永珍・吳東墠・姜銀珠『高興 吉頭里 雁洞古墳』全南大學校博物館・(財)湖南文化財研究院・文化財庁・高興郡（1995年）50頁, 図面29-12をトレース, 一部改変。

図 9 筆者作成。

図 10 筆者作成。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 출토 수즐(竪櫛)의 특징과 의미

키자와 나오코(木沢直子, 간고지문화재연구소)

1. 머리말

본 발표의 목적은 한반도에서 확인된 수즐(竪櫛)의 특징을 정리하는 동시에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에서 출토된 수즐과 비교함으로써 이 빗이 본 유적에서 출토된 의미를 고찰하는 데 있다. 수즐은 일본열도에서 고분시대에 성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복식구(服飾具)로 분류된다. 최근 한반도에서도 출토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데, 왜계(倭系)의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필자도 이전에 고흥 야막 고분(高興 野幕古墳)과 동래 복천동(東萊 福泉洞) 53호분에서 출토된 수즐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관찰한 바 있다. 이 때 두 유적의 수즐에 대하여 몇 가지 차이점을 파악했으나 그 차이가 나타나게 된 배경까지 검토하지는 못 했다.

이번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및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의 호의로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에서 출토된 수즐에 대해 검토할 기회가 주어졌다. 이에 본 논문은 일본열도의 수즐에서 나타난 양상에 입각하여 한반도에서 출토된 수즐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2. 일본열도에서 출토된 수즐(竪櫛)

1) 수즐의 정의(형태와 구조)

수즐(竪櫛)이라는 명칭은 빗의 형태적 특징에서 유래한다. ‘수(竪)’는 ‘세로(縦)’와 같은 뜻으로 ‘세로 방향으로 긴 빗’을 가리킨다[1]. 일본열도에서는 조몬시대(縄文時代) 전기 이후, 시기별로 특징적인 빗이 확인되어 변천을 추적할 수 있다[2]. 그동안 선학(先學)에 의해 이루어져 온 빗의 분류 기준은 주로 형태적 특징에 따른 방법과 제작기법에 따른 방법으로 대별된다. 형태적 특징에 따른 분류는 세로로 긴 ’종즐(縦櫛, 종즐)과 가로로 긴 ‘횡즐(横櫛, 횡즐)’이다. 한편 제작기법에 따른 분류로는 ‘결치식(結歯式)’, ‘각치식(刻歯式)’, ‘만치식(挽歯式)’이 있으며, 이는 빗살을 만드는 기법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3]. 예를 들어 ‘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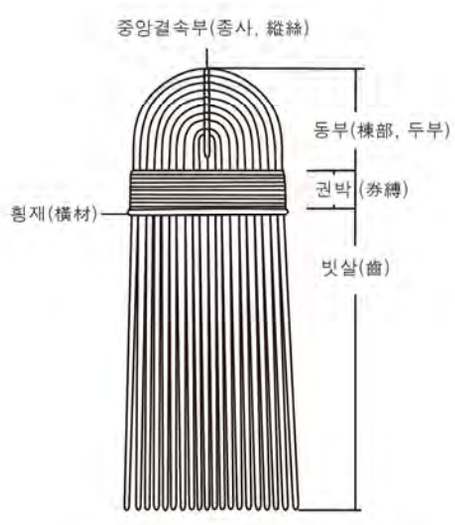


그림 1. 수즐(竪櫛)의 부위와 명칭

1) ‘수즐(竪櫛)’은 ‘종즐(縦櫛)’이라고 표기되기도 한다.
2) 사가현(佐賀縣) 히가시묘 유적(東名遺跡)에서 빗의 가능성이 지적되는 자료 2점이 출토되었는데, 빗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조몬시대(縄文時代) 전기로 비정(比定)되는 후쿠이현(福井縣) 도리하마 패총(鳥浜貝塚)의 칠도즐(漆塗櫛)이다.
3) 모리모토 로쿠지(森本六爾)의 분류를 토대로 우에하라 마히토(上原眞人)가 제안한 분류방법이다. 모리모토 로쿠지(森本六爾), 1927, 「일본 상대(上代)의 빗」, 『일본 상대(上代) 문화의 고구(考究)』, 시카이쇼보(四海書房), pp. 1-84.

식’ 은 빗살의 역할을 하는 종재(縱材)와 횡재(橫材)를 조합한 뒤 식물 섬유로 결속하여 고정하거나 횡재를 사용하지 않고 식물성 섬유로 여러 개의 빗살을 결속시키는 방법이다. 반면에 ‘각치식’과 ‘만치식’은 단일 소재를 가공하여 만들어내는 빗을 가리킨다. 특히 ‘각치식’은 석재나 금속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빗살을 깎아낸 빗, ‘만치식’은 톱 모양의 공구를 이용하여 톱을 키듯이 빗살을 만들어낸 빗을 가리킨다.

2) 고분시대 수즐의 특징

본 논문에서 논점이 되는 빗은 위의 기준에 따르면 ‘수(竪, 세로)즐’, ‘결치식(結齒式)’으로 분류된다. 특히 고분시대의 빗에 대해서는 ‘수즐(竪櫛)’이라는 호칭이 통용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도 이 명칭을 사용한다. 고분시대의 수즐은 얇게 쪼갠 대나무(대나무아과; Bambusoideae) 죽재(竹材) 여러 개를 나란히 놓고, 중앙 부근을 실 모양의 재료로 묶는 동시에 이 부분을 만곡(彎曲)시켜 재료를 한 묶음으로 합치고, 횡재(橫材)를 건너질러 죽재(竹材) 1개마다 섬유로 묶는다. 이 부분은 동부(棟部)라고 불리며 묶은 부분에 흑색 옻칠을 하여 고정한다(그림1).

여러 개의 부재(部材)를 묶어 옻칠을 한 빗은 조몬시대(繩文時代) 이후 일본열도에 연면히 이어진다. 그러나 고분시대의 빗과 전대(조몬시대와 야요이시대)의 빗은 재질, 형태, 제작 기법에서 아래와 같은 명확한 차이가 있다 .

① 재질

조몬시대(繩文時代)에서 야요이시대(彌生時代)까지 빗의 소재는 목재(木材)가 많았으며 골각재(骨角材), 석재(石材)도 군데군데 나타난다. 죽재(竹材)를 이용한 사례는 야요이시대 중기에 확인되지만 제한적이다. 반면에 고분시대의 수즐은 한결같이 죽재(竹材)를 사용한다.

② 옻칠

조몬시대에서 야요이시대의 대부분의 빗은 적색 또는 적색과 흑색으로 옻칠이 되어 있다. 고분시대에 접어들면 적색 옻칠이 사용되지 않으며, 수즐은 흑색 옻칠만 나타난다.

③ 형태와 제작 기법

종재(縱材)와 횡재(橫材)를 조합하는 결치식(結齒式) 빗은 조몬시대 이후부터 나타나며, 이들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한편 고분시대의 수즐은 동부(棟部)가 호상(弧狀)이며 세로로 긴 형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정형화된 형상의 제작은 죽재(竹材)의 휘어지기 쉬운 성질을 이용함으로써 가능하다[4].

4) 야요이시대(彌生時代)에는 복수의 목제(木製) 종재(縱材)를 중앙 부근에서 접어, 수피(樹皮)로 고정하여 제작한 빗이 확인되었는데, 빗살은 고분시대의 수즐에 비해 두껍고 당시에는 이들은 호상(弧狀)으로 구부리는 기술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고 생각한다.

3) 수즐(竪櫛)의 출현과 계보

수즐의 출현 시기를 명확히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야요이시대(彌生時代) 말기부터 고분시대 초기로 생각된다. 현 시점에서는 마키무쿠 유적(纒向遺跡)[5] (그림2 왼쪽)과 이시다 유적(石田遺跡)[6] (그림2 오른쪽)에서 출토된 빗이 해당 기간에 속하는 사례이다. 이 중 마키무쿠유적(纒向遺跡)은 야마토평야(大和平野)의 동남부에 위치하며, 고분시대 전기를 전성기로 하는 취락 유적이다. 주변에는 마키무쿠 석총 고분(纒向石塚古墳)을 비롯해 하시하카 고분(箸墓古墳)과 야즈카 고분(矢塚古墳) 등 고분시대 초기의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이 분포한다. 마키무쿠유적(纒向遺跡)과 이시다 유적(石田遺跡)의 수즐은 조몬시대에서 야요이시대에 이르는 시기의 빗과 비교하면 형태나 제작기법, 재질에서 다른 점이 많아 직접적으로 계보를 추적하기는 어렵다.



그림 2. 출현기의 수즐(竪櫛)

4) 수즐(竪櫛)의 출토 유구

고분시대에 수즐(竪櫛)의 출현과 광범위한 확산의 배경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초현기(初現期)의 수즐이 출토된 유구이다. 앞서 언급한 마키무쿠 유적(纒向遺跡)에서는 수즐이 토광(土壙)에서 출토되었다. 토광(土壙)의 직경은 3m, 깊이는 1.5m이며, 하지키(土師器)와 함께 다량의 목재가 포함되어 있었다. 목재의 기종(器種)은 생활용구, 토목재(土木材), 건축재 이외에 적색 옻칠이 되어 있는 굽다리접시(高杯), 흑색 옻칠이 되어 있는 반(盤) 등의 용기, 조형(鳥形), 주형(舟形) 등의 목제 가타시로(形代, 신주), 의장(儀仗), 자연목 등 총 374여점에 달한다. 이러한 다량의 목제품과 기종(器種) 구성의 특수성으로 인해 제사적 요소가 강한 유구로서 주목 받아, '마키무쿠형(纒向型) 제사'라고 불리는 제사 형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유적이다. 수즐은 이러한 목제품들의 하층(下層)에서 출토되었다[7]. 주목할 만한 것은 마키무쿠 유적(纒向遺跡) 주변의 같은 시기 고분에서는 수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즐의 출현과 배경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마키무쿠 유적(纒向遺跡)을 비롯해 같은 시기의 수즐이 출토된 유구의 성격과 공반유물(供伴遺物)을 한층 더 깊이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부장품으로서의 수즐

고분시대 전체를 걸쳐 수즐의 약 90%는 고분, 즉 매장에 따른 유구에서 출토된다. 부장품으로서의 수즐은 유키노야마 고분(雪野山古墳)[8]과 아이즈 오쓰카야마 고분(会津大塚山古

5) 나라현(奈良縣) 카시하라(橿原) 고고학연구소, 1976, 『마키무쿠(纒向)』 나라현(奈良縣) 사쿠라이시(櫻井市) 교육위원회, p.305, 그림140.
수즐은 대형 토광(土壙) 1기(츠지(辻)지구 토광4)의 바닥에 가까운 층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일한 토층(土層)에서는 마키무쿠(纒向) Ⅲ식에 속하는 토기가 출토되어 수즐의 시기(3세기 중반에서 말기?)를 압축해 낼 수 있는 양호한 사례이다.

6) 노토가와초(能登川町) 매장문화재센터, 2005, 「이시다 유적(石田遺跡)(19 · 21차), 전아(殿衛) 유적(3차)」, 『노토가와초(能登川町) 매장문화재 조사보고서 제60집』, 노토가와초(能登川町) 교육위원회, p.48, 제30그림-W31.

7) 5)의 책.

墳)[9]등, 고분시대 전기부터 확인되고 있지만, 일본열도에 널리 확산되어 많은 고분에 부장(副葬)되는 것은 고분시대 중기에 이르러서의 일이다.

수즐의 부장 형태나 기능 및 용도에 관한 연구는 이미 가메다 히로시(亀田博)[10]와 도쿠다 마사시(徳田誠志)[11] 등에 의한 성과가 있다. 그 주요 논점은 수즐이 일상적인 장구(装具)였는가 혹은 매납구(埋納具), 장송구(葬送具)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에 있다. 가메다(龜田)는 수즐을 일상적인 장신구라는 전제에서 고분에서의 출토 상황을 바탕으로 '인체에 착장(着装)되었다고 판단되는 것'과 '인체에 착장되지 않고 부장(副葬)된 것'으로 대별했다. 그리고 특히 후자(인체에 착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장된 빗)의 출토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수즐은 일상적인 장신구이며, 부장(副葬)되는 수량이나 부장 상황의 차이를 가지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도쿠다(徳田)는 수즐이 대량으로 부장(副葬)되는 사례에 주목하고 가메다(龜田)가 부정한 '빗을 흩어 놓은 부장(副葬) 상태'의 존재를 재평가하면서 수즐에는 '일상적인 장신구'와 '고분의 매납구, 장송구'로서의 양면성이 있으며, 이는 부장 상태에서 나타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이러한 선학의 연구 성과에 입각하여 피장자(被葬者)와 수즐의 위치관계, 시신을 매장할 때의 일련의 행위와 수즐의 부장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① 피장자의 신체에 착장한 상태에서의 부장(그림 3-1)
② 피장자 근처에 흩어 놓은(또는 놓여진) 상태에서의 부장(그림 3-2)[12]
③ 매장시설 내 전체 또는 일부에 다수 흩어 놓은(또는 놓여진) 상태에서의 부장(그림3-3)
④ 매장시설 밖에 흩어 놓은(또는 놓여진) 상태에서의 부장(그림 3-4)

①은 두부(頭部)에 착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즐의 사용법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상태에서 출토된 사례는 규슈지방(九州地方)에 많으며, 추고쿠지방(中国地方)에도 적으나마 보고 사례가 있다[13]. 두부(頭部)에 대형 빗 1개를 착장하는 형태와 소형 빗을 여러 개 착장하는 사례가 있으며, 피장자(被葬者) 매납(埋納) 시에 이미 착장하고 있었거나 혹은 시신 안치 후에 착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②는 수즐의 부장(副葬) 상태로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빗이 단독으로 놓이는 사례도 있지만, 거울이나 옥류(玉類)와 함께 피장자(被葬者)의 두부(頭部) 부근에 놓이는 사례도 많다.

피장자(被葬者)를 매장시설에 안치한 후 시신과의 위치관계를 고려하여 빗을 놓아 둔 것으로 추측한다[14]. ③은 시신 위에 빗을 뿌리듯이 산재해 있는 출토 상황과 피장자(被葬者)의

8) 유키노야마 고분군(雪野山古墳群) 발굴조사단, 1996, 『유키노야마 고분(雪野山古墳)의 연구 보고 편』, 요카이치시(八日市市) 교육위원회, Fig.48 인용.
9) 아이즈와카마츠사(會津若松史) 출판위원회 편, 1964, 『아이즈오츠카야마 고분 (會津大塚山古墳)』, 가쿠세이샤(學生社).
10) 가메다 히로시(龜田博), 1985, 「수즐(竪櫛)」, 『스에나가(末永) 선생 미수(米壽) 기념 헌정논문집건(乾)』, 스에나가(末永)선생 미수기념회, pp.465-504.
11) 도쿠다 마사시(德田誠志), 1991, 「고분시대의 화장도구 －수즐을 중심으로－」, 『다테즈카(盾塚)·쿠라즈카(鞍塚)·슈킨즈카(珠金塚) 고분』, 유라 야마토(由良大和) 고대문화연구협회, pp. 313-333.
12) 빗을 흩어 놓는 행위와 그냥 놓아 두어 매납(埋納)하는 행위는 엄밀하게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수즐(竪櫛)의 출토 상황으로 보아 그것이 흩어 놓은 것인지, 놓아 둔 것인지 판별해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여기에서는 병기한다.
13) 10)의 책 p.478. 돗토리현(鳥取縣) 나가세 다카하마 고분(長瀨高浜古墳)의 상식석관(箱式石棺) 내에서 출토된 여성 인골의 전두골(前頭骨) 위쪽에서 1점 출토되었다.
14) 이 점에 대해 피장자(被葬者)와 빗의 위치관계를 분석한 가와무라(川村)에 따르면 빗이 놓이는 위치는 피장자의 두위(頭位)가 가장 많으며, 두위(頭位)에 대한 부장(副葬)의식이 강했음을 나타낸다. 그 경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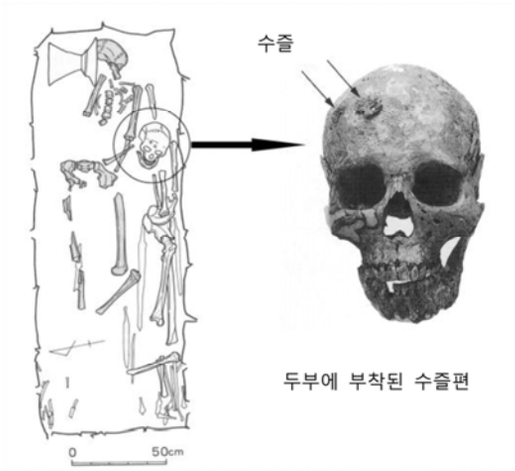


그림 3-1. 로지(老司)고분4호 석실2호 인골, 5세기 초(피장자:남성)



그림 3-2. 피장자의 두위(頭位)에서 확인된 수즐-우지후타고야마(宇治二子山) 고분 北墳 西槨, 5세기 중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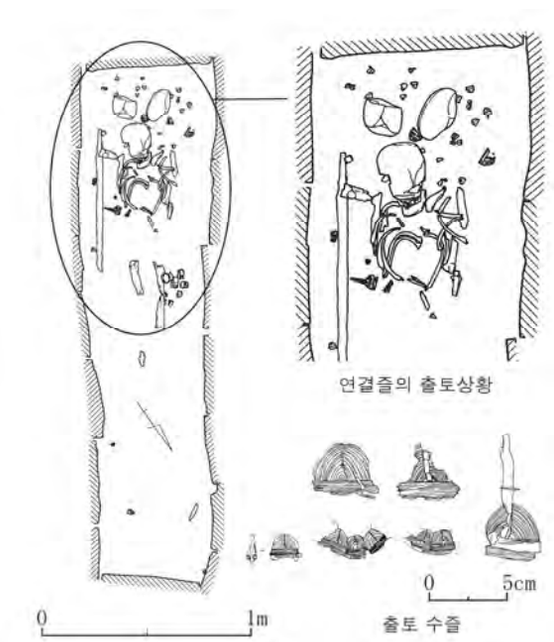


그림 3-3. 피장자 상반신을 중심으로 흩어져있는 수즐-나카하라(中原) 24호분, 5세기 후반 (피장자: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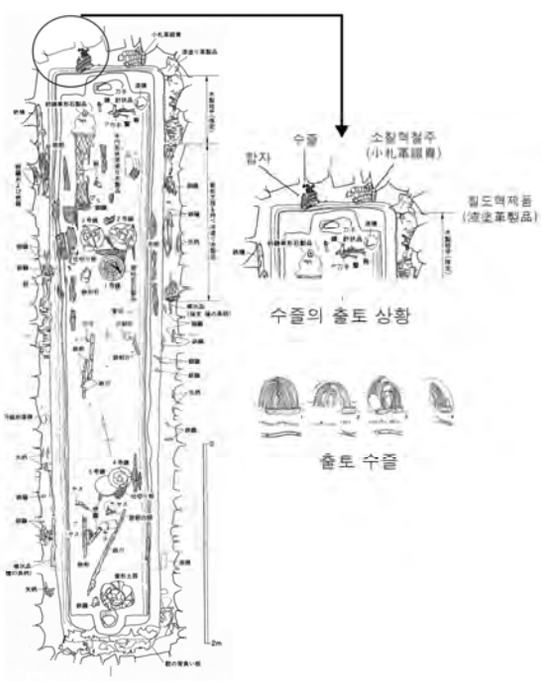


그림 3-4. 관 밖에 놓인 수즐-유키노야마 고분 (雪野山古墳), 4세기 초반

두부(頭位) 또는 다리 방향으로 산재해 있는 출토 상황이다. 매장시설 내 전체에 산재해 있는 사례도 있다. ②와 ③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연결즐(連結櫛)에서도 이러한 부장 상태를 확

규슈지방(九州地方)에서 도호쿠지방(東北地方)에 이르기까지 공통된다.
가와무라 유키에(川村雪繪), 1999, 「고분시대의 수즐(竪櫛)」 『국가형성기의 고고학』－오사카대학(大阪大學) 고고학연구실 10주년 기념논집－, 오사카대학 고고학연구실, pp. 281-306.

인할 수 있다. ④는 매장시설 바깥에 빗이 놓여 있다. 유키노야마 고분(雪野山古墳)에서는 관 바깥에 놓인 합자(合子) 모양의 용기 안에 빗이 담긴 상태로 부장(副葬)되었다[15].

매장 시 일련의 행위가 ②와 ③은 피장자의 시신 안치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②에 비해 ③은 장신구로서의 의식이 희박하고, 수즐을 부장(副葬)하는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의도는 불분명하지만, 수즐의 부장(副葬)이 매장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였다는 점은 확실하다. 수즐의 부장(副葬)은 긴키지방(近畿地方)에서는 6세기 초반 경, 간토지방(関東地方)에서는 6세기 후반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 기간은 각지에서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의 축조가 쇠퇴하는 시기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3. 한반도의 수즐(竪櫛)

1) 한반도에서 빗의 형태와 변천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빗을 개관해 보면 세로 방향에 비해 가로로 긴 형태, 이른바 횡즐(橫櫛)이 많다. 또 일본열도에서 조몬시대(繩文時代) 이후 나타나는, 여러 부재(部材)를 조합한 구조(복재형(複材型))는 적고, 대부분 단일 재료로 만들어낸 단재형(單材型)이다[16]. 초기 철기시대의 단재형 빗으로 알려진 신창동(新昌洞) 유적의 빗도 그 일례이다(그림 4)[17]. 이 유적의 빗은 세로에 비해 가로로 길게 빗살을 깎아냈다. 단재형은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시대로 이어지며 한반도에서 빗의 구조로 답습된다[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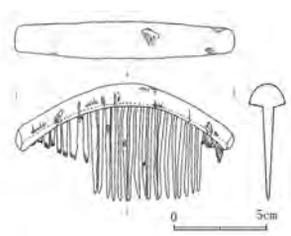


그림 4. 신창동 유적 출토 빗

이런 가운데 출토 사례가 적은 복재형(複材型) 사례로 대성동 고분군(大成洞 古墳群) 88호분과 91 호분에서 출토된 골제(骨製) 빗이 있다(그림 5)[19]. 빗은 순장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피장자의 시신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88호분에서는 여성 2구의 후두부(後頭部) 부근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두부(頭部)에 착장한 상태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 99호분에서는 마찬가지로 순장한 것으로 판단되는 여성의 팔 부근에서 확인되었다. 이 빗들은 모두 세로로 길게 골제 봉상재(骨製 棒狀材)를 9~13개 정렬하여 이를 끈 모양의 재료로 결속한 후 끈 모양 재료 부분에 흑색 옻칠을 했다. 양쪽 끝부분의 빗살은 바깥쪽으로 휘어 있다. 이러한 빗은 한반도에서는 달리 유사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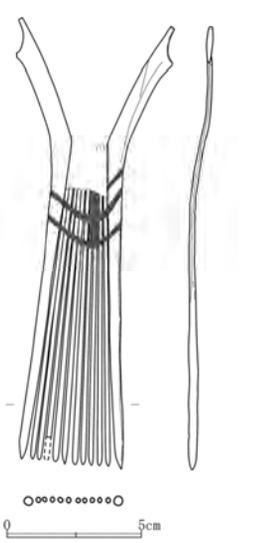


그림 5. 대성동 고분군 88호분 출토 빗

일본 열도에서는 골제(骨製)를 사용한 복재형(複材型)으로서 아오야카미지치(青谷上寺地) 유적의 사례가 있다. 이 빗은 골제(骨製)로 된 종재(縱材)를 나란히 놓고 실 모양의 재료로 묶은 다음 그 부분

15) 8)의 책.
16) 필자는 구조를 토대로 빗을 복재형(複材型)과 단재형(單材型)으로 분류한다. 복재형(複材型)은 기존에 '결치식(結齒式)'으로 불리는 빗으로 여러 개의 부재를 조합하여 제작된다. 단재형(單材型)은 기존에 '각치식(刻齒式)' '만치식(挽齒式)'으로 불렸으며 단일 소재로 만들어진 빗이다.
17) 조현종·장제근, 1992, 「광주 신창동 유적(光州 新昌洞遺蹟)－제1차 조사 개보(槪報)」, 『고고학지(考古學誌)』 제4집,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8) 전남대학교박물관 · (재)호남문화재연구원, 1995, 『고흥 길두리 안동 고분(高興 吉頭里 雁洞古墳)』.
19) 대성동고분박물관, 2015, 『김해 대성동(金海 大成洞)고분군-85호분~91호분-』.

에 붉은색 옻칠을 했다. 연대는 야요이시대(彌生時代) 말기(3세기 초반)로 추정되고 있으며, 대성동(大成洞) 88호분과 91호분이 속하는 4세기 초반에서 후반까지는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자의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다. 현 시점에서는 한반도와 일본열도에서 대성동(大成洞) 고분군 88호분과 91호분 출토 빗의 유사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2) 한반도에서 출토된 수즐(竪櫛)의 특징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확인된 수즐의 사례는 적다. 여기에 필자가 관찰한 자료를 중심으로 각각 특징에 대해 서술한다.

① 동래 복천동(東萊 福泉洞) 53호분[20]

수혈식 석곽묘(竪穴式 石槨墓) 내 피장자(被葬者)의 두부(頭部) 부근에서 수즐이 약 2점 출토되었다[21]. 특기할만한 것은 이것이 복수의 수즐을 연결한 '연결즐(連結櫛)'이라는 점이다. 연결즐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출토 상황에서 연결된 상태의 빗이 적어도 2개 있고, 같은 방향으로 가지런히 약간 어긋난 상태로 겹쳐져 있었다. 위쪽 빗은 본체가 되는 대형 빗의 동폭(棟幅)이 약 6.6cm로 복원 가능하다. 동부(棟部)의 높이는 약 4.8cm이다. 소형 빗의 일부는 무너져내려 원위치가 보존되지 않았지만, 중심 축을 사이에 두고 왼쪽에 3개체가 연결된 상태의 연결부가 있고, 오른쪽에도 최소 2개체의 빗이 확인된다. 소형 빗은 당초 5개 또는 7개체를 연결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아래 층의 빗은 위층 빗의 아래쪽 면에 감춰져 있었지만, 위층의 빗과 동등하거나 다소 소형이다. 세부 관찰을 실시한 결과 이것은 일본열도에서 출토되는 연결즐과 같은 제작기법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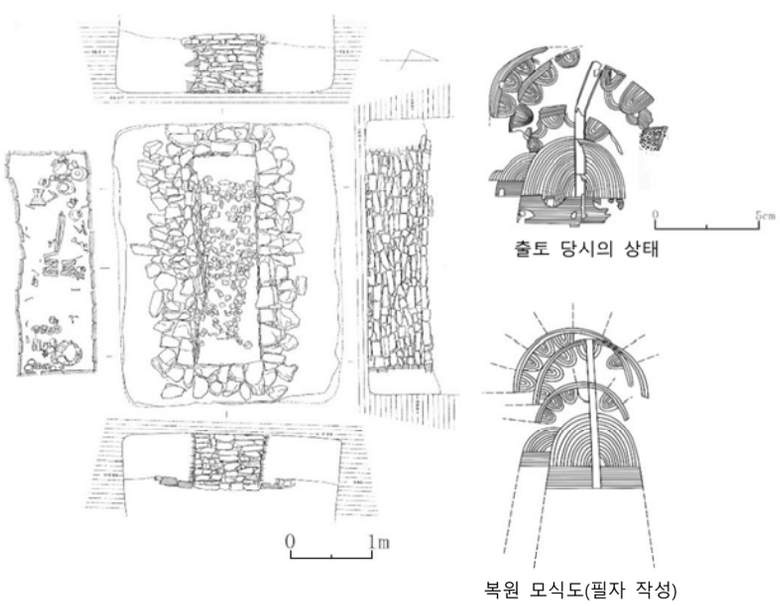


그림 6. 복천동 53호분 출토 수즐과 복원모식도

20) 부산직할시립박물관, 1993, 『동래 복천동(東萊 福泉洞) 53호분』.
21) 자료를 직관하였을 때 하인수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았다.

② 고흥 야막 고분(高興 野幕古墳)[22]

수즐은 매장시설인 석실 내에서 출토되었다. 피장자(被葬者)의 두부(頭部) 부근에서 거울과 함께 5점이 출토되었으며, 이외에 소편(小片)도 확인되었다. 빗에는 모두 흑색 옻칠이 되어 있었다. 관찰과 엑스레이 사진 판독 결과 수즐은 동부(棟部)에 돌기가 없는 무돌기형(無突起型)과 돌기가 있는 유돌기형(有突起型)이다. 유존(遺存) 상태가 비교적 양호했던 그림 7-1은 동폭(棟幅) 약 1.7cm, 동고(棟高) 약 1.2cm이며, 빗살이 손실되어 있다. 동부(棟部) 전체가 비교적 두꺼운 칠막(漆膜)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자세한 관찰은 어렵지만, 중앙 결속부에는 실 모양의 재료로 결속한 흔적으로 보이는 혹 모양의 융기를 확인할 수있다. 권박(巻縛)의 폭은 약 3mm이며, 빗의 양쪽 끝에 몇 조(條)의 실 모양인듯 한 상태가 보인다. 빗살의 양면, 권박(巻縛)의 아래쪽에 직경 1mm 미만의 횡재(橫材)를 대고, 실 모양의 재료로 빗살 사이를 통과하면서 횡재(橫材)를 감아 조여 고정한다. 그림 7-6은 다른 빗에 비해 대형이며, 중앙의 접혀진 부분에는 다른 재료가 장착되어 있던 흔적이 있다. 이러한 흔적은 연결즐(連結櫛)의 본체(대형 빗)에 붙어 있는 축재(軸材)와도 유사하다. 5점의 수즐은 동부(棟部)에 도포된 칠막(漆膜)의 상태나 권박(巻縛), 횡재(橫材)의 특징을 볼 때 개체별로 차이가 있고, 이것이 동래 복천동(東萊 福泉洞) 53호분에서 나타나는 1개체의 연결즐이었을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그림 7-6이 연결즐의 본체 부분이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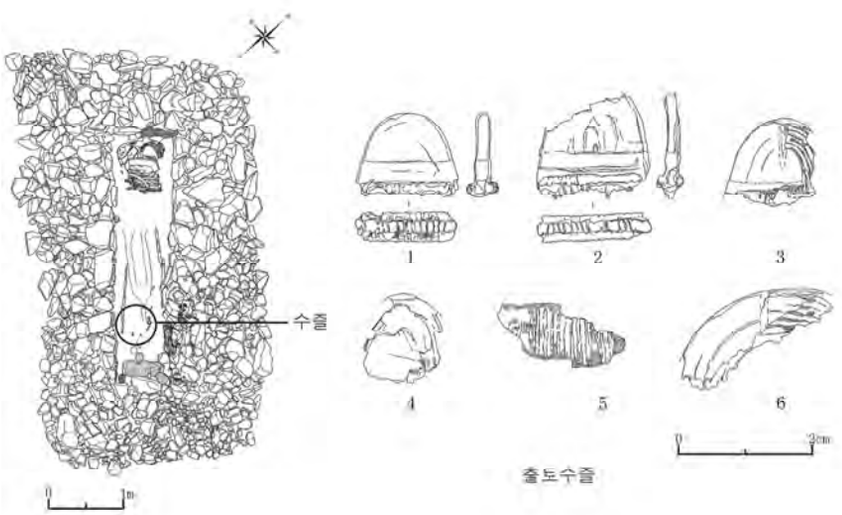


그림 7. 고흥 야막 고분 출토 수즐

③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高興 吉頭里 雁洞古墳)[23]

수즐은 석곽묘 내의 북쪽 벽 모서리 부분에 부장(副葬)된 환두대도(環頭大刀)에 부착된 상태에서 출토되었다(그림8). 필자는 자료를 실제 직관하지 않아 상세한 사항을 기술할 수는 없지만,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돌기가 없는 형상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유구의 매장시설은 석곽(石槨) 내에 목관(木棺)이 놓여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빗이 출토된 위치를 고려하면 빗은 피장자(被葬者)가 몸에 지니고 있었거나 또는 시신 근처에 놓여 있던 것이 아니라 관 바깥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수즐이 부

22)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4, 『고흥 야막 고분(高興 野幕古墳) 발굴조사보고서』, 117쪽.
23) 키자와 나오코(木澤直子), 2016, 「한반도에서 빗의 계보와 변천」, 『일본열도에서 빗의 출현과 계보』, 나라(奈良)여자대학 대학원 인간문화연구과 박사후기과정.

착되어 있던 자료를 포함해 환두대도(環頭大刀) 3점은 본디 석곽(石槨)의 동북쪽 모서리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부장품(副葬品)이 매납(埋納)되었을 당시 수즐이 환두대도(環頭大刀)에 부속되어 있었거나 대도(大刀) 부근에 놓여 있던 빗이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어떤 이유인지 대도(大刀)와 맞닿게 되면서 수착(銹着, 녹슬어 붙음)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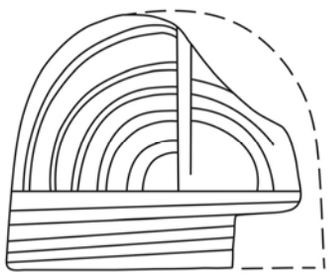


그림 8. 길두리 고분 출토 수즐

4. 연결형 수즐(竪櫛)

1) 형태와 연대

연결형 수즐에 대해서는 최근에 드디어 본래의 형상이 밝혀지면서 시기와 부장(副葬)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24]. 현재까지 확인된 숫자는 적지만, 이미 수즐로서 보고된 자료 중에 연결즐(連結櫛)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 향후 더욱 더 조사가 필요하다.

수즐의 형태를 정리하면 동부(棟部)의 중앙 결속부에 돌기가 있는 유돌기형(有突起型)과 돌기가 없고 반달 모양을 나타내는 무돌기형(無突起型) 이외에 여러 개의 빗을 연결하는 연결형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 9). 이 연결형의 수즐을 연결즐(連結櫛)이라 부른다[25]. 연결즐(連結櫛)의 특징 중 하나는 높은 가식성(加飾性)이다. 그림9에 나타낸 모식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형상은 두부(頭部)에 착장(着裝)하기에는 부적합하여 매장 시에 상징적으로 사용된 장구(葬具)였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의 연대는 5세기 초반에서 중반을 중심으로 하며, 무돌기형(無突起型)과 유돌기형(有突起型)을 비교하면 분포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그림1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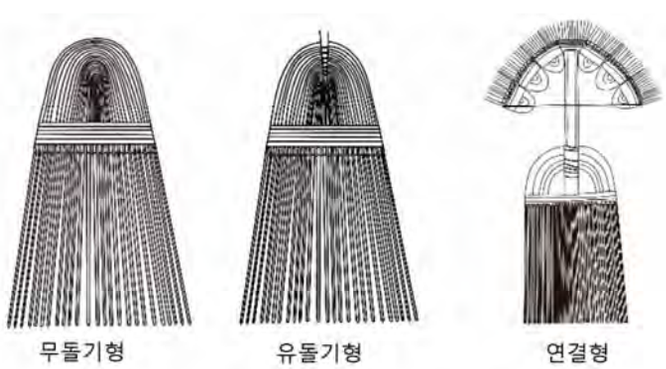


그림 9. 수즐의 형태 분류

연결즐(連結櫛)은 대형 빗 1개체와 소형 빗 5개체 내지 7개체를 연결한다. 제작 공정은 우선 대형 빗의 중앙 결속부에서 위쪽으로 막대기 모양의 축재(軸材)를 펴서 그 끝 부분에 소형 빗을 장착한다. 그 소형 빗을 중앙에 배치하는 형태로 좌우에 미리 연결된 소형 빗을 장착한다. 지금까지 대형 빗과 소형 빗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나 소형 빗의 연결부분이 잔존하는 사례는 11례에 달한다. 이 중 매납(埋納) 당시 빗의 형상이 남아 있어 부장(副葬) 위치나 부장 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로서 우지후타고야마 고분(宇治二子山古墳) 북분(北墳), 차스리야마 고분(茶すり山古墳), 하이즈카야마 고분(灰塚山古

24) 키자와 나오코(木澤直子), 2019, 「고분시대의 연결즐(連結櫛)」, 『화(和)의 고고학』, pp. 79-90.
25) 10)의 논문에서 가메다(龜田)는 '여러 개의 수즐을 연결한 것'을 연결즐(連結櫛)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26) 24)의 논문.

墳) 등이 있다.

우지후타고야마 고분(宇治二子山古墳) 북분(北墳)에서는 직경 약37m의 원분(圓墳)의 분정(墳頂)에 축조된 3기의 주체부(主体部) 중 서곽관(西槨棺) 안에서 적어도 2개체가 겹쳐진 상태에서 출토되었다(그림3－2)[27]. 빗의 주위에는 소형 빗의 빗살이 잔존해 있었다. 위층의 대형 빗은 동폭(棟幅) 약 5.3cm, 동고(棟高) 약 4.1cm이며, 중앙 결속부에 편평한 축재(軸材)(폭 약 5mm)가 붙어 있다. 이 축재는 소형 빗의 연결 부위와 이어져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소형 빗은 대체로 동폭(棟幅) 약 1.6cm, 동고(棟高) 약 1.4cm로 당시에는 총 7개가 연결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차스리야마 고분(茶すり山古墳)은 최대 지름 약 90m, 최소 지름 약 78m의 불완전한 원분(圓墳)이다. 분정(墳頂)의 평탄부(平坦部)에 축조된 2기의 주체부(主体部) 중 제2 주체부의 관내(棺内) 중앙 구획에서 연결즐(連結櫛)이 출토되었다[28]. 이 빗은 빗살이 결실(欠失)되어 있지만 전체의 유존(遺存) 상태는 양호하며 연결즐(連結櫛)의 제작 공정을 알 수 있는 양호한 사례이다. 대형 빗은 동폭(棟幅) 3.6cm, 동고(棟高) 2.3cm로 동부(棟部)의 중앙 결속부에 막대기 모양의 축재(軸材)를 끼워 넣고, 그 축(軸)의 상단에 소형 빗(동폭(棟幅) 약1.2cm, 동고(棟高) 약 1.2cm)을 달았다. 나아가 소형 빗의 좌우에 가느다란 봉상재(棒狀材)를 건너질러 연결한 3개체를 이어서 총 7개를 연결했다. 대형 빗에 달린 축재(軸材)는 폭 0.7cm로 축(軸)의 끝 부분을 쪼개어 중앙 결속부를 끼워 넣었다. 이것은 우지후타고야마 고분(宇治二子山古墳) 북분(北墳) 등과도 공통된 방법이다. 대형 빗의 크기는 우지후타고야마 고분(宇治二子山古墳) 북분(北墳)에 비하면 다소 작다.

연결즐 중에서 유일하게 도호쿠지방(東北地方)에서 확인된 사례가 하이즈카야마 고분(灰塚山古墳)이다[29]. 분구(墳丘) 규모는 전장 61.2m의 대형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으로 후원부(後圓部)에 2기의 주체부(主体部)가 축조되어 있다. 연결즐은 이 중 본분(本墳)의 축조시기로 추정되는 제1주체부(主体部)에서 출토되었다. 크고 작은 빗이 30개 이상 나왔고, 대형 빗은 8개체가 확인되었다. 이 중 7개체에 연결용 축재(軸材)가 유존한다. 대형 빗은 모두 동폭(棟幅) 4~5cm, 동부(棟部)의 높이는 4~5cm로 빗살을 포함한 전장은 약 20cm이다. 소형 빗은 동폭(棟幅) 약 1cm, 동부(棟部)의 높이 약 1cm로 7개가 연결된 상태의 연결부 이외에 3개체가 연결된 부분도 여러 군데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빗은 대도(大刀) 근처에서 출토되어 피장자(被葬者)의 흉부 부근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출토 상황

연결즐의 부장(副葬) 방식은 그 출토 상황을 통해 2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 하나는 우지후타고야마 고분(宇治二子山古墳) 북분(北墳)에서 나타나듯이 연결즐을 2~3개체 겹친 상태로 놓아 두는 방법으로 전술(前述)한 ②에 해당한다(그림3－2)[30]. 다른 하나는 쪼개진 상태의 연결즐을 피장자(被葬者)의 시신 부근에 흩어 놓는 방식으로 전술한 ③에 해당한다(그림 3－3).

27) 우지시(宇治市)교육위원회, 1991, 『우지후타고야마 고분(宇治二子山古墳)발굴조사 보고』.
28) 효고현(兵庫縣) 현립 고고박물관, 2010, 『사적(史跡) 차스리야마 고분(茶すり山古墳)』.
29) 도호쿠대학, 2017, 「후쿠시마현(福島縣) 기타카타시(喜多方市) 하이즈카야마 고분(灰塚山古墳) 제6차 발굴조사보고」『도호쿠대학 대학원 대학논집(東北大學院 大學論集)역사와 문화』.
30) 이러한 출토 상황은 우지후타고야마 고분(宇治 二子山古墳), 베니타케야마(紅茸山) C3호분, 론덴(論田) 11호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이즈카야마 고분(灰塚山古墳)에서는 적어도 7개체의 연결즐(連結櫛)이 겹쳐진 상태로 확인되었다.

나카하라(中原) 24호분에서는 피장자(被葬者)의 두부(頭部) 주변부터 흉부(胸部) 부근 걸쳐 크고 작은 빗이 산재하는 상태로 출토되었다. 연결즐의 부장(副葬) 위치는 피장자(被葬者)의 두부(頭部) 또는 다리 부근에 놓인 사례 이외에 이와 같이 여러 개체가 쪼개져 흩어진 상태로 출토된 사례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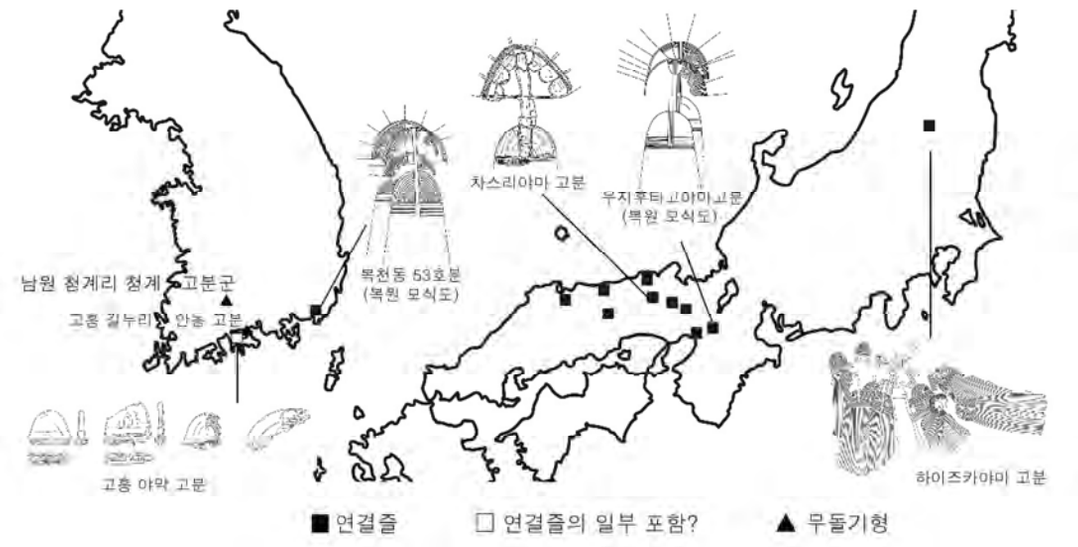


그림 10. 일본열도에서 연결즐(連結櫛)의 분포와 한반도의 수즐(竪櫛)

3) 한반도의 연결즐

동래 복천동(東萊 福泉洞) 53호분의 수즐은 형태, 구조, 소재에 있어서 일본열도의 출토 사례와 흡사하여 연결즐(連結櫛)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빗을 같은 방향으로 가지런히 하고 아주 조금 어긋나게 움직여져 있는 출토 상황은 우지후타고야마고분(宇治二子山古墳) 북분(北墳) 등과 공통된다(그림6). 일본열도에서 확인된 연결즐의 출토 상황이나 형상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동래 복천동(東萊 福泉洞) 53호분의 연결즐은 피장자(被葬者) 매장 당시 빗의 매납(埋納) 방법을 인식하고 있는 인물이 입회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 연결즐의 대부분은 긴키지방(近畿地方)에서 주고쿠지방(中国地方) 방면의 동해 쪽 경로를 따라가듯이 산재해 있다는 점에서 빗이 부장(副葬)된 피장자(被葬者), 또는 분포하는 지역과의 사이에 모종의 연결고리도 상정된다. 이러한 점은 동래 복천동(東萊 福泉洞) 53호분의 피장자상(被葬者像)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일본열도에서 연결즐이 출토된 고분의 규모를 살펴보면 각 지역의 수장급 분묘(墳墓)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지후타고야마 고분(宇治二子山古墳) 북분(北墳)(원분(圓墳)), 차스리야마 고분(茶すり山古墳) 원분(圓墳), 하이즈카야마 고분(灰塚山古墳)(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이며, 그 외에는 모두 소규모 방분(方墳) 또는 원분(圓墳)이다. 또 부장(副葬)된 연결즐의 수량과 크기, 분구(墳丘)의 규모와 빗 이외의 부장품(副葬品) 구성에서 관련성을 찾아볼 수는 없다. 현 시점에서는 연결즐이 부장(副葬)된 피장자상(被葬者像)을 구체적으로 그리기는 어렵다.

5.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南原 清渓里 清渓古墳群)에서 출토된 수즐의 특징

일본열도 및 한반도에서 출토된 수즐의 특징에 입각하여 마지막으로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清渓里 清渓古墳群)에서 출토된 수즐에 대해 검토한다. 이 유적의 수즐은 모두 동부(棟部)의 일부가 잔존하지만 빗살은 결실되어 있다. 이 때문에 빗이 제작된 당시의 크기나 형태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중앙 결속부가 남아 있는 즐편(櫛片)이 2점 있어서 수즐이 적어도 2개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필자는 자료를 실제 직관하지 않아 사진을 통해 살펴본 견해이기는 하지만 빗의 표면에는 흑색 옻칠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권박(巻縛) 부분에는 실 모양의 재료를 감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동부(棟部)에는 돌기를 부착했었던 흔적 같은 부분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별개로 추정되는 2점의 수즐은 모두 무돌기형(無突起型)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즐이 출토된 1호 석곽(石槨) 내에는 목관이 놓여져 있고, 수즐은 피장자(被葬者)의 두위(頭位) 방향으로 부장(副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31].

이 유적에서 출토된 수즐은 그 유존(遺存) 상태로 보아 동래 복천동(東萊 福泉洞) 53호분과 같은 연결즐이었을 가능성은 낮다. 또 잔존하는 즐편(櫛片)에는 칠막(漆膜)이나 권박(巻縛)의 실 모양 재료(糸状材) 등 각 부위에 유사한 특징이 보여 이 점에 있어서는 출토된 수즐 5점에 개체 차이가 나타난 고흥 야막 고분(高興 野幕古墳)과도 다르다.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南原 清渓里 清渓古墳群)의 수즐처럼 같은 유구(遺構)에서 출토된 여러 개의 빗의 특징이 유사한 경향은 일본열도에서는 일반적이며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南原 清渓里 清渓古墳群)과 고흥 야막 고분(高興 野幕古墳)은 수즐이 부장(副葬)된 경위가 상이할 가능성도 있다.

6. 향후 과제

한반도에서 확인된 수즐의 출토 수는 적지만, 그 특징은 동일하지 않고 유적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음이 차츰 밝혀지고 있다.

일본열도에서의 수즐의 양상에 가장 가까운 것은 동래 복천동(東萊 福泉洞) 53호분일 것이다.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연결즐의 출토지역은 제한적이며, 대부분 기나이(畿内: 야마시로(山城)·셋쓰(摂津)·가와치(河内)·야마토(大和)·이즈미(和泉))지역에서 동해 쪽으로 통하는 지역에 분포한다. 이 고분의 연결즐은 제작기법이나 재질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우지 후타고야마 고분(宇治二子山古墳) 북분(北墳)이나 차스리야마 고분(茶すり山古墳) 등과 흡사하기 때문에 일본열도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러 개의 개체를 조금 옮겨서 겹쳐 놓는 점도 일본열도에서 확인된 매납(埋納) 방식과 일치한다. 이러한 점에서 동래 복천동(東萊 福泉洞) 53호분의 피장자(被葬者)에 대해 수즐에 주안점을 두어 추측한다면 일본열도의 특히 연결즐이 분포하는 지역이나 부장(副葬)된 피장자(被葬者) 사이에 모종의 연결고리를 가진 인물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에 고흥 야막 고분(高興 野幕古墳)에서 출토된 수즐은 확인된 5점의 빗의 개체 차이로 인해 각기 다른 곳에서 제작된 빗이 일괄적으로 부장(副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으로 빗을 피장자(被葬者)의 두부(頭部) 부근에 거울과 함께 두는 부장(副葬) 방식은 일본열도

31)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9,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 발굴조사 약보고서」.

에서도 나타나며, 동래 복천동(東萊 福泉洞) 53호분과 마찬가지로 수즐의 부장(副葬) 방식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측된다.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南原 淸溪里 淸溪古墳群)에서 출토된 수즐은 위의 두 유적과도 다른 특징을 갖는다. 동래 복천동(東萊 福泉洞) 53호분과 같은 연결즐이었을 가능성은 낮으며, 별도의 개체로 인식할 수 있는 2편(片)의 빗이 흡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은 일본열도의 양상과 공통된다. 다만 빗의 출토 상황이 일본열도에서 나타나는 부장(副葬) 방식과 관련되었음을 입증하기에는 불분명한 점도 있어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한반도에서 출토된 수즐과 관련하여 향후 주요 과제는 이들 제작지의 검토와 일본열도의 특정 지역과의 관련성 유무라는 문제에 얼마나 접근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한반도와 일본열도, 두 지역의 자료에 대해 상세한 관찰은 물론 기회가 있다면 옻칠의 도막(塗膜) 분석이나 빗살 부분의 수종(樹種) 식별과 같은 과학적인 분석 조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교 검증이 요망된다. 유기질 자료는 유존(遺存)이 어려워 조사 연구에서 어려운 점도 많지만, 조금씩 조사를 거듭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축적된 빗 이외의 자료에 관한 연구 성과를 대조함으로써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연결고리가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감사 말씀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할 기회를 주신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동선 선생님, 김동훈 선생님, 이건용 선생님께서 발표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해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단행본

다사카 히토시(田坂仁), 1995, 『춘계기획전 일본의 빗』, 사이쿠역사박물관(齋宮歷史博物館), p.2. 재편집

모리모토 로쿠지(森本六爾), 1927, 「일본 상대(上代)의 빗」, 『일본 상대(上代) 문화의 고구(考究)』, 시카이쇼보(四海書房), pp.1-84.

가메다 히로시(龜田博), 1985, 「수즐(竪櫛)」, 『스에나가(末永) 선생 미수(米壽) 기념 헌정 논문집건(乾)』, 스에나가(末永)선생 미수기념회, pp.465-504.

도쿠다 마사시(德田誠志), 1991, 「고분시대의 화장도구 －수즐을 중심으로－」, 『다테즈카(盾塚)·쿠라즈카(鞍塚)·슈킨즈카(珠金塚) 고분』, 유라 야마토(由良大和) 고대문화연구협회, pp.313-333.

가와무라 유키에(川村雪繪), 1999, 「고분시대의 수즐(竪櫛)」 『국가형성기의 고고학』－오사카대학(大阪大學) 고고학연구실 10주년 기념논집－, 오사카대학 고고학연구실, pp.281-306.

키자와 나오코(木澤直子), 2016, 「한반도에서 빗의 계보와 변천」, 『일본열도에서 빗의 출현과 계보』, 나라(奈良)여자대학 대학원 인간문화연구과 박사후기과정.

키자와 나오코(木澤直子), 2019, 「고분시대의 연결즐(連結櫛)」, 『화(和)의 고고학』, pp.79-90.

보고서

[일본]

나라현카시하라고고학연구소, 1976, 『마키무쿠(纏向)』, 나라현 사쿠라이시 교육위원회, p.305, 그림140.

노토가와초 매장문화재센터, 2005, 「이시다 유적(石田遺跡)(19·21차), 전아(殿衛) 유적(3차)」, 『노토가와초 매장문화재 조사보고서 제60집』, 노토가와초 교육위원회, p.48, 제30그림-W31.

후쿠오카시교육위원회, 1989, 『로지 고분(老司古墳)』, p.153, 그림121.

오카야마현 고대 기비 문화재센터, 1995, 「나카하라 고분군(中原古墳群)」, 『추고쿠(中國) 횡단 자동차도 건설에 따른 발굴조사2』, 오카야마현 교육위원회, pp.339-344.

유키노야마 고분군 발굴조사단, 1996, 『유키노야마 고분(雪野山古墳)의 연구 보고 편』, 요카이치시 교육위원회.

아이즈와카마츠사(會津若松史) 출판위원회 편, 1964, 『아이즈오츠카야마 고분 (會津大塚山古墳)』, 가쿠세이샤(學生社).

우지시(宇治市)교육위원회, 1991, 『우지후타고야마 고분(宇治二子山古墳) 발굴조사 보고』.

효고현(兵庫縣) 현립 고고박물관, 2010, 『사적(史跡) 차스리야마 고분(茶すり山古墳)』.

도호쿠대학, 2017, 「후쿠시마현 기타카타시 하이즈카야마 고분(灰塚山古墳) 제6차 발굴조사 보고」『도호쿠대학 대학원 대학논집 역사와 문화』.

[한국]
조현종·장제근, 1992, 「光州 新昌洞遺蹟－제1차 조사 槪報」, 『考古學誌』 제4집,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17쪽.
전남대학교박물관 · (재)호남문화재연구원, 1995, 『高興 吉頭里 雁洞 古墳』.
대성동고분박물관, 2015, 『金海 大成洞 고분군-85호분~91호분-』, 53, 55, 116쪽.
부산직할시립박물관, 1993, 『東萊 福泉洞 53호분』, 103쪽.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4, 『高興 野幕古墳』, 117쪽.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9,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 발굴조사 약보고서」.

삽도 · 인용문헌

그림 1. 다사카 히토시(田坂仁), 1995, 「각종 빗의 모식도와 각부 명칭」, 『춘계기획전 일본의 빗』, 사이쿠역사박물관, p.2. 필자 재편집.
그림 2(左). 나라현 카시하라 고고학연구소, 1976, 『마키무쿠(纏向),』 나라현 사쿠라이시 교육위원회, p.305, 그림140. 필자 재편집.
그림 2(右). 노토가와초 매장문화재센터, 2005, 「이시다 유적(石田遺跡)(19 · 21차), 전아(殿衛) 유적(3차)」, 『노토가와초 매장문화재 조사보고서 제60집』, 노토가와초 교육위원회, p.48. 필자 재편집.
그림 3-1. 후쿠오카시 교육위원회, 1989, 『로지 고분(老司古墳)』, p.153, 그림121. 필자 재편집.
그림 3-2. 우지시 교육위원회, 1991, 『우지후타고야마 고분(宇治二子山古墳)발굴조사 보고』, pp. 37-38. 복원 모식도 : 필자 작성.
그림 3-3. 오카야마현 고대 기비 문화재센터, 1995, 「나카하라 고분군(中原古墳群)」, 『추고쿠(中國)횡단 자동차도 건설에 따른 발굴조사2』, 오카야마현 교육위원회, pp.339-344.
그림 3-4. 유키노야마 고분군 발굴조사단, 1996, 『유키노야마 고분(雪野山古墳)의 연구 보고 편』, 요카이치시 교육위원회.
그림 4. 조현종·장제근, 1992, 「光州 新昌洞遺蹟－제1차 조사 槪報」, 『考古學誌』 제4집,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17쪽.
그림 5. 대성동고분박물관, 2015, 『金海 大成洞 고분군-85호분~91호분-』, 53, 55, 116쪽. 필자 재편집.
그림 6. 부산직할시립박물관, 1993, 『東萊 福泉洞 53호분』, 103쪽. 복원 모식도 : 필자 작성.
그림 7.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4, 『高興 野幕古墳』, 117쪽.
그림 8. 전남대학교박물관 · (재)호남문화재연구원, 1995, 『高興 吉頭里 雁洞古墳』, 50쪽. 필자 재편집.
그림 9. 필자 작성.
그림 10. 필자 작성.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 출토 수즐의 특징 및 의미」에 대한 토론문

박천수(경북대학교)

수즐(竪櫛)은 이 분야의 전문가인 키자와 나오코 선생의 발표에서도 제시된 것과 같이 일본 고분시대의 특징적인 장신구의 하나이다.

이는 한국에서의 수즐이 일본열도산 문물이 출토된 유적에서 다음과 같이 출토되고 있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4세기 전반의 김해 대성동 88, 91호분은 왕묘급 수장묘이며 왜계문물이 공반되고 있으며 이 고분군에는 이 시기 일본열도산 문물이 집중 이입되어 부장된다.

5세기 전엽의 길두리 안동고분은 고흥의 동쪽 해창만에 면하여 돌연 출현하는 점, 미비부주(眉庇附冑), 횡신판병류판갑(横矧板鋲留版甲) 등의 왜계갑주와 무기가 부장된 점, 토기가 부장되지 않는 점, 직경 34ｍ의 분구를 가지면서도 매장주체부가 마한지역에 보이지 않는 단수인 점에서 왜인묘로 추정된다. 이 고분에는 백제산 금동관, 금동식리가 부장된다.

5세기 전엽의 야막고분은 고흥 서측의 득량만에 면하며 역시 단독으로 돌연 출현한다. 왜계갑주가 부장되나 토기가 부장되지 않고, 직경 22ｍ의 분구을 가지면서도 매장주체부가 단수인 점, 분구의 즙석과 석관계석곽(石棺系石槨)인 매장주체부 등의 요소에 의해 왜인묘로 판단된다. 위지삼공경(位至三公鏡), 삼각판혁철주(三角板革綴冑), 삼각판혁철판갑(三角板革綴版甲)이 부장되었다.

이들 왜계고분의 피장자는 복수의 대도, 갑주가 부장된 점, 백제산 금동관, 금동식리를 부장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그 피장자는 백제에 의해 이 지역에 배치된 무장일 가능성이 크다.

야막고분의 매장주체부는 후쿠오카현 타나바타이케고분(七夕池古墳) 등과 유사하여 이들 남해안의 왜계 고분의 피장자는 규슈에 출자를 가진 왜인으로 본다.

5세기 전엽의 부산 동래 복천동 53호분은 수장묘이며 일본열도산 문물은 출토되지 않았으나, 신라토기와 함께 함안 아라가야산 토기를 다수 부장한 점이 특징이다. 이 고분군에는 4세기 일본열도산 문물이 이입되고 5세기 전반에도 일본열도산 갑주가 이입된다.

5세기 전엽의 남원 청계리 1호분 1호 석곽묘는 수장묘이며 일본열도산 문물은 보이지 않으나, 고령 대가야산, 함안 아라가야산 등 토기를 다수 부장한 점이 특징이다. 이 고분과 연접된 5세기 초에 축조된 2호 석곽묘에서는 함안 아라가야산 차륜형토기와 통형기대가 부장되었다.

1. 토론자는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특히 안동고분, 야막고분과 같은 왜계고분에서 수즐이 부장된 것에서, 이는 당시 토기를 부장하지 않는 음식 공헌의 부재와 같은 왜인의 장례 습속 즉 정신 세계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양 고분에서의 수즐의 존재는 그 피장자가 왜인일 가능성을 방증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2. 안동고분과 야막고분의 수즐은 백제와 교류의 주체인 규슈지역로부터 이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3. 복천동53호분의 수즐은 이 시기 신라, 창녕 비화가야와 교류 주체인 교토부 신메이야마고분(神明山古墳), 효고현 차스리야마고분(茶すり山古墳) 등이 위치하는 단고(丹後), 다지마(但馬) 일대로부터 이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4. 청계리 1호분 1호 석곽묘의 수즐은 함안 아라가야 양식 토기가 부장되고 연접된 2호 석곽묘에서 아라가야산 토기가 부장된 것에서 이를 매개로 이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경북대학교 박천수 교수님의 토론에 대한 답변

키자와 나오코(木沢直子, 간고지문화재연구소)

우선 박천수 교수님께서 제 발표문에 대한 토론문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또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학회 주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 이하는 박천수 선생님께 받은 의견에 대한 답변이다.

1. 안동고분(雁洞古墳)과 야막고분(野幕古墳)의 피장자가 왜인(倭人)일 가능성을 방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박천수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고분시대(古墳時代)의 수즐(竪櫛)은 장신구인 동시에 당시의 장송의례와 관련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야막고분에서 수즐이 출토된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열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피장자의 두부(頭部) 근처에서 출토된 사례에 가깝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피장자가 왜인이었거나 또는 장송(葬送)의 장(場)에 수즐의 부장 방법과 의미에 대해 어떠한 지식을 가진 인물(왜인)이 입회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안동고분은 출토 상황이 야막고분과 다르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수즐이 부착되어 있던 환두대도와의 관련성이나 일본열도에서의 부장(副葬) 상황과 비교하는 등 더욱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안동고분과 야막고분의 수즐이 백제와의 교류 주체인 규슈지역에서 이입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수즐은 단순한 형태와 구조를 갖고 있고, 부장(副葬) 방법 면에서도 지역성을 찾아내기 어려운 자료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출토된 수즐의 특징을 가지고 일본열도의 어느 지역에서 이입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후술하는 연결즐(連結櫛)을 제외하고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출토 상황에 착안하여 규슈지방에서 출토된 수즐을 개관해 보면 피장자의 신체 가까이에 빗이 놓여 있는 사례 이외에 피장자가 두부(頭部)에 빗을 착장한 상태에서 부장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규슈(九州) 남부지역에서는 미야자키현(宮崎県) 스키(須木) 우에노하루(上ノ原) 지하식 횡혈묘(横穴墓)에서 두부(頭部)에 대형 수즐 1점이 부착된 인골과 여러 개의 소형 빗이 부착된 인골이 출토되었다. 본 사례와 관련해서는 야막고분 보고서 속 졸고에 사진을 같이 게재하였다. 또 규슈(九州) 북부지역에서도 이번 발표에서 언급한 로지고분(老司古墳) 4호분의 2호 인골 두부에 적어도 2점의 소형 빗이 잔존한다. 또 타나바타이케고분(七夕池古墳)에서는 피장자의 두부를 둘러싸듯이 두부 주위에서 수즐이 출토되었으며, 이 빗들은 매장 시 피장자의 두부에 착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야막고분과 안동고분의 수즐을 살펴보면 야막고분에서는 피장자의 두부 부근에서 출토되었으며, 부장 당시 두부에 착장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수즐의 출토 상황은 규슈 이외의 지역에서도 여기저기 나타나므로 출토 상황을 통해 규슈 지역으로부터의 이입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박천수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구(墳丘)와 매장 주체부의 특징, 왜계의 갑주와 무기의 출토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수즐이 규슈 지역에서 이입되었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 수즐의 외관적인 특징이라는 점에서는 타나바타이케고분(七夕池古墳)과 마찬가지로 시메마치(志免町)에 위치한 가야바(萱葉) 2호분에서 출토된 빗이 주목된다. 육안으로 본 관찰 소견이기는 하지만, 이 고분의 수즐은 옻도막(漆塗膜)이 두꺼워 야막고분의 수즐(보고서 사진 100-416)과 유사한 특징을 나타낸다. 향후 이러한 빗의 옻도막과 재질 분석, 비교 검토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반도에서 출토된 수즐의 유래에 관해 어떤 유익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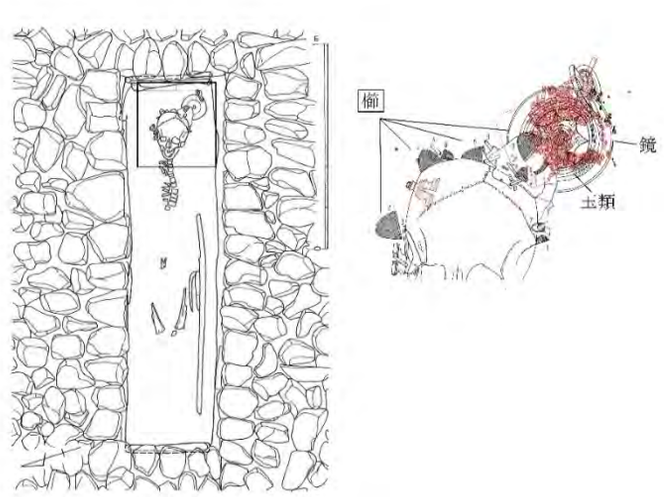


그림 1. 타나바타이케고분(七夕池古墳)의 수즐(竪櫛) 출토 상황
(시메마치교육위원회, 2001,『국가지정사적 타나바타이케고분』)

3. 복천동(福泉洞) 53호분의 수즐(竪櫛)이 단고(丹後), 다지마(但馬) 지역에서 이입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일본열도에서는 연결즐(連結櫛)의 사례가 적고, 지금까지 확인된 대부분의 사례는 긴키지방(近畿地方)에서 산인지방(山陰地方)에 이르는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는 훗날 고대의 산인가도(山陰街道) 지역과도 겹친다. 다지마(但馬)는 이 고대 산인가도(山陰街道)를 따라 위치한 지역 중의 하나로, 차스리야마고분(茶すり山古墳) 이외에 론덴(論田) 11호분(교토부 후쿠치야마시(京都府 福知山市))과 나가타니(長谷)・하나(ハナ) 6호분(효고현 도요오카시(兵庫県豊岡市)) 등에서 연결즐(連結櫛)이 출토되었다. 연결즐이라는 특징적인 형태와 구조를 가진 수즐(竪櫛)이 긴키지방에서 동해 쪽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분포했었고, 나아가 복천동 53호분에서도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연결즐은 다지마를 포함한 이 지역들, 다시 말해 고대 산인가도를 따라 이어진 지역과 어떠한 연관성을 배경으로 한반도에 이입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단고(丹後)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연결즐(連結櫛)의 출토 사례가 확인된 바 없다. 단고(丹後)는 긴키(近畿)에서 산인(山陰)으로 통하는 이른바 훗날 산인가도가 지나는 지역은 아니다. 이 점도 연결즐의 분포 지역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4. 청계리 1호 석곽묘의 수즐이 아라가야를 매개로 이입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청계리 1호 석곽묘에서 출토된 수즐의 형태나 출토 상황을 토대로 보면 이것이 아라가야(阿羅伽耶)를 매개로 이입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Part
06

남원지역 출토 기대에 대한 검토

- 발 표 : 이건용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토 론 : 박천수 | 경북대학교

남원지역 출토 기대에 대한 검토

이건용(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목 차

1. 머리말
2. 연구 대상
 1) 가야·신라 기대의 종류
 2) 남원지역 기대의 종류
3. 비교자료 검토
 1) 분포와 특징
 2) 연대 검토
4. 기대의 계통과 가치
 1) 남원지역 기대의 계통
 2) 가야 기대의 유통 가능성과 부장의미
5. 맺음말

1. 머리말

최근 발굴 조사된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 1, 2호 석곽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대(器臺)가 출토되었다. 가야문화권의 기대[그릇받침]는 취락유적보다 고분에서 출토량이 많기 때문에 매장의례를 위해 생산된 기종으로 볼 수 있다.[1] 기대는 분묘에서 단경호 또는 유개장경호를 받치는 토기로 출토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른 토기에 비해 장식성이 높은 기대의 부장은 죽은 자 넋을 기리거나, 죽은 자 또는 장례주관자의 부를 과시하는 행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 가야문화권의 일부 고분에서는 기대를 대량으로 부장하는 습속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마한·백제, 신라 분묘의 부장과는 다른 양상이다.

남원지역 가야고분에서 기대가 많이 부장되는 고분으로는 월산리 M5호분,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32호 부곽을 꼽을 수 있다. 이들 고분에서는 비슷한 형태의 발형기대를 대량으로 부장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와 달리 최근 발굴된 청계리 청계고분에서는 서로 다른 형태와 장식이 가미된 대형기대들이 부장되어 있었다. 이들 고분군의 특정 고분에서 부장되는 대형기대들은 장식성이 높은 것에 속하고, 공반하는 부장품들 또한 호사스러운 양상을 보인다. 남원지역에서의 대형 기대 부장은 특정 지위의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질서를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대형기대를 부장하지 못한 고분은 이러한 질서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가 형성되는 계기는 외부 문화의 영향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영향을 준 특정문화의 특유한 성질이 기대의 형태나 부장 습속에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남원지역과 같은 영향을 받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남원지역 가야는 대가야권에 속하며[2], 기대를 비롯한 토기를 부장하

1) 이성주, 2009, 「新羅·加耶 土器樣式의 生成」, 『韓國考古學報』 72, 韓國考古學會, 83P.
2) 이희준, 2008, 「대가야 토기 양식 확산 재론」, 『영남학』 13,
 박천수, 2009, 「5~6세기 대가야의 발전과 그 역사적 의미」, 『고령 지산동 44호분』, 경북대학교 박물관. P636.

는 습속은 당시 중심지인 고령이나 합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3] 따라서 남원지역 기대는 고령이나 합천을 중심으로 유행한 양식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대는 당시 매장의례와 관련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완성된 높은 기술이 반영된 물품[4]이므로, 특정 양식의 기대 분포는 당시 사회들 간의 연관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남원지역의 기대들은 대가야권으로부터 형성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고령이나 합천지역으로부터의 증여, 분배, 교환 등으로 입수한 기물로 볼 수 있다. 또는 공인들의 이동으로 인한 기술의 이식 등으로 인하여 기대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계리 청계고분 1호 석곽에서 출토된 일부 기대에서는 소가야, 아라가야권에서 흔히 보이는 기대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으므로[5], 각 기대의 형태나 문양에 반영된 제작기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남원지역 기대에 대한 이해는 비단 대가야권 내 분묘자료만으로 이해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발표에서는 가야는 물론이고, 가야 기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신라지역 자료를 바탕으로 남원지역에서 출토되는 기대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남원지역 기대의 외형적 특징을 분석하여 분류하고, 다른 가야·신라권 기대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비교분석을 통하여 각 유형별 비교 자료의 분포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대의 계통을 확인하고, 확인된 계통의 기대가 밀집된 지역(중심권)과 함께 다른 분포지역(영향권)도 동시에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남원지역 고분군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대 계통과 부장습속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남원지역의 기대의 계통과 구성에 중점을 두었지만, 남원지역 기대에 대한 연구는 고대 가야 사회에서 기대가 갖는 가치와 그 의미에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 대상

1) 가야·신라 기대의 종류

가야·신라지역 기대의 분포와 종류는 <도면 1>과 같다. 출토되는 기대의 종류는 노형(爐形), 발형(鉢形), 통형(筒形)기대이다. 기대는 그릇을 받치는 수발부(受鉢部) 또는 수부(受部), 대각(臺脚)으로 구성되고, 통형기대는 수부와 기다란 통부(筒部), 대각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통형기대의 일부는 수부와 대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높이가 10㎝ 내외의 일명 소형기대라 불리는 것들도 있다.

가야·신라 기대의 형태와 장식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기대는 일정한 형태와 구성을 지니고 있지만 각 부위의 크기 또는 곡률, 그리고 구연부 혹은 대각 등이 제작 집단에 따라 형태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한 기대에는 동일한 문양과 투창을 반복적으로 장식하기도 하고, 다양한 문양과 투창을 배치하여 화려하게 장식하기도 한다. 가야·신라기대의

3) 박천수, 1994, 「대가야권 기대의 편년」, 『한국고고학보』 39, 한국고고학회, 102-103p.
박천수, 1999, 「기대를 통하여 본 가야세력의 동향」, 『가야의 그릇받침』, 국립김해박물관, 98p.
4) 이성주, 2009, 「新羅·加耶 土器樣式의 生成」, 『韓國考古學報』 72, 韓國考古學會, 85P.
5)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9,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이건용, 2020, 「남원 청계리 고분군 출토유물 연구」, 『남원 월산리 청계리 고분군 역사적 가치와 의미』,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장식적 특징은 발부와 대각은 1~2조 등의 수평 돌대나 횡침선을 통하여 단을 구분하고 각 단 내부에 문양을 시문하거나, 투창을 뚫어 일렬 또는 교호(交互)로 배치하여 장식한다(도면 1-②). 또는 문양을 시문한 후 투창을 뚫기도 한다. 투창은 주로 삼각형과 방형·장방형을 기준으로 동일한 형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서로 다른 형태의 투창을 섞어서 규칙적으로 배치하기도 한다. 발형기대의 수발부에는 투창을 하지 않지만, 통형기대는 수부, 통부, 대각 모두 투창을 배치하는 차이를 보인다. 물론 일부 대구 문산리 고분군 4-1호분, 부산 청강 대라리 13호(목곽) 출토품처럼 발형기대의 수발부 상부에 투창을 하는 예외도 존재한다.

표 1. 가야·신라 기대의 종류와 형태, 장식

기대 종류	부위별 구성	부위별 형태			장식			
		수(발)부	통부	대각	돌대 종류	문양 종류	투창	
							형태	배치
노형 발형 통형	수(발)부+대각 수부+통부+대각 수부 겸 대각	화로형 발형 나팔형	원통형 나팔형	나팔형 반장고형	수평돌대 수직돌대	(밀집)파상문 점열문 삼각집선문 원문 점열문 횡침선	삼각형 방형 원형 종(터널)형 반원형 압정형 부채형	일렬 교호(交互)

2) 남원지역 기대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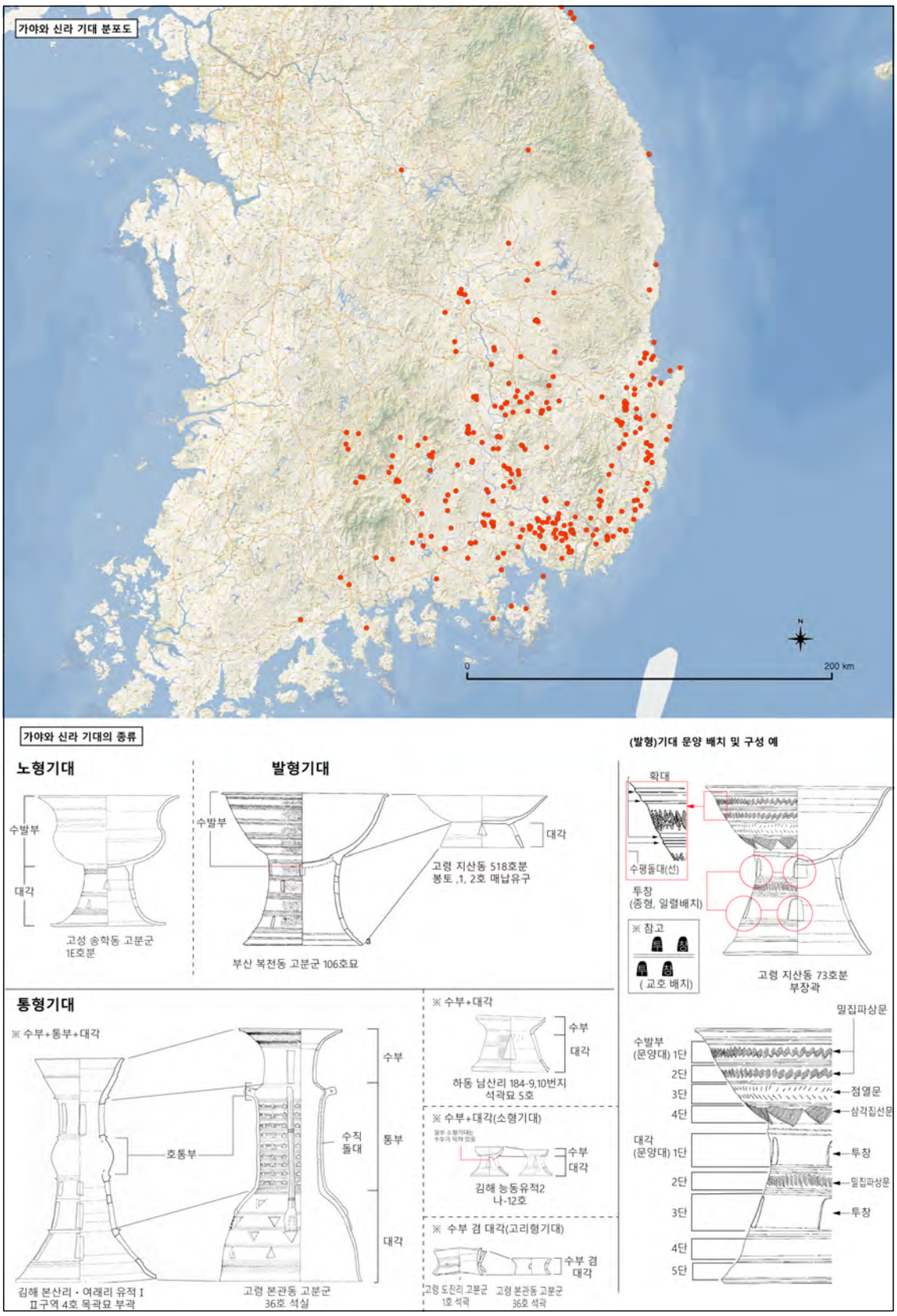
남원 지역에서 출토된 기대의 종류는 <표 2>와 같다. 기대는 청계리 청계고분군, 월산리 고분군,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6], 봉대고분군, 대곡리 유적에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는 남원일대에서는 아영분지 일대의 고분군에서만 확인이 되었다. 이 지역 기대의 종류로는 발형기대와 통형기대가 확인되고 있으며, 소형기대와 노형기대가 확인되지 않는다.

청계리 청계고분군 유물은 아직 정리 중이라 정확한 개체 종류와 수량을 파악 하지 못하

표 2. 남원 지역 출토 기대의 종류

유적 --- 유구 / 기대 종류		청계리 청계고분군		월산리 고분군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대곡리 유적	봉대고분군
		1호 석곽	2호 석곽	M1- A	M1- E	M3	M4	M5	M6	1호분 (현17호)	3호분 (현16호)	5호분 (현15호)	32호분 부곽	나-지구 1호 주거지	지표 수습
발형		●	●	●		●	●	●	●	●		●	●		●
통형	수부+통부+대각	●	●							●					
	수부+대각				●	●	●	●	●	●	●	●		●	
	수부 겸 대각 (적재도구?)									●	●				
미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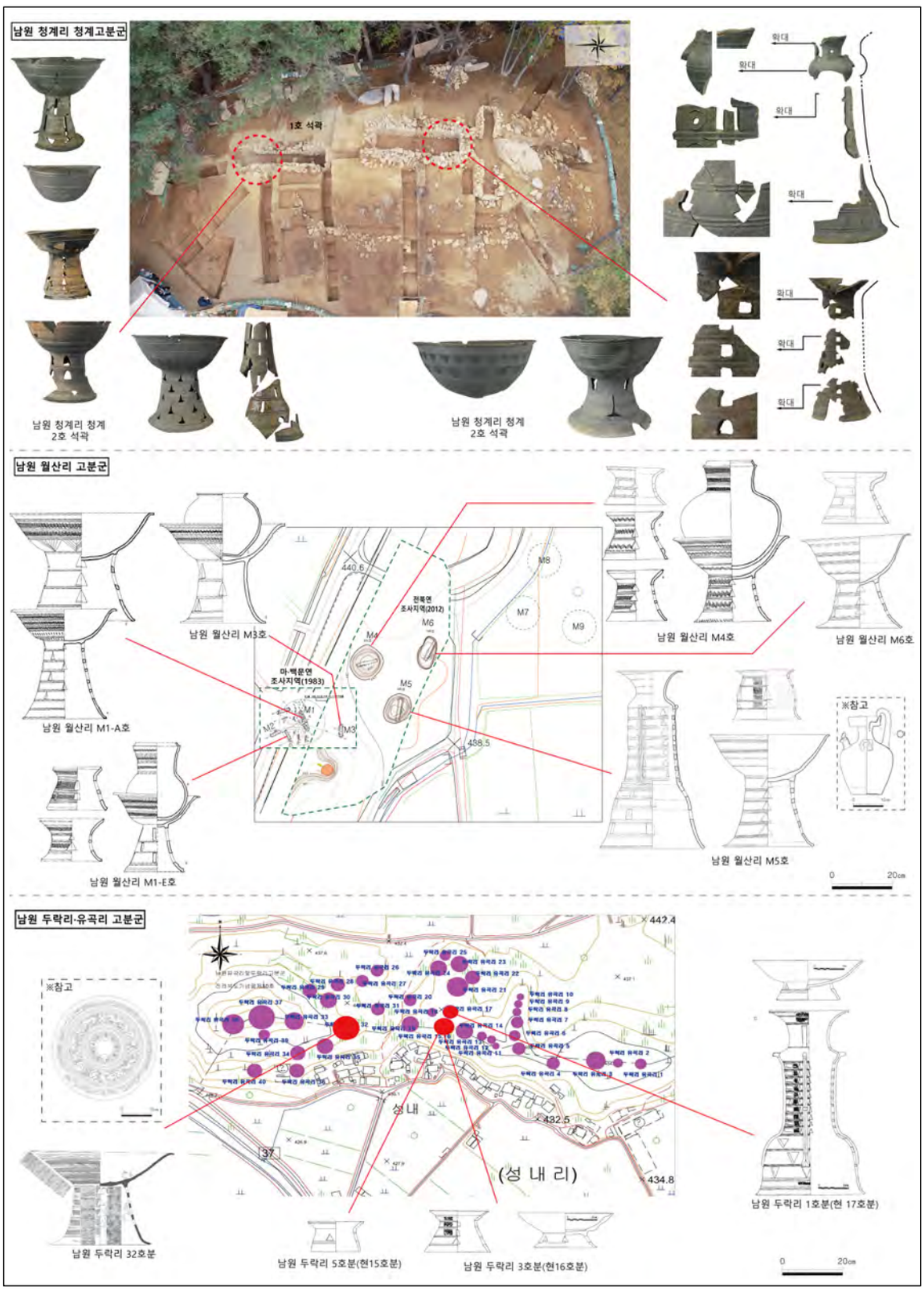
6) 본고에서 사용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 1, 3, 5호분은 현재 17, 16, 15호분으로 변경되었다(남원시·군산대학교박물관, 2011, 「남원 두락리 및 유곡리 고분군 정밀 지표조사 보고서」. 본고에서는 예전 발굴 당시의 고분 번호와 현재 번호를 병기하여 표기하고자 한다.



도면 1. ① 가야와 신라 기대의 분포와 종류, ② 기대 문양 배치 및 구성 예시



도면 2.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 출토 기대



도면 3.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 남원 월산리 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주요 기대 출토 상황 (이건용, 2020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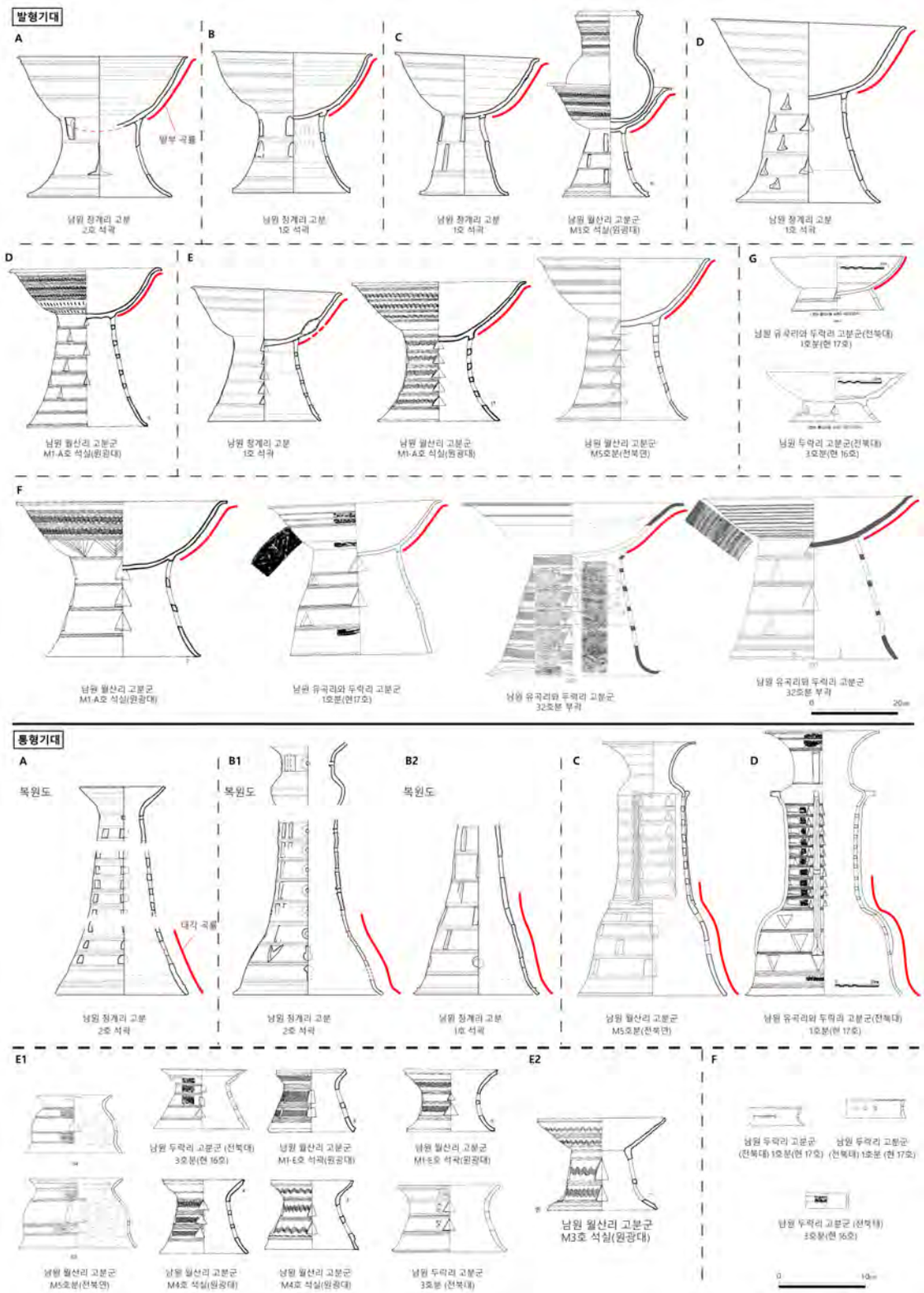
였지만, 현재까지 2호 석곽에서는 발형기대는 2점, 통형기대는 2점 정도의 개체가 확인되고, 1호 석곽에서 발형기대 5점, 통형기대 1점 정도 확인되었다(도면 2). 유물 중 통형기대는 본고의 발표를 위해 도상 복원을 시도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를 이용하였다.[7)]

비교자료를 선별하기 위해, 우선 남원지역 발형기대, 통형기대의 기형과 장식, 그 구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발형기대는 크게 7개(발A·B·C·D·E·F·G)로, 통형기대는 6개(A·B·C·D·E·F)의 종류로 구분하였다(도면 3). 분류한 기대들의 종류와 그 특징은 발형기대는 <표 3>으로, 통형기대는 <표 4>로 정리하였다.

표 3. 남원지역 발형 기대의 종류와 특징

발형	특징	문양과 투창		출토 유구
		수발부	대각	
발A형	-수발부의 심도가 깊고, 대각 상부 폭이 넓음 → 수발부, 대각 접합지점이 비교적 높아서 다른 기대와 측면 비율이 다름 -특이한 투창 형태(역제형, 압정형) -대각 투창은 2단으로 엇갈림 배치	-밀집파상문 -삼각집선문	-역제형 투창과 좌우 종방향 침선 -파상문, 압정모양 투창	-청계리 청계고분 2호
발B형	-수발부 심도가 깊은 편이고, 측면은 반구형에 가까움 -대각의 투창은 종형이고, 일렬로 2단 배치	-밀집파상문	-밀집파상문, 종형 투창	-청계리 청계고분 1호
발C형	-수발부 심도는 깊거나 낮음 -대각 상하부 폭이 좁음, 그중 수발부 대각 접합지점이 매우 좁은 편 -수발부 최하단에는 문양을 시문하지 않음 -대각 투창은 2~3단으로 엇갈림 배치 -대각에는 거치구를 이용한 정면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음(청계리 청계고분 2호 석곽)	-밀집파상문	-세장방형 투창	-청계리 청계고분 1호 -남원 월산리 M3,5
발D형	- 대각이 매우 높음 - 수발부와 대각 단수가 많고(수발부 6단, 대각 6~8단) 수발부와 대각의 각단에는 2~3종류의 문양을 시문 - 투창은 교호로 배치	-밀집파상문, -삼각집선문, -원문, -점열문 (유충문)	-밀집파상문, 압정형 또는 삼각형 투창	-청계리 청계고분 1호 -월산리 M1-A
발E형	- 대각의 단수는 3~7단에 해당, 대각은 높은 개체가 있고 낮은 개체가 있음 - 수발부 최하단에는 문양을 시문하지 않음 - 대각 투창은 일렬 배치	-밀집파상문 또는 거치문	-삼각형	-청계리 청계고분 1호 -월산리 고분군 M1-A - 남원 월산리 M5,6
발F형	-수발부의 심도가 낮고(천발형), 구경이 넓음 -대각 상부와 대각 하부 폭이 넓음 (안정적인 형태) -수발부 각각의 단에 문양을 배치함 (밀집파상문과 삼각집선문) -대각 투창은 삼각형이며 일렬 또는 교호 배치, 최하단에는 문양을 시문하지 않음	-밀집파상문 -삼각집선문	-밀집파상문, 삼각형투창	-월산리 고분군 M1-A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32호 부곽
발G형	-다른 발형기대에 비해 전체적으로 기고가 낮음(수발부는 천발형이고, 대각 높이가 매우 낮음) - 대체로 장식을 하지 않음. 대각에 수평돌대로 2단 정도 구획을 하고, 삼각형의 투창을 1단에 배치함	없음	-삼각형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1, 3호분(현 17, 16호)

7) 각 도면은 아직 미완성 단계이다.



도면 4. 남원지역 기대 분류

남원지역 발형기대의 수발부는 대체로 저부에서 구연부까지 밖으로 벌어지는 곡률을 보인다. 수발부의 구경/높이를 비교하였을 때 심도가 깊거나 낮은 것이 모두 확인된다. 대각은 대체로 나팔형으로 벌어지고, 대각의 높낮이, 상부와 하부 폭 또는 전체 크기에서 다양성이 관찰된다.

통형기대는 수부·통부·대각, 수부·대각, 수부 겸 대각으로 구성되는 종류가 확인된다. 일부 통형의 상부 기면을 호형으로 돌출시킨 것들도 확인된다. 또한 대각은 나팔형, 반장고형이 모두 관찰된다.

표4. 남원지역 통형기대의 종류와 특징

통형	특징	문양과 투창			출토 유구
		수부	통부	대각	
통A형	-수부, 통부, 대각 구성 -통부는 하단 폭이 살짝 넓은 원통 -대각은 나팔형, 대각부가 직선으로 뻗어짐 -(원형, 방형, 종형)투창은 일렬 배치	없음	-꺽쇠모양의 점열문 -밀집파상문, 원형 투창 -밀집파상문, 방형 투창	-밀집파상문, 종형 투창	-청계리 청계고분 2호
통 B1형	-수부, 통부, 대각 구성 -통부형태는 원통형, 통부상면의 기면을 호형태로 돌출(호통부[亞]) -대각부는 미약하게 바깥으로 벌어지는 곡률이 관찰 -대각부는 살짝 꺾여 외반 -수부, 통부, 대각에는 1쌍의 세장방형투창, 원문 내부에 원형투창은 일렬 배치 -대각에는 V자형, 부채꼴형 투창확인 (※ 파상문이 확인되지 않음)	-2열 세장방형투창, 원문+원형투창	-세장방형 투창 1쌍, 원문+원형투창[동심원문]	-V자형, 부채꼴형 투창(일부 상하 일렬)	-청계리 청계고분 2호
통 B2형	-수부, 통부, 대각 구성 -대각부는 미약하게 바깥으로 벌어지는 곡률이 관찰 -대각부는 살짝 꺾여 외반 -(세장방형) 투창 교호 배치	-결실	-밀집파상문, 세장방형 투창 -꺽쇠모양의 점열, 세장방형 투창	-밀집파상문, 세장방형 투창 -타래문, 원형투창	-청계리 청계고분 1호
통C형	-수부, 통부, 대각 구성 -통부는 원통형, 대각은 반장구형 -통부에는 호통부가 미약하게 돌출 -통부의 수직돌대, 돌대 상부 끝을 말음(고사리형), 수직돌대는 통부와 대각 접합지점에서 이어짐 -통부 (삼각형)투창은 일렬, 대각 (방형)투창은 교호배치	-밀집파상문	-밀집파상문, 삼각형 투창	-밀집파상문, 방형 투창	-월산리 고분군 M5호
통D형	-수부, 통부, 대각 구성 -통부는 원통형, 대각은 반장구형 -호통부 확인(납작한 형태) -통부의 수직돌대는 상부가 외반, 하부는 뱀머리와 같은 형태	-밀집파상문 -세장방형 투창	-밀집파상문, 삼각형·장방형 투창	-역 삼각형 투창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1호(현 17호)
통E형	-수부, 대각 구성(통부가 없음) -(삼각형, 방형)투창은 1단이거나, 2~3단이며 일렬 배치 -측면이 발형기대와 유사한 것도 있음(남원 월산리 고분군 M3)	-밀집파상문(유, 무)	-밀집파상문, 삼각형 또는 장방형		-월산리 고분군 M1-E, M5, 3 4, 5호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3호분(현 16호) -대곡리 유적 나-1호 주거지
통F형	-수부 겸 대각 -기고 낮음 -단순 적재도구와 같은 형태, 통E형과 유사한 형태도 존재 -일부 중앙에 원형투창, 밀집파상문을 시문	-원형투창 -밀집파상문			-두락리 고분군 1, 3호 (현 17, 16호)

기대의 장식은 발형기대와 통형기대가 공유한 것들이 많다. 장식 중, 문양은 돌선이나 침선을 돌려서 문양대를 구획한 후 내부에 밀집파상문을 시문한 것이 많고, 투창 형태는 삼각형이 많다. 그리고 드물게 문양으로 삼각집선문, 원문, 투창은 종형, 부채꼴형, V자형이 있는 기대도 있다. 일부 통형기대의 수부·통부·대각에는 복합적인 장식으로 치장한 것이 확인된다.

2. 비교자료 검토

1) 분포와 특징

① 발형기대

발A형과 기대의 비교자료는 확인할 수 없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발B형의 비교자료는 대각의 투창형태가 종형인 기대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도면 5). 가장 유사한 자료는 고령 지산동 30호분 주석실 출토품으로 크기, 수발부·대각 형태와 문양구성이 매우 흡사하다. 종형 투창의 기대는 거창, 경산, 고령, 김해, 남원, 대구, 마산, 부산, 산청, 장수, 함안, 합천 등지의 유적에서 확인된다. 종형 투창 기대가 가장 유행한 지역은 고령 지산동 고분군 일대로 확인하였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확인되는 발행기대의 대각 종형투창 배치는 다양하며, 다른 지역의 발형기대 대각의 장식적 요소도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확인할 수 있어 중심지로 상정할 수 있다. 김해 대성동 유적 1호, 함안 오곡리 유적 8호와 같이 일부 지역에서 확인되는 발B형 기대의 수발부 형태는 고령지역과 다르다. 이들 기대는 수발부 내부가 넓고 깊고, 구연부 꺾임이 심하여 현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발C형 기대의 비교자료는 대각의 상하부 폭이 좁은 기형과 대각의 세장방형 투창이 교호로 배치된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도면 5). 이 기대는 대각에 대개 3~4단의 구획 후, 상부에서부터 2~3단의 투창을 배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대각에는 목제도구를 이용한 물레흔적이 남아 있다. 수발부는 밀집파상문을 2~3단 배치하고, 대각은 수발부와 달리 투창만 뚫고 문양을 시문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 수발부 구순부의 아래에 2개의 수평돌대(단면 삼각형)를 돌리는데, 대개 구순부에 밀착시켜 장식한다. 그러나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 1호 석곽의 기대는 그 공간이 비교적 넓은 편이다.

이 유형의 기대는 고성, 김해, 마산, 보성, 부산, 산청, 진주, 하동, 함안, 합천 등지의 유적에서 확인된다. 중심 분포지역은 진주일대이다. 진주 상촌리 유적 31, 54, 64호 토기가마에서 이 기대가 출토된 바 있어, 진주지역에서는 직접 제작하여 진주지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8]

발D형 기대는 대각의 높이가 높고, 복수의 투창이 엇갈려 배치하고 있는 기대를 대상으로 확인하였다(도면 6). 가야와 신라지역의 대각의 투창은 3단 정도 뚫려 있는 것이 다수이고, 발F형을 제외한 기대 중에는 4단 이상의 투창을 뚫는 사례가 적었다. 대개 김해와 부산 일대의 몇몇 기대에서만 확인된다.[9] 기대 제작에 있어 대각 투창의 단수가 많을수록 장식성이 높지만, 토기 건조 과정 중에 수발부의 무게로 인하여 대각이 무너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대 제작기술의 숙련도가 높은 지역에서만 확인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발D형 기대는 여러 장식이 복합되어 있는데, 참고한 부산 복천동 고분군 26호, 김해 본산리·여래리 유적Ⅱ

8) 조성원, 2018, 「소가야 토기의 생산과 유통」, 『소가야의 고분문화와 대외교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6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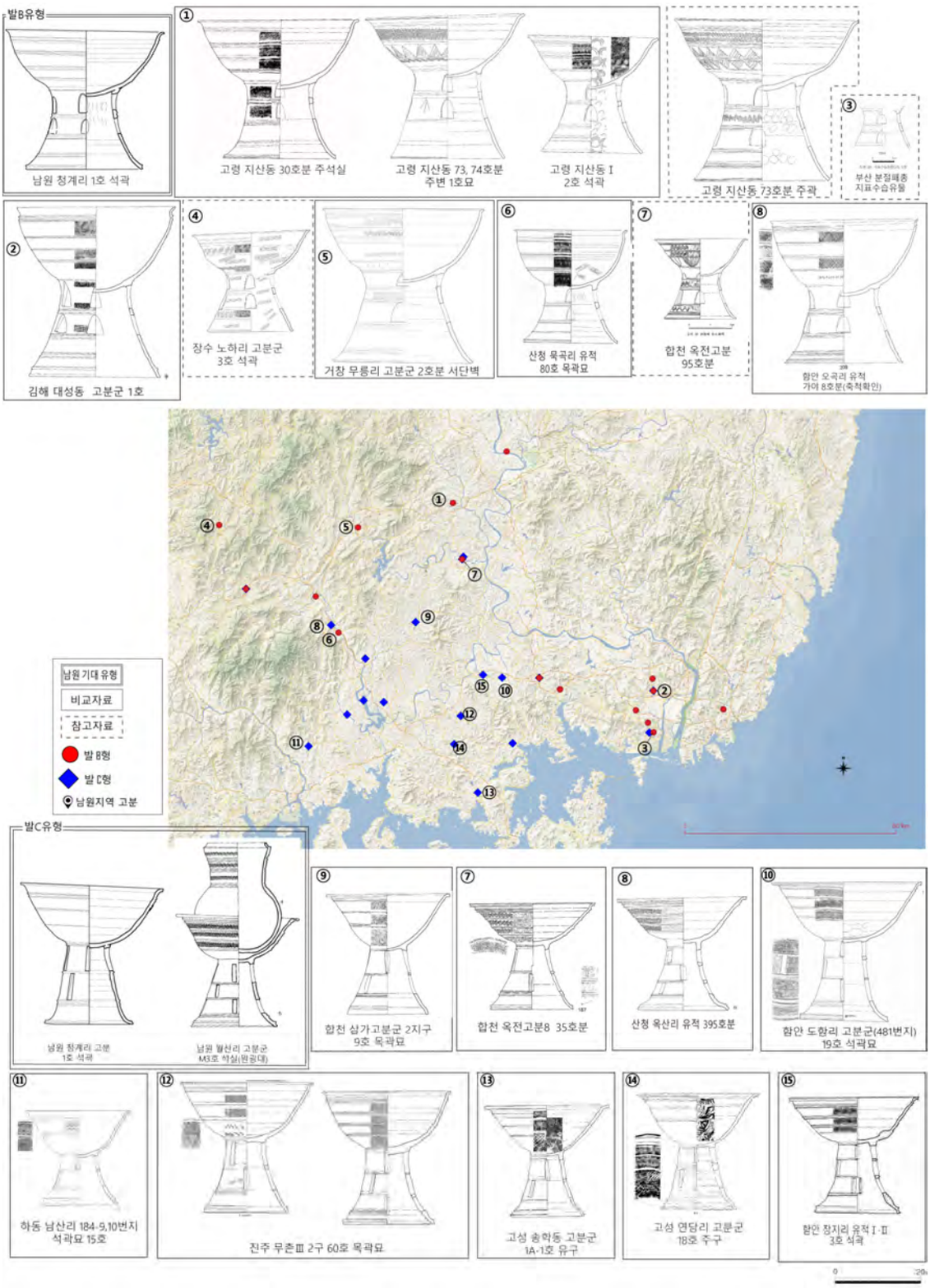
9) 대구 문산리 고분군 일대에서도 확인되나, 형태에 있어 비교하기 어렵다.

-1호분 출토품에서도 2개 이상의 문양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도면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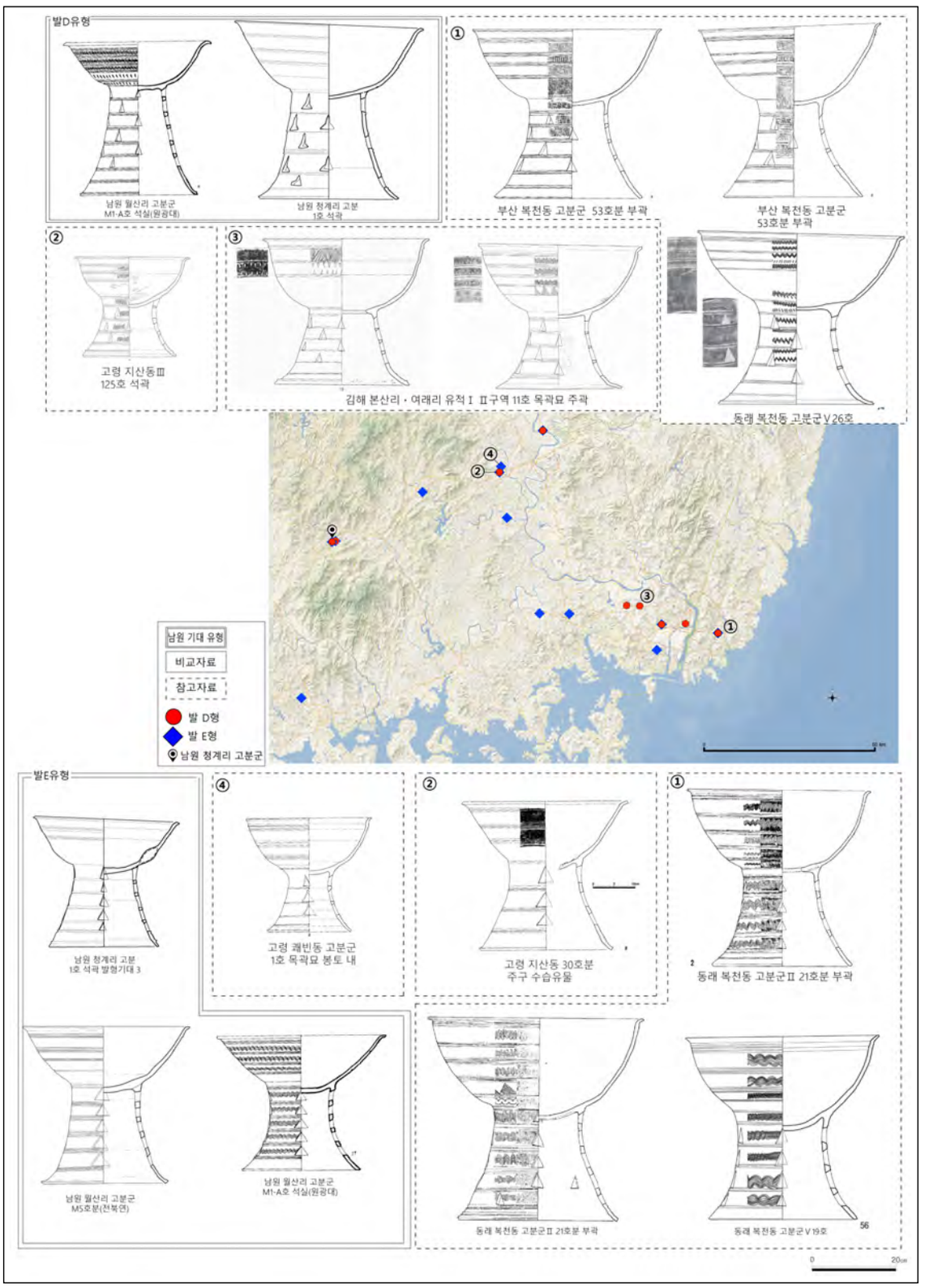
발E형 기대는 발D형과 같이 높은 대각을 가지고 있되, 대각의 삼각형 투창이 일렬로 배치된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도면 6). 발E형 기대는 발D형 기대의 투창과 같이 3단이 대부분이고, 4단 이상 뚫려 있는 경우가 드물다. 투창이 4단 이상인 기대도 부산지역에서 확인된다. 한편 남원 월산리 고분군 M5호분과 같이 발E형 기대를 대량으로 부장하는 고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발F형 기대는 다른 유형의 기대보다 대각 상부와 대각 하부 폭이 넓다. 수발부도 넓은 구경에 높이가 낮아 심도가 낮은 편이다(도면 7). 이 유형은 고령, 산청, 순천, 창원, 함양, 합천 등지의 유적에서 확인된다. 이 유형의 중심지는 합천지역과 고령지역으로 판단되고, 합천지역에서 고령지역보다 많은 유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유형은 수발부에 밀집파상문, 그 아래 단에 잎맥 형태의 (역)삼각집선문을 많이 시문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발F형 기대는 부곽에 동일한 형태의 기대를 대량 부장하는 경향이 강하다. 부곽의 기대를 대량 부장하는 사례는 부산 연산동 고분군 M4, M8, M10호에서도 확인되나, 수발부 형태와 장식에 있어 크게 다르다. 그렇지만 대형 기대인 점과 대각 상부와 대각 하부 폭이 넓다는 점에서 비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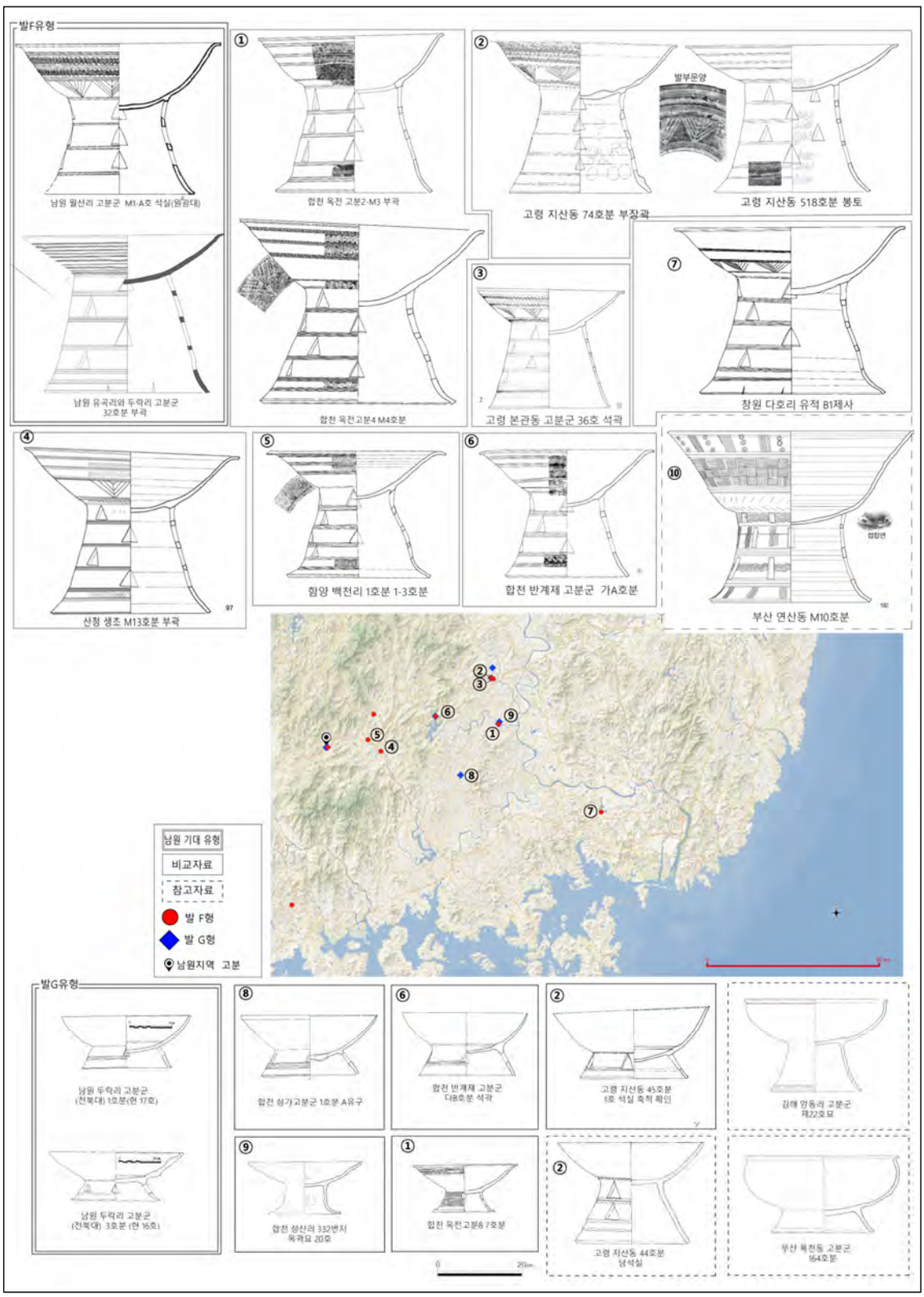
발G형 기대는 대각이 낮으면서, 수발부도 심도가 낮고, 구연은 꺾임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도면 7). 수발부에는 장식이 없고, 대각 문양 구획은 2단에 투창만 뚫는 경우가 많다. 고령·합천지역에서만 확인되고, 다른 발형기대에 비해 소수만 확인되었다. 문양이 없는 발형기대는 김해와 부산 일대에서도 일부 확인된바 있지만 고령, 합천, 남원 등지에서 출토된 것과 그 형태가 다르다.



도면 5. 발B·C형 비교자료



도면 6. 발D·E형 비교자료



도면 7. 발G·F형 비교자료

② 통형기대

통A형 기대의 비교자료는 복원도를 바탕으로 대각이 나팔형이고 통부는 원통형인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교한 기대 중, 통부는 원통형인 것도 있지만, 대각의 폭에 따라 하단이 벌어지는 것(나팔형)도 있다. 비교자료는 가야문화권에서는 김해, 부산, 창녕, 함안에서 출토된다. 고성 내산리에서도 출토되나 대각 하단에 비해 통부가 매우 좁아서 제외하였다. 대체로 신라문화권의 경산, 경주, 대구, 울산 등에서도 출토된다. 통A형에서 관찰되는 밀집파상문은 물레를 이용하여 한 번에 그려 낸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끊어서 그린 형태이다. 이런 종류의 문양은 김해 본산리·여래리 유적 Ⅱ-25호 목곽묘 발형기대 수발부 장식에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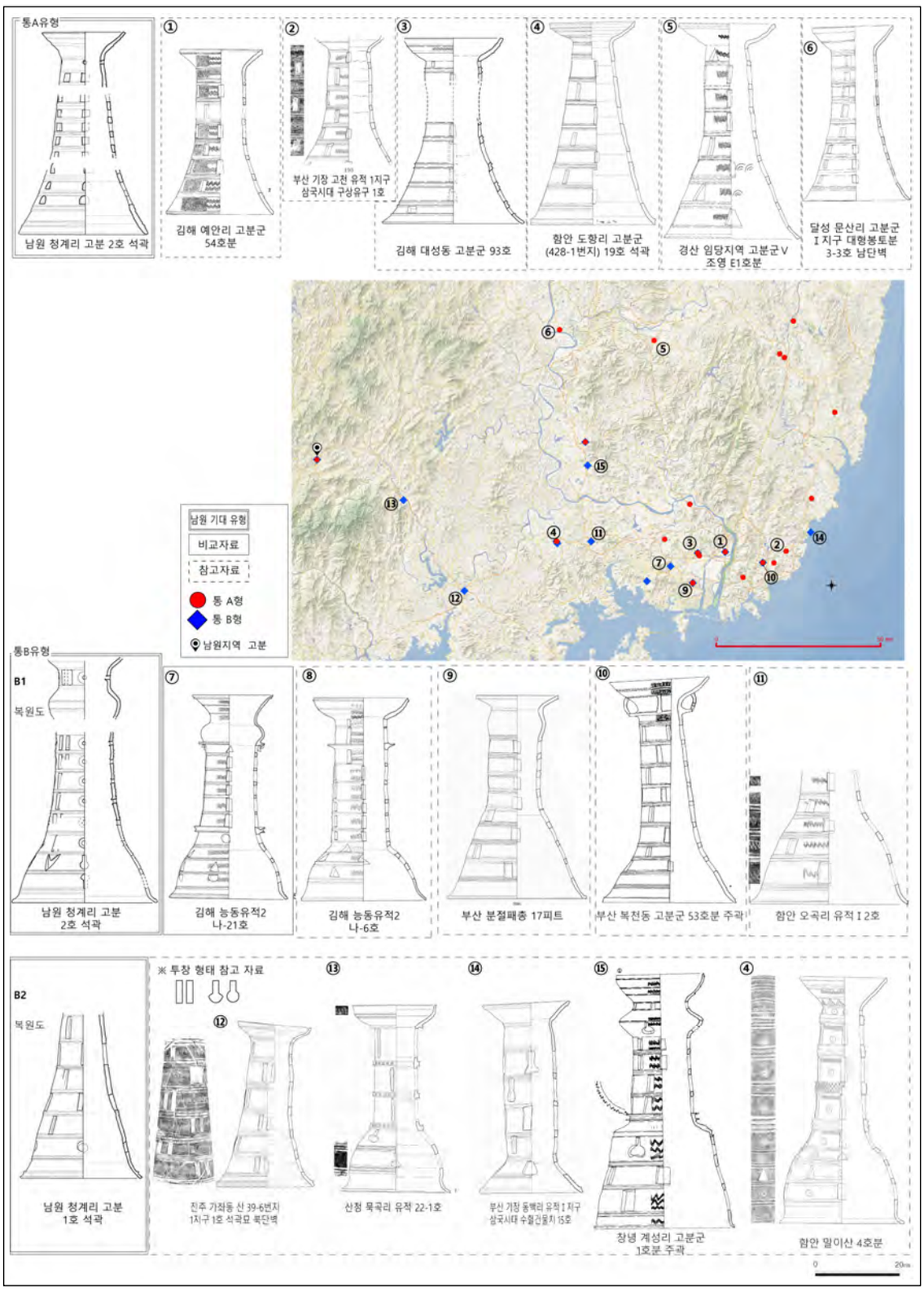
통B1형 기대의 대각은 통A형과 달리 외만하는 곡률을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다(도면 8). B2형도 비교자료를 검색해본 결과, 통B형과 비슷한 형태로 판단되나 대각의 시작이 높은 편이다. 통B형과 가장 비슷한 자료는 김해 능동 유적 Ⅱ-2호 석곽 출토품이 가장 유사하고, 참고자료 중 부산 분절패총 17pit의 호통부는 미약하게 형성되어 있다. 통B형의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 2호 석곽 출토품은 투창 형태가 매우 특이한데, 통부는 1쌍의 세장방형 투창과 원문·원형투창의 조합을 보이고 일부 대각의 투창은 부채꼴형과 V자형 투창도 관찰된다. 그리고 특수한 형태의 투창과 함께 파상문이 관찰되지 않는다. 기형과 문양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김해, 부산, 산청, 창녕, 함안 등지에서 확인된다. 이 유형의 주요 중심지역은 김해, 부산, 함안지역으로 판단되고, 김해, 부산지역의 영향을 받아 신라 지역에서 유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통C형은 자료를 검색한 결과, 통D형과 비슷한 유형으로 판단된다. 통D형은 구연부 높이가 높고, 상부에 호통부를 만들어 놓은 원통형 통부, 반장고형 대각의 기대를 비교 대상으로 검토하였다(도면 9). 비교자료는 고령, 합천, 순천, 함안, 의령, 창원, 진주 등지에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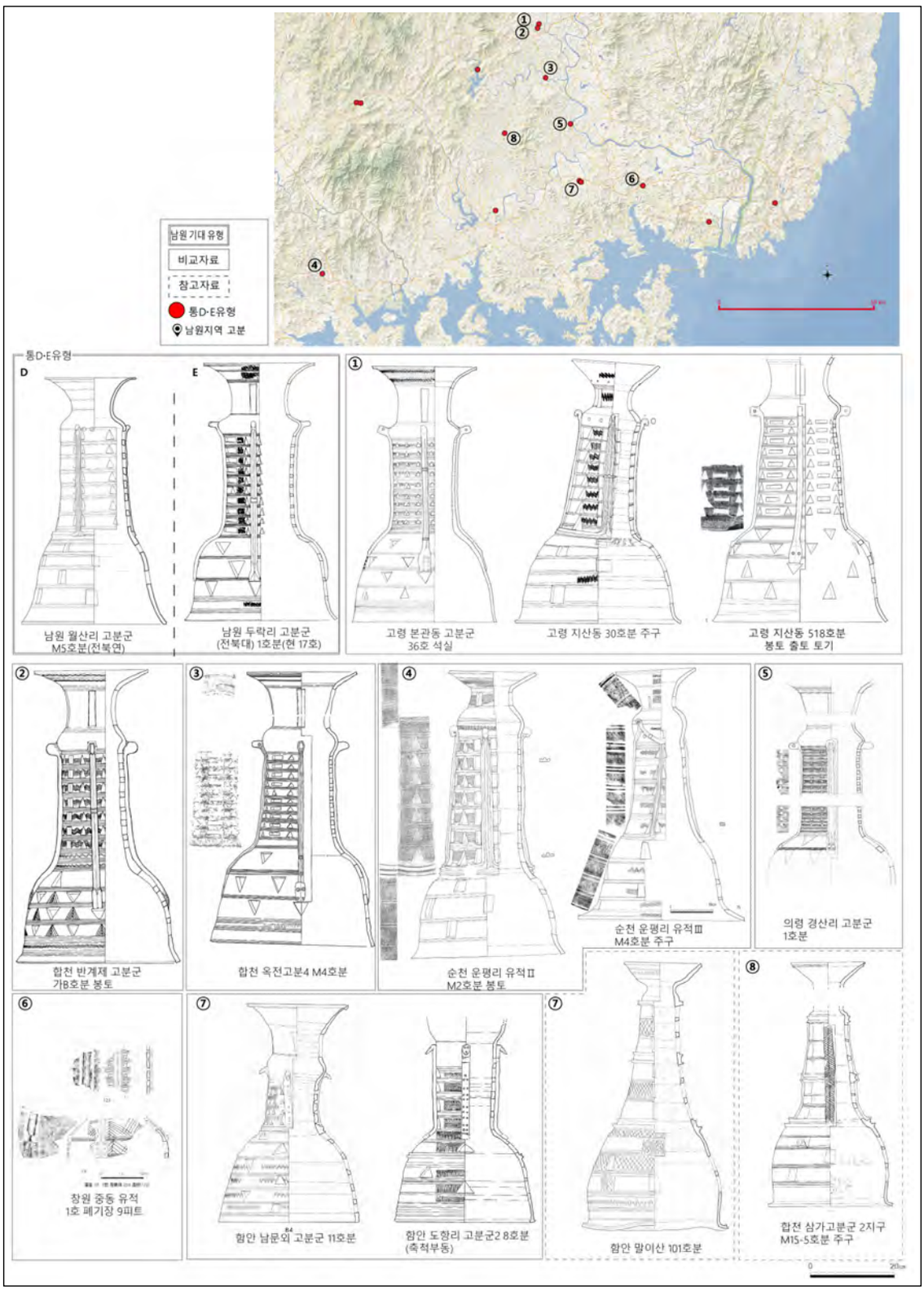
주요 중심지는 고령, 합천의 고분군으로 확인되고, 순천과 함안지역 출토품은 고령, 합천지역 기대를 모방하여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라문화권의 의령 경산리 고분군 1호분에서도 통D형의 기대가 확인되었다. 순천 운평리 유적 M4호분 출토품은 다른 통D형과 함안지역에서 유행한 통형기대의 조형이 조합된 양상을 보인다.

통E형은 수부와 대각으로 구성된 기대를 대상으로 비교하였다(도면 10). 이 유형은 소형기대와 유사하지만, 유개장경호, 단경호와 같은 중형토기들을 받치기에 알맞은 크기이다. 합천 창리 고분군 A-24호분에서는 유개장경호와 융착 된 채 출토되기도 하였다. 분포지역은 고령, 고성, 산청, 순천, 장수, 진주, 창원, 하동, 함양, 합천지역에서 출토되고, 부산지역 출토품은 앞의 지역에서 출토된 것에 비해 정연성이 떨어진다. 중심 분포지역은 합천 지역으로 판단되고, 남원, 산청, 순천에서 다수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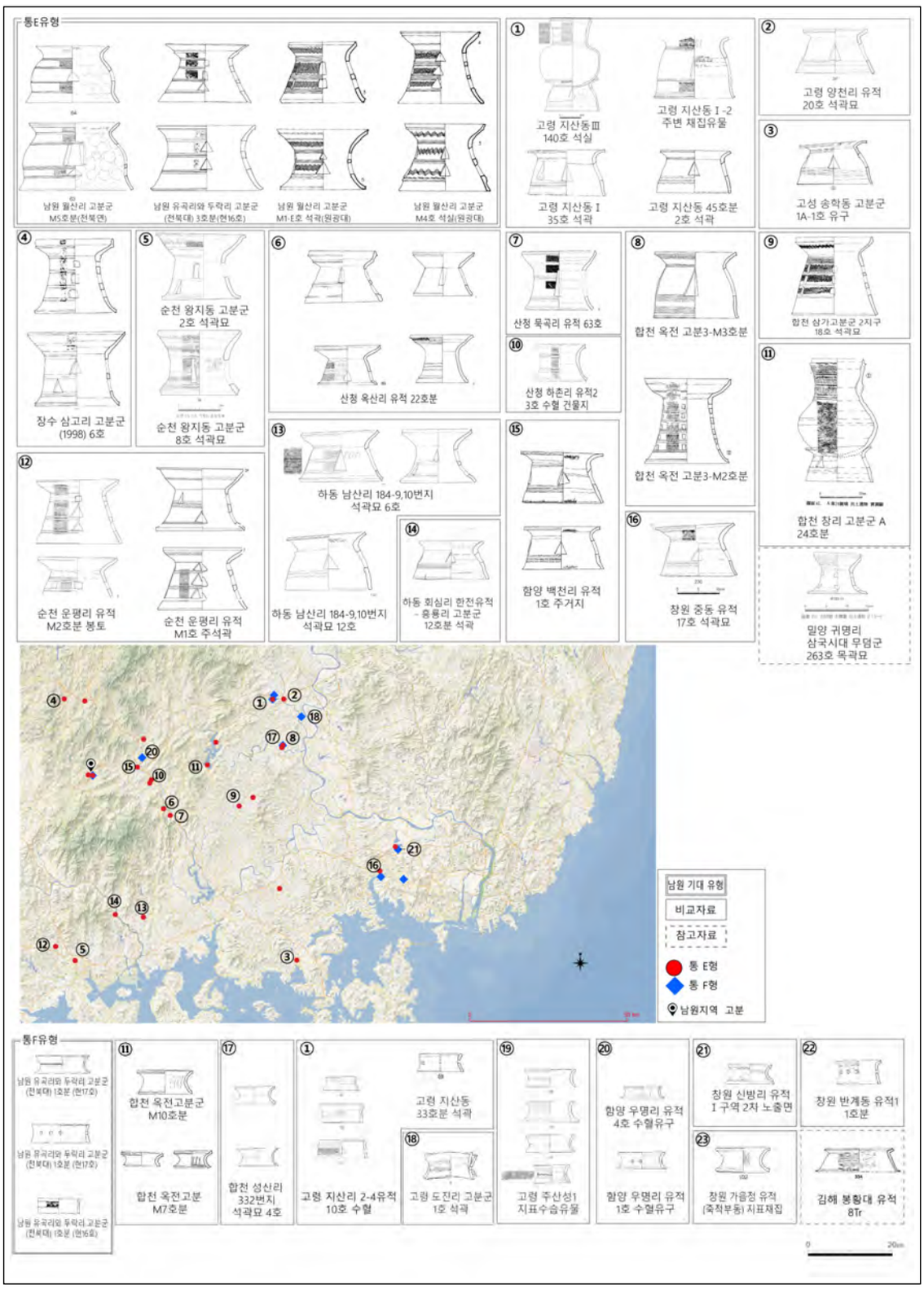
통F형은 일명 고리[環]형 기대로 불리우는 것으로 높이가 매우 낮고, 단순 토기 적재용에 가깝다. 일부 통F형의 기형은 통E형 기대를 축소시켜 제작한 것과도 같다. 분포지역은 고령, 김해, 창원, 함양, 합천 등지에 출토되고 있고 제작이 간단한 것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다.



도면 8. 통A·B형 비교자료



도면 9. 통C·D형 비교자료



도면 10. 통E·F형 비교자료

2) 연대 검토

이번 장에서는 기대의 각 유형별 분포와 사용기간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선 각 유형별 기대의 사용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기대가 부장된 유구의 연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장에서는 비교자료가 출토된 유구에 대한 기존의 편년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각 유형의 사용시점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참고한 편년 연구는 가야의 각 문화권에서 확인된 토기를 대상으로 교차편년을 실시한 연구성과를 반영하였다.[10)]

확인하고자 하는 기대의 사용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비교대상이 출토된 유구를 정리하고, 기존 편년 연구에 반영된 유구를 검색하였다. 직접 반영 가능한 유구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표 5>와 같이 빠른 시기(상)의 유구, 늦은 시기(하)의 유구의 시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각 유형별 상·하한연대에 대해서는 논의하기 어렵지만, 유형별 기대의 사용기간을 정리할 수 있었다.

<표 5>를 보았을 때 남원지역의 발형기대 발B·D·E와 같은 유형은 6세기를 전후한 시점에 발F형으로 교체되고, 그 시점에 발G형이 소수 제작되어 부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발B형과 발F형 분포영역은 <도면 5>, <도면 7>와 같이 거의 일치하므로, 가야권 일대의 발B형에서 발F형로 기대 교체 양상에 대해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5. 유형별 기대의 사용기간

	발B형	발C형	발D형	발E형	발F형	발G형	통A형	통B형	통C·D형	통E형	통F형
유구(상)	고령 지산동 30호	진주 우수리 18호	부산 복천동 53호분 부곽	부산 복천동 고분군 19호, 부산 복천동 21호 부곽	고령 지산동 44호분	고령 지산동 45호 석실	김해 예안리 138호분	부산 복천동 31호 부곽, 부산 복천동 21호 부곽	고령 본관동 36호, 합천 옥전 M4	합천 옥전 M3 고령 지산동 45호분	고령 지산동 33호분
유구(하)	고령 지산동 44호분	고성 연당리 18호분			합천 옥전 M4호	합천 삼가 1-A호 석곽	부산 복천동 4호분				합천 옥전 M10
박승규 안 (2010, 29~77p)	5C 2/4	5C 2/4	-	-	5C4/4	6C 1/4	4C 3/4	5C 1/4,	5C 4/4 (옥전M4))	5C 4/4, 6C 1/4	-
	5C4/4	6C 2/4	-	-	5C4/4	6C 2/4	-		6C 1/4 (본관동36호)		6C 2/4
박천수 안 (2010, 134p)	5C 2/5	5C 1/5	-	-, 4C 5/5	5C 5/5C	6C 1/5	-	4C 4/5, 4C 5/5	-, 6C 1/5	5C 5/5, 6C 1/5	-
	5C 5/5C	6C 1~2/5			6C 1/5	6C 2/5	5C 3/5				-
홍보식 안 (2014, 219p)	5C 3/4	5C 3/4	5C 2/4	5C 2/4, -	6C 1/4	6C 2/4		5C 1/4, 5C 2/4	6C 1/4, 6C 2/4	6C 1/4 6C 2/4	5C 4/4
	6C 1/4	6C 3/4			6C 2/4	-	5C 4/4				6C 3/4
종합	5C 1/4 ~ 6C 1/4	5C 1/4 ~6C 3/4	5C 2/4 이후	4C 4/4 또는 5C 2/4 이후	5C 4/4 ~ 6C 2/4	6C 1/4 ~ 6C 2/4	4C 3/4 ~ 5C 4/4	4C 4/4 ~	5C 4/4 ~ 6C 2/4	5C 4/4 ~ 6C 2/4	5C 4/4 ~ 6C 3/4
비고					부산 연산동 M3(5C 3/4, 홍보식 2014)						

통형기대 통A·B형은 대개 5세기 이후에 확인되고, 6세기 전후한 시점에 통E형으로 교체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고령·합천 지역은 부산·김해 또는 다른 가야지역과 달리 통형기대 부장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고령지역의 통형기대는 통D형의 성립과 함께 주로 분묘 주변에서 출토되고 있어, 부장이 아닌 분구제사에 사용되는 기물로 추정되고 있다.[11)] 물론 합천

10) 박승규, 2010, 『加耶土器 樣式 硏究』, 동의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박천수, 2010, 『가야토기』, 진인진.
홍보식, 2014, 「신라·가야 고분 교차편년」, 『嶺南考古學』70, 嶺南考古學會.

지역에서는 고령과 달리 통부를 갖춘 통형기대가 확인되나, 대개 합천 삼가고분군 II-M15-5호분 주구 출토품(도면 9)과 같이 다른 문화권의 기대들을 모방하여 제작한 것이다. 통E형은 통C·D형의 성립과 함께 부장된 것으로 보이고, 통C·D형과 달리 중소형의 많은 고분에서도 부장되는 양상을 띤다. 통F형도 통C·D·E형과 비슷한 시점부터 부장되기 시작한다.

4. 기대의 계통과 가치

1) 남원지역 기대의 계통

이전 장의 정리와 논의 토대로 남원지역 출토 기대의 계통과 사용 시기, 분포를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남원 지역에서는 대가야(발B·F·G형/통C·D·E·F), 소가야(발C형) 계통의 기대가 확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발D·E/통A·B형의 계통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남원과 인접한 지역인 아닌 김해·부산에서 확인되므로, 금관가야 계통의 기대라 추정된다.

표 6. 남원지역 기대의 계통과 분포지역

기대 종류 \ 계통·시기·분포		출토 유구	주요 계통	사용시기	분포(유행지역)		비고
					중심권	영향권	
발형기대	발A형	-청계리 청계고분 2호	현지제작? (금관가야?)		-	-	대가야계 발형기대 동반
	발B형	-청계리 청계고분 1호	대가야	5C 1/4 ~ 6C 1/4	고령	거창 경산, 김해, 남원, 대구, 마산, 부산, 산청, 장수, 함안, 합천, 남원	
	발C형	-청계리 청계고분 1호 -남원 월산리 M3, M5	소가야	5C 1/4 ~6C 3/4	진주, 고성	김해, 마산, 보성, 부산, 산청, 진주, 하동, 함안, 합천, 남원	
	발D형	-청계리 청계고분 1호 -월산리 M1-A	현지화 (금관가야?)	5C 2/4 이후	부산, 김해	범 가야권	
	발E형	-청계리 청계고분 1호 -월산리 고분군 M1-A -월산리 M5	현지화 (금관가야?)	4C 4/4 또는 5C 4/4 이후	부산, 김해	범 가야권	
	발F형	-월산리 고분군 M1-A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32호 부곽	대가야	5C 4/4 ~ 6C 2/4	고령, 합천	산청, 순천, 함양, 남원, 창원	
	발G형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1, 3호분 (현 17, 16호)	대가야	6C 1/4 ~ 6C 2/4	고령, 합천	남원	
통형기대	통A형	-청계리 청계고분 2호	금관가야?	4C 3/4 ~ 5C 4/4	부산, 김해?	창녕 함안, 남원 등	
	통B형	-청계리 청계고분 1, 2호	금관가야?, 아라가야?	4C 4/4 ~	김해, 부산, 함안	남원	
	통C·D형	-월산리 고분군 M5호분 -월산리 고분군 M1-E, M5, 3 4, 5호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1호분 (현 17호) -대곡리 유적 나-1호 주거지	대가야	5C 4/4 ~ 6C 2/4	고령, 합천	순천, 함안, 의령, 창원	
	통E형	-월산리 고분군 M1-A -유곡리 및 두락리 고분군 32호 부곽	대가야	5C 4/4 ~ 6C 2/4	고령, 합천	김해, 창원, 함양	
	통F형	-두락리 고분군 1, 3호분 (현 17, 16호)	대가야	5C 4/4 ~ 6C 3/4	고령, 합천	김해, 창원, 함양	

11) 朴天秀(1994) 「伽倻・新羅地域の首長墓における筒形器台」 『考古學研究』第40卷 第4号, p.46.

지금까지 조사된 각 고분군에서 확인된 기대의 계통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각 고분군의 조영 순서는 청계리 청계고분군 → 월산리 고분군 →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으로 판단되는데, 조영순서를 참고하면 부장된 기대의 계통이 점차 대가야 계통으로 대체되어 가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표 7.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 남원 월산리 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기대 계통과 특징 비교

고분군 / 계통	청계리 청계고분군	월산리 고분군	유곡리 및 두락리 고분군
	1호, 2호	M3, M4, M5, M6, M1-A, M4,	32호, 1호분(현17호), 3호분(현16호)
발형	금관가야?, 대가야, 소가야	금관가야(현지화), 소가야(현지화), 대가야	대가야
통형	금관가야?, 아라가야?	대가야	대가야
특징	다양한 형태의 기대를 부장	현지 제작된 기대부장, 대가야계 기대를 부장하기 시작 일부 매장시설에서 동일한 형태의 기대를 복수 부장하는 양상 확인(M5)	대가야 기대 부장 32호 부곽에 발F형 기대를 대량 부장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 1, 2호 석곽은 다른 고분군에 비해 기대의 계통이 복합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 2호 석곽에서 출토된 통형기대는 금관가야 기대의 기형과 아라가야의 원문·원형투창[동심원문]과 같은 요소도 관찰된다. 이러한 요소는 인접한 지역에서 크게 유행하지 않았으므로, 금관가야나 아라가야 지역으로부터의 제품 또는 공인의 이동과 같은 직접적인 연관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2호 석곽에는 <도면11-①>과 같은 발형기대의 수발부도 확인되었는데, 기형과 문양구성에 있어 합천 삼가 2지구 지표수습품과 동일하다. 물론 각각의 기대는 각기 다른 계기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합천과 연관된 발형기대로 미루어 보아 2호 석곽은 합천지역을 경유하여 금관·아라가야 계통의 기대가 부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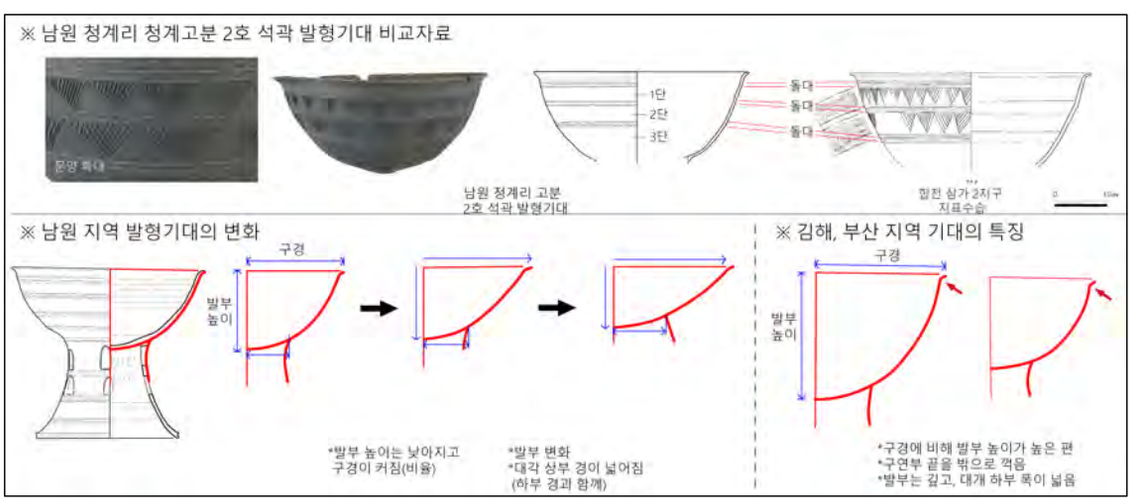
1호 석곽 출토 기대는 2호 석곽 출토품과 그 형태가 전혀 다르다. 발형기대에서는 고령과 진주지역 출토품과 직접 비교 가능한 기대가 확인되었다. 1호 석곽의 발B형 기대는 대가야계 고령 지산동 30호분, 발C형은 남해안의 가야권 일대에 분포하는 소가야계의 발형기대와 비교 가능하다. 참고로 소가야계 발형기대들은 수발부와 대각이 거의 흡사한 조형을 갖추고 있는데, 기형은 물론이고 문양배치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다. 심지어 수발부의 구순부 바로 아래 2줄의 돌선을 배치하는 것마저 일치하고 있다. 1호 석곽의 이 두 기대는 특정지역으로부터의 유통으로 입수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영향권 지역에서 발B·C형의 기대를 모방하여 제작한 정황이 확인되기도 한다.

남원 월산리 고분군 기대는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 1호 석곽의 발D·E형의 기대제작 기술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고,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 1호 석곽의 기대와 2호 석곽의 발A형도 기대 현지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남원 월산리 고분군의 M3, M5호분에서 소가야계 기대가 확인되기도 하는데. 남원 월산리 M3호분 출토품은 다른 소가아계 발C형에 비해 대각 상부 폭과 하부 폭보다 넓은 편이므로, 모방하여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원 월산리 고분군에서는 부장하기 위한 기대를 직접 현지에서 제작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남원 월산리 고분군의 발형기대에서는 대가야 발형기대처럼 점차 수발부 높이가 낮아지고 구경이 커지고, 대각 상·부 폭이 넓어지는 경향이 확인(도면 11-②)는데, 대가야계 발형

기대의 변화와 관련 있다고 판단된다. 남원 월산리 고분군에 묘지를 조영한 세력에 의해 점차 발F형, 통C·E형와 같은 대가야계 기대가 부장되기 시작한다.

다만 대가야계의 통C형은 고령이나 합천 등지에서 확인되는 남원 두락리 1호품과 같은 통D형의 출토품과 형태와 문양이 다르다. 통D형의 전형을 따라 모방하여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사례는 순천 운평리 유적 M2, M4호에서도 확인된다. 대개 통D형은 구연부에 투창을 뚫지만 남원 통C형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통부와 대각의 연결부와 통부의 투창 형태가 특이하다. 지금까지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모방제품으로 현지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에서도 발F형·통E형와 같은 대가야계 기대가 함께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원 월산리 고분군에서 확인되고 있는 발D·E형의 기대를 확인되지 않고, 발G형, 통D·E형과 같은 전형적인 대가야계 기대가 확인된다. 발D·E형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현지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남원 두락리 고분군의 조영 세력에게서는 인근의 남원 월산리 고분군 조영세력에 의한 기대 제작기술의 계승관계는 관찰되지 않는다.



도면 11. ①남원청계리 청계청계고분 2호 석곽 발형기대 비교자료, ②남원지역 발형기대의 변화, ③ 김해, 부산지역 기대의 특징

2) 가야 기대의 유통 가능성과 부장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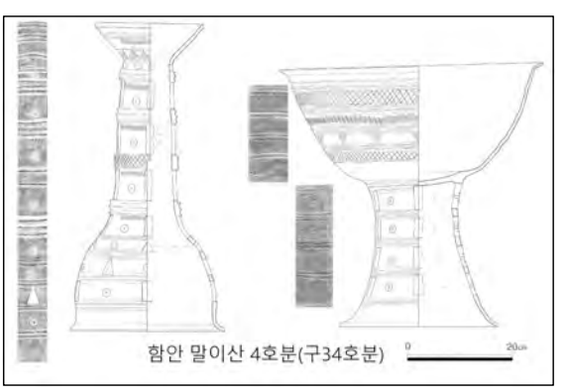
본 발표의 마지막으로 남원지역 기대를 검토하면서 생긴 2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매장시설에 부장된 다른 집단의 기대에 대한 문제로, 어떠한 배경으로 입수하였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 부분은 주요 생산지의 토기 유통에 대한 논의와 연관이 있다. 토기의 유통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유통 체계의 배후에는 사고파는 행위가 아닌 증여 또는 교환을 상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둘째, 기대의 부장과 그 가치에 대한 문제이다. 가야권과 신라권에서는 다수의 고분에서 기대를 부장하는 습속이 관찰된다. 이 습속은 마한·백제권과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본 발표에서는 남원지역 기대 부장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① 기대의 유통 가능성

발B·C·F, 통D형은 중심권 기대의 특징과 매우 일치하고 있다. 남원지역에서 확인되는 이 유형의 기대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통되었거나, 현지세력의 노력에 의해 입수했을 수도 있다. 그중 발B·C양식의 분포 범위(도면 5)는 구분되는 양상을 띠기 때문에 중심권으로부터의 유통을 상정할 수 있다.[12] 만약 기대의 유통이 교환 또는 증여로부터 성사되었다면, 증여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답례를 통한 양 집단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고, 양 지역 간의 상호교류에 대해서 상정할 수 있다. 또한 특정지역의 한 계층에 있어서 기대를 부장해야 한다는 습속이 있고, 타 집단을 대표하는 기대를 부장하는 것이라면, 이는 타 집단에 대한 존중, 우호, 종속 등과 같은 정치적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고유의 기대를 제작하고 의도적으로 유통하였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일부 기종은 현지에서 모방하여 제작하기 때문에, 발B·C·F형, 통D형 중에서도 유통의 결과로 단정 짓기 어려운 사례도 존재한다. B형은 장수 노하리 고분군 3호 석곽, 김해 대성동 고분군 1호, 김해 화정유적 Ⅱ-21호분, 마산 합성동 유적 100호, 함안 오곡리 유적 8호분 출토품 등, C형식은 하동 남산리 184번지 석곽묘 15호, 합천 삼가고분군Ⅱ-Ⅰ-6호 목곽묘, 남원 월산리 M5호 등이 현지에서 모방하여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현지에서 특정 지역의 기대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도 가야권의 부장된 기대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야지역에서는 특정시기 동안에는 다양한 집단에서 제작된 기대를 부장하는 유행이 있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 기대의 유통과 모방제작이 실시되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령, 합천을 위시한 대가야, 진주 일대의 소가야 기대는 독특한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가치에 따라 다른 집단 간에 증여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타 집단에서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은 기대가 일종의 가치물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도면 12. 함안지역 통형기대와 발형기대

한편 함안 일대의 아라가야는 다른 가야권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발형·통형기대(도면 12)를 부장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기대는 다른 지역에서 확인되지 않고, 함안지역에서만 확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사례는 가야권에서는 특정 기대를 생산하는 집단과 다른 집단 간의 유통이 가야권에서 반드시 일반적인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집단 사이의 기대 유통에 대해서는 주체 집단의 특별한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도 염두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남원지역에서 기대 부장의 가치와 의미

남원 아영면 일대의 청계리 청계고분군, 월산리 고분군,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에서는 발형·통형기대 부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지역의 일부 기대는 다른 집단으로 증여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상정해볼 수 있다. 가야권에서는 기대는 부장품목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에 일종의 가치물로서 증여관계를 성사 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되고, 이에 따른 특정 집단 간의 문화·사회적 교류도 염두에 둘 수 있다. 따라서 각각 조영세력이 다른 고분군들 사이에서는

12) 한편 소가야권에서 발B양식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보았을 때, 각 집단 가이에 기대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 교환하는 행위는 흔하게 있었던 일로 보기 어렵다.

외부 집단에 의한 영향력과 각 집단 간의 다른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어, 기대의 구성도 서로 다르다고 생각된다. 좀 더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각 연구대상인 세 고분군은 조영시점이 다르고, 일부 분묘에서 조영시점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 고분군은 서로 다른 집단 또는 동일 집단에서 분화된 다른 집단에 의해 축조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각 고분군의 기대를 부장하는 양상은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세 고분의 기대 부장과 그에 따른 의미와 가치는 다음과 같다.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은 6기의 고분 중, 2기만 조사되었고 대부분 도굴로 인해 교란되었다.[13] 그러나 1, 2호 석곽에서 부장되는 기대의 형태는 모두 다르고, 계통도 다르다. 따라서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발형·통형기대를 부장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양상은 1호 석곽의 발형기대에서 두드러지는데, 다른 남원지역 고분들과 다르다. 특히 가야권에서 발B·C형 발형기대가 동반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2호 석곽의 통B1형 기대는 여러 가야권의 독특한 문양이 복합된 양상을 보인다. 청계리 청계고분군의 기대 부장에는 다양한 집단의 특징적인 기대와 장식들이 복합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함께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에서 출토되는 1호 석곽의 발D·E형도 현지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발A형을 비롯한 2호 석곽의 통형기대들도 현지 제작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호통부가 확인된 통형기대는 다른 가야문화권의 기대의 장식과 복합적인 양식을 보이고, 인접한 집단에서 직접 비교 가능한 사례가 관찰되지 않는다. 독특한 형태와 장식은 다른 집단과 구분되는 기대를 제작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결과로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의 발D·E형, 특히 발E형은 남원 월산리 고분군 부장된 기대와 서로 유사성으로 보았을 때, 남원 월산리 고분군으로의 제작기술의 이전 또는 계승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다.

남원 월계리 고분군은 현지 제작으로 추정되는 기대 부장을 확인할 수 있다. 외부 계통은 발C·F형, 통C·E형 기대뿐이다. 그중 M5호분에서 출토된 통C·E형도 고령·합천지역의 것을 모방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월계리 고분군에서는 현지 세력의 주도하에 발형·통형기대를 제작하여 부장하였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로 보아 일부 대가야권에서 유행하는 기대를 모방하여 제작한 후, 부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M5호분에서는 동일한 발형기대를 대량으로 제작하여 부장하는 양상이 관찰되는데, 발F형을 제외하면 고령 지산동 73·75호 부곽, 합천 옥전 M23, 동래 복천동 고분군 10·21·53호분 부곽에서 확인된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기대는 대형기대인 발F형과 통D형를 비롯하여 대가야 기대의 전형을 따르고 있다. 비록 대부분의 고분은 도굴되었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남원 유곡리·두락리고분군 기대에서는 앞의 두 고분과 달리 현지에서 제작되었을 요소를 확인하기 어렵다. 물론 남원 유곡리·두락리 기대도 현지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대가야 양식의 강한 영향력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기대를 부장하는 전통을 유지하고, 대체로 대가야 집단과 동일한 양상을 따르고 있다.

32호분 부곽에서는 발F형의 기대를 대량 부장하는 것도 대가야 집단과 동일한 양상이다. 그러나 발F형 기대의 중심권인 고령과 합천지역보다 주변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양이 부장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발F형의 영향권 내의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32호분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고분으로는 함양 백천리 고분군 1-3호군, 산청 생초 M13호 사례를 들 수 있고,

13) 남원시청·해원문화재연구원, 2015, 「남원 두락리 및 유곡리 고분군 주변 문화재-고분 분포 조사 보고서」, 83~87쪽

모두 부곽에서 확인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로는 영향권지역에서 발F형을 부곽에 대량 부장하는 사례는 동일 고분군 안에서는 한 곳의 고분에서만 확인되어 일회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면 발F형과 같은 대형 발형기대를 대량 부장하는 경향은 부산 연산동 고분군에서도 관찰되는데, 일회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M3·M10에서 M8분으로 연이어 부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기대의 대량 부장은 부산과 고령·합천 지역과 같은 전문화된 작업공방과 함께 막대한 자원을 소비하는 가마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집단에서 가능하다. 이들 지역에서 기대를 부장하는 고분이 많다는 점은 이를 증명해준다. 따라서 토기의 대량제작은 가야권 내에서 대부분의 다른 지역에서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대형기대의 대량 부장은 영향권 내의 집단에서는 과도하게 부를 과시하는 양상으로 상정할 수 있다. 즉 남원과 함께 인접한 함양, 산청의 일대의 고분군에서 보이는 대형 기대의 부장은 조영세력들 사이에 있었던 경쟁적인 부의 과시 행위에 대한 증거로 볼 수 있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32호분의 피장자 또는 장례주관자는 당시 남원-함양-산청 일대에 있었던 이러한 경쟁에 참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발F형 기대의 유통은, 대량의 기물로 미루어 봤을 때, 집단 간의 교류가 큰 규모로 성사되었을 가능성을 열어준다.

6. 맺음말

본고에서는 남원지역 기대의 계통과 구성에 대해서 다른 지역 사례와 비교하여 접근하였다. 검토한 결과, 3개의 고분군은 인접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대의 계통과 몇몇 고분에서 보이는 구성이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대가야 토기 양식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생기는 차이로 인식되는데, 각 3개의 고분군마다 영향력을 반영하는 정도가 달랐다. 따라서 3개의 고분군은 서로 다른 조영세력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다른 집단들 간의 기대 부장 패턴의 몇 가지 차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과 남원 월산리 고분군에서는 현지에서 기대를 제작하고 일부 대가야 기대를 모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남원지역 세력의 주도하에 있었던 기대 제작과 부장에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도 경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남원지역에서 확인되는 대가야권의 발B·F형과 통D형, 소가야권 발C형와 같은 사례를 통하여 특정기대가 중심권지역에서 다른 주변지역으로 유통하는 상황에 대하여 유추할 수 있었다. 일부 지역의 특정 기대를 모방하여 제작한 것은 유통에 대한 영향으로 보인다. 특정집단을 대표하는 기대의 유통과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을 미루어 보아, 가야 사회 내부의 기대의 비중과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대는 가야 집단들 간의 증여의 대상이 되는 가치물로 볼 수 있고, 대형기대인 발F형은 기대를 중심으로 큰 규모의 교류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 고대 가야 사회에서 기대가 갖는 가치와 그 의미에 접근하고자 남원지역 기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가야 지역 내의 모든 기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반영되지 못하였지만, 기대의 유통 가능성과 동일 지역 내에서 기대와 관련된 부장습속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대를 둘러싼 고대 가야사회의 각 집단 간의 교류와 그에 따라 수반되는 행위, 즉 증여와 같은 집단 간의 호혜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상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 가야 사회에서 기대가 갖는 의미와 각 집단의 기대에서 관찰되는 유통 또는 증여 관계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박천수, 1999, 「기대를 통하여 본 가야세력의 동향」, 『가야의 그릇받침』, 국립김해박물관.

박천수, 2009, 「5~6세기 대가야의 발전과 그 역사적 의미」, 『고령 지산동 44호분』, 경북대학교 박물관.

박천수, 2010, 『가야토기』, 진인진.

보고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9,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남원시청·해원문화재연구원, 2015, 「남원 두락리 및 유곡리 고분군 주변 문화재-고분 분포조사 보고서」.

학술지 게재논문

이희준, 2008, 「대가야 토기 양식 확산 재론」, 『영남학』13, 영남문화연구원.

이성주, 2009, 「新羅·加耶 土器樣式의 生成」, 『韓國考古學報』72, 韓國考古學會.

박천수, 1994, 「대가야권 기대의 편년」, 『한국고고학보』39, 한국고고학회, 102-103p.

朴天秀, 1994,「伽倻・新羅地域の首長墓における筒形器台」, 『考古學硏究,』第40卷 第4号, 考古學硏究會編集委員會.

이성주, 2004, 「技術, 埋葬儀禮, 그리고 土器樣式」, 『韓國考古學報』52, 韓國考古學會.

이성주, 2009, 「新羅·加耶 土器樣式의 生成」, 『韓國考古學報』 72, 韓國考古學會.

조성원, 2014, 「삼국시대 영남지역 도질토기 생산체계와 유통」, 『영남고고학』89, 영남고고학회.

홍보식, 2014, 「신라·가야 고분 교차편년」, 『嶺南考古學』70, 嶺南考古學會.

학술대회 게재논문

이건용, 2020, 「남원 청계리 고분군 출토유물 연구」, 『남원 월산리 청계리 고분군 역사적 가치와 의미』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군산대학교가야문화연구소.

조성원, 2018, 「소가야 토기의 생산과 유통」, 『소가야의 고분문화와 대외교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조성원, 2019, 「토기생산으로 본 가야와 왜의 토기 문화」, 『가야와 왜의 토기 생산과 교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야문물연구원.

학위논문

姜允錫, 1999, 「新羅· 가야古墳에 나타난 祭祀儀式에 關한 硏究 」, 한양대학교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박승규, 2010, 『加耶土器 樣式 硏究』, 동의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남원지역 출토 기대에 대한 검토에 대한 토론

박천수(경북대학교)

남원지역을 비롯한 호남 동부지역은 종래 백제 영역으로 파악되어왔다. 이는 장수 봉서리 출토 금제 수식부이식이 가야양식임에도 불구하고 백제 이식으로 분류되어 온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는 1982년 남원 월산리고분군 발굴조사이다. 이 조사를 통하여 남원지역이 가야문화권에 속하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 후 두락리고분군과 월산리고분군, 근래 청계리고분군의 조사에 의해 그 내용이 구체화되었다.

발표자는 최근 조사된 청계리고분군 등 남원지역 고분 출토 기대에 대하여 상세하게 분석한 후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첫째, 발표자는 남원지역 고분 출토 기대의 계통과 구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청계리, 월산리, 두락리고분군은 인접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대의 계통과 몇몇 고분에서 보이는 구성이 다르며, 이러한 차이는 대가야 토기 양식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생기는 차이로 인식되는데, 각 3개의 고분군마다 영향력을 반영하는 정도가 달랐다. 따라서 3개의 고분군은 서로 다른 조영세력으로 본다고 하였다.

토론자는 두락리와 월산리고분군 축조세력은 하천을 사이에 두고 이격되어 있고 중심 축조시기가 다른 점에서 별개의 집단으로 본다. 그러나 월산리와 청계리고분군은 인접하고 토기양식이 유사하여 같은 집단으로 본다.

즉 월산리에 고총이 본격적으로 축조되는 시기는 5세기 중엽이며, 두락리는 5세기 후엽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5세기 전반까지 아영지역의 중심세력이 월산리세력이었으나, 5세기 후반 두락리 세력으로 교체되는 것을 반영한다고 본다.

월산리고분군과 청계리고분군은 후자가 선행하나 양자의 공통점은 소가야양식 발형기대와 소가야, 다른 가야지역양식을 절충하여 만든 발형기대 발표자의 청계리 청계리 1호묘, 월산리 M1-A호묘 출토품과 같은 D형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자 한다.

둘째, 근래 조사된 청계리고분군의 발굴성과는 매우 중요하다. 5세기 전엽 청계리2호묘에서는 아라가야양식의 차륜형각배, 통형기대, 금관가야양식의 발형기대가 부장되었다. 5세기 중엽 청계리1호묘에서는 소가야양식의 발형기대와 통형기대, 대가야양식의 발형기대가 부장되었다.

5세기 후엽 월산리M1-A호묘에서는 소가야양식 발형기대와 함께 대가야양식 발형기대가 부장되었으며, 5세기 말 월산리M5호묘에서는 대가야양식 발형기대와 함께 대가야양식 통형기대, 대가야산 금제 수식부이식이 부장된 것이 확인되었다.

종래 토론자는 호남동부지역에 대하여 4세기 아라가야, 5세기 전반 소가야, 5세기 후반 대가야와 이 지역 세력이 시기별로 관계망속에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자 한다.

셋째, 근래 전북가야론이 대두되어 전북지역이 가야와 백제 사이의 독립된 세력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토론자는 5세기 후반 이래 이 지역은 대가야권역내 하나의 세력으로 판단한다. 왜

냐하면 순천 운평리고분군의 축조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호남동부지역은 전북과 전남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크게 하나의 대가야권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는 호남동부지역이 5세기 후반이래 대가야의 묘제와 토기, 금제 수식부이식, 철제 무기무구, 마구의 분포권내에 포함되는 것과 문헌사료에서 이 지역이 伴跛 즉 加羅인 대가야의 영역으로 기술된 것에서 알 수 있다.

발표자는 가야지역에서 수장묘에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기대를 분석하였다. 기대는 가야 각 세력 수장의 표상으로서의 토기이다. 발표자의 분석 결과로 볼 때 과연 전북가야론이 성립 가능한지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자 한다.

Part
07

남원 월산리 고분군 · 청계리 고분군 출토 철제 무구의 종류와 의미

- 발 표 : 유영춘 |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토 론 : 조대연 | 전북대학교

남원 월산리고분군・청계리 고분군 출토 철제 무구의 종류와 의미

유영춘(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목 차

1. 머리말
2. 고분의 편년과 철기유물의 현황
3. 철제 무구의 비교・검토
 1) 마구(馬具)
 2) 도(刀)
 3) 철촉・성시구(鐵鏃・盛矢具)
 4) 철모(鐵矛)
 5) 종장판주(縱長板冑)
4. 철기유물의 변천과 생산배경
5. 맺음말

1. 머리말

‘철의 왕국’으로 불리는 가야는 철 및 철기의 제작과 유통을 통해 성장한 연맹체로 알려져 있다.[1] 가야의 철 생산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제철유적(製鐵遺蹟)의 조사 사례가 많지 않으나, 고분에서 출토된 다양한 철기 유물들을 통해 그들의 고도화된 기술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제철이 연맹체의 성장 동력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남원 청계리, 월산리 고분군은 운봉고원을 기반으로 성장한 가야 지배자의 무덤이다. 비록 도굴되어 많은 유물이 유실되었으나 월산리 고분군에서 무구(武具)[2], 농공구(農工具) 등의 철기가 출토됨에 따라 운봉고원의 가야인들도 제철을 통해 국방력과 생산력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동안 이 지역의 철기는 대가야에서 제작된 ‘완제품이 이입’되었거나 모두 ‘대가야의 기술을 모태로 제작’되었다는 인식이 강하였다. 그러나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대가야 이외에 주변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 철기가 출토되어 보다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청계리, 월산리 등 운봉고원에서 출토된 철제 무구의 검토를 통한 유물의 계보 및 교류관계, 의미 등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격적인 검토에 앞서 공반된 토기 및 위세품 등을 검토하여 철제 무구가 출토된 고분의 연대를 설정하고, 철제 무구의 출토

1) 金泰植, 1993, 『加耶聯盟史』, 일조각, 95쪽; 노중국, 2004, 「대가야의 성장기반 -4세기를 중심으로-」, 『대가야의 성장과 발전』, 고령군·한국고대사학회, 28~30쪽; 신동조·장기명, 2016, 「가야의 철생산과 철기문화」, 『가야고고학개론』, 진인진, 442·443쪽.

2) 무구란 전쟁에서 쓰는 도구를 통틀어 지칭하는 용어로 본고에서는 마구, 도, 철촉, 철모, 종장판주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현황을 종류별로 정리한다. 그 후 다른 지역 출토품과 비교・검토하여 주변과의 관련성을 찾아보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변천과 교류 관계, 의미를 살펴본다. 더불어 지질, 지리, 지표조사 자료 등과 접목하여 철제무구의 생산배경을 추론하고자 한다. 이 지역 철제 무구의 변천과 의미를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남원 두락리 고분[3] 출토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 이를 포함하여 논지를 전개하도록 한다.

2. 고분의 편년과 철기유물의 출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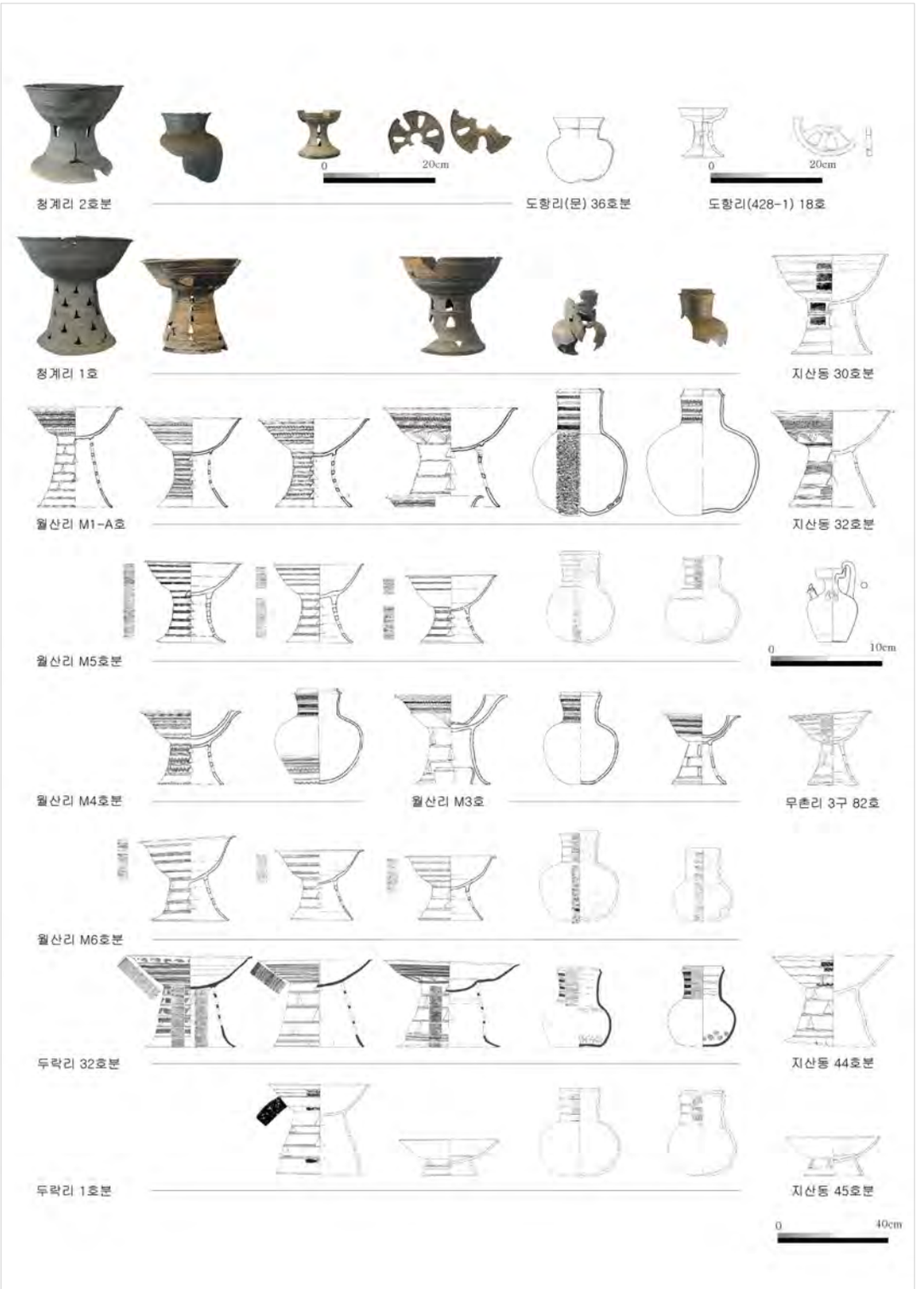
본격적인 비교・검토에 앞서 철기와 공반된 토기와 위세품 등을 근거로 고분의 편년을 설정하여 분석의 기초로 활용한다. 연대설정에 있어 박천수의 안을 주로 참고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월산리 M1-A호는 축소모형 농공구류를 근거로 5세기 전반으로 편년되기도 하나,[4] 다수의 연구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재지계 토기[5]와 공반된 2점의 대가야양식 발형기대의 속성(기형과 투창의 일렬배치, 송엽문・파상문의 시문 방법 등)을 근거로 고령 지산동 32호분과 동일 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6] 박천수, 이희준 안을 따라 고분의 실연대를 지산동 32호분과 동일한 5세기 중반으로 편년한다. 가야지역에서 5세기 중반 무렵까지 주로 사용된 세형(細形) 지판 종장판주가 출토된 점도 이러한 연대를 뒷받침한다.

월산리 M5호분에서 출토된 청자 천계호는 5세기 중반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나,[7] 대체로 절강 서안시 융산 남조 송 대명 5년(461년) 출토품과의 유사성을 들어 5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본다.[8] 또한 공반된 재지계 발형기대는 월산리 M1-A호 출토품보다 대각부가 낮아지고 유개장경호의 동부도 축약되어 한 단계 늦은 단계로 판단된다.[9] 5세기 후반부터 등장하는 사행상철기(기꽂이)와 철제윤등이 모두 출토되어 M5호분을 5세기 후반으로 편년할 수 있다.

월산리 M3호분에서는 소가야 발형기대, 대가야와 재지계 양식이 결합된 발형기대,[10] 재지계 유개장경호 등이 출토되었다. 소가야 발형기대는 진주 무촌리 3구 82호 출토품과 비교할 수 있어 5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가야와 재지계 양식이 결합된 발형기대는 발부의 깊이가 월산리 M1-A호 출토품 보다 약간 얕고 재지계 유개장경호의 동체부도 작아졌다. 월산리 M1-A호보다는 후행하는 것으로 보이나 재지계 유개장경

3) 공식 명칭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다.
4) 김세기, 2003, 『고분자료로 본 대가야 연구』, 학연문화사, 185쪽.
5) 대가야 양식과 소가야 양식이 절충된 것으로,(『남원 월산리고분군』, 2012, (재)전북문화재연구원, 132쪽.) 소위 '월산리식 토기'로 불린다.(조인진, 2001, 「全北 東部 地域 石槨墓 出土 土器 硏究 : 長頸臺와 器臺를 中心으로」, 全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33쪽.)
6) 이희준, 1994, 「고령양식 토기 출토 고분의 편년」, 『영남고고학회』, 15호, 영남고고학회, 119쪽; 박천수, 2010, 『가야토기』, 진인진, 86쪽; 김세기, 2003, 앞의 책, 156쪽; 정주희, 2016, 「가야의 토기」, 『가야고고학개론』, 진인진, 211쪽.
7) 임혜빈, 2018, 『삼국시대 중국제 도자기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8쪽.
8) 박순발, 2012, 「계수호와 초두를 통해 본 남원 월산리 고분군」, 『운봉고원에 묻힌 가야무사』, 국립전주박물관·(재)전북문화재연구원, 119쪽; 李軍, 2017, 「계수집호에 관련된 문제 및 한국의 고대 가야고분에서 발견된 의의」, 『전북가야를 선언하다 국제학술심포지엄』, 호남고고학회, 72쪽.
9) 이 지역 발형기대는 소가야양식의 영향을 받아 원통형의 긴 대각부(長脚部), 장방형 투창, 파상문에서 대가야양식에 의한 짧은 대각부, 삼각형투창, 파상문+송엽문으로 변화한다.(박천수, 2014, 「출토유물로 본 삼국시대 南原지역의 정치적 向方」, 『가야와 백제, 그 조우(遭遇)의 땅 남원』, 호남고고학회, 112쪽.)
10) 발부의 형태와 문양은 대가야 양식으로 판단되나 대각부는 폭이 좁고 길이가 긴 것으로 볼 때, 재지의 양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원의 공인이 대가야 토기를 보고 모방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1. 청계리, 월산리, 두락리 고분 출토 유물 비교자료

호의 형태로 볼 때 M5호분보다는 약간 선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자의 연대를 고려하여 5세기 후반 이른 시기로 편년할 수 있다.

월산리 M4, M6호분에서는 지역색이 강한 발형기대와 저평원통형기대, 유개장경호가 출토되었다. 발형기대가 M1-A호 출토품에 비해 대각부의 높이가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볼 때, 5

세기 중반보다 후행하는 것은 분명하다. 함양 백천리 1호분 출토품과 같은 5세기 후반으로 편년할 수 있다.[11]

청계리 고분은 아직 정식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유물의 면밀한 속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자료집에 토기 등 대표적인 유물이 일부 공개된 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청계리 1호 석곽에서는 대가야, 재지계, 소가야 발형기대와 유개장경호, 유개고배, 통형기대 등이 출토되었다.

2점의 재지계 발형기대 중 1점은 중·상부에 밀집파상문이, 하부에 삼각거치문이 시문되었다. 이러한 문양구성을 고령 쾌빈동 1호 목곽묘, 고령 지산동 35호분, 고령 지산동 30호분 등 대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의 고령 지산동 32호분에서는 거치문은 사라지고 송엽문과 파상문으로만 장식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토기는 재지계이나 발부의 형태와 문양의 구성 및 배치 등을 고려할 때, 대가야 토기의 속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늦어도 고령 지산동 30호분과 동일시기에 제작된 토기로 판단된다. 또한 2점의 재지계 발형기대 모두 월산리 M1-A호 출토 재지계 발형기대와 유사한데, 이에 비해 전체높이가 높고 발부의 깊이가 깊어 보다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종형투창이 뚫린 대가야양식 발형기대는 발부의 깊이와 너비, 대각부의 높이와 벌어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고령 지산동 30호분 출토 토기와 동일한 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유개장경호는 뚜껑받이턱의 돌출도가 크고 동체부의 견부가 넓게 벌어진 것으로 보아, 고령 지산동 35, 30호분 출토품과 유사하다.

2단 교호투창 유개고배는 함안지역에서 출토된 유개고배와 비슷하나 투창의 배치가 다르고 광평 1호 출토품에 비해 대각부가 현저히 길다. 수즐은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고흥 야막고분, 부산 복천동 53호분, 김해 대성동 14호분(미보고) 등에서 출토되었다.[12] 고흥 야막고분,[13] 부산 복천동 53호분[14]은 5세기 전반 무렵에 조성된 분묘유적이다.

이상의 검토내용을 종합하면, 청계리 1호 석곽은 고령 지산동 30호분과 동일한 5세기 전반 무렵[15]으로 편년된다.

청계리 2호 석곽은 1호 석곽보다 먼저 축조되었으나 그 시점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16] 석곽에서는 발형기대, 통형기대, 무개고배, 차륜식 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무개고배는 함안 도항리 428-1번지 18호 석곽 출토품과 유사하며, 차륜식 토기편은 함안 도항리 428-1번지 18호, 함안 도항리(문) 39호 석곽 출토품과 비교 가능하다. 함안 도항리 428-1번지 18호 석곽, 함안 도항리(문) 39호 석곽은 5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함안 도항리(문) 14호 석곽과 동일 단계로 설정된다.[17] 장경호는 함안 도항리(문) 10, 36호분 출토품과 비교 가능한데, 함안 도항리(문) 36호분은 5세기 전반 이른 시기로 편년된다.[18] 통형기대는 직접적인 비교 사례를 찾을 수 없으나 외면에 원권문이 장식된 것으로 보아 함안지역 토기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원권문은 5세기 전반 무렵으로 편년되는 함안 도항리(문) 10호분, 함안

11) 박천수, 2014, 앞의 논문, 113쪽.
12)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9,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 발굴조사 자문위원회의 자료집」.
13)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4, 『고흥 야막고분』, 146쪽.
14) 박천수, 2010, 앞의 책, 136쪽.
15) 박천수, 2010, 앞의 책, 136쪽.
16) 이건용, 2020, 「남원 청계리 고분군 출토유물 연구」, 『남원 청계리·월산리 고분군 역사적 가치와 의미』, 남원시·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51·52쪽.
17) 정주희, 2016, 앞의 책, 222쪽.
18) 박천수, 2010, 앞의 책, 136쪽.

도항리(경) 13호분 출토 발형기대의 장식으로 사용된다. 이상을 고려하면, 청계리 2호 석곽도 5세기 전반 무렵으로 편년할 수 있으나, 유구의 축조 순서를 고려하면 1호 석곽보다 이른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락리 32호분과 두락리 1호분[19]은 발형기대의 형태와 문양을 근거로 각각 고령 지산동 44호분과 동일한 5세기 말, 44, 45호분 사이의 6세기 전반으로 편년 가능하다.[20] 두락리 4호분은 내부에서 출토된 상원하방형의 소환두대도와 비교 가능한 유물들이 5세기 후반~5세기 말에 출토되고 수혈식 석곽묘의 축조 방법이 5세기 말~6세기 초로 편년되는 남원 두락리 32호분 부곽, 남원 건지리 b-1호, 장수 호덕리 a-1, 11호 등과 유사하기 때문에[21] 5세기 말을 전후한 시기로 편년할 수 있다.

따라서 청계리 2호, 1호 석곽(5세기 전반)→월산리 M1-A호(5세기 중반)→월산리 M3, M4, M5, M6호분(5세기 후반)→두락리 4, 32호분(5세기 말)→두락리 1호분(6세기 전반)으로 편년할 수 있다. 청계리 2호 석곽 출토 토기에서는 아라가야의 속성이 주로 관찰되고, 청계리 1호 석곽, 월산리 M1-A호, M5호분 출토 토기에서는 재지계, 대가야, 소가야의 속성을 찾을 수 있다.[22] 이후의 두락리 1호분, 32호분에서는 대가야의 속성이 더욱 짙어진다.

청계리, 월산리, 두락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철기유물의 종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유적명	유구명	무구													농공구							편년
		마구					단거리 무기					장거리 무기		갑주	농구				공구			
		재갈	등자	안장	운주	사행상철기	환두대도	모자도대도	철검	철모	철준	철촉	성시구		살포	철겸	따비	철서	단조철부	주조철부	도자	
청계리	1호 석곽	1	1							3												5C 전
	2호 석곽		1	1	1			1(?)				1	1								1	5C 전
월산리	M1-A호	1	1				2			2		27		1		5	7	5			1	5C 중
	M3호분				1				1	1		2				1			2		1	5C 후
	M4호분			1			1			1						1				1	3	5C 후
	M5호분	1	1쌍			1					1	20	1	1		10			10		2	5C 후
	M6호분							1				14	1	1				2	1		2	5C 후
두락리	1	1	1쌍	1	1	1				1		7										6C 초
	4						1					8								2		5C 말
	32		1							4		94			1						1	5C 말
총 계		4	3점 2쌍	3	3	2	4	2	1	12	1	173	3	3	1	17	7	7	13	3	11	

표 1. 청계리·월산리·두락리 고분 출토 철기유물 일람표

3. 철제 무구의 비교·검토

1) 마구

① 비(轡, 재갈)

비는 월산리 M1-A호, M5호분에서 각 1점씩 출토되었다. 모두 종방향의 함유금구와 유환이 사용된 내만타원형판비로, 월산리 M1-A호 출토품은 폭이 넓은 내만타원형 함유와 인수

19)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 1, 3, 5호분은 현재 17, 16, 15호분으로 변경되었다(남원시·군산대학교박물관, 2011, 「남원 두락리 및 유곡리 고분군 정밀 지표조사 보고서」.)

20) 박천수, 2014, 앞의 논문, 114쪽.

21) 판석형 석재를 수직으로 잇대어 하단부를 마련하고 그 위에 소형 석재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 쌓기를 혼용하여 축조한 형식으로 가야 후기에 유행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전북 동부지역에서는 대형 석곽보다 규모가 작은 석곽 또는 부곽 등을 축조하는데 사용된 방법으로 전상학의 분류안 중 C형에 해당한다. (전상학, 2007, 「전북 동부지역 수혈식 석곽묘의 구조 연구」, 『호남고고학보』, 제25집, 호남고고학보.)

22) 이건용, 2020, 앞의 논문, 40쪽.

외환이 굽은 인수(이하 굽은 인수)를 가지며, 월산리 M5호 출토품은 횡타원형에 가까운 함유와 등자형 인수호가 부착된 곧은 인수로 구성되었다.

내만타원형판비는 가야와 백제지역에서 유행하며, 신라 판비와 형태 및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23] 백제보다 가야의 출토 사례가 현저히 많아 소위 '대가야형 판비'로 명명되기도 한다. 가야의 내만타원형판비는 함유의 폭이 넓고 모두 유환을 가지는데, 월산리 M5호분 출토품처럼 곧은 인수에 인수호가 연결된 것과 월산리 M1-A호 출토품처럼 굽은 인수가 사용된 것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5세기 전중반부터 고령·합천 등 대가야 지역에서 출현하며, 초기에는 신라 판비의 영향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5세기 후반 이후에는 백제의 영향으로 굽은 인수가 사용된 후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25] 5세기 후반 이후부터 양자의 내만타원형 제작기술이 함양, 거창, 함안, 고성 등 주변 가야지역으로 전파되는데, 남원 월산리 M1-A호 출토품을 이러한 과정의 산물로 이해하고, 고령 지산동 44호 출토품과 같은 시기로 편년하기도 한다.[26]

이와 같다면, 월산리 M1-A호는 마구로 볼 때, 고령 지산동 44호분과 동일시기인 5세기 말로 편년[27]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Ⅱ장의 검토 내용과 2분기 이상의 시기적 차이를 보인다. 많은 연구자들이 세부편년이 가능한 토기를 검토한 것처럼, 월산리 M1-A호는 5세기 중반으로 편년되는 고령 지산동 32호분과 동일한 단계로 설정된다. 또한 합천 옥전 M3호분, 합천 반계제 가A호분, 함양 백천리 1-3호분(이상 5세기 후반), 고령 지산동 44호분(5세기 말)보다 분명 선행한다.

따라서 월산리 M1-A호는 고령 지산동 32호분과 같은 5세기 중반으로 편년되며, 고분에서 출토된 내만타원형판비 역시 이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함유의 폭이 넓고 굽은 인수가 사용된 내만타원형판비는 합천 옥전 70, 76, 반계제 가A호분(A·B), 함안 도항리(현) 5호분, 고령 지산동 44호분 출토품 등 가야에서 5세기 후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출현하며, 이 중 합천 반계제 가A(B), 고령 지산동 44호분 출토품과 가장 유사하다. 즉, 이러한 내만타원형판비는 다른 가야지역에서 월산리 M1-A호보다 늦은 시기에 출현한다.[28] 가야지역 중 남원 운봉고원에서 이러한 판비가 가장 먼저 출현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시야를 넓혀 백제의 내만타원형판비를 살펴보자.

---

23) 신라 판비는 심엽형 또는 타원형 함유에 십자형 함유 장식(십자형 철태)이 있으며, 인수는 인수외환이 굽은 일조선 또는 이조선 인수이다. 또한 유환과 함유금구, 인수호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가야와 백제의 판비는 함유가 내만타원형 또는 타원형에 가까운데 유환과 종방향의 함유금구가 사용된다. 또한 인수는 신라의 경우처럼 인수외환이 굽은 일조선 또는 이조선 인수도 사용되나, 인수외환이 곧은 일조선 인수와 인수호가 사용되는 점이 다르다.(金斗喆, 2000, 『韓國 古代 馬具의 硏究』, 東義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33쪽.) 따라서 월산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2점의 판비는 가야, 백제의 판비이다.

24) 고령 지산동 35호분, 합천 옥전 M2호분 출토품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합천 옥전 M2호분의 십자형 철태 장식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류창환, 2007, 『加耶馬具의 硏究』, 東義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58~163쪽; 이상율, 2009, 「新羅·大加耶 新式板轡의 成立」, 『고문화』, 74호,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27~133쪽.)

25) 가야 후기 비(轡)에서 확인되는 유환과 굽은 인수는 북방지역과 가야 전기의 비에서 찾을 수 없고, 백제에서 5세기 중반 이전부터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백제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류창환, 2012, 『가야마구의 연구』, 서경문화사, 270쪽.)

26) 류창환, 2012, 앞의 책, 19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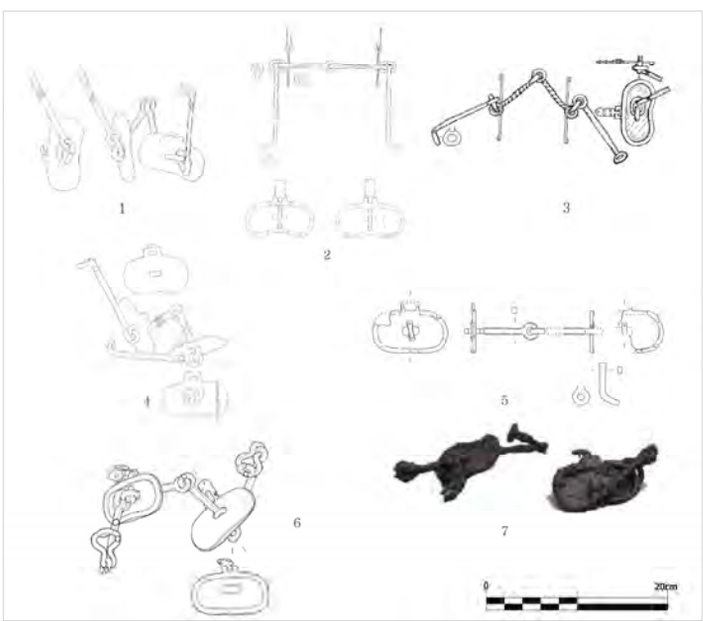
27) 이하의 가야고분 편년은 박천수, 2010, 앞의 책, 55~102쪽을 참고하였다.

28) 합천 옥전 M2, 20호분 출토품 등 앞 시기의 내만타원형판비는 인수호가 부착된 인수가 사용되었다.

연구자	이한상 (2009)			성정용 (2010)			김낙중 (2010)			이 훈 (2010)			이문형 (2020)		
시기	1호	3호	4호	1호	3호	4호	1호	3호	4호	1호	3호	4호	1호	3호	4호
	5C 1/4	5C 2/4	5C 2/4	5C 전	5C 1/4	5C 1/4~ 2/4	5C 전~중			4C 4/4	5C 1/4	5C 2/4	5C 1/4	5C 2/4	5C 2/4

표 2. 연구자 별 공주 수촌리 고분의 연대(이문형 2020 수정 후 인용)

백제의 내만타원형판비 중 함유의 폭이 넓고 굽은 인수와 유환이 사용된 내만타원형판비로는 공주 수촌리 Ⅱ-3 석곽, 천안 도림리 5호 석곽, 청주 오창 주성리 다2호 석곽, 연기 송원리 KM-096호 석실 출토품 등이 있다. 이 중 공주 수촌리 Ⅱ-3호 석곽묘의 연대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5세기 전반~5세기 중반으로 편년된다. 천안 도림리 5호 석곽은 한성 Ⅰ기말~ 한성 Ⅱ기 중반에 해당하는 토기가 출토되어 4세기 중반~5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29] 따라서 두 고분에서 출토된 굽은 인수 내만타원형판비는 5세기 전반~5세기 중반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면 2. 월산리 M1-A호 내만타원형판비 비교자료
(1.반계제 가A호분, 2.지산동 44호분, 3.월산리 M1-A호, 4.공주 수촌리 Ⅱ-3호, 5.천안 도림리 5호, 6.월산리 M5호분, 7.고창 봉덕리 4호)

상기의 사례로 볼 때, 백제에서는 5세기 전반~5세기 중반 무렵부터 함유의 폭이 넓고 굽은 인수를 가진 내만타원형판비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러한 내만타원형판비의 출현 시기는 백제가 가야에 비해 선행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야 내만타원형판비의 굽은 인수 채용은 백제마구의 확산과 관련이 깊어 제작기술이 백제에서 가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월산리 고분군이 위치한 운봉고원은 백제와 가야를 잇는 주요 길목이자 관문(關門)이다.[30] 길목을 따라 백제의 최신 판비 제작기술이 운봉고원을 거쳐 가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굽은 인수 내만타원형판비의 제작기술이 백제에서 가야로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다른 가야지역보다 먼저 월산리 M1-A호에 부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월산리 M1-A호 출토품의 제작기술 기원지는 가야가 아닌 백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31] 이 유물은 백제의 판비 제작기술이 가야로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판비와 공반된 금은상감환두대도에서 백제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어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29) 『천안 유리·독정리·도림리 유적』, 2011, (재)충청문화재연구원·대전지방국토관리청, 290쪽.
30) 곽장근, 2019, 『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전북』,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138쪽.
31) 유영춘, 2015, 「운봉고원 출토 마구의 의미와 등장배경 - 轡, 蛇行狀鐵器, 鐙子를 중심으로 -」, 『호남고고학보』, 51, 호남고고학회, 104쪽.

고령, 합천, 고성, 함안 등 다른 가야에서 출토된 내만타원형판비는 함유 외면이 금동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주연대 부착 시 사용된 못은 머리의 지름이 0.4～0.5㎝ 내외인데, 대체로 도금되어 육안으로 쉽게 관찰된다. 백제의 내만타원형판비는 익산 입점리 출토품[32]을 제외하고 모두 도금 없이 철로 이루어졌으며, 주연대 부착 시 사용된 못의 머리도 작고 도금되지 않아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렵다. 월산리 M1-A호 출토품도 모두 철로 이루어졌고 못 머리가 작아 X-선 촬영을 통해서만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월산리 M1-A호 출토품이 백제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제작기법상 특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백제의 마구는 후기 가야 마구의 형성[33]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34] 월산리 M1-A호 출토품을 단순히 가야(대가야)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보지 않고, 운봉고원의 지리적 이점과 공반된 토기의 편년, 백제와 가야의 굽은 인수 내만타원형판비의 출현 시기를 고려하여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월산리 M5호분 출토품처럼 함유의 평면형태가 타원형에 가깝고 인수에 등자형 인수호가 부착된 내만타원형판비는 합천 옥전 M2, 20, M3호분, 함안 도항리 문54호분, 청주 신봉동 92-83호, 익산 입점리 1호 석실분, 고창 봉덕리 4호 석실분 출토품처럼 가야와 백제 지역에서 5세기 전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고성 내산리 28-1호 석곽 출토품과 같이 6세기 전반까지 동일한 형태의 인수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5세기 중반 이후부터 고령 지산동 32호분 표비와 고성 송학동 1A-1호, 장수 동촌리 28호분 출토 내만타원형판비처럼 인수와 인수호가 하나를 이루는 형태로 변화한다.

월산리 M5호분 출토품은 백제와 가야에서 출토된 판비와 모두 비교 가능하여 제작에 있어 한 지역을 특정하기 어렵다. 다만,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분 출토품은 월산리 M5호분 출토품처럼 모두 철로 제작되었고 각 부속품의 구조와 형태, 크기가 거의 일치한다. 또한, 두 점 모두 X-선 촬영 및 실견 결과[35] 주연대를 부착하기 위한 못이 확인되지 않아 못 고정 외 다른 방법으로 주연대가 부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두 점의 내만타원형판비는 소재, 형태, 제작기법 등으로 볼 때 동일 장인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할 만큼 공통적인 속성이 많다. 뿐만 아니라 답수부가 한 갈래인 철제 등자와 함께 세트로 부장되었다는 점도 같다.

고창 봉덕리 1호분에서 출토된 개(蓋)는 파상문 혹은 점열문이 시문되었고 토기의 색조가 자색(紫色)을 띠고 있어 가야와의 상호 교류가 추정되는데,[36] 월산리 M5호분에서도 동일한

32) '8'자형 함외환의 존재로 보아 백제에서 제작된 판비로 판단되나, 함유 외면이 은으로 도금되고 대가야에서 개발된 철사 감긴 함이 사용되며, 편원어미형행엽이 공반 출토된 것으로 볼 때, 가야 또는 신라 마구 제작기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3) 전면에 능각(稜角)이 세워져 단면 형태가 오각형인 목심윤등(류창환의 분류 중 ⅠB4·ⅠB5식)은 고령 지산동 32, 33, 25호분, 합천 옥전 70, M2호분 등 대가야 권역의 수장층 고분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어 소위 '지산동형 등자' 또는 '대가야형 등자'로 불린다. 대가야 권역의 출토 사례가 많아 하나의 지역성을 설정하는데 무리가 없으나, 원주 법천리 1호(5세기 전～중반), 공주 수촌리 Ⅱ-1, 3, 4호 석곽묘 등 이보다 이른 시기의 백제 고분에서 같은 형태의 등자가 출토되어 그 기원을 백제에서 찾을 수 있다.(신경철, 1989, 「加耶의 武具와 馬具」, 『國史館論叢』, 7, 국사편찬위원회, 30쪽; 이훈, 2005, 「수촌리고분군 출토 백제마구에 대한 검토」, 『충청학과 충청문화』, 4,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소; 류창환, 2007, 『加耶馬具의 硏究』, 東義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75, 160쪽.)

34) 류창환, 2007, 앞의 논문, 223쪽; 김낙중, 2010, 「榮山江流域 古墳 出土 馬具 硏究」, 『한국상고사학보 』, 69, 한국상고사학회, 119·120쪽.

35) X-선 촬영 및 해석에는 이영범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선생님과 국립전주박물관 신성용 연구원 선생님의 도움이 있었다.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36)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고창군, 2016, 『高敞 鳳德里 1號墳 종합보고서 - 本文-』.

속성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두 고분 모두 5세기 후반[37]으로 편년되기 때문에 이 무렵 양 지역 간에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교류 속에서 동일한 형태의 마구가 부장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월산리 M5호분 출토 내만타원형판비는 당시 운봉고원과 고창 분구묘 축조집단(마한) 간의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유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청계리 청계 1호 석곽에서 인수외환이 굽은 인수편이 출토되어 비가 부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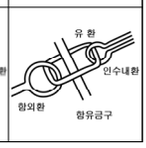
함유			연결방법		
A	B		a	b	c
	B-1	B-2			
					

표 3. 복환판비의 함유 형태와 연결방법 분류

한편, 6세기 전반 무렵에 조성된 두락리 1호분에서 복환판비[38]가 출토되었다. 국내에서 출토된 19점[39] 중 15점이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되었다. 고분의 연대로 볼 때 복환판비는 5세기 후반~6세기 전반[40]을 전후한 시기에 집중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복환판비를 구분할 수 있는 유효 속성으로는 함유의 제작방법과 연결방법이 있다.[41] B형 함유의 복환판비 중 가장 이른 것이 5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경주 월성로 다-6호에서[42] 출토되어 B형의 원류는 신라에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경주 월성로 출토품처럼 초기에는 입문이 있는 B-1형이 먼저 개발된 후, 6세기 전반 무렵 대구 시지지역 95석곽 출토품처럼 입문이 없는 B-2형으로 개량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락리 1호분 출토품도 B-2형의 함유를 채용하고 있어 신라 복환판비에 원류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43] 그러나 신라 출토 복환판비는 모두 유환을 사용하지 않았으나(a형) 두락리 출토품은 유환을 사용하고 있어 연결방법(c형)이 다르다. 두락리 출토품과 함유의 형태 및 연결방법까지 동일한 유물로는 6세기 전반 무렵의 나주 정촌 1호 석실 출토품[44]을 꼽을 수 있다. 출토 사례로 보아, 복환판비 제작기술

37) 금동식리의 분양의 변천과 제작기법, 중국자기의 연대를 기준으로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분의 연대를 5세기 후반경으로 제시하였다.(이문형, 2020, 『高敞 鳳德里古墳群 築造勢力 硏究』, 公州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26~140쪽.)

38) 철봉을 자르지 않고 꼬아 함유를 제작한 비로 종래에 신라, 가야의 고지(故地)와 일본열도(왜)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諫早直人, 2007, 「慶州 月城路 다-6號墳 出土 復環式環板轡의 再檢討」, 『慶北大學校博物館年報』, 4. 慶北大學校博物館, 135쪽.)

39) 국내에서 출토된 복환판비로는 남원 두락리 1호분, 김해 예안리 57호분, 합천 옥전 85호분, 산청 생초 9호분, 고성 내산리 8호분 주곽, 함안 도항리(경) 10호, 경주 미추왕릉 9구역 A호 2곽, 4지역 A지구 3호분 1곽, 경주 월성로 다-6호, 경주 천마총, 경주 안압지, 대구 시지지역 95석곽, 의성 대리리 46-4호 목곽, 합천 삼가 Ⅰ-M2-1호 석곽, 나주 정촌 1호 석실(2점), 창원 다호리 B42호, 익산 왕궁리 동측 환수구, 양주 대모산성 출토품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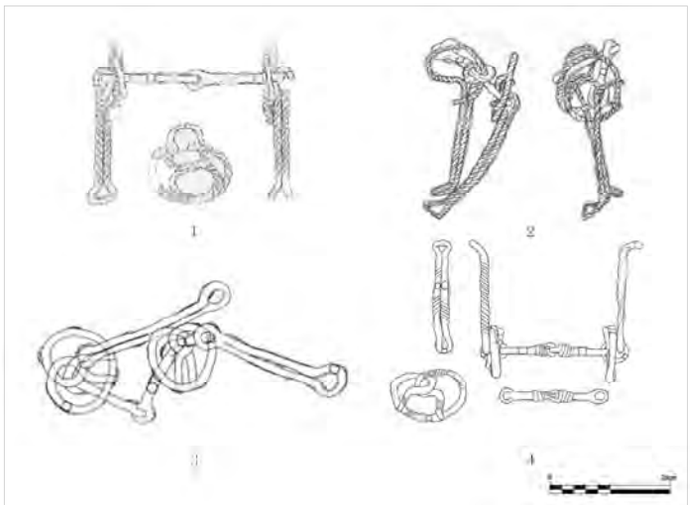
40) 유영춘, 2015, 앞의 논문, 104~108쪽.

41) 필자는 복환판비의 함유를 양단에서 둥글게 말아 붙인 것(A형), 둥글게 말아 외환을 만든 후 8자형의 함유금구를 꼬아 만든 것(B형)으로 구분하였다. 후자는 입문이 있는 것(B-1형), 입문이 없는 것(B-2형)으로 세분된다. 연결방법은 유환 없이 함외환에 함유금구와 인수내환이 걸린 것(a), 함외환에 함유금구와 유환을 연결한 후 유환에 인수가 별도로 연결된 것(b), 유환에 함외환과 함유금구, 인수내환이 모두 걸린 것(c)으로 분류하였다.

42) 경주 월성로 다-6호는 고배, 대부장경호 등의 형태가 황남대총 북분, 경주 월성로 가-11-1호 출토품과 비교 가능하여 동일 단계의 고분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고분이 5세기 후엽으로 편년되기 때문에 월성로 다-6호 역시 동일한 연대로 설정할 수 있다.(남익희, 2014, 「고 신라토기」, 『신라고고학개론 下』, 진인진, 72쪽.)

43) 남원 두락리 1호분 출토품이 대구 시지지역 95석곽 출토품과 유사함을 근거로 간접적인 기술적 교류가 있었음을 추정한 바 있다.(유영춘, 2015, 앞의 논문, 108쪽.)

44) 복환판비는 1호 석실의 운영단계와 관련된 유물로 그 시기는 5세기 4/4~6세기 1/4분기로 볼 수 있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515쪽.)



도면 3. 두락리 1호분 출토 복환판비 비교자료
(1.월성로 다-6호, 2.대구 시지지역 95석곽
3.두락리 1호분 4.정촌 1호 석실)

이 신라에서 가야와 마한으로 전파되면서 가야와 백제(마한)에서 흔히 사용되던 유환이 부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두락리 1호분 출토 복환판비는 합천 옥전 85호 복환판비와는 함유의 형태 및 연결방법이 전혀 달라 대가야 지역과의 관련성은 적어 보인다. 함유의 형태 및 연결방법, 고분의 연대 등을 근거로 신라(경주 월성로 다-6호, 대구 시지지역 95석곽)-남원 운봉(두락리 1호분)·마한(나주 정촌 1호 석실)이라는 복환판비의 전파 루트를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두락리 1호분 출토품은 신라와의 교류뿐만 아니라 월산리 M5호분 출토 내만타원형판비처럼 당시 운봉지역과 영산강 유역 분구묘 축조(마한) 세력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유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주 정촌 고분군에서 출토된 성시구 등에서 가야와 관련성을 찾을 수 있어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45]

② 등자(鐙子, 발걸이)

청계리 1, 2호 석곽, 월산리 M1-A호에서 목심윤등편과 월산리 M5호분에서 철제윤등이 출토되었다.

청계리 2호 석곽에서 출토된 목심윤등편은 형태상 윤상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능각 없이 전·후·측면이 철판으로 보강되었다. 편만 남아있어 병부에서 답수부까지 전체가 철판으로 보강되었는지, 병부와 윤상부만 보강되었는지 알 수 없다. 목심윤등편의 측면 두께가 동일한 것으로 볼 때, 윤상부와 답수부의 두께가 동일한 등자로 판단된다. 이처럼 윤상부의 전·후·측면이 능각 없이 철판으로 보강되고 윤상부와 답수부의 두께가 동일한 목심윤등으로는 천안 용원리 12호 석곽묘, 청원 주성리 1호 석곽묘, 청주 신봉동 92-93호, 합천 옥전 8호분 출토품 등이 있다. 이 등자들은 5세기 전반[46]~5세기 중반[47]에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계리 1호 석곽에서 출토된 목심윤등편은 윤하부 및 답수부 안쪽을 보강했던 철판이다. 철판의 폭이 1.8㎝ 내외로 하부와 상부의 폭이 동일한 것으로 볼 때, 청계리 2호 석곽 출토품과 동일한 형태의 등자로 판단된다.

월산리 M1-A호 출토품은 병두부와 윤상부만 철판으로 보강된 등자로, 비교 자료로 볼 때

45) 오동선, 2018, 「고대 한국의 화살통과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고대 한·일의 화살통과 장식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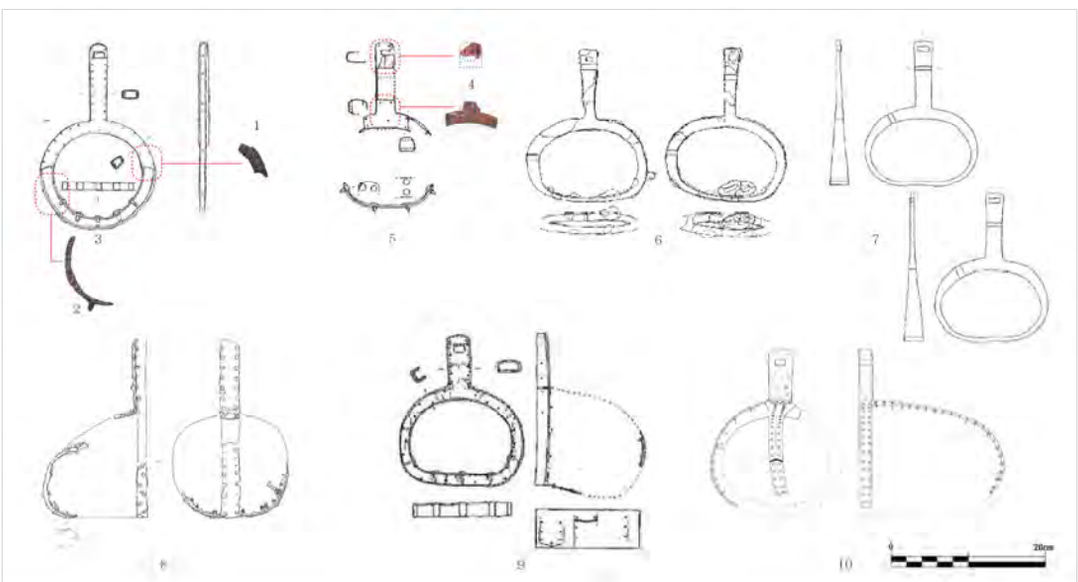
46) 합천 옥전 8호는 옥전 23호와 동일 단계로 판단된다. 합천 옥전 23호는 4세기 말(박천수, 2010, 앞의 책, 55~102쪽.)~5세기 중반(조영제, 2007, 『옥전고분군과 다라국』, 혜안, 75~126쪽.)으로 편년된다. 천안 용원리 12호 출토 등자는 5세기 전반 경으로 편년된다.(성정용, 2003, 「漢城期 百濟馬具의 編年과 그 起源」, 『國史館論叢』, 第101輯, 국사편찬위원회, 12쪽.)

47) 청주 신봉동 92-93호 출토 파배는 5세기 중반 이전으로 편년되기 때문에(김규동, 2012, 「신봉동 출토 파배 고찰」, 『신봉동, 백제의 전사를 만나다』, 196~198쪽.) 등자 역시 같은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청원 주성리 1호 석곽묘 출토 등자 역시 5세기 중반으로 편년된다.(성정용, 2003, 앞의 논문, 12쪽.)

답수부는 윤상부보다 넓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등자는 '신봉동형 마구' 중 하나로 류창환의 분류 중 ⅡB1식에 해당한다. 이러한 등자는 5세기 중반 이전 백제에서 기원하여 가야로 파급되었는데,[48] 가야에서는 합천 옥전 20, 76호분, 합천 반계제 가A호분, 함양 백천리 1-3호분, 고령 지산동 44호분 등 5세기 중후반 이후의 고분에서 출토되었다. 월산리 M1-A호 출토품은 공반된 굽은 인수 내만타원형판비와 더불어 5세기 중반 무렵, 백제에서 가야로의 최신 마구 전파 과정을 보여주는 유물로 이해된다.

월산리 M5호분에서는 1쌍의 철제윤등(鐵製輪燈)이 출토되었다. 돌기가 없는 1갈래의 답수부(踏受部)를 가지고 있어 삼국시대 초기 철제윤등의 형태를 띤다. 삼국시대 철제 등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답수부의 형태가 1갈래(5세기 후반~6세기 전반 사용)→2갈래(6세기 전반 주로 사용)→3갈래·광폭(6세기 전반~6세기 중반)으로 변화하는데, 이는 기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된 것이다.[49] 철제윤등의 형태로 볼 때, 월산리 M5호분 출토품은 5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두락리 1호분에서도 1쌍의 철제윤등이 출토되었다. 이 유물은 돌기가 있는 2갈래의 답수부를 가지고 있어 월산리 M5호분 출토품보다 후대에 개량된 철제윤등으로 판단되는데, 6세기 전반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4. 청계리, 월산리, 두락리 출토 등자 비교자료
(1.청계리 1호 석곽, 2.청계리 2호 석곽, 3.옥전 8호분, 4.월산리 M1-A호, 5. 청주 신봉동 92-60호
6.두락리 1호분, 7.월산리 M5호분, 8.두락리 32호분, 9.수촌리 Ⅱ-3호, 10.고성 내산리 28-1호)

한편, 두락리 32호분에서는 호등이 출토되었다. 목심호등(木心壺鐙)으로 구흉금구와 윤부 외면 등을 보강하던 철편만 남아 있다. 은도금된 소형 못을 박아 장식성을 강조하였다. 호등은 고구려, 중국동북지방에서 찾아볼 수 없고, 중국 중원에서는 당대(唐代)에 이르러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된 등자로 파악된다.[50] 공주 수촌리 Ⅱ-3호 석곽묘 출토 호등을 고려하면 5세기 중반 이전 제작기술이 백제에서 개발되어, 5세

48) 병부 상부와 윤상부가 별도의 철판으로 보강되고 답수부가 넓은 목심윤등(류창환의 분류 중 ⅡB1식)은 가야에서 5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이는 '신봉동형 마구' 중 하나로 5세기 중반 무렵 백제에서 개발되어 가야로 이입된 등자로 해석된다.(류창환, 2007, 앞의 논문, 75, 164쪽.)
49) 류창환, 2007, 「삼국시대 철제등자에 대한 일고찰」, 『考古廣場』, 창간호, 釜山考古學硏究會, 296쪽.
50) 이상율, 2007, 「삼국시대 호등의 출현과 전개」, 『한국고고학보』, 65, 한국고고학회, 60쪽.

기 말~6세기 전반에 백제와 가야 등 주변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대형 고분을 중심으로 극소량 출토되고 장식성이 강하여 상위계층에서 소유했던 의례용 등자로 판단된다.

호등은 구흉금구가 상부에서 하부까지 전체적으로 드리워지면 백제계, 윤부 상부까지만 드리워지면 가야계로 구분된다.[51] 두락리 32호분 출토품은 구흉금구가 상부에서 하부까지 전체적으로 드리워졌고 그 끝이 삼각형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목심 고정을 위한 못이 2개씩 나란히 박혀있다. 공주 수촌리 Ⅱ-3호 석곽묘 출토 호등과 모두 일치하여 그 원류가 분명 백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두락리 32호분보다 후행하는 6세기 전반의 고성 내산리 28-1호, 고령 지산동 1호분, 경산 임당 6A호분에서 유사한 형태의 호등이 출토되었으나,[52] 구흉금구 철판의 단면과 못의 고정방법 등을 고려할 때, 고성 내산리 28-1호 출토품과 유사하다. 즉, 공주 수촌리 Ⅱ-3호 석곽묘(5세기 중반)-남원 두락리 32호분(5세기 말)-고성 내산리 28-1석곽(6세기 전반) 출토품으로 계보가 이어져[53], 백제를 비롯한 소가야와의 교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③ 사행상철기(蛇行狀鐵器, 기꽂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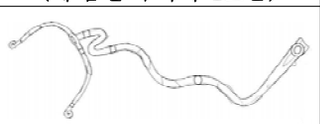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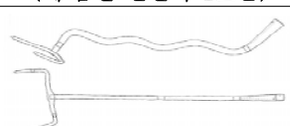
형태	A형 (예:남원 두락리 1호분)	B형 (예:남원 월산리 1호분)
그림		
유적명 및 연대	합천 옥전 M3호분 2점(5C 후) 합천 반계제 다A호분(5C 말) 남원 두락리 1호분(6C 전) 진주 옥봉 7호분(6C 중) 진주 수정봉 2호분(6C 중) 경주 금관총 2점(5C 말) 경주 천마총 2점(6C 전) 양산 부부총(6C 전) 부여 쌍북리 154-10(6C 중 이후) 공주 공산성(6C 중 이후) 국은 이양선 기증품(미상)	남원 월산리 M5호분(5C 후) 고성 송학동 1A-1호(5C 말) 함양 상백리 1호분(5C 말) 고령 지산동 518호분(6C 전) 고령 지산동 A-19호(6C 전) 경북대학교 소장품(미상) 고령박물관 기증품 잔존상태 불량 형식설정 불가

표 4. 남한 출토 사행상철기의 형식분류표

사행상철기로 불리는 유물은 삼실총, 통구 12호, 쌍영총 등 고구려 고분 벽화에 묘사된 모습으로 볼 때, 용도가 기꽂이로 판단된다. 깃발은 국가 또는 정치체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를 소유한 피장자는 권위가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5세기 전반 무렵 중국 풍소불묘[54]에서 남한 출토품과 형태가 다르나 동일한 기능의 유물이 출토되었고, 4세기 중반~5세기 전반의 고구려 고분벽화[55]에 남한 출토 사행상철기와 동일한 마구가 묘사된 것으로 볼 때, 남한 출토 사행상철기의 기원은 중국 요서·요동지역과 관련이 깊을 것이다[56]. 백제와 가야의 사행상철기는

51) 이상율, 2007, 앞의 논문, 67쪽; 김낙중, 2010, 「滎山江流域 古墳 出土 馬具 硏究」, 『한국상고사학보 』, 69, 한국상고사학회, 113~115쪽.

52) 고성 내산리 28-1호 석곽에서 출토된 유개장경호와 개로 볼 때, 고성 송학동 ⅠB-1호 석곽 출토품과 비교 가능하여 6세기 전반 무렵으로 편년할 수 있다. 고령 지산동 1호분은 개와 단경호의 형태를 고려하여 고령 지산동 45호분 단계로 설정할 수 있어 6세기 전반 무렵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며,(『고령 지산지구 국도 개량공사구간 내 유적 고령 지산동 고분군』, 2004, 영남대학교박물관, 108쪽.) 경산 임당 다A호분도 6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박천수, 2010, 앞의 책, 135쪽.)

53) 단면 'V'자형의 구흉금구와 목심에 철판을 고정하기 위한 못이 2열로 배치된 점 등이 유사하다.

54) 북연(北燕) 관료 귀족인 풍소불(馮素弗) 부부의 묘로로 풍소불은 415년 태평 7년에 죽은 선비계(鮮卑系) 한인(漢人)이다.

55) 사행상철기가 그려진 고구려 고분 벽화로는 삼실총, 통구 12호, 쌍영총 벽화가 있다. 이러한 고분의 연대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구 12호묘 4세기 중반~5세기 전반, 삼실총은 4세기 말~5세 전반으로 편년된다.(정호섭, 2010, 「高句麗 壁畫古墳의 編年에 관한 檢討」, 『先史와 古代』, 33, 한국고대학회, 249쪽.)

56) 북연의 사행상철기(기꽂이) 제작기술을 수용한 고구려가 사행상(蛇行狀)의 사행상철기를 자체 개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에서 개발된 이러한 사행상철기가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6세기 중반 왜(일본) 사행상철기 생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57]

남한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18점의 사행상철기가 출토되었으며, 3점의 기증품이 알려져 있다. 남한에서는 실물 사행상철기가 5세기 후반 무렵 출현하기 시작하여 6세기 중반 이후까지 사용되었다. 가야와 신라의 고지에서 다수 출토되었으며, 사행상철기가 묘사된 서산 여미리 출토 병(甁)과 정읍 고사부리성 출토 기와, 부여 쌍북리 154-10번지 사비 공방구 유적, 공주 공산성 저수시설 출토 사행상철기로 볼 때, 백제에서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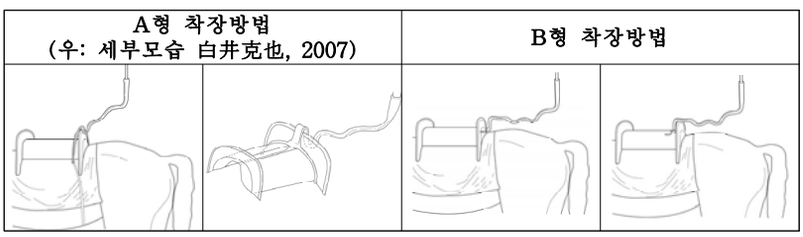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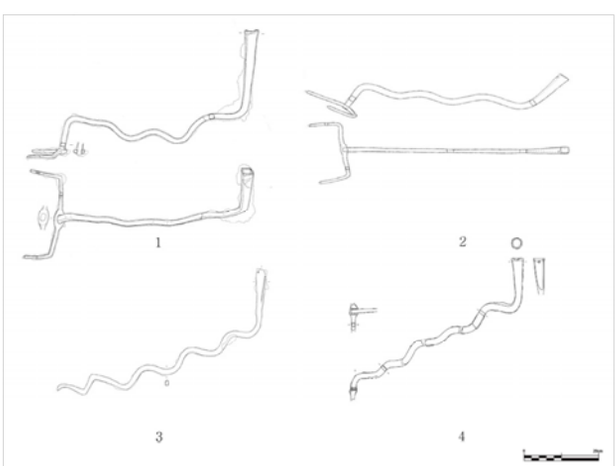


표 5. 사행상철기의 착장방법

사행상철기는 크게 말에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固定部), 몸체인 신부(身部), 깃대가 꼽히는 공부(銎部)로 구분된다. 고정부와 신부 선단부(先端部)의 형태에 따라 크게 A형, B형으로 나뉜다. A형은 고정부의 형태가 U자형으로 폭이 30cm 이상으로 넓고 끝이 둥글게 말려있어 끈을 맬 수 있는 형태이며, 신부 선단부는 'S' 자형에 가깝다. B형은 고정부가 ㄷ자형으로 폭이 25cm 이하로 좁고 끝은 곧게 뻗었으며, 신부 선단부는 'L' 자형에 가깝다. 이러한 고정부의 형태적 차이는 사행상철기의 착용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A형은 폭이 넓어 안장 상부에 얹어진 후 끈으로 묶였던 것으로 보이며, B형은 폭이 좁고 끈을 묶을 수 없어 안장 후륜부 등에 끼워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5. 월산리 M5호분 사행상철기 비교자료
(1.고성 송학동 1A-A호, 2.월산리 M5호분
3.지산동 A-19호, 4.지산동 518호분)

A형은 남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사행상철기로 백제, 신라, 가야 유적에서 모두 출토되었다. 그러나 대가야와 신라의 출토 사례가 많아 양 지역에서 크게 유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이른 시기의 A형 사행상철기가 5세기 후반의 합천 옥전 M3호분에서 2점 출토되었다. B형은 가야의 고지에서만 출토되었다. 고성 송학동 1A-1호(5C 말), 함양 상백리 중생원촌 1호분(5C 말), 고령 지산동 518호분(6C 전반), 고령 지산동 A-19호(6C 전반), 경북대학교 소장품(미상), 고령박물관 기증품(미상)이 있으며,[58]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품(5세기 후반)도 이 형식에 해당한다. B형 중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품이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되었기 때문에, 운봉고원에서 개발된 후 제작기술이 대가야, 소가야 등 주변으로 파급되었을 가능성이

57) 東潮, 1984, 「蛇行狀鐵器考」, 『橿原考古學硏究所論集』, 吉川弘文館.

58) 박천수의 편년안(박천수, 2010, 앞의 책, 55~102쪽.)을 참고하면 고성 송학동 1A-1호는 5세기 말로 편년된다. 함양 상백리 중생원촌 1호분은 유개장경호, 개배의 형태로 볼 때 고령 지산동 44호와 동일 단계로 설정되며, 고령 지산동 518호분은 고령 지산동 45호분과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고령 지산동 고분군 518호분』, 2016,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37쪽.) 고령 지산동 A-19호는 고령 지산동 45호분과 동일 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고령 지산동 대가야고분군 Ⅰ』, 2020, 재단법인 대동문화재연구원, 405쪽.) 박천수의 편년안에 따라 각각의 유구를 5세기 말, 6세기 전반, 6세기 전반으로 편년할 수 있다.

있다. 두락리 1호분(6세기 전반) 출토품은 공반된 토기의 양상을 고려할 때, 대가야와의 관계 속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④ 안장(鞍裝)

청계리 2호 석곽, 월산리 M4호분에서 좌목선교구와 두락리 1호분에서 외연금구가 출토되어 안장이 부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도(刀)



사진 1. 남원 월산리 M1-A호 출토 상감환두대도와 소환두대도

청계리 2호 석곽에서 출토된 봉형의 미상금구는 모자도의 부속구인 잠형구(簪形具)로 추정된다.[59] 잠형구의 존재로 볼 때 모자도가 부장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월산리 M1-A호에서는 2점의 환두대도편이 출토되었으나 모두 신부가 없다. 1점은 철(鐵) 소지(素地)에 금과 은으로 장식된 상감환두대도이고 다른 1점은 장식 없이 철로 제작된 소환두대도이다.

상감환두대도는 환두와 파부가 남아있는데, 파부에는 병두금구가 존재하며 초구금구로 추정되는 상감편[60]이 1점 더 남아있다. 상감환두대도 외면에는 귀갑문이 연속으로 배치되었으며, 귀갑문 모서리에는 원형의 결절점이 있다. 육각형 내부에는 화문이 장식되었고, 화문이 없는 가장자리에는 집선호문이 상감되었다. 귀갑문 상단과 하단에는 횡침선과 파상문이 배치되었다. 대부분 은으로 상감되었으나 꽃잎이 금으로 상감되어 장식성을 더하였다. X-선 촬영결과, 초구금구에는 와문(渦文; 소용돌이 또는 물결 무늬)이 시문되었음이 확인되었다.[61]

상감장식을 위해 철과 같은 바탕 금속에 홈을 파는 방법[62]으로는 축조(蹴彫)와 모조(毛彫) 기법이 있다.[63] 월산리 출토품에서는 이등변삼각형의 홈이 관찰되지 않고 상감선의 시작점

59) 이건용, 2020, 앞의 논문, 40쪽.

60) 이 편에 대해 환두대도 2점 중 다른 1점의 병두금구 또는 병연금구로 파악하는 견해(이영범, 2009, 「6C 이전 제작된 소환두도의 병부 제작기법 연구 -전라북도 출토 소환두도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4쪽.)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체로 상감환두대도의 초구금구로 파악한다.(『한국의 고대 상감, 큰 칼에 아로새긴 최고의 기술』, 2015, 국립공주박물관, 92쪽.) 월산리 M1-A호 유구 실측도를 보면, 이 편이 다른 환두대도와 포개져 있지 않고 삼감환두대도 파부 근처에 있는 것으로 볼 때, 상감환두대도의 초구금구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61) 이영범, 2019, 「운봉고원 철기유물의 제작기법 연구」, 『백두대간 운봉고원 역사적 가치와 의미』, 남원시·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67쪽.

62) 축조기법은 소성(塑性)가공의 일종으로 끌로 바탕 금속을 눌러 홈을 형성하는 방법이며, 절삭(切削)가공에 해당하는 모조기법은 끌로 바탕 금속을 파내어 홈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축조기법의 홈은 이등변삼각형의 홈이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형태를 띠며 단면 형태가 'V'자상에 가깝다. 모조기법은 홈이 직선적이나 파내는 시작점과 끝점의 두께가 동일하고 두 곳의 두께는 가운데 두께보다 현저히 얇으며, 단면 형태가 'U'자에 가깝다.

63) 임지영, 2016, 「고대 금속상감에 관한 시론」, 『고고광장』, 18호, 부산고고학연구회; 최기은, 2015, 「백제 상감 기술의 제작기법과 그 특징」, 『큰 칼에 아로새긴 최고의 기술』, 국립공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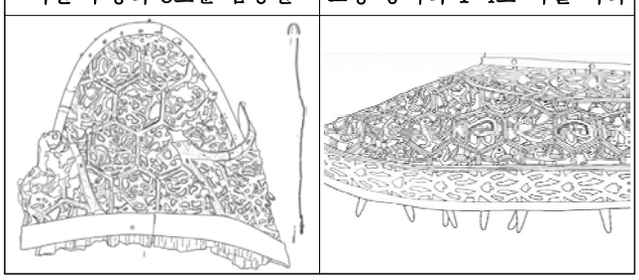
과 끝점의 두께가 대체로 동일하며, 상감선이 탈락된 홈에서 절삭 가공의 흔적이 관찰되기 때문에 모조기법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1점의 소환두대도는 철로 제작된 환두와 파부만 남아있다. 파부에 목질흔이 남아있으며, 도신을 연결하기 위한 원형 구멍 1개가 뚫려있다.

CT 및 X-선 분석결과, 2점의 환두대도 모두 단조로 제작되었으며, 환두와 파부는 별개로 제작된 후 각각의 부속이 단접으로 연결되었다.[64]

월산리 M1-A호 출토 환두대도는 삼국시대 상감대도 문양구성 중 가장 화려하다.[65] 상감대도를 집성하거나 연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언급되는 유물이나 유물 자체를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다. 남원 월산리 M1-A호 출토 상감환두대도의 제작지 또는 제작에 영향을 준 지역에 대해 가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백제로 보기도 한다. 가야로 보는 견해는 고분에서 출토된 대가야 양식토기와 고령 지산동 32NE-1 출토 상감환두대도의 존재를 근거로 가라국(加羅國, 대가야)이 서부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제작기술 또는 완제품이 남원 운봉(월산리)에 전파되어 출현한다는 것이다.[66] 백제로 보는 견해는 귀갑문과 화문으로 구성된 문양이 무령왕릉 족좌(足座) 장식 또는 용봉문환두대도와 유사해 백제와의 관련성이 지적되었으며,[67] 또한 남조-백제-가야・왜(일본)이라는 상감기술의 전파루트 등을 근거로 월산리 M1-A호 출토품 역시 백제의 영향 하에 제작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68]

월산리 출토품의 문양 구성은 기본적으로 귀갑문(龜甲文)이다. 전세계에서 귀갑문이 정형화되어 유물에 본격적으로 표현된 지역은 서아시아였다.[69] 서아시아의 문물이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의 한(漢)에 유입되면서 귀갑문도 전파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귀갑문은 중국 화북지역에서 4세기대 이후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 발전하였다. 월산리 상감대도의 귀갑문처럼 결절점에 원문이 장식되어 비교 가능한 4세기대 유물로는 전연(前燕)에서 제작된 안장(鞍裝, 337~370년)를 꼽을 수 있다.[70] 귀갑문이 장식된 5세기대 유물로는 서진(西秦) 건홍(建弘) 원년(420년)에 제작된 감숙성(甘肅省) 병령사(炳靈寺) 제169호굴 북벽 6호 무량수 3존상 본존의 의습, 북량(北涼)의 돈황(敦煌) 막고굴(幕高窟) 제275굴의 본존인 교각보살상의 신광이 있다. 이러한 문양은 486년 경의 북위 영하(寧夏) 고원묘(固原墓) 채색칠화목관(彩色漆畵木棺)으로 이어진다.[71]



도면 6. 귀갑문으로 장식된 백제 유물

귀갑문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의 루트를 통해 중국에서 한반도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첫 번째 전연, 서진 등 중국 화북지역에서 유행한 귀갑문이 북조를 통해 남조로 전

64) 이영범, 2009, 앞의 논문, 44쪽.
65) 李承信, 2008, 「加耶 環頭大刀 硏究」, 弘益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44쪽.
66) 김세기, 2003, 앞의 책; 박경도, 2019, 「철제무기 비교분석을 통한 마한·백제 그리고 가야 -장식대도를 중심으로-」, 『제27회 호남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마한·백제 그리고 가야』, 호남고고학회, 157쪽.
67) 『남원, 월산리고분군발굴조사보고』, 1983,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70쪽.
68) 朴淳發, 2000, 「加耶와 漢城百濟」, 『제6회 가야사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김해시, 9쪽.
69) 具慈奉, 2001, 「Ⅲ-1호분 출토의 方頭大刀에 대하여」, 『昌寧 桂城新羅古塚群』, 慶南考古學硏究所·昌寧郡, 453쪽.
70) 조양(朝陽) 삼합성촌(三合成村) 출토 무루공장식안교포편(無鏤孔裝飾鞍橋包片)에는 결절점에 원문이 배치되어 있고 귀갑문 내부에 쌍조, 용, 봉황, 노루, 토끼를 비롯한 동물문이 있다.
71) 이귀영, 2010, 「百濟 龜甲文 考察」, 『신라사학보』, 18, 신라사학회, 271~274쪽.

파된 후 백제를 통해 가야와 신라로 전파되었거나,[72] 두 번째 북조에서 고구려를 통해 백제로 유입된 후[73] 가야와 신라로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74] 세 번째 북조와 백제와의 직접적인 교류 관계 속에서 전파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75] 이 중 당시의 정세와 남조에서 수입된 것으로 보이는 월산리 M5호분 출토 청자 천계호를 고려할 때, 북조-남조-백제-가야·신라로 상정되는 첫 번째 루트를 통해 귀갑문이 이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서산 부장리 5호분 출토 금동관,[76] 6-6, 8-1호분 출토 식리, 고창 봉덕리 1-4호 석실[77] 출토 식리 등으로 볼 때, 한반도로 유입된 귀갑문은 백제에서 5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기부터 위세품의 장식으로 활용되었다. 귀갑문이 장식된 실물 대도는 6세기 전반 무령왕릉 출토 용봉문환두대도가 있으나 5세기 중반부터 백제 유물에 귀갑문이 사용되었음을 고려한다면, 귀갑문이 장식된 이른 시기의 환두대도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진 2. 귀갑문 장식 대도

가야와 신라의 5세기 중반 이전 유물 중 귀갑문이 장식된 유물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5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황남대총 북분 출토 은잔과 합천 옥전 M3호분 출토 안장을 시작으로 식리총 출토 식리, 대구 내당동 55호분 출토 안장, 양산 부부총 출토 태환이식 등 6세기 전반 유물에서 이러한 문양을 찾을 수 있다.[78]

가야에서 출토된 대도 중 귀갑문이 장식된 대도로는 고령 지산동 39호, 합천 옥전 M4호분, 창녕 명리Ⅲ-1호 출토품이 있다.[79] 고령 지산동 39호

72) 이귀영, 2010, 앞의 논문, 308쪽.
73) 북조와 고구려는 5세기 전반 장수왕 대에 본격적이 통교(또는 조공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귀갑문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74) 윤정아, 2013, 「공예품에 보이는 육각문의 상징적 의미 -삼국시대 공예품을 중심으로-」, 『조형디자인연구』, 16권, 한국조형디자인협회, 22쪽.
75) 472년 개로왕은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북조에 구원병 파병을 요청하는 국서를 보낸다. 북조와 백제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 갑작스러운 파병요청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남조만큼 지속적이지 않으나 파병 요청 이전부터 북조와의 교류도 존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76) 금동관에 장식된 문양과 형태 등으로 볼 때, 익산 입점리 출토 금동관보다 이른 5세기 중반 경으로 편년된다.(이훈, 2012, 「백제의 지방과 대외교류; 금동관을 통해 본 백제의 지방통치와 대외교류」, 『백제연구』, 55권,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96쪽.)
77) 고창 봉덕리 1-4호 석실은 내부에서 출토된 등자 및 비(재갈), 성시구, 금동식리 등의 형태로 볼 때, 5세기 후반을 전후한 시기로 편년된다.(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6, 앞의 책, 298~304쪽.)
78) 식리총은 5세기 말을 전후한 시기로 편년(이한상, 2004, 『황금의 나라 신라』, 김영사.)되고 부부총은 6세기 전반을 전후한 시기, 대구 내당동 55호분은 5세기 말경으로 편년된다.(박천수, 2010, 앞의 책, 136쪽.) 황남대총 북분은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5세기 후반 경으로 편년된다(김용성, 2009, 「제3장 신라왕궁 고분군의 조영과정」, 『신라왕도의 고총과 그 주변』, 학연문화사, 54쪽; 박천수, 2010, 앞의 책, 136쪽.)
79) 이상의 대도가 출토된 고분은 5세기 말 이후로 편년된다. 지산동 39호분은 일제강점기에 보고되어 유물의 속성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일단다투창고배, 개배, 유개장경호의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옥전 M3호분과 지산동 44호분 사이에 해당하는 5세기 말 이른 시기로 편년할 수 있다. 옥전 M4는 발형기대가 송엽문과 파상문으로 장식되었고 원형투공고배가 출현하여 5세기 말로 편년된다.(박천수, 2010, 앞

용봉문환두대도에는 월산리 대도와 같은 귀갑문이 환두와 병두금구에 장식되어 비교할 수 있으나 상감기법이 아닌 타출(打出)기법으로 장식되었다. 합천 옥전 M4호분 출토 상감환두대도에도 결절점에 원문이 있는 문양이 상감기법으로 새겨져 비교할 수 있으나,[80] 육각형이 아닌 마름모이다. 창녕 명리Ⅲ-1호 출토 방두대도의 병두부에는 월산리 출토품과 유사한 귀갑문이 상감기법으로 장식되었다.

월산리 M1-A호는 토기의 부장양상 등을 근거로 5세기 중반 무렵으로 편년되기 때문에 상감환두대도도 이 무렵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귀갑문이 장식된 백제와 가야의 대도가 5세기 말~6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고분에서 출토됨에 따라 월산리 출토품은 귀갑문이 장식된 삼국시대 대도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백제에서 귀갑문은 5세기 중반부터, 가야와 신라에서는 5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위세품의 장식에 활용되었다. 따라서 귀갑문의 사용 시점으로 볼 때, 월산리 상감환두대도의 원류는 가야와 신라보다 백제에서 구할 수 있다.

백제를 통해 전래된 귀갑문과 상감기술[81]을 바탕으로 남원 운봉 현지에서 상감환두대도가 제작되었는지, 백제에서 제작된 완성품이 사여된 것인지 현재로서 알 수 없으나, 문양 및 유물의 부장시기(편년)로 볼 때, '남조(북조)-백제(5세기 중반:서산 부장리 5호분 금동관, 6세기 전반:무령왕릉 용봉문환두대도 및 족좌)-남원 운봉(5세기 중반:남원 월산리 M1-A호)-가야(5세기 말:고령 지산동 39호, 합천 옥전 M4호, 6세기 전반:창녕 명리Ⅲ-1호)' 라는 루트가 상정되므로 백제를 통한 중국과 남원 운봉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위세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월산리 M1-A호	옥전 M3호분	다이쇼야마 고분
		
초구금구 상감문양	병연금구 상감문양	병연금구 상감문양

사진 3. 변형된 긴 와문(渦紋) 비교

X-선 촬영 결과, 월산리 출토품의 초구금구에는 소용돌이, 물결무늬로 추정되는 와문(渦紋)[82]이 새겨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사한 문양을 옥전 M3, 왜(일본)의 다이쇼야마 고분 출토 상감환두대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옥전 M3호분은 월산리 M1-A호분보다 늦은 5세기 후반[83], 다이쇼야마 고분은 6세기 후반[84]으로 편년되기 때문에 월산리 출토품

의 책, 136쪽.) 창녕 명리Ⅲ-1호는 상감대도와 공반된 유개고배의 형태가 호우총 출토품과 유사한데, (『昌寧 桂城 新羅古塚群』, 2001, 경남고고학연구소, 425쪽.) 호우총은 대체로 천마총보다 한 단계 늦게 편년되기 때문에 6세기 전반(이희준, 2007,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159쪽; 김용성, 2009, 앞의 책, 54쪽.)을 전후한 시기로 편년된다.

80) 우병철, 2015, 「대가야 철제무기의 특성과 확산」, 『대가야 문물의 생산과 유통』, 고령군 대가야박물관·(재)영남문화재연구원, 80쪽.

81) 한반도 중·남부지역의 상감기법은 백제에서 가야와 신라로 전파된 후 왜(일본)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한반도 중·남부 상감기술의 원류는 백제에 있다. 칠지도로 볼 때, 백제에는 이미 4세기 후반에 상감기술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5세기 전반 이전으로 편년되는 천안 화성리 A-1호를 필두로 상감대도가 꾸준히 제작되다가 나주 신촌리 9호 을(乙)관 출토품이 제작되던 5세기 말 이후까지 이어졌다. 가야의 상감기술은 백제에서 전래된 이후 끊임없이 발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상감대도는 후기 가야의 맹주국인 고령을 비롯하여 합천, 함안, 창원 등에서 출토되었다. 이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고령 지산동 32NE-1호 출토품으로 상감대도와 공반된 고배 및 장경호 등의 형태로 볼 때 고령 지산동 32호분보다 약간 선행하는 5세기 전중반으로 편년되며, 이후 5세기 전중반~5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합천 옥전 67-A호, 35, 70호분으로 이어진다. 신라의 상감대도는 5세기 말 이후로 편년되는 경주 천마총, 호우총, 부산 반여동 19호, 상주 헌신동 15호, 의성 대리 등에서 소량 출토된다.

82) 문양을 와문으로 보기도 하나 식물의 줄기와 비슷해 식물문 또는 초문(草紋)으로 불리기도 한다.

83) 박천수, 2010, 앞의 책, 136쪽.

84) 국립공주박물관, 2015, 앞의 책, 117쪽.

이 주변지역 와문의 구성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긴 와문은 천안 화성리 A-1호, 공주 수촌리 7호, 합천 옥전 95호, 합천 옥전 70호, 전(傳) 창녕출토 상감환두대도에 장식된 짧은 와문에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분의 연대를 고려하면,[85] 짧은 와문은 백제(천안 화성리 A-1호)에서 가야(합천 옥전 95호, 합천 옥전 M3, 합천 옥전 70호)로 전파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5세기 중반 이전 존재했던 짧은 와문이 변형되어 긴 와문이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월산리 출토품에 상감된 파상문은 서산 부장리 7-2호,[86] 합천 옥전 35호분[87], 전 청주 신봉동 고분군 출토품 등 5세기 전반 무렵 백제와 가야 양 지역에 존재했던 문양과 비교 가능하다. 5세기 이른 시기에 제작된 환두대도에서 이러한 문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월산리 출토품에 시문된 파상문은 5세기 중반 무렵에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로 생각된다.



사진 4. 귀갑문으로 장식된 삼국시대 대도

요컨대, 월산리 M1-A호 출토 상감환두대도는 삼국시대 상감대도 중에서 장식성이 가장 화려한 대도로 백제에서 기원한 상감기법을 통해 환두와 병두금구, 초구금구가 장식되었다. 이 유물은 상감기법과 귀갑문이라는 문양으로 볼 때, 가야와 신라보다는 남조(북조)와 백제의 영향 하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월산리 M4호분에서는 철제 환두편이 출토되어 환두대도가 부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5. 국내 출토 상원하방형 소환두대도
(1.합천 옥전 M3호분, 2.합천 옥전 71호분, 3.함양 백천리 가A호분 4.남원 두락리 4호분)

한편, 두락리 4호분에서는 소환두대도가 출토되었다. 소환두대도의 환두는 상원하방형으로 외면이 은도금되었다.[88] X-선 촬영 결과, 환두는 파부와 따로 제작된 후 단접되었으며, 병부와 신부 역시 별도로 제작된 후 2개의 못으로 연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89]

두락리 4호분 출토품처럼 환두 내부에 삼엽이 없고 환두가 은으로 도금된 유물로는 합천 옥전 M3, 71호분, 합천 반계제 가A호분, 함양 백천리 1-3호분 출토품이 있다. 이 유물은 '합천-함양-남원'이라는 남강 상류를 중심으로 밀집 분포하며, 5세기 후반 이후로 편년되는 고분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90].

85) 천안 화성리 A-1호는 5세기 전반 이전,(국립공주박물관, 1991, 『天安 花城里 百濟墓』.) 합천 옥전 95호는 종형 투창이 뚫린 발형기대의 형태 및 유개장경호의 형태, 목심 등자로 볼 때 지산동 32호분 보다 약간 빠른 5세기 중반 이른 시기로 편년된다. 옥전 70호는 발형기대, 이단직렬투창고배 등으로 볼 때, 옥전 M3호분과 동일한 5세기 후반으로 편년된다.(이희준, 2017, 앞의 책, 98쪽.)

86) 상감대도와 공반된 광구호 및 고배편의 형태로 볼 때, 5세기 전반을 전후한 시기로 편년된다.

87) 합천 옥전 35호분은 23호분 출토 창녕양식 고배보다 후행하는 뚜껑받이턱의 돌출토와 하부의 투창이 작아진 고배가 부장된 것으로 볼 때, 5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박천수, 2010, 앞의 책, 83쪽.)

88) 환두 기저면에 은도금 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본래 병두금구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89) 이영범, 2009, 앞의 논문, 47쪽.

두락리 4호분은 매장주체부의 축조방법과 상원하방형의 소환두대도의 연대를 고려하여 5세기 말로 편년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자료로 볼 때, 상원하방의 환두가 은도금된 소환두대도는 합천을 대표로 하는 대가야 지역에서 먼저 제작되기 시작하여 주변으로 전파된 것으로 판단된다. 두락리 4호분 출토품도 환두대도의 형태와 고분의 연대를 고려하면 대가야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91]

3) 철촉(鐵鏃)과 성시구(盛矢具, 화살통)

산악지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매복·기습 등 게릴라전술이 펼쳐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가장 효율적인 무기가 활과 화살이었을 것이다.[92] 월산리, 청계리 고분군에서는 도자형, 방두형, 광폭능형, 사두형 철촉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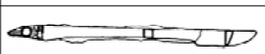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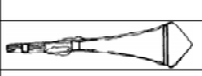
형태	도면	수량	유적
도자형		29	월산리 M1-A호 월산리 M6
			건지리 A10
방두형		6	청계리 2호 석곽 월산리 M5호분 두락리 1호분
광폭능형		7	월산리 M1-A호
사두형		20	월산리 M1-A호 월산리 M3호분 월산리 M5호분 월산리 M6호분
비대칭역자형		93	두락리 32호분

표 5. 남원 운봉고원 출토 철촉의 종류

도자형 철촉은 마한·백제, 신라, 가야의 고분에서 모두 출토되나 한반도 남부의 마한·백제, 가야 고분의 출토량이 현저히 많다. 도자(刀子)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시원형(始原形)이 4세기 중반의 천안 용원리 B-127호, 창원 도계동 19호와 4세기 말~5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복천동 11호, 옥전 23, 31호 등에서 출현한 이후, 5세기 전반 이전의 완주 상운리 라3호분(분구묘) 4-1호와 5세기 중반으로 편년되는 지산동 33호분에서 장신화된 도자형 철촉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5세기 후반~6세기 전반 무렵에는 마한·백제, 가야 고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5세기 중·후반의 청주 신봉동 92-108호와 합천 옥전 M1호분에서 1개의 역자(逆刺)가 형성된 도자형 철촉이 출현하고, 5세기 후반 이후 청주 신봉동 B지구 90-1호에서 2개의 역자가 형성된 도자형 철촉이 등장한다. 가야의 경우 6세기 전반에 이르면 촉두와 경부의 길이가 짧게 퇴화하여 도자형 철촉도 단신촉으로 변화한다.[93]

5세기 중반의 월산리 M1-A호와 5세기 후엽의 월산리 M6호분에서 도자형 철촉이 출토되었다. 월산리 M6호분 출토품은 선행하는 M1-A호 출토품보다 촉두와 경부(莖部)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어졌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통력과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개량된 것으로 생각된다. 수량이 가장 많고 6세기 전반의 소형 석곽인 건지리 A지구 10호[94]에서도 출토되어 도자형 철촉은 이 지역에서 사두형 철촉과 더불어 실전용 주력촉으로 사용된 것으로

90) 합천 옥전 M3, 함양 백천리 1-3호는 5세기 후반으로 편년되고(박천수, 2010, 앞의 책, 73~88쪽.) 합천 옥전 71호분 역시 옥전 M3호분과 같은 시기로 편년(조영제, 2007, 앞의 책, 126쪽.)되기 때문에 5세기 후반으로 설정할 수 있다.

91) 유영춘, 2017, 「전북 동부지역 출토 철제무기의 전재양상과 의미 -남원·장수 삼국시대 분묘유적 출토품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제57집, 호남고고학회, 63쪽.

92) 姜在炫, 2006, 「한국 고대 활에 대한 일고찰」,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5쪽.

93) 장상갑, 2009, 「후기가야 실전용촉의 소유양상에 대한 일고찰」, 경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7쪽.

94) 유물의 양이 적어 명확한 편년이 어려우나, 고분의 축조 방법이 두락리 4호와 같고 출토된 개(蓋)의 형태가 지산동 45호 출토품과 비교할 수 있어 6세기 전반을 전후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인다. 건지리 출토 도자형 철촉은 단신촉으로 길이가 현저히 짧아졌는데, 이는 도자형 철촉의 퇴화양상을 잘 반영한다. 인접한 장수에서 사두형 철촉과 유엽형 철촉이 실전용 주력촉으로 사용된 모습과 상이하다.[95]

방두형 철촉과 광폭능형 철촉은 삼국시대 고분에서 소량 출토되었고 그 형태가 관통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어 그동안 의례용 철촉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최근 세형계 철촉보다 큰 자상(刺傷)을 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전용 철촉으로 이해되기도 한다.[96]

청계리 2호 석곽과 월산리 M5호분을 비롯하여 두락리 1호분에서 방두형 철촉이 출토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이러한 철촉이 5세기 전반~6세기 전반 무렵까지 꾸준히 사용된 것이다. 대가야의 중심지인 합천, 고령에서 단 한 점도 출토된 바 없어, 이 지역의 방두형 철촉의 부장은 이례적인 현상이다.[97] 이러한 철촉은 군포 부곡동 Ⅰ-3호, 오산 수청동 5-1-1호, 천안 두정동 Ⅰ-5호, 청주 신봉동 92-76, 107호 등 백제에서 4세기 전반부터 5세기 중반 이전까지 출현하고,[98] 신라에서는 경주 황남동 109호, 포항 옥성리 35호 등 5세기 전반부터 6세기 전반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된다.[99] 금관가야에서는 5세기 전반 무렵의 부산 복천동 11, 21호에서, 소가야에서는 6세기 전반 이후의 고성 내산리 34호에서 출토되었다.

월산리 M1-A호에서 출토된 광폭능형 철촉 역시 방두형 철촉처럼 합천, 고령 등 대가야에서 일반적으로 부장되지 않는 철촉이다.[100] 월산리 출토품처럼 촉두의 하단부가 길고 경부가 1단인 방두형 철촉은 마한·백제권에서 4세기 전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6세기 전반을 전후한 시기까지 제작되며,[101] 신라에서는 포항 학천리 146호 등 4세기 중반~4세기 후반 무렵 집중적으로 등장한다.[102] 금관가야에서는 4세기 중반의 김해 예안리 110호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5세기 후반의 부산 생곡동 가달 17호까지 이어진다.[103]

이러한 철촉의 부장양상은 당시 대가야의 중심지인 합천, 고령지역과 남원 운봉지역의 철촉제작 및 소유 양상이 서로 달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지역에서 출토된 방두형, 광폭능형 철촉은 대가야가 아닌 백제, 금관가야, 신라 등 다른 주변국의 교류를 통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락리 32호분에서는 93점의 비대칭역자형 철촉이 출토되었다. 전체길이가 15~22㎝ 내외의 장경촉으로 인부 양쪽에는 비대칭의 역자(逆刺)가 형성되어 있다. 촉두 선단부는 검(劍)처럼 양날이 형성되어 있고 촉두 중·하단부는 도(刀)처럼 한쪽 날만 존재한다. 전체길이가 길고 촉두 선단부에 양날이 형성된 것은 관통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과 관련이 깊고 비대칭의 역자는 화살을 빠지지 않게 하거나 빼는 과정에서 2차 손상을 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살상력은 삼국시대 철촉 중에 뛰어날 것으로 판단되나 형태가 복잡하여 제작 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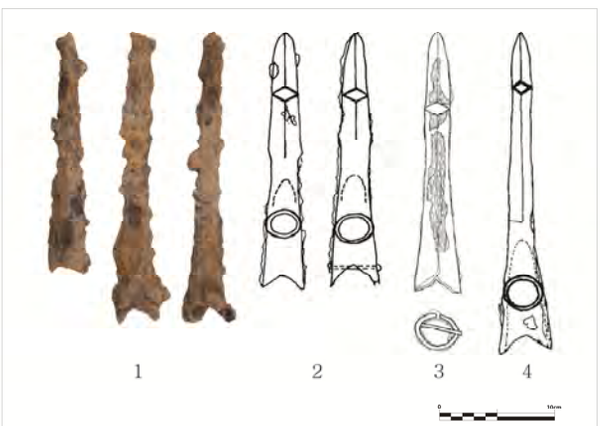
비대칭역자형 철촉은 그동안 고령 지산동 44호분에서 1점, 지산동 45호분에서 2점, 김해

95) 유영춘, 2018, 「철기유물로 본 전북지역 가야의 교류」, 『호남고고학보』, 59, 호남고고학회, 75쪽.
96) 정낙현, 2015, 「馬韓·百濟 鐵鏃의 變遷과 技能向上」, 한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6쪽.
97) 우병철, 2006, 「신라 및 가야식 철촉의 성립과 확산」, 『한국고고학보』, 58, 한국고고학회.
98) 조규희, 2013, 「마한·백제권 철촉의 변천과정」,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3쪽.
99) 우병철, 2006, 「신라 및 가야식 철촉의 성립과 확산」, 『한국고고학보』, 58, 한국고고학회, 71쪽.
100) 고령 지산동 경10호 석곽묘에서 유사한 철촉이 1점 출토되었다. 평면형태는 방두형 철촉으로 보이나 단면형태가 이등변삼각형을 이루고 있어 세장방형을 이루는 일반적인 광폭능형철촉과는 차이가 있다. 함께 출토된 사두형 철촉의 변형으로 판단된다.
101) 조규희, 2013, 앞의 논문, 103쪽.
102) 우병철, 2006, 앞의 논문, 71쪽.
103) 우병철, 2006, 앞의 논문, 71쪽.

예안리 57호분에서 4점 등 5세기 말~6세기 전반[104]의 가야 고분에서 극소량 출토되었다. 출토량이 적어 위세품의 성격을 가진 철촉으로 해석되었으나,[105] 살상력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두락리 32호분에서 다수 출토된 것으로 볼 때, 실전에 사용된 최신 철촉일 가능성이 높다. 5세기 말로 편년되는 두락리 32호분의 연대가 다른 지역에 비해 결코 늦지 않고, 출토량이 월등히 많아 운봉고원이 이러한 철촉 생산의 중심지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비대칭역자형 철촉은 6세기 이후의 왜(일본)에서 다수 출토되어 가야와 왜와의 교류관계를 보여주는 철촉으로 해석되기 때문에,[106] 당시 운봉고원과 왜(일본)와의 교류도 짐작 할 수 있다.

여러 발의 화살을 실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시구(盛矢具)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청계리 2호 석곽, 월산리 M5, M6호분에서 걸이금구 등 성시구와 관련된 부속품이 출토되었다. 걸이금구는 모두 교구와 방형의 판형금구가 결합된 형태인데, 청계리 출토품의 교구는 동으로 제작되었으며, 판형금구는 금도금되었다. 월산리 M5호분 출토품도 철제 소지에 금도금되어 장식성이 있다. 이러한 걸이금구는 마한·백제권과 가야권에 집중 분포하며, 신라지역에서 소량 출토되었다.[107]

4) 철모(鐵鉾)



도면 7. 청계리·월산리 고분 출토 철모
(1.청계리 1호 석곽, 2.월산리 M1-A호
3.월산리 M4호분, 4.월산리 M3호분)

공부(銎部, 투겁)에 자루를 끼우는 철모는 대표적인 장병기로 경부(莖部, 슴베)에 자루를 끼우는 창과 구분된다. 5세기 전반~5세기 후반의 청계리 1호 석곽, 월산리 M1-A, M3, M4호분에서 총 7점의 철모가 출토되었다. 모두 신부 단면이 마름모에 가깝고 기부는 연미형이다. 월산리 M1-A호 출토품은 관부가 약하게 돌출되었으나 나머지는 돌출되지 않았다. 공부의 단면형태는 각이 없는 원형에 가까우며, 전체 길이는 18~26㎝ 내외이다.

이러한 철모는 대가야를 중심으로 유행했던 공부다각형철모의 형태와 유사하다. 공부다각형철모는 5세기에 접어들어 고령과 합천 등에서 집중적으로 제작된다. 신부의 단면이 마름모이고 관부는 거의 돌출되지 않았으며, 기부는 연미형에 공부 단면이 다각형이다. 5세기 후반 이후에는 길이가 점차 짧아져 찌르기 적합한 형태로 변화한다. 아라가야 철모는 대가야 공부다각형철모의 영향을 받아 자체 제작되었다.[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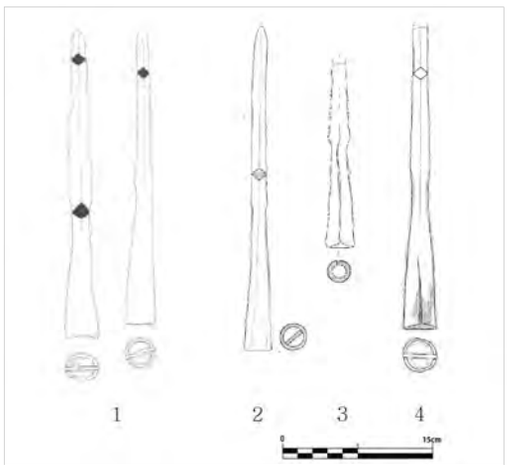
---

104) 지산동 44호분은 5세기 말, 지산동 45호분과 김해 예안리 57호분은 6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박천수, 2010, 앞의 책, 55~136쪽)

105) 우병철, 2007, 「5~6世紀 韓半島 南部地域 出土 日本列島系 鐵鏃」, 『영남문화재연구』, 20, (재)영남문화재연구원, 212~217쪽.

106) 우병철, 2007, 앞의 논문, 215쪽.

107) 마한·백제에서는 공주 수촌리 2지구 4호, 연기 송원리 KM16호, 천안 용원리 C지구, 청주 신봉동 92-109호, 논산 모촌리 93-109호에서 출토된 바 있으며, 가야에서는 고령 지산동 36호분, 함양 백천리 1-3호, 합천 반계제 가A호분, 합천 옥전 95, 20호, M1, M3호에서 출토되었다. 신라에서는 경산 임당 E1-2호, 7B호에서 출토된 바 있다.(오동선, 2018, 앞의 논문, 17쪽.)



도면 8. 두락리 32호분 출토 철모와 비교자료
(1.두락리 32호분, 2.내산리 34호분
3.내산리 63호분, 4.송학동1C호분)

청계리, 월산리 고분 출토 철모가 공부다각형철모와 유사하나 공부의 단면형태가 다각형이 아닌 원형이다. 따라서 고령, 합천 등 대가야지역에서 완성품이 이입된 것이 아니라 당시 유행했던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변의 행정리 5호, 10호, 두락리 1호분, 32호분에서 출토된 철모 역시 모두 단면형태가 원형이다. 즉, 운봉지역에서는 단면 원형의 철모가 주로 제작되었는데, 이는 공부다각형철모가 출토되는 장수지역의 양상과 다르다.

5세기 말, 두락리 32호분에서 출토된 2점의 철모는 전체길이가 30㎝ 이상으로 공부에 비해 신부의 길이가 현저히 길고 관부가 약하게 돌출되었다. 공부의 단면은 원형이며, 기부는 직기형이다. 동시기 대가야의 일반적인 공부다각형철모에 비해 고식(古式) 속성이 강하고 전체형태가 크게 달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109] 다만 고성 송학동 1C호분, 내산리 34호분, 63호분 등 소가야 지역에서 유사한 형태의 철모가 출토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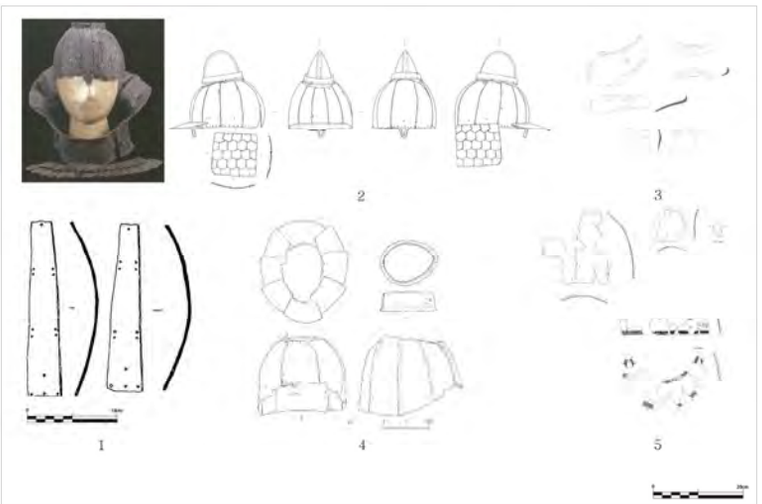
5) 종장판주(縱長板冑, 투구)

월산리 M1-A호, M5호분에서 2점의 종장판주가, 두락리 32호분에서 종장판주편이 출토되었다.

잔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월산리 M5호 종장판주는 광형(廣形) 지판 10매를 엮어 몸체(지판부)를 형성하였으며 챙, 볼가리개, 복발, 복발과 지판을 연결해주는 타원형금구가 결합되었다. 두락리 32호분에서도 챙과 타원형금구가 출토되어 동일한 형태의 종장판주가 부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월산리 M1-A호에서 출토된 종장판주는 20매 이상의 세형(細形) 지판을 엮어 몸체를 제작하였으며, 현재 복발이 유실되었으나 타원형금구가 잔존하여 본래 복발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판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투공 이외에 지판 하단부 중앙에 챙을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투공이 있어 챙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구조적으로 월산리 M5호분 출토품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남원 운봉고원에서는 월산리 M1-A호 단계의 5세기 중엽부터 두락리 32호분 단계의 5세기 말까지 동일한 형태의 종장판주가 제작 및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월산리 M1-A호 출토품은 세형(細形) 지판으로 구성되었고 M5호분 출토품은 광형 지판으로 이루어졌다. 가야의 종장판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3단계의 변화를 거친다. 1단계는 광형 지판을 20매 이하로 엮어 몸체를 제작하는데, 만곡하거나 만곡하지 않는 지판이 모두 사용된다. 볼가리개는 삼각형 철판을 이용한 지판 볼가리개이다. 김해 대성동 18호, 부산 복천동 38호 등 4세기 대의 고분에서 주로 출토되었다. 2단계는 지판이 세장하게 변화하여 그 수가 20~40매로 증가하며, 볼가리개는 소찰로 변화한다. 부산 복천동 93호, 김해

108) 우병철, 2015, 앞의 책, 64~71쪽.
109) 金承新, 2016, 「大加耶圈 古墳 出土 武裝의 類型과 展開에 대한 硏究」, 慶尙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90쪽.



도면 9. 월산리 M1-A호, M5호분 출토 종장판주 비교자료
(1.월산리 M1-A, 2.월산리 M5호분, 3.두락리 32호분
4.지산동 B-3호, 5.지산동 518호분)

대성동 1호, 고령 지산동 32호, 합천 옥전 8호 등 5세기 전반~5세기 중반의 고분에서 주로 출토되었다. 3단계는 다시 광형 지판이 사용되어 20매 이하로 줄고 지판에 곡선을 주거나 지판이 금동으로 제작되어 장식성이 가미된다. 또한 차양과 복발을 결합한 형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합천 옥전, 월산리 M5호분 등 5세기 후반 이후의 출토품이 해당한다.[110] 따라서 지판의 형태로 볼 때, 세형인 월산리 M1-A호 출토품은 복발이 달린 국내 종장판주 중 가장 고식(古式)의 형태로 5세기 중반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며, 광형에 부속구가 부착된 월산리 M5호분 출토품은 5세기 후반의 전형적이 형태이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간취할 수 있으며, Ⅱ장에서 설정한 고분의 연대와 부합한다.

이러한 종장판주에 대해 복발의 형태를 근거로 기원을 백제에서 찾기도 하나[111] 아직 실물이 출토된 바 없으며, 5세기 중엽으로 편년되는 창녕 교동 3호분에서 타원형금구와 복발편이 출토되어 유사한 형태의 주(冑)가 부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112] 가야에서는 운봉고원 출토품을 포함하여 6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고령 지산동 518호분, B-3호묘[113]에서 각 1점씩 출토되었다. 현재까지 실물이 가야의 고지를 중심으로 출토되어 가야에서 집중 제작·사용된 종장판주임에는 틀림없다. 남원 운봉고원에서 이러한 형태의 종장판주가 줄곧 사용된 점, 지판의 형태로 볼 때 월산리 M1-A호 출토품이 가야 출토품 중 가장 고식으로 판단되는 점, 고령 지산동 출토품이 6세기 이후의 고분에서 출토되어 운봉고원 출토품보다 후행한다는 점을 근거로 기원지에 대한 보다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운봉고원도 이러한 종장판주의 고안지 후보 중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군마현 칸논야마, 후쿠시마현 이케노우에 1호분 등 6세기 이후의 일본 고분에서 출토된 수신광판병유식주(竪矧廣板鋲留式冑)는 위에서 살펴본 종장판주처럼 복발이 존재해 상호 관련성이 있다.[114] 국내 출토품이 선행하여 그 기원을 한반도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일본 주(冑) 제작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115] 따라서 월산리 M5호분 등 운봉고원에서 출토된 종장판주는 당시 왜(일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로 이해된다.

110) 김혁중, 2016, 「가야의 갑주」, 『가야고고학개론』, 진인진, 425~427쪽.
111) 이현주, 2015, 「삼국시대 소찰주 연구」, 『우정의 고고학』, 진인진, 362~367쪽.
112) 이 시기 창녕 고분을 축조한 세력에 대해 신라와 가야 중 어느 세력에 포함 시킬지에 대하여 아직 이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교동 3호분 출토 주(冑)를 가야의 주로 단정할 수 없다.(김혁중, 2016, 앞의 책, 428쪽.)
113) 복발과 챙은 유실되었으나 지판 월산리 M1-A호 출토품처럼 타원형금구와 지판 하단부 중앙에 투공이 있어 본래 복발과 챙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14)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6, 앞의 책, 206쪽.
115) 『갑주, 전사의 상징』, 2015, 국립김해박물관, 46쪽.

4. 철기유물의 변천과 생산배경

1) 철기유물의 변천

등자, 비, 사행상철기, 철촉, 종장판주 등에서 무구의 개별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등자는 운봉고원 출토 무구 중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한다. 병부와 윤상부의 전·후·측면이 모두 철판으로 보강되고 윤상부와 답수부의 폭이 동일한 청계리 1, 2호 석곽 출토 목심윤등이 5세기 전반의 것으로 가장 선행한다. 그 후 병두부와 윤상부의 전·후면만 철판으로 일부 보강되고 답수부가 넓은 5세기 중반의 월산리 M1-A호 출토품이 뒤를 잇는다. 5세기 후반에는 월산리 M5호분에서 1갈래의 답수부를 갖는 철제윤등이 등장하기 시작하며, 5세기 말에는 백제계 호등 제작기술을 기반으로 목심호등이 출현한다. 6세기 전반에는 두락리 1호분에서 기수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량된 철제윤등이 등장한다. 이처럼 운봉고원 출토 등자는 5세기 이후 삼국시대 등자의 변천 양상을 잘 반영한다. 비는 5세기 후반 이전 월산리 M1-A호, M5호분에 내만타원형판비가 부장되었다가 6세기 전반의 두락리 1호분에 접어들어 복환판비가 출현한다. 사행상철기는 5세기 후반의 월산리 M5호분과 6세기 전반의 두락리 1호분에서 출토되었다. 국내에서도 5세기 후반부터 사행상철기가 출현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물의 부장 여부는 이 지역의 5세기 중반 또는 5세기 후반 고분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5세기 중반~6세기 전반의 월산리 M1-A호, M5호분, 건지리 A지구 10호 출토 도자형 철촉에서 장경화 및 단경화 양상을 순차적으로 찾을 수 있어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엿보인다. 종장판주는 지판의 형태에 따라 5세기 중반과 후반을 기점으로 세형에서 광형으로 변화하는데, 월산리 M1-A호 출토품(세형)과 M5호분 출토품 등(광형)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운봉고원 출토 무구는 5~6세기대 삼국시대 철기의 변화양상이 반영되어있어 Ⅱ장에서 설정한 고분의 연대와 대체로 부합한다. 운봉고원 철제 무구의 출현 시기가 백제, 신라, 다른 가야지역에 비해 늦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서는 최신의 철기 제작기술을 발 빠르게 수용해 철기를 제작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운봉고원 출토 철기는 대가야 출토 철기와 상당히 다른 양상이다. 청계리, 월산리에서 출토된 철모는 전체형태가 대가야, 아라가야의 것과 유사하나 공부의 단면 형태가 모두 원형으로 전형적인 공부다각형철모가 아직 단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았다. 주변 가야에서 유행하던 철모를 모방하여 현지에서 제작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두락리 32호분에서 출토된 2점의 철모는 전체길이가 길고 관부가 돌출되었으며 기부는 직기형으로 고식(古式)의 형태를 띤다. 동 시기 대가야 철모와 비교 사례를 찾기 어려우며, 소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철모와 비교할 수 있다. 철촉은 도자형, 사두형 철촉이 주력촉으로 사용되었으나 대가야 영역에서 사용되지 않은 방두형, 광폭능형 철촉도 부장되었다. 또한 다른 가야 지역을 통틀어 10점 미만으로 출토된 비대칭역자형철촉이 두락리 32호분에서 100점 가까이 부장된 점도 특징이다. 두락리 1호분 출토 복환판비는 대가야에서 출토된 것과 함유의 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하기 어려우며, 월산리 M5호분에서 출토된 사행상철기는 대가야와 신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A형이 아니라 이른 시기부터 B형이 사용되었다.

이는 이 지역 철기가 대가야에서 완제품이 이입되거나 모두 대가야의 제작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주변국의 기술을 다양하게 수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앞 장의 검토 내용을 정리한 표를 살펴보면, 이 지역 철기는 백제, 신라, 대가야, 소가

야, 마한, 왜(일본) 등과 관련이 있어 철기문화의 수용 및 전파라는 측면에서 주변국과 다양한 교류가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남원 운봉고원 출토 철제 무구의 시기별 변천 양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5세기 전반의 청계리 1, 2호 석곽에서 인수편과 등자편, 철촉, 철모가 출토되었다. 잔존하는 철기의 수량이 적거나 편만 출토되어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 힘들다. 다만, 대가야에서 찾기 힘든 방두형 철촉과 공부 단면이 원형인 철모가 부장되어 대가야와 차이가 있다. 또한 인수편으로 볼 때, 이 지역에서는 굽은 인수가 채용된 비(轡)가 이른 시기부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대	유물	주변과의 관계	내용
5C 전	청계리 1호 석곽 인수편	미상	인수외환이 굽은 인수편
	청계리 1, 2호 석곽 목심윤등편	미상(백제, 대가야)	윤상부와 답수부의 폭일 동일한 5세기 전반 형태
	청계리 1, 2호 석곽 방두형 철촉	미상(백제, 신라, 금관가야)	방두형 철촉, 대가야권에서 확인되지 않은 형태
	청계리 1, 2호 석곽 철모	대가야?	공부다각형철모 모방 제작
5C 중	월산리 M1-A호 내만타원형판비	백제→운봉→대가야	굽은 인수외환 내만타원형판비, 대가야 출토품보다 선행
	월산리 M1-A호 목심윤등	백제→운봉→대가야	답수부 넓은 목심윤등, 대가야 출토품보다 선행
	월산리 M1-A호 환두대도	(남조)→백제→운봉	귀갑문, 가야 5세기 후반 출현
	월산리 M1-A호 광폭능형 철촉	미상(백제, 신라, 금관가야)	광폭능형 철촉, 대가야에서 확인되지 않은 형태
	월산리 M1-A호 철모	대가야?	공부다각형철모 모방 제작
	월산리 M1-A호 종장판주	(운봉→대가야)→왜	국내 복발 종장판주 중 가장 고식의 형태
5C 후	월산리 M5호분 판비	운봉↔마한	고창 봉덕리 출토품과 동일
	월산리 M5호분 철제윤등	미상	삼국시대 철제윤등 초기형태, 5세기 후반 형태
	월산리 M5호분 사행상철기	운봉→소가야→대가야	사행상철기 삼국시대 5세기 후반 등장, 신라·가야 형태와 다름, B형 중 가장 선행
	월산리 M5호분 방두형 철촉	미상(백제, 신라, 금관가야)	방두형 철촉, 대가야권에서 확인되지 않은 형태
	월산리 M5호분 종장판주	(운봉→대가야)→왜	복발 종장판주 광형 지판 변화, 대가야 출토품보다 선행
5C 말	두락리 32호분 호등	백제→운봉→소가야	공주 수촌리, 고성 내산리 출토품과 관련
	두락리 32호분 비대칭역자형 철촉	운봉·대가야→왜	실전용 철촉,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량 출토
	두락리 32호분 철모	운봉↔소가야	동시기 철모에 비해 고식의 형태, 소가야 출토품과 비교
	두락리 32호분 종장판주	(운봉→대가야)→왜	월산리 M5호 출토품과 동일, 대가야 출토품보다 선행
6C 전	두락리 1호분 복환판비	신라→운봉→마한	옥전 85호분 대가야 복환판비와 함유 등 차이
	두락리 1호분 사행상철기	운봉←대가야	반계제 다A호분 등 대가야 출토품과 동일
	두락리 1호분 방두형 철촉	미상(백제, 신라, 금관가야)	방두형 철촉, 대가야에서 확인되지 않음
	두락리 4호분 소환두대도	운봉←대가야	옥전 M3 호분 등 대가야 출토품과 동일

표 6. 운봉고원 출토 철기 비교·검토 내용 정리표

월산리 M1-A호에서 출토된 마구와 환두대도로 볼 때, 5세기 중반 무렵에는 백제에서 최신 철기 제작기술이 운봉고원에 전파되어 이를 토대로 철기가 생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월산리 M1-A호에서 출토된 내만타원형판비와 목심윤등은 백제에서 받아들인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운봉고원을 교두보로 철기 제작기술이 대가야에 전파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은상감환두대도는 상감기법과 문양으로 볼 때, 백제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물은 월산리 M5호분에서 출토된 청자 천계호처럼 중국 남조와 백제, 남원 운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유물로 이해할 수 있다.

5세기 후반~5세기 말에는 백제뿐만 아니라 대가야, 소가야, 마한, 왜(일본)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철기의 제작 및 기술의 전파에 있어 이전보다 주변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월산리 M5호분 출토 내만타원형판비를 통해 마한과의 교류를 짐작할 수 있으며, 두락리 32호분 출토 호등을 통해 앞 시기에 이어 백제에서 최신의 등자 제작기술이 지속적으로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호등은 백제(공주 수촌리)-운봉고원(남원 두

락리)-소가야(고성 내산리)로 계보가 이어진다. 또한 월산리 M5호분, 두락리 32호분 출토 종장판주와 월산리 M5호분 출토 사행상철기는 동일 형태의 것이 대가야에서도 출토되었으나 운봉고원 출토품이 선행하여 철기 제작기술이 고령 등 대가야 지역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종장판주와 비대칭역자형철촉은 두락리 32호분 출토 청동거울과 함께 운봉고원과 왜(일본)의 교류를 나타낸다.[116] 475년 백제가 웅진 천도를 계기로 혼란에 빠질 무렵, 이 지역의 가야가 백두대간을 넘어 섬진강 루트를 통해 왜(일본)의 철기문화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청계리 1호 석곽 출토 수즐을 고려하면, 그 이전부터 운봉고원과 왜(일본)의 교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6세기 전반에는 두락리 1호분 출토 사행상철기와 두락리 4호분 상원하방형 소환두대도로 볼 때, 대가야 철기 제작기술이 이 지역에 강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두락리 1호분 출토 토기가 대가야 양식 일색으로 변화하는 것에서도 그러한 양상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락리 출토 복환판비(신라 및 마한 관련)와 방두형 철촉처럼 대가야와 차이가 있는 철기도 함께 부장된다.

한편, 최근 축적된 고고학적 성과를 근거로 기문의 위치를 운봉고원으로 보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117] 『일본서기』, 계체 7년(514년)의 기록[118]으로 볼 때, 운봉고원은 반파에게 빼앗기는 5세기 말 이전에 백제의 영향이 강하게,[119] 6세기 전반 이후에는 반파의 영향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세기 말 이전에 보이는 백제 무구와의 관련성과 6세기 전반 이후 가야 관련 무구의 부장은 기문의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철기유물의 생산 배경

지표조사를 통해 남원 운봉고원에는 총 32개소의 제철유적이 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20] 제철유적은 백두대간 산줄기 따라 밀집 분포하며, 계곡과 산줄기 하단부의 완만한 지형에 입지한다. 유적에서는 노벽편, 철재(鐵滓) 등 부산물이 쌓여 형성된 폐기장이 확인되어 광석에서 철을 1차로 분리하는 제련(製鍊)이 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다목적지화학도에는 제철유적이 위치한 곳 또는 그 주변에 철 광화대(鑛化帶)[121]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표기되어있다. 또한 제철유적에서 수습된 철재에 대한 희토류 원소 분석[122]을 실시한 결과, 원료 기원의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123] 이는 백두대간 주변의 철광석을 기반으로 제철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덕동리 등 운봉고원에 폭넓게 분포하는 '반상변정편

116) 두락리 32호 출토 청동거울은 중국 남조와의 관계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유사한 청동거울이 왜(일본)에서 다수 발견되는 것으로 볼 때, 왜와의 관계도 배제할 수 없다.(전북대학교박물관·남원시, 2015, 『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32호분』.)

117) 곽장근, 2012, 「임나사현과 기문의 위치」, 『전남지역 마한 소국과 백제』, 백제학회, 289~ 308쪽; 김재홍, 2017, 「위세품으로 본 전북가야의 위상과 그 성격」, 『전북가야를 선언하다』,호남고고학회, 55쪽.

118) '半破國'이 臣(백제)의 나라인 己汶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119) 웅진으로 천도하기 전인 5세기 후반 이전에 운봉고원에 대한 백제의 영향력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120) 『전북가야 제철 및 봉수유적 정밀현황조사 보고서』, 2019, 전라북도·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75쪽.

121) 특정 원소가 지각 내 평균 함유량보다 높은 비율로 존재하는 밀집 지역으로 경제적 개발 가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경제적 개발 가치가 있는 경우 광상(鑛床)이라 한다.

122) 원소 분석을 통해 암석의 기원물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산지와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다.

123) 『전라지역 제철유적 출토시료의 자연과학적 분석보고서』, 2018, 국립중원화재연구소, 174쪽.

마암’에는 자철석(磁鐵石)이 함유되어 있어[124] 자철석을 원료로 제철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까지 남원 월산리, 청계리 등 가야 고분과 동시기에 운영된 제철유적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철유적과 철광석의 존재로 볼 때, 삼국시대에도 철 및 철기 생산을 위한 자연적 기반은 분명 갖춰져 있었다. 또한 가야고분에서 출토된 다양한 종류의 최신 철기에서 가야인의 수준 높은 철기 기술을 찾을 수 있어, 당시 운봉고원의 질 좋은 원료(철광석 등)와 철기 생산기술이 만나 역동적인 철기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남원 운봉고원과 인접한 장수에서 단야구가 출토되었다. 장수 장계리 8호분에서 출토된 단야구는 집게와 망치, 모루로 구성되었다. 집게는 길이 21.9㎝, 망치 6.3㎝, 모루 5.5㎝로 망치의 한쪽 면에서 사용 흔적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망치의 크기가 작아 철기 완제품을 제작하는 단련단야(鍛鍊鍛冶) 공정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수 장계리 8호분의 피장자는 이 지역 철기제작을 담당했던 수장층의 분묘유적으로 추정된다.[125] 장수에서 전북 동부지역 가야의 철 생산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가 드러난 바, 향후 남원 운봉고원에서도 이러한 유물이 출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운봉고원 출토 철기에서 백제, 대가야, 소가야, 신라, 마한 등 주변과의 다양한 관련성이 엿보인다. 운봉고원은 서쪽의 백제, 동쪽의 가야와 신라를 잇는 최단 거리의 간선 교통로가 통과하는 곳으로 백제 선진문물의 교섭 창구이자 큰 관문이다.[126] 이 지역 가야인들이 지리적 이점을 살려 최신의 철기 생산기술을 받아들였으며, 주변에 전파하는 역할도 일부 수행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 지역의 철기가 무조건 동쪽에서 전파된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백제 등 서쪽의 철기 제작기술을 받아들여 동쪽으로 전파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5세기 후반 이후부터 섬진강 유역을 따라 왜(일본)과의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완주 혁신도시 등 호남의 철기문화가 영남으로 전파되는 시기[127]에 전북 동부지역이 거점의 역할을 수행한 것도 이러한 지리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128]

즉, 질 좋은 철광석, 현지인의 철기 생산기술, 동-서의 핵심 교통로는 이 지역 철기문화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 것이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남원 월산리, 청계리 등 운봉고원 가야고분에서 출토된 철제 무구를 종류별로 정리한 후 삼국시대 출토품과 비교·검토하여 주변국과의 관련성을 찾아보았다. 또한 검토내용을 정리하여 철제 무구의 변천과 교류 관계 등을 살펴보았으며 지질, 지리, 지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러한 철기의 제작 배경에 대해 추론하였다.

이 지역 철기는 대가야 지역에서 제작된 완제품이 이입되었거나 모두 대가야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검토 결과 대가야 이외에 백제,

124) 『지질도폭 설명서 - 운봉(雲峰)-』, 1964, 한국지질자원연구소, 8쪽.
125) 『장수 백화산 고분군 발굴조사 약보고서』, 2020, 장수군·(재)전북문화재연구원, 35쪽.
126) 곽장근, 2014, 「남원의 고고학적 연구성과」, 『가야와 백제, 그 조우(遭遇)의 땅 ‘남원’』, 남원시·호남고고학회, 64쪽.
127) 최성락, 2019, 「호남지역 철기문화의 형성과 변천」, 『도서문화』, 46,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136쪽.
128) 이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장수 남양리 유적이 있다.

소가야, 신라를 비롯하여 멀리 왜(일본)와 관련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주변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철기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가야, 소가야, 왜(일본)와 관련된 철기 중 운봉고원 출토품이 시기적으로 앞서 다른 지역 철기문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다시 말해, 운봉고원을 발판삼아 철기문화가 동에서 서로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에서 동으로도 전파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청계리, 월산리 등 운봉고원 출토 철제 무구는 서에서 동으로의 철기의 전파 과정과 5~6세기대 주변과의 교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의 의미가 깊다.

시기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5세기 중반에는 백제를 통해 선진 철기의 유입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5세기 후반~5세기 말에는 백제 이외에 대가야, 소가야, 마한, 왜(일본) 등 철기의 제작 및 전파라는 측면에서 주변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로 보인다. 6세기 전반에는 대가야의 제작기술을 받아들여 제작된 철기의 부장이 늘어나나 복환판비 등 이외의 지역과 관련된 철기도 공반된다. 이러한 변화 양상을 기문의 문헌기록과 연관지어 당시 운봉고원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주변국과 관련된 최신의 철기가 부장된 배경으로는 이 지역의 원료(철광석 등), 현지의 철기 생산기술, 동-서의 핵심 교통로를 꼽았다.

본고의 분석대상이 많지 않아 시기별 변화 양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무구와 공반된 농공구(農工具)의 검토를 통해 본고의 미비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단행본

국립공주박물관, 2015, 『한국의 고대 상감, 큰 칼에 아로새긴 최고의 기술』.
국립김해박물관, 2015, 『갑주, 전사의 상징』, 46쪽.
곽장근, 2019, 『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전북』,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김세기, 2003, 『고분자료로 본 대가야 연구』, 학연문화사.
김용성, 2009, 「제3장 신라왕궁 고분군의 조영과정」, 『신라왕도의 고총과 그 주변』, 학연문화사.
金泰植, 1993, 『加耶聯盟史』, 일조각.
김혁중, 2016, 「가야의 갑주」, 『가야고고학개론』, 진인진.
남익희, 2014, 「고 신라토기」, 『신라고고학개론 下』, 진인진.
노중국, 2004, 「대가야의 성장기반 -4세기를 중심으로-」, 『대가야의 성장과 발전』, 고령군·한국고대사학회.
류창환, 2007, 『加耶馬具의 硏究』, 東義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류창환, 2012, 『가야마구의 연구』, 서경문화사.
박천수, 2010, 『가야토기』, 진인진.
신동조·장기명, 2016, 「가야의 철생산과 철기문화」, 『가야고고학개론』, 진인진.
우병철, 2015, 「대가야 철제무기의 특성과 확산」, 『대가야 문물의 생산과 유통』, 고령군대가야박물관·(재)영남문화재연구원.
이한상, 2004, 『황금의 나라 신라』, 김영사.
이현주, 2015, 「삼국시대 소찰주 연구」, 『우정의 고고학』, 진인진.
이희준, 2007,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정주희, 2016, 「가야의 토기」, 『가야고고학개론』, 진인진.
조영제, 2007, 『옥전고분군과 다라국』, 혜안.
한국지질자원연구소, 1964, 『지질도폭 설명서 -운봉(雲峰)-』.

보고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6, 『고령 지산동 고분군 518호분』, 237쪽.
재단법인 대동문화재연구원, 2020, 『고령 지산동 대가야고분군Ⅰ』, 405쪽.
영남대학교박물관, 2004, 『고령 지산지구 국도 개량공사구간 내 유적 고령 지산동 고분군』.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6, 『高敞 鳳德里 1號墳 종합보고서 -本文-』.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12, 『남원 월산리고분군』.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9,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 발굴조사 자문위원회의 자료집」.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83, 『남원 월산리고분군발굴조사보고』.
장수군·(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20, 「장수 백화산 고분군 발굴조사 약보고서」.
국립중원화재연구소, 2018, 『전라지역 제철유적 출토시료의 자연과학적 분석보고서』.
전라북도·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19, 『전북가야 제철 및 봉수유적 정밀현황조사 보고서』.
경남고고학연구소, 2001, 『昌寧 桂城 新羅古塚群』.
(재)충청문화재연구원·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11, 『천안 유리·독정리·도림리 유적』.

국립공주박물관, 1991, 『天安 花城里 百濟墓』.
전북대학교박물관·남원시, 2015, 『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32호분』.

학술지 게재논문

諫早直人, 2007, 「慶州 月城路 다-6號墳 出土 復環式環板轡의 再檢討」, 『慶北大學校博物館年報』 4. 慶北大學校博物館.
김낙중, 2010, 「榮山江流域 古墳 出土 馬具 硏究」, 『한국상고사학보 』 69, 한국상고사학회.
류창환, 2007, 「삼국시대 철제등자에 대한 일고찰」, 『考古廣場』 창간호, 釜山考古學硏究會.
성정용, 2003, 「漢城期 百濟馬具의 編年과 그 起源」, 『國史館論叢』 第101輯, 국사편찬위원회.
신경철, 1989, 「加耶의 武具와 馬具」, 『國史館論叢』 7, 국사편찬위원회.
우병철, 2006, 「신라 및 가야식 철촉의 성립과 확산」, 『한국고고학보』 58, 한국고고학회.
우병철, 2007, 「5~6世紀 韓半島 南部地域 出土 日本列島系 鐵鏃」, 『영남문화재연구』 20, (재)영남문화재연구원.
유영춘, 2015, 「운봉고원 출토 마구의 의미와 등장배경 - 轡, 蛇行狀鐵器, 鐙子를 중심으로 -」, 『호남고고학보』 51, 호남고고학회.
유영춘, 2017, 「전북 동부지역 출토 철제무기의 전재양상과 의미 - 남원·장수 삼국시대 분묘유적 출토품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제57집, 호남고고학회.
유영춘, 2018, 「철기유물로 본 전북지역 가야의 교류」, 『호남고고학보』 59, 호남고고학회.
윤정아, 2013, 「공예품에 보이는 육각문의 상징적 의미 - 삼국시대 공예품을 중심으로-」, 『조형디자인연구』 16권, 한국조형디자인협회.
이귀영, 2010, 「百濟 龜甲文 考察」, 『신라사학보』 18, 신라사학회.
이상율, 2007, 「삼국시대 호등의 출현과 전개」, 『한국고고학보』 65, 한국고고학회.
이상율, 2009, 「新羅·大加耶 新式板轡의 成立」, 『고문화』 74호,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이훈, 2005, 「수촌리고분군 출토 백제마구에 대한 검토」, 『충청학과 충청문화』 4,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소.
이훈, 2012, 「백제의 지방과 대외교류; 금동관을 통해 본 백제의 지방통치와 대외교류」, 『백제연구』 55권,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이희준, 1994, 「고령양식 토기 출토 고분의 편년」, 『영남고고학회』 15호, 영남고고학회.
임지영, 2016, 「고대 금속상감에 관한 시론」, 『고고광장』 18호, 부산고고학연구회.
전상학, 2007, 「전북 동부지역 수혈식 석곽묘의 구조 연구」, 『호남고고학보』 제25집, 호남고고학보.
정호섭, 2010, 「高句麗 壁畫古墳의 編年에 관한 檢討」, 『先史와 古代』 33, 한국고대학회.
최성락, 2019, 「호남지역 철기문화의 형성과 변천」, 『도서문화』 46,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학술대회 게재논문

곽장근, 2012, 「임나사현과 기문의 위치」, 『전남지역 마한 소국과 백제』, 백제학회.

곽장근, 2014, 「남원의 고고학적 연구성과」, 『가야와 백제, 그 조우(遭遇)의 땅 '남원'』, 남원시·호남고고학회.

김규동, 2012, 「신봉동 출토 파배 고찰」, 『신봉동, 백제의 전사를 만나다』.

김낙중, 2010, 「榮山江流域 古墳 出土 馬具 硏究」, 『한국상고사학보 』, 69, 한국상고사학회.

김재홍, 2017, 「위세품으로 본 전북가야의 위상과 그 성격」, 『전북가야를 선언하다』,호남고고학회.

李軍, 2017, 「계수집호에 관련된 문제 및 한국의 고대 가야고분에서 발견된 의의」, 『전북가야를 선언하다 국제학술심포지엄』, 호남고고학회.

박경도, 2019, 「철제무기 비교분석을 통한 마한·백제 그리고 가야 -장식대도를 중심으로-」, 『제27회 호남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마한·백제 그리고 가야』, 호남고고학회, 157쪽.

박순발, 「계수호와 초두를 통해 본 남원 월산리 고분군」, 『운봉고원에 묻힌 가야무사』, 국립전주박물관·(재)전북문화재연구원.

朴淳發, 2000, 「加耶와 漢城百濟」, 『제6회 가야사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김해시, 9쪽.

이건용, 2020, 「남원 청계리 고분군 출토유물 연구」, 『남원 청계리·월산리 고분군 역사적 가치와 의미』, 남원시·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이영범, 2019, 「운봉고원 철기유물의 제작기법 연구」, 『백두대간 운봉고원 역사적 가치와 의미』, 남원시·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최기은, 2015, 「백제 상감 기술의 제작기법과 그 특징」, 『큰 칼에 아로새긴 최고의 기술』.

학위논문

姜在炫, 2006, 「한국 고대 활에 대한 일고찰」,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金斗喆, 2000, 『韓國 古代 馬具의 硏究』, 東義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金承新, 2016, 「大加耶圈 古墳 出土 武裝의 類型과 展開에 대한 硏究」, 慶尙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李承信, 2008, 「加耶 環頭大刀 硏究」, 弘益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44쪽.

이문형, 2020, 『高敞 鳳德里古墳群 築造勢力 硏究』, 公州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이영범, 2009, 「6C 이전 제작된 소환두도의 병부 제작기법 연구 -전라북도 출토 소환두도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혜빈, 2018, 『삼국시대 중국제 도자기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상갑, 2009, 「후기가야 실전용촉의 소유양상에 대한 일고찰」, 경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낙현, 2015, 「馬韓·百濟 鐵鏃의 變遷과 技能向上」, 한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규희, 2013, 「마한·백제권 철촉의 변천과정」,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인진, 2001, 「全北 東部 地域 石槨墓 出土 土器 硏究 : 長頸臺와 器臺를 中心으로」, 全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남원 월산리·청계리 고분 출토 철제 무구의 종류와 의미」에 대한 토론문

조대연(전북대학교)

이 발표는 운봉고원 가야고분에서 출토된 철제 무기와 마구를 삼국시대 출토품과 비교·검토하고 이를 통해 철제 무기와 마구의 변천양상과 주변지역과의 교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특히 발표자는 5세기에서 6세기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의 철기 제작과 유통에 백제, 대가야, 소가야, 마한, 왜(일본) 등 여러 세력이 연결되었으며, 그만큼 이 지역에서 철기를 통한 문물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대단히 주목된다. 토론자는 이 지역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발표자는 다소 이례적으로 무기가 아닌 무구(무기와 마구)에 대한 분석을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논문의 양이 상대적으로 길어졌는데 이렇게 무기와 마구를 동시에 분석한 배경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린다.

둘째, 발표자는 월산리 M5호분에서 출토된 내만타원형판비를 고창 분구묘 축조집단(마한)과, 그리고 두락리 1호분에서 출토된 복환판비를 고창과 신라와의 다원적 교류를 보여주는 유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남원과 고창지역과의 지리적 연계가 가능한 유적, 유물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셋째, 발표자는 사행상철기 B형 중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품이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되었기 때문에, 운봉고원에서 개발된 후 제작기술이 대가야, 소가야 등 주변으로 파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철기는 출토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그 제작방식이 단순하여 기능에 따른 시기적 변천양상을 따지기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보완 설명을 부탁드린다.

넷째, 발표자에 따르면, 두락리 32호분에서 다수 출토된 비대칭역자형 철촉은 실전에 사용된 최신 철촉일 가능성이 높고 5세기 말로 편년되는 두락리 32호분의 연대가 다른 지역에 비교해 이르고 출토량이 월등히 많아 남원지역이 비대칭역자형 철촉 생산의 중심지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비대칭역자형 철촉은 6세기 이후의 왜(일본)에서 다수 출토되어 가야와 왜와의 교류관계를 보여주는 철촉으로도 해석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일본 출토 비대칭역자형 철촉의 양상을 좀 더 상세히 소개해 주시고 한일 자료의 비교, 검토를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운봉지역에서 가야 철기의 제작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한다. 발표자는 본 논문에서 장수 장계리 8호분에서 출토된 단야구를 근거로 해서 남원지역에서도 제철공정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남원지역은 장수지역과는 남강수계와 금강수계로 지리적으로 구별된다. 또한 남원지역에서는 철 생산의 자연적 기반은 존재하고 있을지언정 아쉽게도 이 시기로 특정할 만한 제철유적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물론 추후 운봉고원에서도 철 생산 관련 유구, 유물이 출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와 관련된 최신 자료나 현황이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린다.

Part
08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과 월산리고분군의 가치와 활용방안

발 표 : 홍보식 | 공주대학교

토 론 : 최규호 | 남원시청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과 월산리고분군의 가치와 활용방안

홍보식(공주대학교)

목 차

1. 머리말
2. 특징
 1) 봉분 형태와 축조 기술
 2) 매장주체시설
 3) 부장품 구성
3. 활용
4. 가치
5. 맺음말

1. 머리말

청계리고분군은 해발 770m의 시리봉에서 동쪽 방향으로 뻗은 지맥이 해발 500m 되는 곳(청계마을 북쪽 방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뻗은 구릉 능선에 위치한다. 해발 500m 정상에서 북동방향으로 길게 뻗어내린 구릉 말단부의 미고지에 월산리고분군이 위치한다. 청계리고분군과 월산리고분군이 위치한 구릉은 'ㄷ'자 모양의 평면형태를 이룬다. 청계리고분군과 월산리고분군간은 직선으로 대략 460m 이격되어 있다. 청계리고분군이 위치한 구릉 능선의 동쪽은 월산리이고, 서쪽은 청계리로 행정구역이 구분되어 있지만, 양 고분군은 중심 봉우리에서 남쪽과 동북쪽으로 분기된 구릉에 위치하고 있어 하나의 고분군으로 볼 수 있다. 이 고분군 일대를 대상으로 정밀지표와 측량 조사 내용이 보고되지 않아 고분군의 전체적인 내용과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청계리고분군은 구릉 능선 정상부를 따라 약 10기의 고총고분이 열을 이루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계리고분군 전체에 대한 정밀 분포조사와 측량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 구릉 능선 남쪽 부위에 위치한 1호분 1기가 조사되었지만, 이 1기 고분의 조사 내용도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되지 않아 조사에서 밝혀진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청계리 1호분 아래부터 능선이 사면으로 바뀌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동쪽으로 고안마을로 이어진다. 이곳에는 광평유적과 청계리 광평고분이 분포한다. 마을명에 의해 별도의 유적명이 부여되었는데, 청계리고분군에 포함할 수 있다.[1)]

청계리고분군의 동쪽에 위치한 월산리고분군은 1982년 88고속도로건설에 수반해서 3기의 고총고분이 조사되었다.[2)] 이후 광주-대구간 고속도로 확장공사에 의해 3기의 고총고분이 추가로 조사되었다.[3)] 월산리고분군은 10여기의 고총고분이 능선 발단부에 분포한 것으로 파악

1) 청계리고분군이 위치한 동일 구릉은 현재 아영중학교와 고등학교 일대까지 완만하게 연결되어 있다. 고인마을과 아영고등학교 사이 일대에 청계리의 고총고분보다 시기가 앞선 고분인 목곽묘가 존재할 가능성과 청계리-월산리고분군 조영집단의 거주 구역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2) 全榮來 1983, 『南原, 月山里古墳群發掘調査報告』,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청계리고분군과 월산리고분군은 구릉이 'C' 자 모양으로 뻗은 구릉의 각 방향에 위치한 2개의 군으로 이루어졌다고 파악된다.

청계리-월산리고분군의 동쪽에 풍천을 사이에 두고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위치한다. 청계리·월산리고분군과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직선거리로 1.5~1.9㎞ 이격되었다.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정밀측량조사 결과 40여기의 고총고분이 확인되었다. 지금까지의 다양한 조사에서 확인된 고총고분 수는 청계리-월산리고분군에 비해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다소 많다.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현재까지 4기의 고총고분과 수기의 소형 석곽이 조사되었다.

월산리고분군은 6기의 고총고분이 조사되고, 그 내용이 보고되어 어느 정도 검토할 수 있으나 청계리고분군은 1호분 1기의 고총고분만 조사되어 고분군 전체의 특징과 가치를 검토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계리와 월산리고분군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와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특징과 가치의 일단을 검토해본다. 청계리고분군의 가치와 향후 활용방안의 일단을 검토한다. 그리고 인접한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도 필요에 따라 비교 검토한다.

2. 청계리-월산리고분군의 특징

1) 봉분 형태와 축조 기술

청계리와 월산리고분군은 지금까지 모두 7기의 고총고분이 조사되었고, 청계리 1호분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40m 떨어진 동쪽에 광평유적에서 2기의 목곽묘가 조사되었다. 지금까지 조사된 청계리, 월산리, 광평리 일대의 삼국시대 고분의 조사 내용중에서 그 특징을 살펴본다.

청계리고분군은 너비가 좁은 협소한 능선 정상부에 고총고분이 분포하고, 조사된 1호분 역시 남북이 길고 동서가 좁은 협소한 구릉 능선 말단부에 위치한다. 이러한 자연 지형에 위치한 1호분의 전체 봉분은 남북방향이 길고 동서방향이 좁은 평면형태가 타원형이다. 1호분은 3기의 석곽이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1호 석곽과 2호 석곽이 일렬로배치되었고, 3호 석곽은 2호 석곽 방향과 대칭으로 배치되었다. 1호 석곽과 2호 석곽은 매장주체시설이고, 3호 석곽은 2호 석곽과 동시에 축조된 부곽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2-3호 석곽이 선축되었고, 1호 석곽이 후축되었다. 여기서는 2-3호 석곽으로 이루어진 고분은 1-1호분, 1호 석곽을 1-2호분으로 명명한다.

1-1호분은 동쪽 전 부분과 동북과 동남 모서리에 걸쳐 호석열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봉분 규모가 길이 17m, 너비 12m 내외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청계리 1호분의 조사 내용과 성과 발표에 의하면,[4] 1-1호분의 봉분 평면도는 말각 장방형이다. 삼국시대 가야지역에 조영된 고총고분의 봉분 평면형태는 타원형 또는 원형이 주로 확인되는데, 말각장방형의 사례는 없다. 가야지역의 고총고분 봉분 평면형태가 타원형 또는 원형인 것은 어떤 특정지역으로부터의 영향이라기보다 해당 고분이 조영된 곳의 자연 지형에 의해 결정되었다. 예를 들면 고령 지산동고분군에서 시기가 빠른 고총고분인 73호분의 분형은 원형이고, 그보다 시

3)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12, 『南原 月山里古墳群-M4 ·M5 · M6號墳-』.
4) 오동선, 2020, 「남원 청계리 청계 고분군의 구조와 축조기법」, 『남원 청계리·월산리 고분군 역사적 가치와 의미』, 전라북도·남원시·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기가 늦은 75호분은 타원형이다. 분형이 타원형인 고총고분은 능선의 사방 평면적의 비율이 동일하지 않고, 한방향이 길고 다른 방향이 좁은 지형에서 주로 확인되고, 원형은 사방의 평면적이 비슷한 지형에서 주로 확인된다.[5] 이는 고총고분의 분형은 자연지형의 조건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보여준다. 고분을 조영한 집단이 고총고분을 조영할 때,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해당 자연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을 나타낸다. 청계리 1-1호분의 봉분 평면형태가 말각장방형인 점은 너비가 좁고 길이가 긴 구릉의 자연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모습이다.

말각장방형의 봉분 남쪽 일부를 굴착하고 1호 석곽을 구축하였다. 1호 석곽을 구축할 때, 1-1호분의 봉분 남쪽 일부를 포함해서 1-1호분의 봉분 동서 너비에 맞춰 남쪽방향으로 덧붙여 봉분을 만들었다. 1-2호분이 1-1호분의 남쪽에 덧붙임으로서 1호분의 전체 봉분 평면형태는 남북방향으로 긴 타원형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1호 석곽의 남동측 모서리에서 확인된 주구의 설치 시점이다. 남동 모서리에서 확인된 주구가 1-1호분과 동시에 설치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1호분의 축조기획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호분의 호석열 범위를 고려하면, 1-1호분 축조 당시에는 주구를 설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주구는 봉분 외연 외측에 설치한다. 봉분 외연 외측에 주구를 설치하는 것은 봉분의 형태와 규모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고, 지표면을 삭평하므로서 봉분 중앙부에서 사방으로 흘러내리는 우수와 높은 방향에서 봉분쪽으로 흘러오는 우수를 모아 봉분 외측으로 배출하므로써 매장주체부로 빗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보면, 남동 모서리에서 확인된 주구는 1-1호분 조영 시 설치되지 않고, 1-2호분을 1-1호분에 연접하면서 설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1-2호분을 연접하면서 1호분의 전체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지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남쪽 경사면에 주구를 설치한 것은 빗물의 배수를 위한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 지형이 낮은 곳에 주구를 설치하면, 빗물이 주구로 몰리게 되어 배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남동 모서리에 주구를 설치한 주 목적은 1-2호분의 봉분 조성을 위한 성토재 확보와 봉분의 외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쪽을 제외한 동・서・북쪽은 지면이 심하게 경사를 이루므로 주구를 설치하기도 용이하지 않을뿐더러 설치하면 봉분 유지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5세기 후반 가야지역의 고총고분에 주구가 설치된 사례는 거의 없고, 설치되었더라도 지형이 높은 곳에 반원형 또는 초승달형이다. 청계리 1호분은 남동 모서리에서 일부 확인되었지만, 지형이 낮은 곳에 설치된 점은 특이하다. 지형이 낮은 남동 모서리에 주구가 설치된 것은 앞서 언급한대로 성토재 확보와 봉분의 외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이 아이디어가 자체적인지 외부로부터의 차용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호남・호서지역의 평지나 저평한 구릉지에 조영된 고분에 주구가 설치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는데, 이 지역 고분 요소의 영향일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1-1호분 봉분 조영시 북측과 동측의 잔존 봉분 조성과정에 얇은 판상의 돌을 즙석처럼 놓았다. 조사자는 북측의 기반암을 떼어내어 벽석재로 사용하기 어려운 돌을 깔았을 것으로 추정하였다.[6] 동측 봉분 성토부 중간에 판상의 돌을 1~2겹 놓은 것은 벽석재로 사용이 어려운 돌을 경사가 급하고 사질성이 강한 성토재의 흘러내림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정된다.

---

5) 홍보식·심현철 2016, 「各種 古墳別 封墳 形態와 築造方法」, 『韓日의 古墳』, 한일교섭의 고고학-삼국시대 연구회.

6) 오동선 앞의 논문.

1호와 2호 석곽의 묘광은 서쪽은 지면을 수직으로 굴착하여 만들었고, 동쪽은 수평으로 정지하여 'ㄴ'자 모양이다. 동쪽 지면을 석곽 바닥면 높이로 정지한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제시하지 않았는데, 현재의 지형을 보면 동쪽과 서쪽의 높이와 경사도는 비슷하다. 이는 봉분이 완성된 상태에서의 지형으로 보아야 한다. 고분이 조영될 당시는 서쪽보다 동쪽이 상대적으로 경사가 심한 지형으로 묘광을 'ㄴ'자 형태로 굴착하여 매장주체시설과 봉분을 조성하는 방안이 효율적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구릉 말단의 미고지에 조영된 월산리고분군의 고총고분은 경작 등에 의해 분형이 심하게 훼손되었다. 1984년도에 조사한 M1호분은 봉분 평면 형태를 원형으로 추정하였으나 봉분 단면도로서 확인하기 어렵다. 분형이 훼손되었지만, 그중에서도 잔존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M4호분의 봉분은 동-서와 남-북 직경이 비슷하여 원형일 가능성이 있다. 저평한 미고지에 조영되어 봉분 평면형태가 원형임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월산리고분군의 고총고분은 주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청계리 1호분의 최초 봉분에는 호석이 설치되었으나 1-1호 석곽을 조영한 이후 완성된 봉분에는 호석이 설치되지 않았다. 그리고 월산리고분군의 고총고분 중 파괴가 되어 봉분 원형이 훼손된 M4 ~ M6호분은 호석 설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으나 원형의 상태로 조사된 M1호분에는 호석이 확인되지 않았다. 지나친 추정일지 모르겠으나 청계리-월산리고분군의 고총고분에는 호석이 설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인접한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19·32호분에도 호석이 확인되지 않았다.[7] 지금까지 조사된 아영분지 내의 고총고분에 호석이 설치되지 않은 공통적인 현상이 있다.

같은 시기 고령 지산리와 본관동고분군, 합천 옥전고분군 등의 고총고분에는 호석이 설치되어 차이가 있다. 그런데 함양 백천리 1호분, 합천 삼가 24호분, 의령 중동리 1호분, 고성 송학동 1호분, 율대리 2호분, 연당리 18·20호분, 내산리 고총고분 등 소위 소가야양식 토기 분포권 내의 고총고분과 아영분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고총고분에는 호석이 설치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확인된 고총고분만의 사례를 통해 소가야 양식 토기 분포권 고총고분의 특징으로 파악된다. 아영분지 고총고분에 호석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소가야 토기 양식 분포권 고총고분과 공통된 점이라 할 수 있다.

2) 매장주체시설

청계리-월산리고분군의 매장주체시설은 목곽과 수혈식석곽으로 구분된다. 목곽은 청계리 1호분에서 남쪽으로 뻗은 저평한 구릉에 위치하며, 광평리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광주-대구간 고속도로 확장공사에 수반해서 목곽묘 2기가 조사되었다. 조사된 목곽은 규모가 소형이고, 2기뿐이라서 아영분지 목곽묘의 특징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수혈식석곽은 청계리 1-1·2·3호 석곽, 월산리 M1호분 주곽과 주변의 배장곽, 2·3호 석곽, M4호분 석곽, M5호분 주곽과 배장곽, M6호분 석곽 등이 있다. 청계리 1호분의 2곽은 길이:너비 비율이 3.37이고, 1곽은 5.18로 차이가 있다. 2기 모두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이지만, 길이에 비해 너비가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다.

---

7) 尹德香·郭長根, 1989, 『斗洛里』, 全羅北道 南原郡·全北大學校博物館.
全北大學校博物館·남원시, 2015, 『南原 酉谷里 및 斗洛里 32號墳』.

고분군	호수	봉분		석곽		비고
		규모(m)	평면	규모(m)	비율	
남원 청계리	1	30×20×1.0 17.0×12.0×1.0	타원형 말각장방형	5.4×1.6×1.3 5.7×1.1×1.6	3.37 5.18	반지상, 석개, T자형 지하, 석개, 호석
남원 월산리	M1	19.0×19.0×3.2	원형	8.6×1.3×1.8	6.61	호석 없음, 지하, 개석
	M4	17.4×17.4×3.7	원형	8.2×1.0×1.4	8.25	호석 없음, 지상, 개석
	M5	16.6×16.6×3.5	원형	9.6×1.2×1.85	8.0	호석 없음, 지상, 개석
	M6	15.5×15.5×2.2	원형	(8.5)×1.0×1.8	(8.5)	호석 없음, 지상, 개석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17	20.5×20.5×4.0	원형	8.6×1.3×1.8	6.61	호석 없음, 지하, 개석,
	32	21.0×17.4×3.2	타원형	7.5×1.3×1.8	5.76	호석 없음, 지하. 개석, 11자형
거창 말흘리	1	?		(5.7)×0.9×1.4	(5.8)	매장주체시설만 조사
함양 백천리	1-3	15.5×15.5×1.8	원형	7.3×1.2×1.75	6.08	호석 없음, 지하, 석개
의령 중동리	1	21.0×17.0×3.6	타원형	7.9×1.1×1.4	7.18	호석 없음, 지하, 석개
합천 삼가	24	26.8×24.8×3.2	타원형	8.3×1.2×1.9	6.91	호석 없음, 석개, 지하
의령 유곡리	2	13.7×9.1×?	타원형	8.0×1.4×1.3	5.71	호석 없음, 반지하, 석개
	3	20.0×16.0×6.0	타원형	8.1×1.3×2.1	6.23	반지하, 석개, 11자형,
고성 율대리	2	22.0×23.0×2.9	원형	5.3×1.1×0.7	4.81	호석 없음, 석개, 지상
고성 송학동	1A-1			8.2×1.0×1.1	8.25	호석 없음, 석개, 지상
고령 지산리	73	23.0×22.0×3.4	원형	5.0×2.1×2.2	2.3	호석, 지하, 주부곽식, 목개, T자형
	74	10.0×9.8×?	타원형	5.8×1.2×1.7	4.9	호석, 지하, 석개, T자형
	75	27.3×23.5×2.8	타원형	7.1×1.4×2.0	5.0	호석, 지하, 석개, T자형
	32	13.1×12.6×1.5	원형	5.6×0.9×1.2	6.2	호석, 지하, 석개
	33	9.7×8.6×1.5	타원형	4.5×0.8×1.4	5.62	호석, 지하, 석개
	34	15.0×11.5×0.5	타원형	6.3×1.1×1.5	5.72	호석, 지하, 석개
	35	12.0×11.3×?	원형	6.6×1.0×1.5	6.6	호석, 지하, 석개
	44	27.0×25.0×3.6	타원형	9.4×1.7×2.1	5.37	호석, 지하, 석개, T+11자형
	45	23.5×22.0×2.8	타원형	7.1×1.6×1.8	4.43	호석, 지하, 석개, T자형
	30					
	518	16.4×14.8×2.2	타원형	6.7×1.2×2.0	5.6	호석, 지하, 석개, 11자형
고령 본관동	34	11.8×11.8×1.8	원형	6.0×1.0×1.2	6.0	지하, 석개, 11자형
	35	15.5×14.2×2.5	타원형	8.2×1.1×1.5	7.45	지하, 석개, 호석, 11자형
	36	18.6×18.6×1.4	원형	10.1×1.3×1.8	7.7	지하, 석개, 호석, 11자형
합천 옥전	M1	21.4×19.5×2.2	타원형	7.5×1.8×1.5	4.05	호석, 지상, 日자형, 목개
	M2	14.5×13.4×2.1	타원형	6.8×1.6×1.7	4.25	호석, 지상, 日자형, 목개
	M3	19.4×21.6×2.5	타원형	10.6×2.7×1.6	3.72	호석, 지상, 日자형, 목개
	M7	18.0×15.0×?	타원형	9.7×2.3×1.5	4.21	호석, 지상, 日자형, 목개
	M4	15.0×13.6×1.9	타원형	9.5×1.4×1.8	6.55	호석, 지상, 목개
	M6	10.8×9.1×1.5	타원형	5.7×1.2×1.2	4.6	호석, 지상, 목개

표1. 가야 고총고분의 봉분과 매장주체시설 제원 비교

월산리 M1호분의 석곽은 길이:너비의 비율이 6.61이고, M4 ~ M6호분 석곽은 비율이 8.0 이상이다. 청계리 1호분의 석곽과 비교하면, 너비에 비해 길이가 훨씬 증가하였음을 나타낸다.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17·32호분의 석곽 길이:너비의 비율은 6.61과 5.76인데, 월산리 고총고분보다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다.

가야지역 고총고분의 길이:너비의 비율과 비교하면, 고령 지산리고분군은 2.3에서 6.6 사이로 다양하지만, 4.9에서 5.72 사이를 보이는 석곽이 5기이고, 6을 보이는 고분은 2기이다. 비율이 4.0 ~ 5.9 사이가 대부분이어서 월산리고분군의 고총고분 석곽의 비율과 차이가 있다.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17·32호분 석곽의 비율은 고령 지산리 고총고분의 석곽 비율과 유사하다. 고령 본관동고분군은 6.0에서 7.7 사이로서 월산리고총고분의 비율보다 낮다. 합천 옥전고분군의 고총고분의 석곽 길이:너비의 비율은 주부곽식인 M1 ~ M3·M7호분은 3.72에서 4.25 사이이고, 단독곽인 M4호분과 M6호분은 6.55와 4.6이다. 월산리고분군의 석곽 평면형태와는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함양 백천리 1-3호 석곽은 6.08, 의령 중동리 1호분 석곽은 7.18, 고성 송학동 1A-1호 석곽은 8.25로 고령 지산리와 본관동 고총고분보다 비율이 높아 더욱 세장하여 월산리 고총고분의 석곽 비율에 가장 가까운 수치를 보인다. 그리고 월산리 고총고분의 석곽 너비가 1.0 ~ 1.3m인데, 소가야권역에 분포하는 석곽들의 너비도 1.0 ~ 1.4m로 유사하다. 석곽의 너비와 세장도에서 월산리 고총고분의 석곽은 소가야 양식 토기 분포권의 고총고분 및 지리적으로 아영분지와 가까운 고총고분과 유사하다.

고총고분에 호석이 설치되지 않는 점, 매장주체시설의 너비와 세장도 등에서 월산리고분군의 고총고분은 대가야의 중심지인 고령 지산리와 본관동, 합천 옥전 고총고분보다 소가야 양식 토기 분포권 및 아영분지와 가까운 고총고분과의 유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3) 부장품 구성

청계리-월산리고분군에는 토기와 철기 등 많은 유물이 부장된 후장의 공통성을 보이고, 다양한 계통의 물품이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청계리 1-2호 석곽에는 뚜껑·고배·발형기대 등의 대가야계, 뚜껑·장경호·발형기대·통형기대·수레바퀴장식(토기) 등의 아라가야계 토기가 출토되었다. 1-1호 석곽에는 뚜껑·유개고배·원저장경호·발형기대 등의 대가야계, 뚜껑·발형기대 등의 소가야계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대가야계 토기의 비율이 높다.

월산리 M1호분에는 소가야계·대가야계, 그리고 소가야계와 대가야계가 절충된 유개장경호와 발형기대 등의 토기류, 도자형과 유엽형의 철촉, 재갈·등자 등의 마구, 철제모형농공구, 은상감환두대도, 목가리개와 찰갑 등 다양한 유물이 부장되었다. 월산리 M5호분에는 산치자열매모양의 수식부세환이식, 뚜껑·개배·고배·유개대부완·유개대부호·원저단경호+발형기대 또는 유개장경호+발형기대, 원저단경호+소형 통형기대, 통형기대와 함께 계수호가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철제초두와 투구·목가리개·찰갑옷 등의 갑주, 등자·재갈·기꽂이·마령 등의 마구류, 철제모형농공구 등 다양한 품목들이 확인되었다. M6호분에는 산치자열매모양의 수식부세환이식과 유리구슬로 만든 목걸이, 뚜껑·원저장경호·개배·수평구연호·소형기대·병·원저장경호·발형기대 등의 토기류와 찰갑 소찰편이 출토되었다.

고총고분 출토품에는 아영분지 현지의 생산품과 함께 대가야, 소가야, 백제, 중국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한 반입품 또는 모방품 등이 확인되었다. 많은 수량의 토기류, 특히 발형기대의 부장 수량이 많고, 원저단경호 또는 원저장경호와 발형기대가 조합된 점들은 가야

고총고분 부장품의 특징과 공통한다. 그리고 고분에 갑주와 마구류를 함께 부장한 점들도 가야 고총고분의 부장양상과 공통한다. 고총고분에는 꺾쇠와 관못이 출토되었는데, 매장주체시설 내부에 꺾쇠와 관못으로 조립한 목관이 안치되었음도 확인된다.

청계리 1호분 부장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기의 특징들은 보고서 간행 이후 보다 정확한 검토가 가능하지만, 기 보고된 내용들을 고려하면, 그 시기는 5세기 후반의 빠른 시기로 편년할 수 있다. 월산리 M1·M5·M6호분에서 출토한 발형기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대각 투창이 삼각형이고, 발부고:대각고의 비율이 1.0~1.5 사이를 보이며, 대각고가 높다. M1호분에는 각기경이 상대적으로 넓고, 발부고:대각고의 비율이 1 내외인 2점의 발형기대는 대가야양식의 발형기대와 아주 유사하다. 이 2점의 발형기대 대각에 뚫린 투창은 모두 삼각형이다.

고령 지산리 고총고분 출토 발형기대는 대각 투창이 '∩'자 모양에서 '△' 모양으로 변화하는데, 월산리고분군의 대가야계 발형기대의 대각 투창은 '△'모양이다. 고령 지산리고분군에서 출토한 발형기대의 대각 투창이 '∩'자 모양에서 '△' 모양 전환하는 양상을 보이는 고분 출토품은 75호분이고, '△' 모양 투창으로 완전히 바뀐 고분 발형기대는 32·74호분 출토품이다. 지산동 32호분 주곽에는 2점의 신라양식 유개고배가 출토되었는데, 황남대총 남분 출토품보다 늦고, 북분 출토품과 유사하다. 황남대총 남분은 5세기 중엽으로 편년되고, 북분은 5세기 4/4분기로 편년된다. 이에 의하면, 고령 지산동 32·64호분은 5세기 4/4분기로 편년할 수 있고, 이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월산리 M1호분의 시기도 5세기 4/4분기로 편년할 수 있다. 월산리 M1호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M4~M6호분도 같은 시기로 편년할 수 있다.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32호분과 17호분은 월산리 M1·M4~M6호분보다 늦은 6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 특히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5호 석곽에는 무녕왕릉 왕비측에서 출토한 금제팔찌와 같은 기법으로 만든 은제팔찌와 함께 탄목구슬·은제구슬 등이 출토되어 그 시기는 무녕왕릉과 같은 시기로 편년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청계리-월산리고분군과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편년하였을 때, 청계리-월산리고분군 출토품과 두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출토품 간에 다른 특징이 확인된다. 청계리-월산리고분군 출토 토기에는 대가야계 유개고배의 부장이 확인되지 않고, 발형기대의 경우 각기경이 좁고 각연에서 심하게 꺾여 외반하고, 삼각투창이 3~5단으로 투창 단수가 많다. 이러한 발형기대의 특징들은 소가야 발형기대와 대가야 발형기대의 요소들이 절충되었거나 혼합된 양상을 보이며, 아영분지에서만 확인되는 독특한 양상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총고분에서 소형기대의 복수부장이 확인된다. 이에 비해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32·17호분 출토 유개장경호와 유개단경호는 고령지역의 대가야 토기와 아주 유사하다. 발형기대는 월산리고분군 출토 발형기대의 특징들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발부가 사방향에 가깝게 사선으로 벌어지고, 각기경이 넓어 각기경:각저경의 비율이 낮은 등 대가야 발형기대의 요소들이 많이 반영되었다. 특히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17호분 출토품에는 유개고배와 함께 소형 발형기대가 포함되었고, 월산리고분군 출토품과 유사한 발형기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청계리-월산리고분군의 부장품에는 대가야적인 요소가 많으면서도 소가야적 요소와 함께 현지에서 이를 모방 변용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고,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에는 대가야적인 요소가 더욱 강하게 반영되었고, 17호분 단계에는 월산리고분군에 보이는 요소는 사라지고 대가야적인 요소가 지배하는 양상을 보인다.

3. 고분군의 가치

청계리-월산리고분군은 가야 고총고분의 서쪽 분포 범위는 물론 아영분지(운봉고원 포함)에서 유력 집단의 존재를 보여주는 유적일 뿐만 아니라 가야와 백제의 경계 즉 점이지대에 위치한 유력 집단으로서의 존재와 역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고분군으로서 독특한 가치를 지닌다. 이하에서는 청계리-월산리고분군의 역사적 가치를 몇 가지 관점에서 제시해 본다.

첫째, 아영분지에서 유력집단의 존재를 나타내는 고분군으로서 주목된다.

현재까지 남원 아영과 운봉분지 일대에서 청계리 1호분보다 시기가 앞선 고총고분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목곽묘가 확인된 광평유적은 청계리고분군을 이루는 소형의 매장시설이고, 시기도 빠르지 않다. 지배층의 상층부들이 수혈식석곽을 매장주체시설로 조영하고, 그보다 하위층들은 목곽묘를 조영한 모습이다. 청계리고분군에서 목곽묘가 조영되었음을 고려하면, 상층부 구성원들이 수혈식석곽 수용 이전에 목곽묘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목곽묘는 청계리고분군의 남쪽인 현 고인마을 일대로 추정된다.

청계리 1호분은 아영분지에서 수장층의 존재를 나타내는 기념물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아영분지 일대의 고분 조사를 고려하면, 아영분지에서 가장 빠른 고총고분은 청계리 1호분이다. 청계리 1호분의 1호와 2호 석곽 모두 도굴로 부장 당시의 모습과 부장품 구성 목록을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발굴조사에서 수습된 부장 품목의 구성은 매우 다양하다. 갑주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많은 수량의 발형기대가 확인된 점은 가야 고총고분의 양상과 유사하다. 청계리 1호분에서 출토한 유물 구성, 특히 토기의 특징들은 5세기 후반 초의 가야 고분 출토품들과 유사하다. 5세기 후반 초 아영분지에 유력 집단이 부상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유력 집단은 가야문화의 수용 내지, 이미 수용된 가야문화의 확대 전략을 통해 달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5세기 후반 초 아영분지 일원에도 여타 가야권의 분지에서 전개된 고총고분의 조영을 통한 지배층의 우월성 과시 대열에 참여하였다.

청계리와 월산리 구릉에는 봉분 높이가 4~5m인 고총고분을 조영하여 그들의 권위를 누세대적으로 이어가는 광경을 연출하였고, 대부분의 고분에 많은 수량의 토기는 물론 촉·모·도·창 등의 무기류와 M1·M5호분 부장품에는 투구와 목가리개·찰갑 등 무구류의 부장은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청계리 1호분과 후속한 고총고분을 통해 운봉분지에서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한 지배세력의 존재와 지속성을 보여주는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5세기 청계리-월산리고분군 조영집단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성장한 배경에는 가야와 백제 사이에 활발한 교섭관계를 매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5세기 후반부터 고령·합천 등 내륙의 가야지역에는 환두대도·금동관모·이식 등 백제계 문물들의 영향이 두드러지는 양상과 상관관계가 높다. 아영분지의 유력세력은 가야와 백제의 교섭과 교류를 중개를 적절하게 활용해 그들의 존재가치와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을 것이다. 다양한 가야세력이 운봉분지의 특정세력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은 백제와의 관계를 맺거나 운봉분지를 경유해서 백제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 때문이었다.

둘째, 가야문화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가야 고총고분군의 서쪽 분포 범위를 나타내는 고분군이다.

청계리-월산리고분군의 매장주체시설은 돌을 사용하여 쌓아 만든 석곽이다. 석곽의 평면형태는 장방형과 세장방형으로 구분된다. 장방형은 청계리 1호분 2호 석곽 1기이고, 그 외는 모두 세장방형이다. 청계리-월산리고분군의 매장주체시설이 장방형에서 세장방형으로 전

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주목된다. 고령 지산리고분군에서도 매장주체시설이 장방형에서 세장방형으로의 변화가 확인된다. 지산동 73호분은 주곽과 부곽이 '⊢'자의 묘형이다. 주곽과 부곽 모두 나무를 뚜껑으로 사용한 수혈식석곽이고, 평면형태가 장방형이다. 이보다 시기가 늦은 75·35·34·33·32·30·44·45호분의 석곽은 모두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이다. 평면형태가 장방형에서 세장방형으로의 변화는 지산리 일대의 기반암인 점판암이 강도에 약한 점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면서도 후장을 위한 공간 확보가 그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8)]

청계리-월산리고분군의 매장주체시설에 사용한 석재는 대부분 이암제 냇돌 또는 화강암 등 강도 특성이 높은 석재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면형태가 장방형에서 세장방형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석곽에 사용된 석재의 재질 특성과 무관하게 고령·산청·함양 등 가야권역의 세장방형 석곽으로의 변화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청계리-월산리고분군 조영집단이 가야 지배세력의 일환으로서 가야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표방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셋째, 점이지대에 존재한 유력 집단의 존재와 양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고분군이다.

청계리 1호분 2호 석곽 출토품에는 운봉분지의 현지품, 대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등 다양한 계통의 유물이 포함되었다. 가장 빠른 고총고분에 다양한 계통의 물품이 포함된 점은 아영분지에서 수장층 성장은 가야의 다양한 세력들과의 접촉이 하나의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계리 1호분 출토품에는 금관가야 양식 또는 계통의 물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즐을 금관가야 계통으로 보기도 하지만,[9)] 한반도 전체에서도 출토 점수가 몇 점밖에 되지 않아 금관가야계로 보기 어렵다.

청계리 1호분 이후에 조영된 고총고분인 월산리 M1호분에는 대가야계와 소가야계 토기가 포함되어 있고, 만곡종장판주와 목가리개·찰갑이 부장되었다. M1-G호 석곽과 M2호 석곽에는 백제 토기가 부장되었다. M5호분에는 대가야계와 소가야계 토기를 절충하여 아영분지에서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발형기대, 소형 통형기대, 난형복발주와 목가리개·찰갑, 산치자열매모양의 수식부이식, 중국의 계수호, 백제의 세발솥 등이 출토되었다.

인접한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32호분에는 무녕왕릉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청동거울[宜子孫獸帶鏡]과 금동신발이 출토되었고,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5호 석곽에서는 무녕왕릉 출토 금팔찌와 동일한 제작기법을 보이는 은팔찌와 함께 탄목구슬·은구슬·유리구슬 등이 출토되었다.

청계리-월산리고분군과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에 부장된 유물 특히 토기에서 대가야 양식 토기의 부장이 두드러져 대가야 연맹권에 포함하여 이해하여 왔다. 고총고분에 부장된 토기가 대가야 양식 토기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고령 및 그 주변부에 분포한 고총고분의 토기 구성과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백제계 위신재의 부장은 다른 대가야연맹의 고총고분보다 현저히 많다.

월산리 M5호분에는 중국 남조로부터 수입해 온 것으로 추정되는 계수호와 백제의 철제초두가 부장되었고,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32호분에는 청동거울과 백제의 금동신발이 출토되었다. 이를 둘러싸고 여러 견해가 제시되었다.

---

8) 홍보식 2016, 「영남지역 세장방형 석개수혈식석곽의 석재와 축조 기술」, 『한국고고학보』 99, 한국고고학회.

9) 이건용 2020, 「남원 청계리 고분의 출토유물 연구」, 『남원 청계리·월산리 고분군 역사적 가치와 의미』, 전라북도·남원시·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및 월산리고분군에서 출토한 중국산 제품과 백제산 제품은 475년 가라의 대중국 교섭에서 역할을 한 대가로 가라왕이 제공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10] 그와 다르게 백제와 가라의 교섭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한 남원 아영분지 세력에게 백제가 제공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11] 백제 중앙이 남해안으로 통하는 지름길인 섬진강유역을 확보하려고 대가야의 변경세력을 영향력 아래에 둘 목적에서 아영분지 지배층들에게 위세품을 사여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견해도 있다.[12]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계수호는 대가야권역은 물론 가야권역에서 유일한 중국 자기이다. 가야 고총고분에서 자기가 부장되지 않은 점은 가야의 지배층들이 중국 자기의 입수가 어려웠거나 희소재 또는 위신재로 여기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32호분 출토 청동거울은 가야권역에서 출토한 유일한 중국거울로서 백제의 무령왕릉에서 유사한 거울이 출토되었다. 백제의 왕릉 부장품 품목에 포함된 중국 거울이 대가야연맹을 구성한 아영분지의 유력집단 고분 부장품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점은 매우 특징적이다. 초두 역시 가야권역에서 유일하지만, 백제의 경우, 원주 법천리 4호분과 서산 부장리 5호분에서 출토되었다. 청동초두는 한성기 백제 왕성인 서울 풍납토성에서 출토되었다.

가야 고분에서 출토한 금동식리는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32호분 출토품과 합천 옥전 M11호분 출토품 등 2례에 불과하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M32호분 출토 금동신발은 타출기법을 이용한 능형문이 새겨져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익산 입점리 1호분과 나주 신촌리 9호분 乙棺 출토품이 있다. 고령 지산동고분군에서 규모가 가장 큰 4·5호분에 금동식리가 존재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지만, 지금까지 대가야권역의 고분 발굴조사 성과를 고려하면, 대가야권역에서의 금동식리는 매우 특수하다.

백제 중앙이 위신재로 사여한 물품들이 대가야연맹의 핵심국인 가라의 왕릉과 지배층 고분에 부장되지 않고,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외곽의 아영분지 고총고분에 부장된 점은 가라에 의한 분여(또는 사여)로 보기 어렵다. 월산리 M5호분 출토 계수호와 초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32호분 출토 금동식리는 대가야의 핵심국인 가라국을 거치지 않고, 아영분지 유력집단들이 백제와의 관계 속에서 입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510년대에 백제가 기문·대사를 점유하기 위해 아영분지의 유력집단을 대상으로 백제의 지방 유력자들에게 행한 위세품의 분여 방식을 취하여 회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대가야연맹의 고총고분에 부장된 외래계 위신재의 동향은 대가야의 핵심국인 가라에 의해 외교권이 일원적으로 장악되었다고 보기 어렵게 한다. 대가야연맹을 구성한 주요 세력의 하나인 아영분지의 유력집단은 가라를 거치지 않고 백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대가야연맹과 백제의 변경이자 점이지대에 위치한 아영분지의 정치세력은 백제 또는 가라의 정치적 위상과 그들에게 가해지는 물리력에 따라, 또는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가라 또는 백제로 기울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대가야연맹을 구성한 아영분지의 지배세력은 대가야연맹이란 틀 속에 갇혀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그들의 정치적 관심을 바꾸는 자율성을 지니고 있었다.[13]

---

10) 박천수, 2019, 「기문(己汶)과 반파(伴跛)의 역사적 위치와 성격에 대한 토론문」, 『호남과 영남 경계의 가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김재홍, 2018, 「전북 동부지역 가야 고분의 위세품과 위상」, 『호남고고학보』 59, 호남고고학회.

11) 박순발, 2012, 「계수호와 초두를 통해 본 남원 월산리고분군」, 『운봉고원에 묻힌 가야 무사』, 국립전주박물관·전북문화재연구원.

12) 김낙중, 2019, 「대가야와 웅진기 백제의 외교 관계와 상호 인식」, 『백제 웅진기 외교 관계와 인식』,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13) 이상의 내용은 홍보식 2019, 「가야와 삼국의 유통 네트워크」, 『가야-동아시아 교류와 네트워크의 중

가야문화권의 경계에 위치한 장수 동촌리고분군과 백화산고분군에는 백제계 위신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갑주 등의 무구류도 부장되지 않았다. 이는 장계분지 일대까지 가야문화권에 포함되었지만, 백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촌리고분군 조영집단보다 아영분지에 위치한 청계리-월산리고분군 집단을 더 중시하여 가야와의 교섭에서 중개파트너로 인정하였을 것이다. 가야의 제정치세력들도 백제와의 교섭에서 아영분지 집단을 백제와의 교섭 창구로서 활용하였을 것이다.

넷째, 청계리-월산리고분군과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아영분지에서 지배세력의 역학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고분군이다.

청계리-월산리고분군은 아영분지를 동서로 관통하는 풍천을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1.8㎞가량 떨어진 곳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위치한다. 아영분지에 2개소의 고총고분군이 동시에 분포한 형국이다. 지금까지의 조사성과로 볼 때, 청계리-월산리고분군이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보다 축조 시점이 빠르다. 40여 기 분포하는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다른 고총고분의 조사를 기다려봐야 명확하겠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청계리 1호분은 5세기 후반 초에 조영되었고, 월산리 M1·M5호분 등은 5세기 후반 늦은 시기에 조영되었다. 이에 비해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17호분과 32호분은 6세기 전반에 조영되어 시기 차이가 존재한다. 청계리-월산리고분군이 먼저 조영되기 시작하였고, 뒤이어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조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계리고분군은 고총고분이 10여 기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월산리고분군도 지금까지의 각종 조사에서 10여 기의 고총고분이 확인되었다. 가야 각 지역의 고총고분군을 이루는 고총고분 수와 비교하면,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정밀 측량조사에서 40기의 고총고분이 확인되었다. 청계리-월산리고분군의 고총고분 수를 합한 2배이다.

그러면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는 아영분지에만 2개소의 고총고분군이 존재하고, 보다 서쪽의 운봉분지에는 고총고분이 왜 존재하지 않을까. 다른 가야권 예를 들면, 산청 중촌리에는 중촌리고분군, 생초지역에는 생초고분군, 함양 백천리지역에는 백천리고분군, 상백리지역에는 상백리고분군, 거창 말흘리지역에는 말흘리고분군, 개봉지역에는 무릉리고분군, 합천 옥전지역에는 옥전고분군, 삼가지역에는 삼가고분군 등 1개 분지에 1개소의 고총고분군이 분포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고령 대가야읍 지역에는 지산리고분군과 본관동고분군 등 2개소의 고총고분군이 존재하는 아주 유일한 예이다.

그런데 아영분지에는 동일 시기에 2개의 고총고분군이 분포한 매우 특이한 사례이다. 고령을 제외한 다른 가야지역에는 거의 사례가 없는 2개소의 고총고분군이 왜 아영분지에 존재할까. 그리고 이 2개소 고분군을 조영한 집단은 각 별개인지 아니면 청계리-월산리고분군 조영집단에서 분화한 새로운 집단인지, 청계리-월산리고분군에 고총고분을 조영할 공간 부족으로 풍천 동쪽의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조영된 구릉으로 이동했는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청계리-월산리고분군이 위치한 구릉이 너비가 좁고 능선 돌출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지형적인 불리를 탈피하기 위해 집단 구성원의 일부가 풍천 동쪽의 고총고분을 조영하기에 적절한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구릉으로 묘역을 이동함으로서 2개소의 고분군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청계리-월산리고분군 집단들이 백제 및 가야와의 결절지에 위치한 지정학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2개의 집단으로 분화하

심지들』, 국립중앙박물관'의 논문을 일부 요약하였다.

여 대응하고자 한 배경이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제기해볼 수 있다.

어찌되었던간에 청계리-월산리고분군과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아영분지 내에서 2개의 유력집단의 성장과정을 비교할 수 있는 고분군이자 양대 집단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유산으로서 가야 수장집단의 존재양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고분군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영산강수계에 위치한 나주 복암리고분군과 정촌고분, 신촌리고분군과 대안리고분군과 흥덕리고분군이다. 대안리와 흥덕리고분군은 직선거리 750m를 두고, 대안리와 신촌리고분군은 직선거리 900m정도 떨어져 있다. 반남고분군, 대안리고분군, 신촌리고분군 등은 직선거리로 1㎞ 이내에 모두 위치한다.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고분군이 존재한 모습은 아영분지를 제외한 가야권역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야지역의 고총고분이 하나의 단위분지 또는 수계 단위로 1개소의 고총고분군에 분포한 양상과 대비된다.

다섯째, 청계리 1호분과 월산리 고총고분은 자연지형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토목공법의 구현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청계리 1호분이 위치한 곳은 구릉 능선의 너비가 좁아 평면형태가 원형 또는 타원형의 봉분이 조영되기 어려운 지형적 조건이다. 능선 너비가 좁고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 자연 구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분형을 장방형 또는 장타원형으로 조성하므로서 과시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청계리 1호분은 이와 같은 지형조건을 아주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월산리고분군의 고총고분은 청계리 지구와 달리 미고지의 말단부에 위치한다. 이곳은 구릉이 끝나는 지점으로 거의 평탄면을 이루고 있다. M1호분은 사방의 지면에 높이 차이가 있는구릉 능선에 위치하고, M4・M5・M6호분은 저평한 곳에 위치한다. M1호분은 묘광을 굴착하고 석곽을 지하에 구축하였다. 석곽을 구축한 후, 봉분을 조성하였다. 봉분은 하부를 외연까지 성토한 후 높이를 올리면서 직경을 줄여가는 봉분 축약형 조성 방식이다.

M4・M5・M6호분은 매장주체시설 바닥면이 정지면과 같은 높이에 위치하고, 매장주체시설과 봉분이 동시에 조성되어 M1호분과 다르다. 매장주체시설이 지상에 구축된 점에 주목하여 합천 옥전고분군의 고총고분의 구축방식과 연계시켜 보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14] 합천 옥전고분군의 M1・M2・M3호분은 매장주체시설이 지상에 구축되었고, 석곽의 평면형태가 장방형이고, 돌로 쌓은 격벽으로 주곽과 부곽을 구분하였고, 높이가 1m 내외로 높지 않다. 봉분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고, 높이도 2m 내외로 높지 않다. M4・M6호분은 석곽의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이지만, 길이가 6m를 넘지 않는다. 봉분의 평면형태가 타원형이고, 석곽 바닥에서 분정까지의 높이도 2m 내외로서 월산리고분군의 고총고분의 봉분 현존 높이가 3m를 대부분 넘어 차이가 있다. 옥전고분군의 고총고분과 비교하면, 석곽이 정지면 위에 축조된 지상식이란 점 외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이 없으므로 서로간의 관계를 상정하기 어렵다. 어떤 특정지역이나 집단의 독특한 조영 방식이라기보다 고분이 조영될 장소적 조건에 의해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특정 고분군과의 관계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른 가야권역 고총고분과의 관계를 모색하기보다 월산리 고총고분이 위치한 지형조건에 주목해서 이해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월산리 M4 ~ M6호분은 돌출된 구릉 정상부가 아닌 저평한 구릉에 위치해 있다. 저평한 구릉에 위치할 경우, 구릉을 정지하여 그 자체로서 봉분 하부를 만들기가 어렵다. 저평한 지형에서 봉분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봉분 높이를 4 ~ 5m 이상 높아야 한다. 그런데 매장주체시설을 지하에 구축하고 그 위에 성토하여 4 ~ 5m 정도 높이면, 봉토의 하중으로 매장주체시설이 오랜 기간 안정되게 유지하기 어렵다.

14) 김규정, 2020, 「남원 월산리고분군 발굴조사 성과」, 『남원 청계리·월산리 고분군 역사적 가치와 의미』, 전라북도·남원시·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매장주체시설의 안정성과 봉분의 과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장주체시설을 지상에 구축하고, 높이를 높이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매장주체시설과 봉분을 동시에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한 토목기술이 요구된다. 조성과정에서 매장주체시설이 균형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봉토를 성토해야 하고, 완성 후 봉토의 부동침하와 횡압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과 인장력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토목공법이 구현되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구현되었기 때문에 월산리고분군의 고총고분이 인위적인 훼손 외에 붕괴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M5호분의 경우, 양쪽 장벽의 중앙부가 안으로 밀려들어온 점 외에는 비교적 원상을 잘 유지하고 있다.

위의 열거한 가치들은 청계리-월산리고분군에 국한되거나 또는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과 함께 아영분지 고총고분의 가치이기도 하다. 그런데 청계리-월산리고분군의 시기가 5세기 말 또는 6세기 초까지이고, 그 이후 시기의 양상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발굴조사가 되지 않고 이미 사라진 고분이 6세기 초 이후의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일 수도 있으나 이미 사라져 버려 알 수 없다. 아니면 지금까지 조사된 고분 자료들이 청계리-월산리고분군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에 비해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17·32호분과 5호묘 등의 시기는 6세기 전반이고, 36호분은 7세기 전반이다.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조영되기 시작한 시기는 현재 알 수 없지만, 36호분을 제외하면, 발굴조사된 고분과 부장품의 특징은 6세기 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조영 중심 시기는 6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조영 중심 시기가 6세기 전반이면,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통해 아영분지에서 정치적 향방이 가야에서 신라로의 세력이 교체되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7세기 전반의 고분인 36호분이 횡혈식석실이고, 반구형 뚜껑과 청동제 인면문 허리띠꾸미개 등이 출토되었다.[15] 동일 고분군에 7세기 전반의 신라 횡혈식석실이 조영된 점은 아영분지가 신라의 지배하에 편입된 이후에도 두락리 및 유곡리고분군 조영집단은 편입되기 이전부터 고분을 조영해 온 곳에 고분을 지속적으로 조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신라가 아영분지를 거점으로 백제와의 대치에 대비하기 위해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조영집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두락리 및 유곡리고분군에서 서쪽으로 3㎞ 가량 거리에 위치한 아막산성은 백제와 신라간에 치열한 전투가 전개된 곳이기도 하다.

4. 청계리와 월산리고분군의 활용

남원 청계리-월산리고분군은 인접한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과 더불어 삼국시대 아영분지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할 수 있는 최적의 유산이다. 아쉽게도 청계리-월산리고분군은 2차례에 의한 고속국도 건설로 고분군이 조성된 구릉의 중간부가 잘려나갔다. 1982년도부터 시작된 88고속화도로 건설 공사 시 청계리고분군의 일부 구간은 발굴조사를 거치치 않은 채 잘려나가 그곳에 무엇이 어떻게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2010년 광주-대구간 고속도로 확장공

15)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36호분과 유사한 횡혈식석실이 합천 옥전고분군에서 확인되었다. 옥전 M28호분은 천장이 궁륭형이고, 현실 평면형태가 방형이며, 연도가 좌측에 접속되었고 길이가 320㎝ 이상으로 길다.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지만, 조영 시기는 7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조영제·정지선 2011, 『陜川 玉田 M28號墳·陜川 城山里 城址』 慶常大學校博物館·陜川郡).

사에 수반하여 청계리 산1-1번지와 163번지에서 목곽묘 2기가 확인되었다. 88고속화도로 건설 시 이 구간의 조사가 되었다면, 지금과 전혀 다른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월산리고분군은 불행중 다행이라 할까? 건설공사 이전에 수기의 고분이 조사되었고, 이 조사로 아영분지에 가야계 세력과 문화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월산리고분군 조사가 계기가 되어 가야문화의 존재와 함께 가야문화권의 공간적 범위가 지리산 일대까지 미쳤음에 대한 논의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982년의 조사 이후 고분군은 그대로 방치되었고, 경지정리 시 남쪽에 위치한 M7 ~ M9호분 3기는 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다. 사라진 3기의 고총고분에 무엇이 있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1982년 첫 조사 이후 고분군은 당국과 관련 연구자들의 무관심 하에 파괴되고 무심하게 우리 곁을 떠나버렸다. 아영분지에 터전을 마련했던 집단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재 이곳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의 정체성에 엄청난 손해일 수밖에 없다.

과거에 이루어진 일을 지금 후회한들 소용없지만, 88고속화도로의 노선이 변경되었더라면 월산리고분군은 가야사는 물론 가야와 백제의 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 핵심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또한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과 더불어 가야의 권역과 대외관계를 밝혀줄 가장 주요한 유산으로서 국가사적으로서의 지정가치도 충분하다. 하지만 지금은 고분군의 대부분이 소멸되고 2기만 24시간 굉음이 거치치 않는 고속도로변에 휑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나마 고속도로 확장 시 조사가 이루어졌고, 노선 우회를 통해 고속도로변에 현지 보존된 것만으로도 위안 삼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지에 보존된 2기의 고총고분은 경작과 주택 건설에 의해 곳곳이 파여져 나간 상처투성이 그대로이다. 봉분 상부는 잘려나가 평탄면을 이루고 석곽의 한쪽은 수직으로 잘려나간 단면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삼국시대 무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국민들이 이곳에 와서 보존된 월산리고분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월산리고분은 당초부터 이런 형태고 모습이야! 아이들에게, 또 동행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파괴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어 우리 문화재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경각심을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또 상부가 잘려나간 분정을 그대로 두고 방문객이 분정 위에 올라가서 석곽의 내부 모습을 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분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지 않았다. 석곽 상부에 뚜껑돌을 덮지 않고 투명한 아크릴로 덮었는데, 비와 먼지 등에 의해 때가 끼고, 내부에 거미줄이 처지고, 풀이 군데군데 자라 방문객이 분정에 올라가서 보아도 잘 보이지 않는다. 현지보존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모습이라면 이곳을 찾은 방문객이 어느 정도이며, 방문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 반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위의 내용은 필자가 최근 현지 보존된 월산리고분군을 수차례 방문하면서 매번 느낀 감정 그대로이다. 나뿐만 아니라 이곳을 방문한 많은 방문객들 또한 똑같거나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좀 더 나은 보존과 활용방안이 없을까 고민하기도 했다.

Ⅱ장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청계리고분군과 월산리고분군은 하나의 고분군을 이루는 2개의 소그룹이므로 이를 묶은 종합적인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유적 안내판의 정비는 물론 설명 내용에도 함께 언급되어야 한다. 청계리-월산리고분군의 범위와 고총고분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판이 제시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밀현황 측량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적인 자료와 정보가 획득되어야 한다. 또한 법정 동리명에 의해 부여

된 고분군명을 단순화하여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청계리고분군은 현재 1호분 1기만 조사되었고, 고분의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현황 파악과 함께 고총고분의 시각성을 높이는 수목정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까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고분군을 널리 알리기란 쉽지 않다. 방문객의 눈에 보여야만 느낄 수 있다.

현지 보존되어 있는 월산리고분군의 2기 고총고분의 원 모습을 복원하고, 매장주체시설의 내부를 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훼손된 모습은 발굴조사에서 촬영한 사진과 도면으로 제시해도 된다. 축조 당시의 크기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봉분이 복원되어야 한다. 봉분이 복원되면, 시각적인 효과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도 사실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청계리와 월산리고분군의 활용 방안은 현재 서로 다른 고분군으로 알려진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홍보할 필요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과 연계한 활용방안 수립도 필요하다. 고분군의 위치는 다르지만, 양 고분군 모두 삼국시대 아영분지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재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의 정체성 정립에 주요한 유산이다.

특히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대한민국의 사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유산에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유산이기도 하다.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면,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보존과 활용이 주요한 과제로 부상할 수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에서는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에만 투자하는 방안보다 청계리-월산리고분군을 하나의 벨트로 묶어서 활용하는 방안이 훨씬 생산적일 수 있다. 두 고분군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것인가는 향후 깊이 있는 논의와 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현재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를 위해 임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홍보관을 확대개편해서 청계리-월산리고분군의 내용과 성과를 함께 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가야고분군의 연속유산으로 세계유산에 지정되면,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형상변경이 어려워 질 수도 있으므로 현지 보존되어 있는 월산리고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월산리 고분의 봉분을 복원하되, 무덤의 내부 모습과 봉분을 쌓은 다양한 토목기술, 부장품 품목 구성의 다양성과 의미 등을 녹여내어 복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 맺음말

이상 청계리-월산리고분군의 특징과 가치 및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청계리-월산리고분군은 아영분지의 유력집단의 등장을 보여줌과 동시에 가야 고총고분의 서쪽 분포범위, 점이지대에 위치한 유력세력의 존재양태 등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계리지구는 고총고분의 정확한 양상 파악은 물론 시각적인 효과도 전무하다. 또한 월산리지구의 고총고분은 24시간 굉음이 울리는 고속도로변에 훼손된 모습 그대로 놓여 있다.

청계리-월산리고분군의 가치와 보다 진전된 활용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접한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과 연계한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계리고분군의 시작과 끝, 아영분지에서의 정치적 관계의 변화, 즉 가야에서 신라로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한 자료 확보와 연구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박순발, 2012, 「계수호와 초두를 통해 본 남원 월산리고분군」, 『운봉고원에 묻힌 가야 무사』, 국립전주박물관·전북문화재연구원.

홍보식 2019, 「가야와 삼국의 유통 네트워크」, 『가야-동아시아 교류와 네트워크의 중심지들』, 국립중앙박물관.

보고서

尹德香·郭長根, 1989, 『斗洛里』, 全羅北道 南原郡·全北大學校博物館.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12, 『南原 月山里古墳群-M4 ·M5 · M6號墳-』.

全北大學校博物館·남원시, 2015, 『南原 酉谷里 및 斗洛里 32號墳』.

全榮來, 1983, 『南原, 月山里古墳群發掘調査報告』,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학술지 게재논문

김재홍, 2018, 「전북 동부지역 가야 고분의 위세품과 위상」, 『호남고고학보』 59,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게재논문

김낙중, 2019, 「대가야와 웅진기 백제의 외교 관계와 상호 인식」, 『백제 웅진기 외교 관계와 인식』,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박천수, 2019, 「기문(己汶)과 반파(伴跛)의 역사적 위치와 성격에 대한 토론문」, 『호남과 영남 경계의 가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오동선, 2020, 「남원 청계리 청계 고분군의 구조와 축조기법」, 『남원 청계리·월산리 고분군 역사적 가치와 의미』, 전라북도·남원시·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이건용, 2020, 「남원 청계리 고분의 출토유물 연구」, 『남원 청계리·월산리 고분군 역사적 가치와 의미』, 전라북도·남원시·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홍보식·심현철 2016, 「各種 古墳別 封墳 形態와 築造方法」, 『韓日의 古墳』, 한일교섭의 고고학-삼국시대 연구회.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과 월산리 고분군의 가치와 활용방안」 토론

최규호(남원시청)

발표자께서는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과 월산리 고분군의 봉분 형태와 축조 기술, 매장주체시설, 부장품을 통해 고분군의 특징에 대해서 가야 고총고분과 함께 살펴보고 고분군의 가치와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유적에 대한 전체 정밀지표 및 측량조사와 추가 발굴조사를 통해 파악해야할 과제들이 많지만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야 고총고분과 함께 검토해주셔서 고분군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안해주신 내용들이 앞으로 고분군 활용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단지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앞으로 토론자의 학습과 연구 및 실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적의 가치를 높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학술조사를 추진하는데 있어 문화재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월산리 고분군은 현재 전라북도지정 기념물 제13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청계리 고분군은 지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후 남원시에서는 월산리와 청계리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지정이 되면 법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후 체계적인 학술조사와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산리와 청계리 고분군이 사적으로 지정받는 과정에서 학술적으로 논란이 될만한 사항은 없는지 혹 있다면 그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적절한 방안은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법정 동리명에 의해 부여된 고분군명을 단순화하여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유적을 활용하고 알리는데 있어 명칭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계리 고분군과 월산리 고분군처럼 현재 유적의 명칭은 법정 동리명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명의 최소단위 지역명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후에 함안 말이산 고분군처럼 같은 산자락에 있는 도항리 고분군, 말산리 고분군을 통합하여 산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원 지역의 고분군에 적용한다면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연비산 고분군으로 월산리와 청계리 고분군은 시리봉 고분군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칭에서 오는 혼란도 줄이고 유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월산리와 청계리 고분군의 유적 명칭에 대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발표자께서 고분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이 느껴진 월산리 고분군의 보존현황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안타까운 모습으로 남아있지만 당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으나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남원시로 관리 이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분군 정비에 있어 봉분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봉

분의 잔존 모습에 따라 유적에서 느껴지는 시각적인 효과와 사실에 적합한 정보 제공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단지 축조 당시의 크기와 모습은 추정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가장 진정성있는 복원을 위한 봉분 및 매장주체시설 복원 및 정비 방법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산리와 청계리 고분군 주변 유적으로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뿐만 아니라 아막성, 봉화산 봉수 등이 조사된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봉고원에는 고분군과 함께 봉수, 산성, 제철유적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앞으로 조사연구를 통해 그 성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운봉고원의 정치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월산리와 청계리고분군 조사 뿐만 아니라 봉수, 산성, 제철유적, 생활유적 등이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발굴조사 등을 통해 고고학적 자료 확보와 축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다른 유적의 경우 그동안 발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나 학술적 논란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한 상황도 있었기에 발굴조사를 통해 정치적 관계의 변화와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한 자료 확보와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조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